

제57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 학술 대회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자료의 연구와 전시 방안

일시: 2019년 8월 13일(화)-14일(수)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 기념홀

주최: 구결학회, 국립한글박물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제57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 학술 대회 일정표 ■

2019년 8월 13일(화)

시 간	발표 및 내용	사회자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회식 개회사: 권인한(구결학회 회장)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13:10-13:20	휴 식	
[기조 강연]		
13:20-14:00	慕竹旨郎歌의 새로운 해독 발표자: 남풍현(단국대학교)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기획 주제 발표]		
기획 주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과 권20의 특성과 의의		
14:00-14:25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자료의 전시와 구결 콘텐츠 개발 방안 모색 발표자: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이용(서울시립대)·문현수(숭실대)	김성주 (동국대학교)
14:25-14:50	초조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66 각필구결의 주석학적 의의 발표자: 백진순(동국대학교)	
14:50-15:15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제20권(재조장본)의 문자이동(文字異同)과 판본 성격에 대한 연구 발표자: 유부현(대진대학교)	
15:15-15:30	휴식	
15:30-15:55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66과 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20의 관련성에 대하여 발표자: 장경준(고려대학교)	박진호 (서울대학교)
15:55-16:20	『瑜伽師地論』 卷66의 校正과 註釋 그리고 符號 발표자: 권인한(성균관대학교)	
16:20-16:40	휴식	
16:40-17:40	[종합 토론] 좌장: 장윤희(인하대학교) 토론자: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하정수(동국대학교), 김지오(동국대학교), 김미미(국립한글박물관), 허인영(고려 대학교)	장윤희 (인하대학교)
17:40-18:40	저녁 식사	
[초청 발표] 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18:40-19:10	平安時代漢字字書総合データベースの公開に向けて (헤이안 시대 漢字 字書 종합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앞두고) 발표자: 池田証寿(이케다 쇼주, 北海道大学)	이준환 (전남대학교)
19:10-19:40	『古文尚書』古鈔本の漢字音について (일본 『고문상서』 고사본의 한자음에 대하여) 발표자: 鄭門鎬(정문호, 北海道大学)	

2019년 8월 14일(수)

시 간	발표 및 내용	사회자
개인 연구 발표		
09:00-09:30	『北塞記略』에 기록된 동북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一考察 발표자: 김준수(서울시립대학교)	정승혜 (수원여자대학교)
09:30-10:00	음변화로 본 ‘빙’의 음가 발표자: 張碩(寶雞文理學院)	
10:00-10:30	석독구결 ‘ㅎ(ㄷ)-’의 분포와 특이 용법 발표자: 김지오(동국대학교)	
10:30-11:00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문법 형태소 ‘-라’의 고찰 발표자: 조재형(전남대학교)	
11:00-11:15	휴식	
11:15-11:45	국어 완망상 형태의 통시적 접근 발표자: 이수진(전남대학교)	박용식 (경상대학교)
11:45-12:15	나주임씨가 언간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특징 발표자: 선한빛(서울대학교)	
12:15-12:45	15세기 어미 ‘-니(-)’의 기능에 대한 재고 발표자: 강은진(전남대학교)	
12:45-13:00	임시총회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13:00-13:15	폐회식 ◆폐회사: 권인한(구결학회장), 신해진(전남대 인문학연구소장)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인 사 말

국립한글박물관·구결학회 공동 주최 학술대회(2019.8.13.)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낙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인한 구결학회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선생님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분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결학회는 한글 창제 이전 문자문화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고, 국립한글박
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연구에 큰 역할을 한 연구단체입니다. 훌륭한 연구
자와 연구 기반을 가진 구결학회와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은 그간 2016년 10
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한글 창제 이전 문자문화의 우
수성 소개와 구결자의 표준화 및 구결자료 기본 연구 축적 등의 성과를 이루
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점토 석독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66과 자토 석독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한 비교 연구와 구결 자료에 대한 번역·교육·전시 방안에 대해 집중
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관 5주년이 되는 국립한글박물관은 기존에 연구가 어려웠던 석독
구결 자료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구결과 한글이 서로 다
름에도 저희가 관심을 두어 온 것은,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을 보여주는 석독구결 자료에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한글박물
관에서는 『유가사지론』 권66과 권20을 입수하고, 석독구결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유가사지론』을 필두로, 귀중본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
행하여 전통 한글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존재와 의미가 교육과 전시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3.

국립한글박물관장 김낙중

■ 목 차 ■

<기조 강연>

慕竹旨郎歌의 새로운 해독.....	남풍현	◆ 001
--------------------	-----	-------

<기획 주제 발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자료의 전시와 구결 콘텐츠 개발 방안 모색...	고은숙 이용 · 문현수	◆ 01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의 주석학적 의의	백진순	◆ 02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제20권(재조장본) 의 문자이동(文字異同)과 판본 성격에 대한 연구	유부현	◆ 03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66과 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20의 관련성에 대하여.....	장경준	◆ 049
『瑜伽師地論』 卷66의 校正과 註釋 그리고 符號.....	권인한	◆ 057

<초청 발표>

平安時代漢字字書総合データベースの公開に向けて (헤이안 시대 漢字 字書 종합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앞두고).....	池田証寿 (이케다 쇼쥬)	◆ 071
『古文尚書』古鈔本の漢字音について (일본 『고문상서』 고사본의 한자음에 대하여).....	鄭門鎬 (정문호)	◆ 101

<개인 연구 발표>

『北塞記略』에 기록된 동북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一考察	김준수	◆ 117
음변화로 본 ‘빙’의 음가.....	張碩 (장석)	◆ 131
석독구결 ‘ㅎ(ッ)-’의 분포와 특이 용법.....	김지오	◆ 147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문법 형태소 ‘-라’의 고찰.....	조재형	◆ 167
국어 완망상 형태의 통시적 접근.....	이수진	◆ 179
나주임씨가 연간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특징.....	선한빛	◆ 193
15세기 어미 ‘-니(-)’의 기능에 대한 재고.....	강은진	◆ 213

<기조 강연>

慕竹旨郎歌의 새로운 해독

남풍현(단국대 명예교수)

1. 서언

이 노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의 ‘효소왕 대(孝昭王代: 692-701) 죽지랑(竹旨郎)’조에 실려 있다. 죽지랑의 낭도(郎徒)인 실오실(得烏谷) 급간(級干)이 죽지랑을 사모하여 지은 노래라고 하였다.

『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모량부(牟梁部)의 익선 당전(益宣幢典)이 실오실(得烏谷)을 부산성의 창직(倉直)으로 임명하매 죽지랑이 낭도 137인과 함께 부산성에 가서 익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실오실을 만나 주병(酒餅)으로 대접하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니 듣지 않다가 많은 뇌물을 받고서야 허락하였다. 조정에서 이 말을 듣고 익선을 잡으려 하자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죄를 씻기 위하여 우물에서 목욕을 시키니 얼어 죽었다고 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모량부인은 관공서에서 모두 몰아내고 승려가 될 수 없게 하고 승려가 되었더라도 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원측법사(圓測法師)는 해동의 고승이었지만 이로 인해 승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죽지랑은 이때에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낭도들을 거느리고 사랑함이 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죽지랑은 김유신(金庾信)과 더불어 그 부수(副帥)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진덕, 태종, 문무, 신문(文武)의 4대에 걸쳐 대신(大臣)을 지낸 인물이다. 효소왕 때는 그의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낭도를 사랑함이 이와 같이 극진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내용이다. 이 노래는 이러한 사건이 있기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이 노래는 8구체로 되어 있다. 향가는 10구체의 정형시인데 8구체로 된 것은 2구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원전에서는 ‘가왈(歌曰)’ 다음에 2구가 들어갈 만한 공백이 있는데 이것이 상실된 부분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민 2013:80-85) 그러나 해독을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절하고 주음(註音)을 붙인다.

- 제1구; 去隱 春 皆理米 / 간 봄 모드리매
- 제2구;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 / 모돌 잇사 울웁로 시름
- 제3구; 阿冬音 乃叱好支賜烏隱 / 아돌음 낫호디시온
- 제4구; 兒史 年數 就音 墮支行齊 / 좇이 헛수 좇음 디디 녀저
- 제5구; 目煙 廻於尸 七史伊衣 / 目煙 돌리옴 七史伊의
- 제6구; 逢烏支 惡知 作乎下是 / 맞보오디 아디 짓오하이
- 제7구; 郎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 낭야, 그랴 므스미 녀웁 깊
- 제8구;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 다붓스 굴헝기 좇 밤 잇하이

이 분절과 주음을 보면 한 구가 8음절에서 10음절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어절은 거의가 ‘독자+가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부정사 ‘毛冬’은 가자만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이두에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 상용되는 능력부정사(能力否定詞)이어서 한 단어로 보아 가자의 범주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阿冬音’, ‘乃叱好’, ‘史伊衣’가 음가자만으로 표기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향찰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노래에는 29 어절이 쓰이고 있는데 이 4 어절만이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래가 ‘독자 + 가자’의 표기구조를 보이는 것은 석독구결의 표기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니 이 일치는 한문학습을 위하여 익힌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표현의 수단인 향찰에 그대로 응용한 데서 온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해독

위의 분절과 주음을 가지고 구를 단위로 나누어 해독하여 나가기로 한다.

제1구; 去隱 春 皆理米 / 간 봄 모ㄷ리매

去隱 春; 거의 모든 이들의 해독이 ‘간 봄’으로 일치하고 있다.

皆理米; ‘皆’자 뒤에 ‘理/리’가 쓰인 것으로 보아 ‘皆’자를 동사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皆 자를 음으로 읽느냐 훈으로 읽느냐 하는 점에선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음으로 읽는 해독자들은 양주동(1942) 이후 거의 ‘그’로 읽고 ‘皆理’를 ‘그리워하다(慕)’의 뜻으로 해독하였다. 이 글에서는 皆를 훈독자로 보아 ‘묻-’으로 읽고 ‘皆理-’를 ‘묻으리-’로 읽는다. 이는 ‘모으다’의 뜻이니 ‘종합하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제1구는 ‘지난 봄을 종합하여 보매’의 뜻으로 해독된다.

제2구;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 / 모돌 잇사 울웁로 시름

毛冬; 毛는 음가자로 ‘모’로 읽고 冬은 ‘덜’로 읽히는데 이는 훈가자로 보인다. 이 毛冬은 이두에서는 柳璈의 尙書都官貼文에 다음과 같이 쓰인 예가 있다.

右職賞分以 酬答 毛冬 教 功業是去 有在等以(위의 職賞만으로는 酬答하지 못하신 功業이 있으므로)

여기서의 ‘毛冬/모돌’은 동사 ‘教/기시’를 부정한다.

이 ‘毛冬/모돌’은 能力否定詞로 중세어의 ‘묻-’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두에서는 위의 1 예만이 발견되지만 향가에서는 여러 용례들이 나타난다.

가. 雪是 毛冬 乃乎尸 花判也<讚耆婆郎歌>(눈이 못 넘을 花判이다)

나. 善芽 毛冬 長乙隱<請轉法輪歌>(善芽를 못 기른)

이는 毛達로도 표기되었다.

다. 兒史 毛達 只將來 吞隱<遇賊歌>(모습을 (점잖게) 못 지니어 온 것은)

이 毛冬, 毛達은 능력부정사로 현대어의 ‘못’에 이어진다.

居叱沙; ‘居叱’은 동사 ‘잇-’으로 읽히고 ‘安居하다’, ‘편안히 살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중세

어의 ‘내 지피 이쑤 저귀<석보6,7>’의 ‘잇-’이 이 뜻이다. ‘毛冬 居叱/모돌 잇-’은 ‘못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지 못하다’의 뜻이다. ‘沙/사’는 강세접미사이다. 현대어에선 부사형어미 ‘-어’에만 연결되어 ‘-어야’의 형으로 쓰이지만 고대어에선 그 분포가 다양하여 동사어간이나 체언, 부사 등에 직접 연결되어 쓰였다. 이 문맥에서는 부사와 같은 ‘아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毛冬 居叱沙/모돌 잇사’는 ‘잘 살고 있지 아주 못하여’로 해석할 수 있다.

哭屋尸以; 이는 동사 ‘哭/울-’, 의도법보조어간 ‘屋/오’, 동명사어미 ‘尸/로’, 조격조사 ‘以/로’로 분석된다. ‘울음으로’로 해석된다. 의도법보조어간 ‘屋/오’는 이 문장의 주체가 ‘나’임을 말하여 준다. ‘以/로’는 조격조사인데 이 문맥에서는 ‘(으)로’에다 ‘더하여’의 뜻을 부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憂音; ‘시름’의 표기이다. ‘音/(으)口’은 명사파생 접미사이다. 중세어에서는 의도법어미 ‘오/우’와 결합하여 동명사어미로 널리 쓰였지만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파생접미사로도 쓰였다. 고대어에서도 ‘音/(으)口’은 접미사로 보이는데 ‘*시르-(憂)’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憂音/시름’은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로 보인다.

이로써 이 구는 ‘편히 살고 있지, 아주 못하여 울음에다 시름으로 지내니’로 해석된다.

제3구; 阿冬音 乃叱好支賜烏隱 / 아돌음 낫호디시온

阿冬音; 이를 양주동(1965)에서는 ‘아름’으로 읽고 ‘아름다움’으로 해석하였다. 그 해석은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름’으로 읽은 것은 음운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글자대로 ‘아돌음’으로 읽고 ‘돌’의 ‘ㄷ’음이 전기중세어(14세기)에서 모음간의 ‘ㄷ>ㄹ’을 고려하여 ‘아돌음>아를음>아름’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乃叱好支賜烏隱; ‘乃叱好/낫호’는 중세어의 ‘나토-’에 이어진다. ‘낫-(現)’의 사역형이다. [더럽은 거긔셔 微妙흔 法을 나토며(釋13,33)] 고대어에서도 음절말음 표기가 7중성뿐이어서 ‘ㄷ’말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없어 ‘叱好/ㅅ+호’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支/디’는 여실법 조동사로 여기서는 ‘분명히’, ‘똑똑히’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乃叱好/낫호’와 ‘支/디’는 어간과 어간의 연결인데 고대어의 문법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이다. ‘賜/시’는 주체존대법 보조어간이고 ‘烏/오’는 의도법보조어간, ‘隱/(으)ㄴ’은 동명사어미이다. 문맥으로 보아 이 구는 과거의 사실이므로 해석할 때는 과거시제 보조어간 ‘더’를 넣는다.

이로써 이 구는 ‘아름다움을 분명히(똑똑히) 나타내시던’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음구의 ‘兒史/즈시’를 수식한다.

제4구; 兒史 年數 就音 墮支 行齊 / 즈시 헛수(나잇수) 좇음 디디 녀저

兒史; 이는 ‘즈시’의 표기이다. 史의 고대음은 ‘시’이므로 ‘兒史’는 ‘즈시’의 표기로 본다. 이 ‘兒史/즈시’는 부정격(不定格)의 형태이므로 이 형태에 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兒史/즈시’는 여기서는 ‘외모’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일이 되어가는 형편’의 뜻으로도 널리 쓰였다.

年數; 글자대로 ‘연수’나 ‘헛수’로 읽을 수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나이의 수(나잇수)’로 읽을 수도 있다.

就音; 就자를 ‘從’의 뜻으로 해석하여 ‘좇음’으로 읽는다. ‘音/(으)口’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좇아서’, ‘따라서’로 해석할 수 있다.

墮支; ‘墮’는 ‘떨어지다’, ‘무너지다’의 뜻이고 ‘支/디’는 여실법 조동사이다. ‘확실히(분명히) 떨어지다’, ‘무너져 버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行齊; ‘녀저’로 읽힌다. ‘行/녀’는 ‘진행되어 가다’의 뜻이고 ‘齊/저’는 원망(願望)의 종결어미로도 쓰이고 서술법종결어미로도 쓰인다. 『대명률직해』의 이두문에 쓰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祖父母果 父母果 現在爲去乙 戶別各居 家財分執爲旆 奉養欠闕齊 父母蒙喪良中 嫁娶爲齊 或宴飲作樂 或脫喪服爲遣 着吉服爲齊<대명률직해, 5b>(祖父母와 父母가 생존해 있는데 戶를 따로 하여 따로 살고 家財를 分執하며 奉養을 欠闕한다(거나) 父母의 喪중에 혼인한다거나 或 宴飲作樂, 或 脫喪服하고 吉服을 입거나<권1,5b, 十惡7, 不孝>

여기서의 齊는 한 사건이 끝나고 그것을 다음 사건과 연결시킬 때 사용된 것이다. ‘旆/며’나 ‘遣/고’가 내포절을 연결하는 데 대하여 제(齊)는 한 문장씩 종결하여 열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齊는 문장이 종결된 것을 열거하므로 齊를 종결어미의 기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제4구는 ‘(죽지랑의) 모습이 나이를 조차서(따라서) 무너져 가네’로 해석할 수 있다.

제5구; 目煙 廻於尸 七史伊衣 / 눈 내 돌엿 七史伊의

이 구는 해독하는 사람마다 구구한 의견들을 내 놓은 곳이다. 그 만큼 해독하기가 어려운 구라고 하겠다.

目煙; 이는 글자대로 해석하면 ‘눈의 연기’라는 뜻이다. 현대어로는 ‘눈길’의 뜻이 아닐까 한다. 한국한자어로 보는 것도 의미를 살리는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廻於尸; 廻는 ‘돌리-’로 훈독된다. ‘於/어’는 확인법 보조어간으로 자주 쓰이는 형태이다. ‘尸/에’는 동명사어미이다. ‘훅 돌릴’의 의미를 상정해 본다.

‘七史伊衣’; 七史伊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어형이다. ‘七’을 현대어의 강세보조어간 ‘치’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중세어에도 없는 표현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 단어의 끝에 쓰인 ‘衣/의’는 처격조사이므로 ‘七史伊’가 하나의 어형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눈길을 돌리다’의 뜻과, 뒤에 이어지는 ‘逢/맞보다’를 고려하여 ‘사이(間)’, ‘순간’의 뜻을 생각해 보지만 그 어형은 설정하기 어렵다.

이 제5구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눈길을 돌릴 사이에’ 정도로 해석해 본다.

제6구; 逢烏支 惡知 作乎下是 / 맞보오디 아디 짓오하이

逢烏支 惡知; ‘逢’는 ‘맞보-’로 읽고 ‘만나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중세어에서는 ‘맞보-’의 표기로 자주 쓰인 단어이다. ‘烏/오’는 ‘맞보-’의 말음첨기이다. ‘支/디’는 여실법 조동사이므로 이 ‘逢烏支/맞보오디-’를 ‘꼭 만나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惡知’는 ‘아디’로 읽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여기에 단 한번 쓰인 것이어서 그 뜻과 기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惡’은 ‘아’ 음의 표기에 쓰인 것이 향가에 여러 번 나타난다.¹⁾ ‘知/디’는 ‘支/디’와 같은 음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서로 다르다. ‘惡知’를 어미나 보조어간으로 볼 것인지, 명사나 부사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문맥이나 뒤의 ‘作乎’와의 관계로 보아 ‘약속’, ‘기약’ 정도의 명사를 생각해 본다.

作乎下是; 作은 ‘짓-’으로 읽히고, 乎는 ‘오’로 읽힌다. 여기서의 ‘乎/오’는 사동형 보조어간

1) ‘除惡支/덜아디’, ‘使以惡只/브리악’, ‘喰惡支/먹어디’, ‘國惡支/나라디’, ‘磧惡希/물서리아곡’, ‘海惡中/부들아곡’ 등.

이므로 ‘作乎/짓오-’는 ‘짓게 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下是’는 이 노래에만 2 번 쓰인 것이어서 그 기능을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다. ‘아리’로 읽는 견해들이 여럿 있으나 下를 훈가자 ‘알’로 읽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 ‘下是/하이’의 ‘下/하’를 동사 ‘하-’와 확인법보조어간 ‘아’가 결합된 것이 축약된 것으로 보고 ‘마땅히 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是/이’ 역시 겸양과 바램(願望)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읍니다’의 뜻으로 해석하여 본다.

이로써 제6구는 ‘만나 볼 기약을 지어 봅니다’ 정도로 해석한다.

제7구; 郎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 낭이야, 그똥 밋스피 녀웁 길

郎也; 郎은 竹旨郎을 가리킨다. ‘也/야’는 호격조사 ‘아’가 ‘이’음 밑에서 변이된 것이다. 따라서 ‘郎’과 ‘也’ 사이에는 ‘이’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이’음은 ‘郎’을 명사로 명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慕理尸; 慕의 중세어 훈은 ‘그리-’이고, ‘理/리’는 그 말음을 첨기한 것이다. ‘尸/리’은 동명사어미이니 이 어절은 ‘그똥’로 읽힌다.

心未; ‘밋스피’의 표기이다. 중세어의 ‘밋스’은 고대어에선 ‘밋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未’의 고대음은 개모음을 가진 이중모음이므로 ‘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초성의 ‘口’은 ‘밋스’의 말음첨기이고 ‘의’는 처격조사이다. 현대어로는 ‘마음에’로 해석된다.

行乎尸; 行의 중세어의 훈은 ‘너-’이다. ‘乎/오’는 의도범어미로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나타낸다. 죽지랑의 ‘行/가-’가 작자에게는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尸/리’은 동명사어미이다. 이로써 ‘行乎尸/녀웁’은 ‘가시웁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道尸; ‘길’의 표기이다. ‘尸/리’은 ‘l’ 음의 표기로 ‘道/길’의 고대어는 말음이 ‘l’ 음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이로써 제7구는 ‘郎이야, 그리워 하는 마음에, 가시웁는 길’로 해석된다. ‘그리워하는 마음’은 화자(작자)의 마음으로 삼입구와 같이 들어간 것이다. ‘行乎尸 道尸/녀웁 길’은 ‘인생행로(人生行路)’를 뜻한다. ‘살아가는 것을 행로로 생각하는’ 고대인의 ‘삶(生)’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다.

제8구;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 다북스 굴헝기 좇 밤 잇하이

蓬次叱; ‘다북스’의 표기이다. ‘蓬次/다북’은 ‘다북쑥’을 가리키고 ‘叱/스’은 속격조사이다. ‘다북’의 말음이 7중성에서 벗어 나는 것임에도 음절말음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속격의 ‘叱/스’음이 발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북쑥’은 가꾸지 않아 쑥대가 무성한 정원이나 밭을 표현할 때 쓰이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골이나 집을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할 때에도 쓴 것이다.

가. 疎拙혼 몸 養호매 다보즈로 입홀 밍ㄴ로니; 良拙蓬爲戶<杜詩3:36a>

나. 내 다북 지비 살 양즈로; 顧我蓬屋姿 <杜詩8:20b>

다. 다북 門을 새벳 너에 여느다; 蓬門啓曙烟<杜詩22:10a>

巷中; ‘굴헝기’로 읽힌다. ‘거리에’, ‘마을에’의 뜻이다. 중세어에서는 ‘구렁(壑)’의 뜻인 ‘굴헝’과 ‘거리’나 ‘마을’의 뜻인 ‘굴헝(巷)’이 동음이의어로 쓰였는데 고대어에서도 같은 현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中은 처격조사 ‘기’로 읽힌다. ‘中/기’가 단독으로 처격조사로 쓰이는 예

는 신라시대의 이두에서 흔히 볼 수 있다.²⁾ 후대에는 ‘良中/아귀’가 널리 쓰이다가 중세어에 와서 ‘애/에’로 바뀌었다.

宿尸; ‘쫄’로 읽는다. 동사 ‘자-’의 동명사형으로 뒤의 ‘夜/밤’을 수식한다. 이는 죽지랑이 자는 것으로 현대어로는 존대표현을 하여 ‘주무시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고대에선 이러한 존대표현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夜音; ‘밤’으로 읽는다. ‘音/口’은 ‘夜/밤’의 말음첨기이다.

有叱下是; ‘잇하이’로 읽는다. ‘叱/ㅅ’은 ‘有/잇’의 말음첨기이다. ‘下是/하이’는 앞에서와 같이 존경과 겸양이 들어 있는 종결어미로 본다. ‘있으옵소서’ 정도로 해석해 본다.

이로써 제8구는 ‘쭉대가 우거진 이 마을에 주무시는 밤이 있으면 좋겠소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 결어

이제까지 이 노래를 구와 어절로 나누고 주음을 단 다음 해독하여 왔다. 이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본문과 주음>

제1구; 去隱 春 皆理米 / 간 봄 모드리매

제2구;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 / 모돌 잇사 울웁로 시름

제3구; 阿冬音 乃叱好支賜烏隱 / 아돌음 낫호디시온

제4구; 兒史 年數 就音 墮支行齊 / 좇이 헛수 좇음 디디 녀저

제5구; 目煙 廻於尸 七史伊衣 / 目煙 돌리엿 七史伊의

제6구; 逢烏支 惡知 作乎下是 / 맞보오디 아디 깃오하이

제7구; 郎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 낭야, 그랴 므스미 녀웁 갠

제8구;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 다붓ㅅ 굴헝기 쫄 밤 잇하이

<해독>

제1구; 지난 봄을 종합하여 보매

제2구; 편히 살지 못하여 울음에 더하여 시름.

제3구; 아름다움을 분명히(똑똑히) 나타내시던

제4구; (죽지랑의) 모습이 나이를 조차서(따라서) 무너져 가네.

제5구; 눈길 돌릴 사이에

제6구; 만나 볼 기약을 지어 봅니다.

제7구; 郎이여, 그리워 하는 마음에, 가는 길(살아가는 길 - 인생행로)에

제8구; 쭉대밭 마을에 자는(주무시는) 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독을 하면서 논의했던 고대어의 언어현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에 쓰인 ‘中/긔’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楮根中/닥나무 뿌리에’, ‘然後中/연후에’, ‘作處中/만드는 곳에’, ‘經 寫 時中/ 경을 쓰는 때에’. ‘行道中/가는 길에’ 등.

1. 皆理米/모드리매; ‘理/리’가 있으므로 ‘皆’을 훈독하여야 한다. ‘理’는 말음첨기이다.
2. 毛冬/모돌; 능력부정사로 현대어의 ‘못’에 해당한다. 이두에서는 한 예만이 나타나지만 향가에는 여러 예가 더 쓰였다.
3. 居叱沙/잇사; 동사 ‘居叱/잇’에 강세의 접미사 ‘사’가 연결된 것이다. ‘居叱/잇’은 ‘편안히 살고 있음’을 뜻한다. 고대어에서는 강세접미사 ‘沙/사’가 동사어간, 부사, 체언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4. 哭屋尸以; ‘울웁로’. 동명사형 ‘哭屋尸/울웁’에 조격조사 ‘以/로’가 연결된 것이다. ‘울음으로’에 ‘더하여’의 뜻을 첨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5. 阿冬音; ‘아름다움’의 뜻으로 본다. ‘阿冬音/아들음’은 ‘아들음> 아를음> 아를음> 아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6. ‘乃叱好支賜烏隱/낫호디시온’의 ‘乃叱好/낫호-’는 중세어의 ‘나다나-’와 어원을 같이 하는 동사 ‘나토-’의 고대어형을 표기한 것이다.
7. ‘乃叱好支賜烏隱/낫호디시온’, ‘墮支行齊/디디너저’, ‘逢烏支/맞보디’의 ‘支/디’는 여실법조동사로 ‘똑같음’, ‘틀림없음’의 뜻인데 이 뜻이 ‘강조’의 기능으로도 발달한 것이다.
8. ‘七史伊衣’는 그 어형을 추정할 수 없으나 문맥으로 보아 ‘사이에’로 추정된다.
9. ‘惡知/아디’는 문맥으로 보아 ‘기약’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10. 作乎下是; ‘作乎/짓오’는 ‘짓-’의 사역형이고 ‘下是/하이’는 ‘ㅎ + 아 + 이’로 분석하여 확인법보조어간 ‘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 ‘是/이’는 겸양이 들어 있는 종결어미로 본다.
11. 郎也; ‘也/야’는 호격조사 ‘아’가 ‘이’음 뒤에 쓰인 것으로 본다.
12. 慕理尸 心未; ‘그렇 못스피’로 읽고 ‘그리워 하는 마음에’로 해석된다. 이는 작자 ‘得烏/실오’가 ‘죽지랴를 그리워 하는 마음에’로 해석된다. ‘心未/못스피’는 처격이다.
13. 行乎尸 道尸; ‘너울 길’은 ‘(인생) 행로(行路)’를 뜻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고대인들도 ‘行路’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 준다.
14. 蓬次叱 巷中/다붓入 굴형기; ‘蓬次叱/다붓入’의 ‘蓬/다붓’은 ‘다북쑥’의 뜻. ‘次/ㅈ’ 말음 뒤에서도 속격의 ‘叱/ㅅ’이 발음되었음을 보여 준다. ‘巷/굴형’은 ‘시골 마을’의 뜻으로 ‘蓬次叱 巷/다붓 굴형’은 ‘쑥대밭의 마을’이란 말로 작자가 살고 있는 마을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15. 宿尸 夜音; ‘宿尸/잠’의 ‘尸/ㅅ’은 부정시제, 또는 향시성의 동명사어미로 형태어로는 관형형어미 ‘-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김성규(2018), 『향가해독자료집』 (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박지용 외 편).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俊榮(1979),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 南豐鉉(2010), 獻花歌의 解讀, 『口訣研究』 24, 口訣學會.
- 南豐鉉(2011),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畚’과 ‘內/아’의 發達, 『口訣研究』 26. 口訣學會. 131-166. 南豐鉉(2014) 『古代韓國語論攷』에 再錄.

- 南豊鉉(2012). 古代韓國語의 如實法 動詞 ‘支/디’와 ‘多支/다디’에 대하여, 『口訣研究』 29. 口訣學會. 247-280. 南豊鉉(2014) 『古代韓國語論攷』에 再錄.
- 南豊鉉(2013), 東大寺 所藏 新羅華嚴經寫經의 釋讀口訣과 그 文法, 『口訣研究』 30. 口訣學會. 南豊鉉(2014) 『古代韓國語 論攷』에 再錄.
- 南豊鉉(2017a) <遇賊歌>의 解讀, 『口訣研究』 39. 口訣學會.
- 南豊鉉(2017b), <怨歌>의 解讀, 『國語學』 83, 國語學會.
- 南豊鉉(2017c), <禱千手觀音歌>의 새로운 解讀, 『語文研究』 176.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南豊鉉(2018a), <兜率歌>와 <祭亡妹歌>의 새로운 解讀. 『震檀學報』 130. 震檀學會.
- 南豊鉉(2018b), <願往生歌>의 새로운 解讀. 『口訣研究』 41. 口訣學會.
- 南豊鉉(2019), <安민가(安民歌)>의 새로운 해독, 『口訣研究』 42. 口訣學會.
- 박재민(2013),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 徐在克(1975),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 俞昌均(1994),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 정렬모(1965), 『향가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9, 한국문화사 영인]
- 정진원(2008), 月明師의 <兜率歌>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231-258.
-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 [1990, 김지용 해제 첨부, 여강출판사 재출간]
- 황선엽(2010),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口訣研究』 25. 83-105.
- 黃涓江(2001), 『향가 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 周法高 主編(1974), 『漢字古今音彙』, 中文大學出版社.
- 小倉進平(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기획 주제 발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자료의 전시와 구결 콘텐츠 개발 방안 모색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이용(서울시립대)·문현수(숭실대)

1. 머리말

훈민정음의 창제에 차자표기라는 전통의 계승과 외래 문자 문화의 유입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였음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차자표기 문화에 대한 전시는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으로서 전통의 계승에 관한 부분을 관람객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즉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우리 문자 생활에 대한 전시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의 가치와 의의를 더욱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차자표기는 현대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한 물이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부터 보였던 우리 문자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차자표기 자료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전시 방안을 검토하고 구결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한글 창제의 배경으로서의 차자표기 문화에 대한 가치를 비롯하여 한글을 비롯한 우리 문자 문화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전시 형태, 전시 대상층, 전시 목표의 설정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 이전의 문자와 관련하여, 2층 상설 전시인 <한글이 걸어진 길>의 도입부에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라고 이름 붙인 공간에서 이를 간략히 전시하고 있다. 해당 전시는 차자표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관람객을 이해시키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박물관의 전시 해설사조차도 초중고 학생이나 가족 단위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등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김미미 2019: 180-181).

이해하기 어려운 차자표기는 역설적으로 배우기 쉬운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의 문자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차자표기는 제한된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설 전시의 일부로서 다루기보다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 전시의 형태로 자세히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획 전시 후에는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설 전시의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부분을 관람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을 필요가 있다.

기획 전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시를 관람하는 대상층과 전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전시 대상층과 전시 목표의 설정은 '전시의 주제(메시지)와 내용(콘텐츠)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김미미 2019: 182).

한글박물관을 방문하는 주요 관람객은 유아, 초중등생 단체, 초등생 이하의 자녀를 동반한 부부 등 한자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성인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외에 고등학생 이하의 관람객이라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전시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대의 박물관은 과거와 달리 역사 지식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역사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따라서 차자표기에 대한 전시도 단순한 차자표기에 대한 지식 전달보다는 오늘날과 다른 문자 생활에 대해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전시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미미 2019: 182).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한글 창제의 배경으로서의 차자표기 문화에 대한 가치를 비롯하여 한글을 비롯한 우리 문자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시

3.1. 전시 방향과 내용

3.1.1. 전시 방향

전시의 내용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기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기본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구결과 한글의 관계이다. 둘째, 한문 학습 또는 번역과의 관계이다. 셋째, 일본 문자문화와의 관계이다. 넷째, 우리 조상들이 문자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먼저 한글의 창제에는 구결자의 사용 경험이 관여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구결과 한글의 관계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 한글의 창제에 있어서 종성부용초성(終聲不用初聲)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 중요한 종성의 발견에는 차자표기의 말음침기가 관련되어 있다.

현대의 우리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따라서 외국어의 학습에도 관심이 많다. 구결은 한문의 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구결과 한문의 학습이 지닌 밀접한 관계는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한문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활약한 신라의 학자 설총(薛聰)에 대하여 “방언으로 구경(九經)을 읽어 후생을 가르치고 이끌었으니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종주로 삼는다.(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술이 구결에 대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구결은 번역의 일종으로서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번역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이다.

일본 문자와의 관계는 대중이나 매스컴의 관심을 끌 만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문자 자료는 한국의 문자 자료와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관심은 관람객들이 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일본과의 문화 관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다.

우리 조상들이 문자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어떻게 문자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중들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매우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대중들에게 기록을 남겨 두려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등은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어떤 필기도구를 썼는지, 종이는 어떠했는지, 지우개는 있었는지 등 궁금증에 대해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3.1.2. 전시 내용

이 전시는 한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가사지론』 권66, 『유가사지론』 권20이 중심이 된다. 『유가사지론』 권66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이고 『유가사지론』 권20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이다. 따라서 이 두 자료의 전시가 중심이 되면 차자표기 자료인 구결, 이두, 향찰 중 구결이 전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구결이 중심이 되었을 때, 어떤 자료들을 전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할 수 있는 문제는 대략 네 가지가 된다. 첫째, 석독구결을 전시한다면 석독구결 자료를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둘째, 석독구결 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를 전시할 것인가? 셋째, 일본의 훈독 자료를 전시할 것인가? 넷째, 보조적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이다.

먼저 석독구결은 가능하면 많은 자료가 전시되는 편이 좋다. 자토석독구결에 속하는 『유가사지론』 권20을 설명하는 데 다른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도움이 되는데, 특히 『구역인왕경』과 『금광명경』이 중요하다. 이 두 자료는 『유가사지론』과 계통상 연결이 되어 있고,¹⁾ 전시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구역인왕경』은 처음 발견된 자료이기도 하거니와 불북장에서 발견될 때 각필이 기입된 『범화경』과 직물 자료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이들 자료는 고려시대의 사회상을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합부금광명경』은 점토와 자토가 동시에 달린 현존 유일의 석독구결 자료이다. 따라서 점토와 자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점토의 해독 과정은 복잡했지만 관람객에게 이러한 과정을 장황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점토석독구결은 의심의 여지없이 전시되어야 할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심지어는 국어사 전공자에게도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자료를 관람객에게 자세히 설명하려 하면 관람객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점을 확인하는 선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 학술적 설명을 덧붙이고 싶으면 『합부금광명경』을 이용해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 듯하다. 어쩌면 이 자료가 발견되고 해독되는 과정에 얹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편이 더욱 솔깃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많은 자료를 쓰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하면 좋겠다.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보호하면서 점토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각필 스코프라든지 점토를 찍을 때 쓰는 각필 등을 보여 주면서 관람객들의 집중을 끌어내는 편이 오히려 자세한 설명보다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음독구결 자료도 전시할 필요가 있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음독구결 자료로의 변천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한문 학습이나 원전 이해의 방법이 바뀌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된 자료로 한글 음독구결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 한글 구결 자료는 구결자 구결 자료가 주는 거리감을 좁혀 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두와 향찰에 대해서도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들도 차자표기 자료에 속하기는 하지만 구결과는 구별되는 면도 있으므로 전시에 있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

1) 석독구결은 크게 법상종과 화엄경 계통으로 나뉜다. 『유가사지론』, 『구역인왕경』, 『합부금광명경』은 전자에, 『화엄경』과 『화엄경소』는 후자에 속한다. 2016년에 공개된 『자비도량참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나는 이들 자료의 전시는 한편으로는 한글 이전의 문자생활이라는 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자표기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두 자료는 문서의 작성이라는 측면이, 향찰 자료는 가요의 채록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두 자료는 초기 차자표기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특히 <<임신서기석>>은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표기가 거의 없이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여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바, 차자표기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더 없이 유용한 자료이다. 더욱이 <<포항중성리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울주 천전리 각석 원명(乙巳銘)>>, <<울주 천전리 각석 추명(己未銘)>>은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울주 천전리 각석 원명(乙巳銘)>>, <<울주 천전리 각석 추명(己未銘)>>은 동행-죽음-회상이 2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향가의 전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이 중심이 되면 좋을 듯하다. 아무래도 향찰 표기 자료는 대중들에게는 쉽지 않은 만큼 교과서를 통해 친숙해진 자료를 전시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듯하기 때문이다. 김민지(2015:11)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서 11종에는 <<서동요>>, <<제망매가>>, <<현화가>>가 수록되어 있다.²⁾ 이 중 <<서동요>>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데 8종에 이른다. <<서동요>>가 4구체이기도 하지만 관련 설화가 흥미를 끌 만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데 그 주된 원인이 있을 듯하다.

일본에도 한국 구결 자료와 비슷한 한문혼독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같이 전시해, 동아시아 문자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곁들인다. 그리고 유사한 문화가 있었는데도 한국에서는 왜 한글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한글 창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사한 전통으로 베트남의 쓰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일본에 있는 『판비량론』과 『화엄문의요결』에 대한 소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화엄문의요결』에도 점토가 있고 이 자료의 점도는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점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바, 이 자료는 대중들을 흡입할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현대의 외국어 학습 자료도 관람객이 구결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미미(2018)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구결 자료에는 “영어 책을 보면서 주어와 동사를 찾고 관계절의 경계를 끊고, 어려운 단어에는 뜻을 적어가며 내용을 파악하는 오늘날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늘날 외국어 학습을 하는 방안과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한문 학습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면 구결 자료를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차자표기에 대한 일반적 설명도 곁들여져야 한다. 이 설명은 가능하면 쉬워야 하고 재미 있어야 하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자가 낯선 신세대에게 음차나 훈차의 개념 등을 설명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레부스의 원리를 이용하는 데서 시작해서 차자표기의 발전으로 나가는 것이다. 후대의 자료로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나와 있는 이른바 자모 명칭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자세한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3.1.3. 자료 정리

우리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대강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서동요(교학사, 두산동아, 비상교과서(우한용 외), 비상교육(한철우 외),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김종철 외), 천재교육(박영목 외), 해냄에듀), 제망매가(미래엔, 비상교육(한철우 외), 천재교육(김종철 외), 해냄에듀)

- 1) 구결: 한문 학습과 독서
 - ① 석독구결
 - ┌ 자토석독구결
 - └ 점토석독구결
 - ② 음독구결
 - ┌ 구결자
 - └ 한글
- 2) 이두: 문서 생활
 - ① 초기 이두
 - ② 신라 이두
 - ③ 고려 이두
 - ④ 한글 이두
- 3) 향가: 가요 기록
- 4)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교재, 참고서 등
- 5) 필기도구 등

3.2. 콘텐츠 개발

구결은 문화콘텐츠로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소재이다.³⁾ 한글 이전에 글을 읽을 때는 구결을 달아 읽었고 문서 행정에는 이두가 쓰였을 텐데, 드라마나 영화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⁴⁾ 이러한 현상은 구결이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콘텐츠로서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 연구자와 전시 기획자는 어떻게 해야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1) 교육 콘텐츠 개발

책이나 만화 또는 영상 콘텐츠가 있다. 구결 자료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구결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연구자들만이 연구하고 공유하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성격상 구결의 이해에는 오히려 만화 형식이 더 적격일지도 모른다. 영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영상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최적의 방법이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 한자를 익히는 데서 시작해, 음차, 훈자를 설명하고 짧은 구절이라도 실제 해독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영상 콘텐츠 개발

- 3) 박정희(2007)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들이 콘텐츠로 재구성되고 유통되면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이룬다.
- 4) 2007년에 MBC에서 방영한 ‘주몽’에 목간이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도 드라마가 신선해 보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5) 이용(2018)은 점토석독구결을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한 글이다. 그러나 지면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전시 또는 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영상 콘텐츠 개발이 있을 수 있다. 전시 또는 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에서는 구결에 대한 소개, 구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문화 콘텐츠로서 영상 콘텐츠 개발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구결을 써서 암호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긴장감을 높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활용된 콘텐츠를 가지고 이를 교육 콘텐츠로 가져와 쓸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3) 체험 또는 게임 콘텐츠 개발: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로 체험 콘텐츠의 개발이 있다. 예를 들자면, 탐정 놀이 형식으로 구결을 익히고 구결로 써서 만들어진 비밀을 푸는 방식의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실제 놀이로 개발해 체험할 수도 있고 게임 콘텐츠로 개발해 간접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단계별로 다른 체험을 하고 체험이 끝날 때마다 보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개발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토리텔링의 발굴과 캐릭터의 구축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읽었던 구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매력적 스토리텔링을 발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지극히 상상 가능한 스토리텔링이라면 좋은 캐릭터의 구축도 힘들고 독자들도 이내 싫증이 나고 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소재의 이두나 향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전시 방법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전시를 기획할 경우, 이두, 향찰, 구결 등 다양한 차자표기 자료들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자토석독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20과 점토석독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66에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4.1. 『유가사지론』 권20과 자토석독구결

명칭(한글)	유가사지론 권20	명칭(한자)	유가사지론 권20
자료번호	국립한글박물관-한구003378	시대(상세)	고려(1246년 간, 후인), 재조본
수량	1건 1점	크기	1503.2cm(가로)×32.6cm(세로) 1.5cm(봉지름), 35.5cm(봉 길이)
입수일자	2015년 7월	비고	보물 제1886호(2016년 1월)

『유가사지론』 권20의 약 5분의 1 가량을 펼쳐 전시하고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조 자료,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유가사지론』 권20의 내용적인 면보다 자토석독구결 자체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 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과 어순과 문법 구조가 다른 한문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역독점이라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한자의 약체자를 이용해 문법 요소를 표기하였다는 점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자토석독구결의 그러한 특성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한 설명 대신 눈으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유가사지론』 권20의 원문 텍스트 중 일부를 선택하여 1~2분 가량의 짧은 샘플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한문 원문 사이에 적혀 있는 작은 크기의 낫선 글자들이 우리말 문법 요소를 적기 위해 한자의 획을 생략하여 만든 구결이라는 점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구결 토가 나타내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한자의 획을 생략하여 만든 것인지까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아울러 당시 사람들이 구결을 한문 원문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분리하여 적고, 역독점을 찍어 우리말 어순대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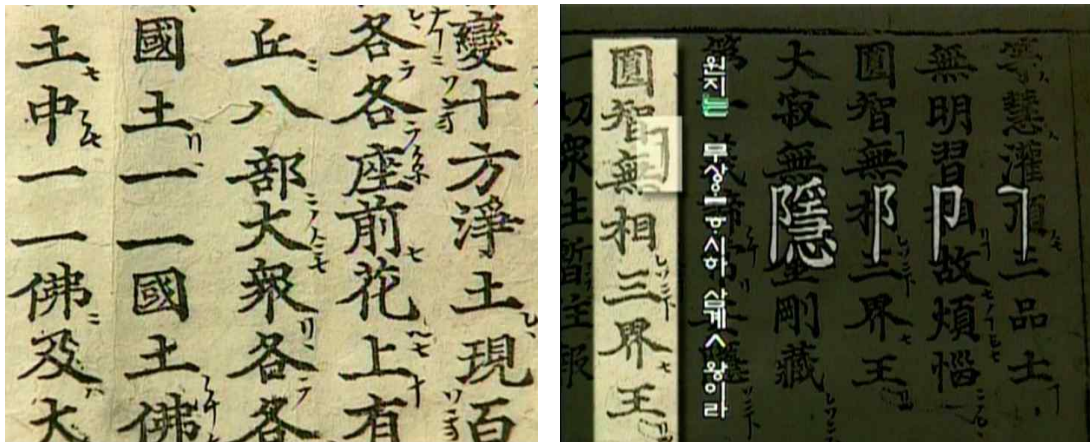


그림1. 참조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구결 동영상(KBS 역사 스페셜)⁶⁾

옛 선조들이 일찍부터 한문 문장 구조를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어 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일반에 잘 알려진 『임신서기석』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⁷⁾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영문이나 한문 텍스트를 익힐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을 관람객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날의 영어 학습 교재나 한문 교재 등을 함께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겠다.

* A는 임신서기석(우리식의 어순 배열). B는 한문의 어순 배열. C는 뜻풀이.

A: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

6) KBS 역사스페셜 『천 년 전 이 땅에 또 다른 문자가 있었다』(2002.10.12.) 참조

7) 크기가 작은 『임신서기석』(6세기 중반 이후, 길이 30cm, 너비 12.5cm)은 다른 금석문에 비해 실물을 전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다른 금석문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국립한글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실물이 있는 경우, 직접 가서 보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가령 『갈항사삼층석탑』(8세기 후반)의 이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볼 수 있다.



執持 過失无誓

B: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自今三年以後 執持 忠道 誓无過失

C: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함. 하늘 앞에 맹세함. 지금부터 3년 이후 충도를 집지하여 과실 없기를 맹세함.

그림2. 한자어를 우리말 어순대로 적은 『임신서기석』 이두문

그런 다음에는 구결의 방식을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헌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토음독구결 자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한글 토가 적힌 『선종영가집언해』와 자토음독구결 토가 적힌 『선종영가집』의 같은 면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각각의 대응예를 이미지 그래픽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선조들이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 문법 요소 등을 부분적으로 적었었는데, 훈민정음의 창제로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림3.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선종영가집』(구결본)(좌)와 『선종영가집언해』(우)⁸⁾

그리고 구결 약체자와 15세기 이후의 한글 토를, 원문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으로 제시한다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각 자료에 대한 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선종영가집언해』 권하(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5088/원각사 1495년/보물 1163)

『선종영가집』 권상·하(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5031/신홍사판 구결본/1570년)

한글 토	자토구결	자토구결의 원 한자
		
마음+이		

4.2. 『유가사지론』 권66과 점토석독구결

명칭(한글)	유가사지론 권66	명칭(한자)	유가사지론 권66
자료번호	국립한글박물관-한구000641	시대(상세)	고려(11세기 추정), 초조본
수량	1건 1점	크기	1050.0cm(가로)×28.5cm(세로)
입수일자	2017년 2월		

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66도 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20과 유사하게 약 3분의 1 가량을 펼쳐 전시하고 점토석독구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보조자료,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을 비롯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조차 점토석독구결은 매우 생소한 자료이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러한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을까를 이해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귀중한 경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말 구조에 맞게 한문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글자를 적게 되었다는 점과, 바로 그 때문에 옛 스님들은 촛불을 가까이 두고 불경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보조 자료로, 각필도구와 스코프, 인도나 일본 등의 관련 그림 등을 함께 전시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4. 각필도구(좌)와 가네사가 부러진 상아로 글씨 쓰는 그림(우)⁹⁾

9) 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도록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2011) 231면 참조

우: 김영옥(2006), 「角筆의 起源에 대하여」, 『口訣研究』 16輯 79면 참조.



그림5. 일본의 탕화¹⁰⁾

그런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각종 부호를 만들어 불교 경전에 기입함으로써 우리말과 문법 구조가 다른 한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려 애썼고, 글자의 여러 위치에 기능이 서로 다른 점을 찍어 우리말 조사와 어미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가볍게 소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복잡한 설명 대신 관람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소개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 권6의 원문 텍스트 중 일부를 선택하여 1~2분 가량의 샘플 사례를 제시하되, 각각의 점이나 부호가 나타내는 기능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점과 부호들을 어떻게 처음 발견했는지, 또 해독할 수 있었는지 점토구결 해독과 관련한 뒷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것도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점토구결의 해독과 관련한 보조 자료로,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이 동시에 기입된 자료 『유가사지론』을 관련 동영상 등과 함께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6. 『유가사지론』에 기입된 점토구결과 자토구결¹¹⁾

10) KBS 역사스페셜 『천 년 전 이 땅에 또 다른 문자가 있었다』(2002.10.12.) 참조

11) KBS 역사스페셜 『천 년 전 이 땅에 또 다른 문자가 있었다』(2002.10.12.) 참조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면이 많은 점토구결의 경우,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요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특정 한자가 적혀 있는 몇 개의 샘플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된 위치의 몇 군데를 클릭하면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한자 ‘人’이 적혀진 터치스크린의 일정 위치를 클릭하면 그 부분에 점이 찍히고 각각 ‘사람이’, ‘사람을’, ‘사람이다’와 같은 음성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점토석독구결과 관련한 마무리 부분에서도 15세기 이후의 한글 토와 함께 비교한, 원문 이미지 그래픽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한글 토	자토구결	점토구결
		
이를	마음을	이를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에게 어려운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좀 더 쉽고 편리한 문자 생활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자를 이용해 획을 생략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말 조사와 어미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던 것이 결국엔 한국어의 말소리를 가장 잘 적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고안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랜 차자표기 방식을 통해 터득한 문자학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우리말 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바탕이 되어 우리말 소리를 적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있었고, 특히 거기에는 석독구결과 향찰, 이두의 말음첨기(주로 어휘 표기) 방식이 크게 참조가 되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2011),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유사가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김미미(2019),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口訣研究』 42, 구결학

회, 151-186.

김미진(2015), 「09개정 교과서 수록 향가 현황 및 교육방안 연구 : 고등학교 『문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2006), 「角筆의 起源에 대하여」, 『口訣研究』 16, 구결학회, 71-88.

김은숙(2009), 『몰입을 부르는 체험형 전시 콘텐츠기획』, 글누림.

김형숙(2001), 『미술관과 소통』, 예경.

마이클 벨처(2006),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예경.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이삼출 옮김(2003), 『몰입의 기술』, 청년정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이희재 옮김(2008), 『몰입의 즐거움』, 해냄.

발터 벤야민/반성완 역(1995),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윤난지 엮음(2004),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윤난지 엮음/박소현역(2002), 『전시의 담론』, 눈빛.

이보아(2003),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역사넷.

이영진·석대권·구자봉(2000), 『박물관 전시의 이해』, 학문사.

이 용(2018), 「각필석독구결의 개괄과 소개」,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8-45.

정성철 엮음(1998), 『현대미술의 지형도』, 시각과 언어.

정암 외(2004), 『韓國의 佛腹藏』, 수덕사 정보박물관.

존, 포크·린, 디어킹/이보아 역(2008), 『관람객과 박물관』, 북코리아.

캐롤리아 테아/김현진 역(2003), 『큐레이터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트북스.

기타 자료

KBS 역사스페셜 『천 년 전 이 땅에 또 다른 문자가 있었다』(2002년 10월 12일 방영)

초조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66 각필구결의 주석학적 의의

백진순(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1. 주석학 전통에서 본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의 자료적 가치

현장(玄奘) 역 『유가사지론』 [647-648 한역, 이하 『유가론』이라 약칭] 100권은 삼승(三乘)의 행자들이 공통으로 수습하거나 각기 별도로 수습하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모든 것을 17지(地)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이 논에는 수많은 법상(法相) 개념들에 대한 기본 정의와 분석들이 방대한 지면에 걸쳐 자세히 진술되어 있다. 여기에 나온 정의들이 대부분 수많은 불교 용어의 사전적 정의로 쓰이는 만큼, 교리 연구에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헌이다. 따라서 당대(唐代)에 현장의 완역본이 나온 후에 중국에서는 『유가론』 연구가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당시의 많은 유식학 대가들이 그 논의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현장 문하에서 『유가론』 연구가 한참 성행할 때 신라 출신의 승려들도 많이 동참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저술들이 대부분 일실되었다.¹⁾ 현존하는 것은 700년대 초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륜(遁倫: 또는 道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 20권 [혹은 24권] 뿐이며, 또한 현존하는 모든 『유가론』 주석서 중에 전권(全卷)에 대한 유일한 주석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유가론』 연구는 7~8세기경까지는 크게 성행하였지만, 신라 유식학의 전성기가 마감되어감에 따라 점차로 쇠퇴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유가론』 연구의 명맥이 지속되었던 듯한데,²⁾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근래 학계에 공개된 초조본 『유가론』의 각필구결은 고려시대의 유식학 연구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싶다. 이 각필구결 자료들은 국어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간주되는 것 같다. 그런데 유식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료는 일종의 약식(略式) 주석서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고려 학자들의 유식학에 대한 학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기도 하다.

현장 역 『유가론』은 범어(梵語)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서, 인도불교 특유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문장들이 복잡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한문 독해 능력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문장 안에서의 주술 관계나

1) 여러 목록을 조사해보면, 원측(圓測)의 『瑜伽論疏』, 元曉의 『瑜伽論中實』 4권, 경흥(憬興)의 『瑜伽論疏』 10권, 현일(玄一)의 『瑜伽論疏』 17권, 태현(太賢)의 『瑜伽論古迹記』 4권 등이 있었다.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참조.

2) 고려에는 법상종 사찰인 현화사(玄化寺)를 중심으로 유식학이 전승되었던 흔적이 있다. 가령 그 절의 제2대 주지를 역임한 혜소국사(慧昭國師) 정현(鼎賢, 972-1054)의 비문에 “성·상이 함께 통하는 것으로는 17지의 유가 교문만 한 것이 없다.[性相俱通者, 莫若乎十七地瑜伽教門]”고 생각하고 스승을 찾았다는 문구가 나온다. 또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도 유식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에 들어가 주석서를 대량으로 구해온 뒤 교장(敎藏)을 판각했는데, 그가 남긴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瑜伽師地論』 관련 주석서가 19종 등장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백진순, 『『유가사지론』 개관』, 장경준 등 지음, 『『瑜伽師地論』 권20의 석독구결 역주』(서울: 역락, 2015), pp. 22-23 참조.

전후 문장들 간의 논리적 흐름을 구분해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유식학 교리에 매우 정통한 학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유가론』 제66권 각필구결 자료에는 특히 이 권 전체를 큰 단락[大段] 과 그 하부 과목(科目)들로 구분하고, 전후 문장들 간의 논리적 흐름의 연속·불연속을 표시해주는 주석학적 부호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판의 행(行) 우측에 각필된 ‘大…十四五分也’, 하단의 ‘有二’ 등과 같은 글자, 그리고 ‘○ΦΘ’와 같은 도형들은 전형적인 주석학 부호들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기존의 각필구결본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부호들의 의미와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감이 든다. 그 부호들이 본문의 독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각필구결본의 학술적 가치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 점을 보완하는 것은 아마도 유식학 연구자들의 몫인 듯하다. 다음 절에서는 초조본 『유가론』 제66권 중 큰 단락[大段] 하나를 분석해봄으로써 각종 주석학적 부호들의 기능 및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각필구결본의 과단(科段)과 『유가론기』의 과단 비교

모든 주석가들이 어떤 경론을 주석할 때 맨 먼저 할 일은 해당 경론의 전체 내용을 나누는 것이다. 말하자면 본문 전체를 몇 개의 큰 단락[大段]으로 나누고, 다시 각 단락 안에서 세부 과목들을 나누고, 다시 하나의 세부 과목 안에서 몇 개의 절(節)로 나누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작은 단위로 문장을 구분하면서 주석서의 전체적 개요를 그려간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정교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과목 설계도 안에서, 해당 경론의 각각의 문구들을 어떤 구조와 문맥 속에서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정교한 과목 설계는 주석 작업의 기초가 되며, 또 그 자체가 그 원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조본 『유가론』 제66권의 각필구결을 보면, 무엇보다 과목 분류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석서와 같은 성격을 띤다. 그런데 목판본의 한정된 지면에 과목 설계를 직접 각필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부호를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그것이 각필구결본의 우측에 쓰인 ‘大…十四五分也’이나, 하단의 ‘有二’나 ‘有二 有四’ 등과 같은 문구, 그리고 ‘○ΦΘ’와 같은 도형들이다.

우선, 각필구결본에서 큰 단락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론』 제65-66권은 「섭결택분(攝決擇分)」 중 「사소성지(思所成地)」에 해당한다. 제66권의 마지막 대문이 ‘卅九’이므로,³⁾ 본래 제65권의 일부와 제66권의 전체에 걸쳐 모두 29개의 큰 단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각 단락의 주제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주석서 『유가론기(瑜伽論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판본을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3) 초조본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도판 행수 22-12 참조.

* <도표1> 「攝決擇分中思所成地」의 큰 단락[大段] 대조표

권수	초조본 『瑜伽師地論』 제66권 각필구결		『瑜伽論記』 (『大正藏』42, 『韓佛全』14)	
	도판의 행수	29 大段	27 大段	
제65권	·	·	①解有色無色法	
	·	·	②合解有見無見法及有對無對法	
	·	·	③解有漏無漏法	
	·	·	④解有諍無諍法	
	·	·	⑤解有染無染法	
	·	·	⑥解依耽嗜依出離法	
	·	·	⑦解世間出世間法	
	·	·	⑧解墮非墮法	
	·	·	⑨解有為無為法	
	·	·	⑩解所緣法	
제66권	01-05 ~ 03-21	확인 불가	淨惑所緣 중 四諦를 설명	
	03-22 ~ 06-14	마모된 부분	⑪解住持法	
	06-15 ~ 09-11	마모된 부분	⑫解有異熟無異熟法	
	09-12 ~ 11-14	大 … 十四五分也 (*)	⑬解有因果法 (*)	
	11-15 ~ 11-17	大 … 十六	⑭解緣生法	
	11-18 ~ 12-11	十七	⑮解內法	
	12-12 ~ 12-17	大 … 十八	⑯解名色所攝法	
	12-18 ~ 13-18	大 … 十九	⑰解執受非執受法	
	13-19 ~ 15-21	廿	⑱解大造法中	
	15-22 ~ 16-08	大 … 二十一	⑲解有法	
	16-09 ~ 16-16	大 … 廿二	⑳解有上無上法	
	16-17 ~ 17-13	大 … 廿三	㉑解應修法	
	17-14 ~ 18-18	大 … 廿四	㉒解三世法	
	18-19 ~ 19-08	大 … 廿五	㉓解三界繫法	
	19-09 ~ 21-12	廿六	㉔解三性法	
	21-13 ~ 21-23	廿七	㉕解三學法道理	
	21-24 ~ 22-11	大 … 廿八	㉖解三斷法	
	22-12 ~ 22-17	大 … 廿九	㉗解甚深難見法	

두 판본에서 우선 눈에 띄는 차이는 큰 단락[大段]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각필구결본에서는 29개, 『유가론기』에서는 27개로 나누었다. 단락의 구분은 학자의 독자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각필구결본의 ‘大…十四五分也’ [행수: 09-12] 라는 문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고려의 『유가론』 연구자들이 참고했을 만한 두 종류 주석서들을 살펴보면,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 추정해볼 수 있다. 규기(窺基)의 『유가사지론약찬(瑜伽師地論略纂)』에서는 ‘후권(後卷: 제66권)에 가면 29개가 밝혀진다’고만 간략히 언급할 뿐, 29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⁴⁾ 한편, 둔륜의 『유가론기』에서는 ‘29문(門)으로 여러 주제들을 결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의 도표에 제시된 27개 단락으로 나

4) 규기(窺基), 『瑜伽師地論略纂』 권16(『大正藏』43, p.226c17). “就思慧地, 二卷中有盡. 後卷以來, 明二十九. 後卷末, 以二十九斷位上, 尋下准知.”

누어 해석하였다.⁵⁾

고려의 학자들은 당대(唐代) 주석가들이 남겨놓은 의문점을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려고 했던 것 같다. 『유가론』 제65권 일부와 제66권 전체의 내용은 27단락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29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어쨌든 27단락에서 다시 2개를 따로 분리시킴으로써 가능하다. 그러한 고심의 흔적이 가령 ‘大…十四五分也’와 같은 문구에서 발견된다. 순서상으로 보면, 이곳에는 ‘大…十四’와 ‘大…十五’가 차례로 나와야하고, 그 두 단락은 『유가론기』의 ‘⑬解有因果法’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밖의 사례와는 달리, 그 둘을 한데 합해서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로 나누었다[十四五分也].”고 표기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이 단락을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둘로 나누었음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⑬解有因果法’에서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법[有因法]’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법[有果法]’에 대해 해석하였으므로 전자와 후자를 각기 14번째와 15번째 단락으로 구분했을 것이다.

또 29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65권 어딘가에 그런 식으로 각필한 사례가 한 번 더 있어야 한다. 『유가론기』의 27문을 참고해보면, ①~⑨단락은 모두 상반되는 두 가지 범주들을 짝지어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한 단락을 둘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각필구결본에 나타난 주석학적 부호들의 의미

앞의 절에서 큰 단락[大段]의 구분에 대해 대략 알아보았으므로, 다음에는 그 밖의 부호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十四五分也’라고 각필된 단락 [초조본 『유가사지론』 제66권의 행수 9-12에서 11-14까지] 은 앞서 언급했던 주석학적 부호들이 거의 모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마모가 덜 되었으므로 이곳을 분석해보겠다. 이전 <도표1.>에 따르면, 이 단락의 주제는 ‘인·과를 가지고 있는 법들[有因果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을 가지고 있는 법[有因法]’이란 무엇이고, 또 ‘과를 가지고 있는 법[有果法]’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한 곳이다.

우선, 행(行)의 하단에 간혹 보이는 ‘有二’이나 ‘有五’와 같은 문구는 하나의 단락 안에 세 부 과목이 ‘2개가 있다’ 혹은 ‘5개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연속해서 ‘有二 有四’가 나왔다면, 이것은 ‘그 단락 안에 2개가 있고, 그 중 첫 번째 안에 다시 4개가 있다’는 뜻이다. 또 이것을 목차로 나타내면, ‘1.-1), 2), 3), 4), 2.……’ 순으로 표시된다. 이 원리에 따라서 ‘十四·五’ 단락의 본문과 목차를 병기하면 다음과 같다.

5) 둔륜(遁倫), 『瑜伽論記』 권18(T42, p.710b25, p.712a12). “就正決擇中, 初以五門雜決擇, 次以二十九門分別.……중략……自下第二以二十九門, 決擇諸義. 先別解, 後總結. 前中, 有二十七段.”라고 하였다.

* <도표2> 大段 十四五 본문 및 목차

十四 有 因 法	〔하단: 有二 有□⁶⁾〕 1.-1)[○]復次若善不[大]善無記諸法[十四五分也]所有種子未被損害⁷⁾, 彼一切法, 皆由能生生起因故, 名有因法. 2)[○]又先所[二]作諸業煩惱, 於三界中, 異熟果熟, 此異熟果, 由業煩惱引發因故, 名有因法. [○]又由三處正現在前引發因故, 生胎生中, 當知此亦名有因法. [○]濕和合故, 生濕生中, 卵藏故, 生卵藏中, 當知亦爾. 3)[○]又六[三]識身, 以從眼色乃至意法, 爲增上緣同事因故, 名有因法. [○]又有俱生諸心心所, 互爲展轉同事因故, 名有因法. 〔하단: 有五〕 4)-①[○]又不善法, 由[四]近惡友, 聞[一]非正法, [○]不正思惟引發因故, 名有因法. 當知與此相違三種引發因故, 一切善法, 名有因法. ②[○]又染汙住生[二]邪精進, 無果劬勞, 生憂苦住, 彼由引發因故, 名有因法. ③[○]又不染汙住[三]生正精進, 有果劬勞, 生喜樂住, 彼由引發因故, 名有因法. ④[○]又[四]世間道, 趣於離欲, 及能引發靜慮 無色, 彼由引發因故, 名有因法. ⑤又現法[五]中, 靜慮無色等至爲依, 如其所應, 往生上地, 彼由引發因故, 名有因法. 〔하단: 有二〕 2.-1)[○]又[二]世間[一]法, 引出世法, 彼由引發因故, 名有因法. 2)[○]又出世法[二], 聖道所攝, 能證涅槃, 彼證涅槃, 由引發因故, 名有因法. [○]由如是等所說諸相, 當知建立有因諸法.
十五 有 果 法	〔하단: 有五〕 1.[○]復次此中能生生起因法, 彼[一]由各別等流果故, 名有果法. 2.[○]若諸後[二]有業及煩惱, 彼由各別異熟果故, 名有果法. 3.[○]若有三處正現[三]在前, 若濕和合正現在前, 若卵藏故, 若眼色等, 若彼俱生諸心心所, 若近惡友等, 若近善友等, 二種三法, 如是一切, 皆由各別增上果故, 名有果法. 4.[○]若現法中, 由染[四]汙住生邪精進, 無果劬勞生憂苦住, 若現法中, 不染汙住生正精進, 有果劬勞生喜樂住, 如是一切, 皆由各別士用果故, 名有果法. 〔하단: 有三⁸⁾〕 5.-1)[○]若趣世間離[五]欲生道, 彼由離繫增上果故⁹⁾, 名有果法. [○]又能引出世間之道, 及能證涅槃出世聖道, 彼由離繫增上果故, 名有果法. [○]謂由究竟離繫果故, 名有果法. 若世間道, 非由究竟離繫果故, 名有果法. 當知是名二道差別. [○]由如是等所說相故, 當知建立有果諸法差別之相. 謂隨所應, 立[밀줄]等流果, 若異熟果, 若增上果, 若士用果, 若離繫果. 2) [○]與此相[二]違, 應知建立非有因法非有果法.

*마모된 곳은 음영처리.

이와 같이 우측과 하단에 각필된 숫자들이 과목의 목차를 나타낸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6) □는 ‘四’인 듯하다.

7) 밀줄친 부분에 ‘一’이 있었거나, 혹은 생략한 듯하다.

8) ‘三’은 ‘二’인 듯하다.

9) 밀줄친 부분에 ‘一’이 있었거나, 혹은 생략한 듯하다. 1.-1)의 사례와 동일.

면, 판독하기 어려운 공란 [□] 을 보완하거나 판독 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위의 <도표2>를 보면, ‘有因法’의 첫 행 하단에 ‘有二, 有□’라고 하였는데, 목차에 준해 볼 때 공란은 ‘四’임을 알 수 있다. 또 ‘有果法’의 다섯 번째 과목[5.]이 시작되는 첫 행 하단에 ‘有三’이라 한 것은 ‘有二’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3> 판독 내용의 수정 · 보완

	도판	행의 우측	행의 하단
十四 有 因 法	1.-1)	○[大…十四五分也]	〔有二 有□〕 ↗ * <u>빈칸은 四</u>
	2)	○[二]	第14大段의 1.과 2. ↙ ↘ 1.의 1)~4)
	3)	○[三]	
	4)-①	○[四] [一]	〔有五〕
	②	○[二]	4)의 ①~⑤ ↙
	③	○[三]	
	④	○[四]	
	⑤	○[五]	
	2.-1)	○[二] [一]	〔有二〕
	2)	○[二]	2.의 1)과 2) ↙
十五 有 果 法	1.	⊕[一]	* 〔有五〕
	2.	○[二]	第15大段의 1.~5. ↙
	3.	○[三]	
	4.	○[四]	↗ * <u>‘二’로 수정</u>
	5.-1)	○[五] [·]	〔有三〕
	2)	⊖[二]	5.의 1)과 2) ↙

이상에서 설명한 목차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有因法’이 종결되고 ‘有果法’이 시작되는 첫 행의 하단에 ‘有五’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목 체계가 ‘1.-1), 2), 3), 4)……2.-1), 2)’ 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有五’가 직전의 ‘2.-2)’ 하의 세부 과목이라 볼 수도 있다. 그 경우, 목차는 ‘……2.-1), 2)-①, ②, ③, ④, ⑤……’의 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有五’가 직전의 하부 과목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의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밖의 ‘○, ⊕, ⊖’과 같은 도형의 의미를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2.-2) [행수: 10-12 ~ 10-15] 에서 ‘有因法’에 관한 설명이 끝나고, 그 이후 [행수: 10-16] 부터는 ‘有果法’에 관한 설명이 시작된다. 따라서 ‘有果法’의 첫 행 하단에 쓰인 ‘有五’는 이전의 ‘有因法’의 하부 과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표시해주어야 한다. <도표2, 3>을 보면, ‘有果法’의 첫 문장 [행수: 10-16] 앞에 각필된 부호 ‘⊕’가 눈에 띈다. 부호⊕는 여기서부터 문맥이 전환되고 또한 그 아래로 쭉 동일한 문맥이 이어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듯하다.

또 5.-2)의 마지막 문장 [행수: 11-13 ~ 11-14] 앞에 각필된 부호‘⊖’는 직전의 논의가

여기서 중지되고 그와는 다른 논의로 전환되었다는 표시인 듯하다. 이전의 <도표2>와 <도표3>을 보면, 부호⊖ 직전까지는 ‘有果法’에 대한 설명이지만, 부호⊖의 문장은 그에 국한된 진술이 아니다. 즉 “⊖이와 상반되는 것은 ‘인을 갖는 법도 아니고 과를 갖는 법도 아닌 것’이라 건립했음을 알아야 한다.[與此相違, 應知建立非有因法非有果法.]”라고 하였다. 이 마지막 문장은 편의상 ‘有果法’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실은 앞에 나왔던 ‘有因法’과 ‘有果法’ 전체의 내용과 대응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전까지 연속되던 논의가 여기서 그치고 문맥이 달라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부호 ⊖를 사용하였다.

주석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마지막 문장 [=부호⊖] 을 과목 ‘5.’ [=有果法] 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어색하다. 그러나 본래 ‘解有因果法’이라는 하나의 단락을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로 나누었기[十四五分]’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열다섯 번째 [=有果法]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도표1>의 『유가론기』 과목 분류처럼 그 둘을 한 단락 [=⑬解有因果法] 으로 볼 경우, 그 마지막 문장 [=부호⊖] 은 상위 과목 [=2.] 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가론기』에서는, “十三解有因果法. 1.先辨有因有果法, 2.後翻顯非有因法及非有果法. 前中, 1)先辨有因法, 2)後辨有果法.”¹⁰⁾이라 하였다. 이것을 각필구결본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4> 大段 十四·十五의 목차 비교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본				『유가론기』 권18〔論本66권〕		
十四 有因法	1.	1)		十三 有因果法	1.有因有果法	1)有因法
		2)				
		3)				
		4)	① ~ ⑤			
	2.	1)				2)有果法
2)						
十五 有果法	Ⓢ1.		2. 非有因法及非有果法 (*)			
	2.					
	3.					
	4.					
	5.	1)				
		Ⓢ2)非有因法及非有果法 (*)				

위의 <도표4>를 보면, 각필구결본의 목차가 『유가론기』에 비해 매우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론기』에서는 과목을 ‘1.-1), 2), 2.’로 분류한 다음, 곧바로 주요 문장들에 대해 해석하였다. 이와는 달리, 각필구결본에서는 한정된 지면에 각필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문장에 대한 해석을 기입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본문의 논리적 구조와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후 문맥의 논리적 연속·불연속을 나타내기 위해 부호⊕과 ⊖ 등이 사용된다.

또한 전후 문맥의 논리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차별적 의미가 완결되는 문장의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 부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분도 나름대로 주석학적 의미를 가진다. 『유가론기』 등을 살펴보면, 수문해석(隨文解釋: 문장을 따라가며 해석)의 방식으로 각각의 문장들을 해석할 때는 부호○문장의 단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A에서 B까지는……을 밝힌 것이다[A至B者, 明……也.]’라고 주석할 때, ‘A에서 B까지’라고 한 문장들은

10) 『瑜伽論記』 권18(『大正藏』42, p.719c01).

각필구결본의 부호○문장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상의 주석학적 부호들은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각필구결본에 대한 판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마모가 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주석학적 부호의 의미와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석학 부호들		부호의 의미 및 주석학적 기능
위치	例	
하단	有二	그 단락이 2개 과목으로 나뉨.
	有二 有四	그 단락이 2개 과목으로 나뉘고, 그 중 첫 번째가 다시 4개로 나뉨.
우측	三	세 번째 과목.
	四 一	네 번째 과목 下의 첫 번째.
문장 위쪽	○	하나의 차별적 의미가 완결되는 문장 단위.
	⊕	새로운 문맥이 시작되고, 그 흐름이 이하로 계속 이어짐.
	⊖	이전의 문맥과는 다르게 전환됨.

4. 각필구결의 연구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사항들

지금까지 초조본 『유가사지론』 제66권의 각필구결 중에 특히 주석학 부호들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 자료가 단지 『유가사지론』을 한국어로 읽는 법을 기록한 문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식 주석서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의의 및 가치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유식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중세 국어 연구자들도 함께 생각해볼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해보겠다.

먼저, 『유가사지론』 제66권의 각필구결을 제작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검토해본 과단(科段)의 순서로 보아, 「섭결택분」의 「사소성지」 전체인 제65권과 제66권의 각필구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 『유가사지론』 전체에서 특히 이곳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65-66권뿐만 아니라 전권(全卷)에 대한 각필구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각필구결은 학자 개인이 공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 혹은 대사찰의 불사(佛事) 차원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방대한 『유가사지론』에 대해 약식으로나마 각필구결의 형태로 주석학적 작업을 시도하려면, 당시에 이런 작업에 동원될 수 있는 유식학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한다. 특히 각필구결본에서는 본문의 과목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논리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유식학자들이라야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유식학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수고롭게 『유가사지론』의 각필구결본을 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후학 불교도들의 기본 교리 학습을 위한 일종의 교본을 만들어서 영구보존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우리의 추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초조본 『유가사지론』 각필구결본 자료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치 있고 또 대단

히 희귀한 자료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각필구결본의 현대어 번역 작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완해야할 작업이 있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듯, 이 자료에 담긴 주요 내용들 중의 하나는 바로 주석학적 내용들이다. 그것까지 완전하게 드러내줄 때 각필구결본의 내용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번역할 수 있고, 또 그 자료의 학술적 가치도 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어 번역에서 과단 등을 분명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업은 유식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목차가 배열되는 원리와 주석학 부호들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 각필구결본의 과목 체계는 당대(唐代)에 저술된 『유가론』 주석서들보다 훨씬 상세하며 고려 학자들의 독자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주석서의 과목 분류를 참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현대어 번역에서 눈에 띄는 오류들 중에는 그러한 과목 분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도 많다. 문맥이 전환됨에도 앞뒤로 문장이 연결되거나, 문맥이 연속되는데도 중간에 마침표를 찍은 경우가 있다. 주석학 부호들을 참조하여 문단을 적절히 나누어주고, 하나의 의미가 완결되는 문장은 정확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의 하나는 구결표시가 붙지 않은 한문 문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문구들은 원문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은 마지막에 유식학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보다도 앞서 말했던 과단과 문장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彌勒 說, 『瑜伽師地論』, 『大正藏』30.
 遁倫, 『瑜伽論記』, 『大正藏』42.
 窺基, 『瑜伽師地論略纂』, 『大正藏』43.
 『각필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2018.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제20권(재조장본)의 문자이동(文字異同)과 판본 성격에 대한 연구

유부현(대진대)

1. 서언
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문자이동
 - 2.1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문자이동 유형별 분석
 - 2.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초조장 · 재조장 · 조성장의 판본 성격
 - 2.3 재론의 여지가 있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검토
3. 『유가사지론』 제20권의 문자이동
 - 3.1 『유가사지론』 제20권의 문자이동 유형별 분석
 - 3.2 『유가사지론』 제20권의 재조장 · 조성장의 판본 성격
4. 결론

<표 1> “역대 대장경 일람표”(부록)

<표 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여러 판본”(본문)

<표 3-1~4> “『瑜伽師地論』 第66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1~4”(부록)

<표 4> “『瑜伽師地論』 第20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부록)

1. 서언

본 연구는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과 제20권(재조장본)의 판본 성격과 원문의 문자이동(文字異同) 관계를 밝혀보기 위한 것이다.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은 고려초조대장경(이하 초조장으로 약칭함) 판본이고, 제20권은 고려재조대장경(이하 재조장으로 약칭함) 판본이다. 주지하듯이 초조장과 재조장은 북송의 개보칙판대장경(이하 개보장으로 약칭함) 계통의 대장경이고, 개보장은 간본(刊本) 대장경으로 그 효시가 된다. 개보장 이후로 거란장 · 복주장 · 사계장 · 대정장 등 많은 대장경이 간행되었다(부록의 <표 1> “역대 대장경 일람표” 참조).

개보장 계통의 대장경으로는 초조장과 재조장 이외에 조성장(금나라에서 판각되어 원나라 때 인출된 것임)이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보장 계통 대장경의 판본 또한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¹⁾ 첫째, 개보장의 판본에는 ‘개보장 원본’ · ‘개보장 수정본’ · ‘개보장 재수정본’ 3종류가 있다. 둘째, 조성장은 ‘개보장 재수정본’의 복각본이다. 셋째, 초조장의 판본에는 ‘초조장 원본’(이른바 國前本) · ‘초조장 수정본’(이른바 國後本)이 있다. ‘초조장 원본’은 ‘개보장 원본’

1) 拙著,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시간의 물레, 2014. p.37.

拙稿, “開寶藏의 修訂에 대한 연구 - 廣弘明集을 중심으로 -”, 『書誌學研究』 第70輯, 2017. p.263.

拙著, 『고려대장경의 교감학적 연구』, 시간의 물레, 2018. p.57.

또는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 복각본이다{단, 일부의 경전(속정원록에 수록된 경전 등)은 속정원록장 사본을 저본으로 해서 필사판각된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초조장 수정본’은 거란장을 참고하여 ‘초조장 원본’의 경판을 보각의 방법으로 수정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다섯째, 재조장은 ‘개보장 원본’ 또는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 복각본이다{단, 일부의 경전(속정원록에 수록된 경전 등)은 초조장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됨}. 때문에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 · 제20권(재조장본) 원문의 문자이동(文字異同) 관계와 판본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보장 계통의 대장경은 물론 기타의 여러 대장경과의 문자이동 관계를 파악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가사지론』 제66권 · 제20권의 여러 판본을 대조하여 조사된 문자이동을 유형별로 정리 · 분석하여 그 문자이동의 관계를 구명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유가사지론』 제66권 · 제20권에 대한 초조장 · 재조장 · 조성장의 판본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끝으로 재론의 여지가 있는 선행연구의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과 제20권(재조장본)의 판본 성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작은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문자이동

2.1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문자이동 유형별 분석

먼저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의 문자이동 상태를 구명하기 위해 조사에 활용된 대장경 판본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여러 판본”과 같다.

<표 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여러 판본

판본	약칭	성립시기	출처
『天平寫經』 ²⁾	天平	735년	『大正藏 · 校勘記』
『趙城藏』	趙城	1149~1173년	『中華藏』(中國 中華書局, 1984~1995.)
『初雕藏』	初雕	1011~1087년	국립한글박물관
『再雕藏』	再雕	1236~1251년	高麗大藏經研究所(月精寺所藏 印經本)
『房山石經』	房山	遼代(907~1125)	『房山石經』(中國 華夏出版社, 2000.)
『福州藏』 ³⁾	福州	1080~1172년	『大正藏 · 校勘記』
『資福藏』	資福	1175년	『中華藏 · 校勘記』
『磧砂藏』	磧砂	1216~1322년	『中華藏 · 校勘記』
『普寧藏』	普寧	1277~1290년	『中華藏 · 校勘記』
『永樂南藏』	永南	1412년	『中華藏 · 校勘記』
『徑山藏』	徑山	1589~1707년	『中華藏 · 校勘記』
『淸藏』	淸藏	1733~1738년	『中華藏 · 校勘記』

다음으로 『유가사지론』 제66권의 판본 대조를 통해 밝혀진 37개의 문자이동을 13가지의 유형으로 정리·분석하여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부록의 <표 3-1~4> “『瑜伽師地論』 第66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1~4”와 같다.

이제 “유형 A”부터 “유형 M”까지 1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37개의 문자이동에 대한 성격을 그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A : 제1, 2항(2개).

“유형 A”는 대장경의 계통 간에 발생된 문자이동인데, 개보장 계통(조성장·초조장·재조장)·거란장 계통(방산석경)이 동일하고, 천평사경·복주장 계통(복주장·자복장·적사장·보녕장·영남장·경산장·청장)이 동일하다.

2) 유형 B : 제3, 4, 5, 6항(4개).

“유형 B”는 대장경의 계통 간에 발생된 문자이동인데, 천평사경·개보장 계통(조성장·초조장·재조장)·거란장 계통[방산석경]이 동일하고 복주장 계통(복주장·자복장·적사장·보녕장·영남장·경산장·청장)이 동일하다.

3) 유형 C : 제7, 8, 9항(3개).

“유형 C”는 대장경의 계통 간에 발생된 문자이동인데, 천평사경·개보장 계통(조성장·초조장·재조장)이 동일하고, 거란장 계통[방산석경]·복주장 계통(복주장·자복장·적사장·보녕장·영남장·경산장·청장)이 동일하다.

참고로 제8, 9항에서 ‘加行’과 ‘方便’은 동의어이다(“‘加行’: 佛教語. 意爲加力修行, 以作入正位的準備. 亦譯作‘方便’. 唐窺基《成唯識論述記》卷九末: 『舊言方便道, 今言加行, 顯與佛果善巧差別, 因中行未成圓足, 所行必須加功求後勝果.』”(『漢語大詞典』)).

4) 유형 D : 제10, 11, 12, 13, 14항(5개).

“유형 D”의 문자이동은 재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수정된 내용이 독특하다. **재조장의 독자적인 수정이거나,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10항의 경우 재조장의 ‘卽此受’가 초조장에는 ‘卽此’로 되어 있다. 초조장에는 ‘卽’의 왼쪽 아래 부분에 작은 크기의 부호 ‘○’⁴⁾이 각필되어 있다. 제13항의 경우 재조장의 ‘假’가 초조장에는 ‘彼’로 되어 있는데 ‘彼’의 오른쪽 부분에 극소자로 ‘丩’⁵⁾ 모양의 부호가 묵서되어 있고, ‘彼’가 있는 행의 하변[아래 변란] 밖의 여백에 ‘假’가 묵서되어 있으며, ‘假’의 오른쪽 윗부분에 부호 ‘1’⁶⁾이 주서(朱書)되어 있다. 그리고 ‘彼’의 윗글자인 ‘彼’의 옆에는

2) 『천평사경』은 일본 知恩院 소장본으로서 권말에 “天平七年歲次乙亥(735)八月十四日寫了書寫師慈氏弟子慈通本名難波部首益人檀越慈氏弟子慈姓本名三神智萬呂” 등 47자의 寫成記가 서사되어 있다.

3) 『福州藏』은 福州에서 간행된 崇寧藏과 毗盧藏을 통칭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福州’의 문자이동으로 기재된 내용은 『대정장』의 교감기에 “【宮】”(송녕장과 비로장의 混藏인 일본 궁내성 소장본)의 原文으로 기재된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4) 선행 연구에서는 작은 크기의 부호 ‘○’을 “삼입부”로 이해하였다(권인환, “『유가사지론』 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110).

5) 선행 연구에서는 ‘丩’ 모양의 부호를 “교정부 ‘卜’자호”로 기술하였다(권인환, “『유가사지론』 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110).

6) 부호 ‘1’에 대해서 “이 지시에 맞게 교정 완료했다는 의미이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다(권인환, “『

부호 ‘ː’⁷⁾이 주서(朱書)되어 있다.

참고로 제11, 12, 14항에서 ‘躑’은 ‘躑’과 同字이다(“‘躑’: 同‘躑’.”(『漢語大字典』)).

5) 유형 E : 제15, 16항(2개).

“유형 E”의 문자이동은 초조장과 재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수정된 내용이 초조장과 재조장만이 동일하다. 아마도 **초조장의 독자적인 수정이 재조장에 반영되었거나, 초조장과 재조장이 각각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5항의 ‘如’와 제16항의 ‘後’는 초조장과 재조장의 자형이 각각 다르다.

참고로 『大正藏』의 교감기에는 제15항의 ‘如生’에 대한 교감기 내용이 앞부분의 구절인 “如其種子異熟所攝” 가운데 ‘如’에 대한 교감기 내용으로 잘못 달려 있다.

6) 유형 F : 제17, 18항(2개).

“유형 F”의 문자이동은 재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7항의 ‘任持’는 재조장에서 수정된 내용이 거란장 계통[방산석경]과 동일하다. 제18항의 ‘蠟’은 재조장에서 수정된 내용이 거란장 계통[방산석경] · 복주장 계통과 동일하다.

한편, 제18항의 경우 재조장의 ‘蠟’이 초조장에는 ‘蠟’으로 되어 있는데 ‘蠟’의 옆에 부호 ‘ː’⁸⁾이 주서(朱書)되어 있고, ‘蠟’이 있는 행의 하변[아래 변란] 밖의 여백에 “一本蠟盧盞へ蜜 | 也” 9자가 부전지(附箋紙)에 묵서되어 붙여져 있으며, 부전지 상단 옆의 여백에 부호 ‘ː’^{1’8)}이 주서(朱書)되어 있다.

참고로 ‘蠟’은 『廣韻』의 入聲 · 盞韻 · 臘目(盧盞切)에 여섯 번째로 수록된 글자이고(『新校正切宋本廣韻』, 黎明文化事業公司, 1987, p.536), ‘蠟’의 同用字이다(“蠟: … 5.用同蠟”(『漢語大詞典』)).

7) 유형 G : 제19, 22, 21항(3개).

“유형 G”의 문자이동은 초조장과 재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수정된 내용이 대부분 거란장 계통(방산석경) · 복주장 계통(복주장 · 자복장 · 적사장 · 보녕장 · 영남장 · 경산장 · 청장)과 동일하다. 그런데 **제19항의 ‘諸’는 초조장과 재조장의 글자의 위치가 다르다.** 또한 **제20항의 ‘无’는 조성장[즉 개보장]의 ‘法’이 초조장은 정자인 ‘無’로 수정된 반면 재조장은 속자인 ‘无’로 수정되었다.** 이로 보아 초조장과 재조장은 각각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유형 H : 제22, 23, 24, 25, 26, 27항(6개).

“유형 H”의 문자이동은 초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수정된 내용이 거란장 계통(방산

유가사지론 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109).

7) 부호 ‘ː’에 대해서는 “‘彼’자 우측에 주서로 ‘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교정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추정된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권인환, “『유가사지론』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109).

8) 부호 ‘ː’에 대해서는 “이 지시에 맞게 교정 완료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권인환, “『유가사지론』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109).

석경) 및 복주장과 동일하다(제22항은 제외). 이 수정은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제23항의 초조장의 ‘法’은 모양이 바르지 않고 뺄어져 있는데, 이는 매목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록의 <표 3-3> 대교표의 제22~27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초조장의 ‘心法’은 수정된 내용이고, 재조장의 ‘心所’는 수정되지 않은 원래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초조장에서 수정된 내용이 재조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조장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저본은 초조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9) 유형 I : 제28, 29, 30, 31항(4개).

“유형 I”의 문자이동은 재조장과 조성장[즉 개보장 수정본]에서 각각 이루어진 수정인데,⁹⁾ 수정된 내용이 대부분 거란장 계통(방산석경)과 동일하다. 그리고 초조장의 문자는 수정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개보장 원본의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28, 29, 30, 31항의 ‘隨’, ‘樂’, ‘識’, ‘應’은 조성장[즉 개보장 수정본]과 재조장의 자형이 다르다. 특히 제31항의 경우 조성장[즉 개보장 수정본]의 ‘應’은 글자의 모양으로 보아 매목(埋木)되어 보충된 수정자로 판단된다.

한편, 제28항의 경우 재조장의 ‘隨’가 초조장에는 ‘通’으로 되어 있다. 초조장에는 ‘通’의 중앙에 부호 ‘O’¹⁰⁾이 각필되어 있다. 제30항의 경우 재조장의 ‘識’이 초조장에는 ‘藏’으로 되어 있는데 ‘藏’의 오른쪽 옆 부분에 극소자로 ‘人’ 모양의 부호가 묵서되어 있고, ‘藏’이 있는 행의 상변[위 변란] 밖의 여백에 ‘識’이 묵서되어 있으며, ‘識’의 상단 오른쪽에 부호 ‘1’이 주서(朱書)되어 있다.

10) 유형 J : 제32, 33항(2개).

“유형 J”는 방산석경에서 발생한 문자이동이다. **참고로** 제32항에서 방산석경의 ‘增’은 ‘憎’의 통용자이고(“‘增’: … 5.通‘憎’”(『漢語大詞典』)), 제33항에서 방산석경의 ‘鎔銷’는 ‘融消’와 동의어로 판단된다. 消는 ‘銷’의 통용자이다(“‘消’: … 15.通‘銷’, 融化.”(『漢語大詞典』)).

11) 유형 K : 제34, 35항(2개).

“유형 K”는 조성장에서 발생한 문자이동이다. 그 원인은 미상이다.

12) 유형 L : 제36항(1개).

“유형 L”는 초조장에서 발생한 문자이동이다. 제36항의 초조장 문자 ‘用’은 ‘用’의 오각자로 판단된다.

13) 유형 M : 제37항(1개).

“유형 M”의 문자이동은 개보장 계통(조성장·초조장·재조장)과 거란장 계통(방산석경)의 문자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원인과 관계는 미상이다.

참고로 제37항에서 ‘灑’은 ‘灑’과 同字이다(“‘灑’: 同‘灑’.”(『漢語大字典』)).

9) 재조장의 수정은 거란장에 의거한 것이고, 조성장[즉 개보장 수정본]에서 이루어진 수정은 북송 때唐寫本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선행 연구에서는 각필된 부호 ‘O’를 오자표시로 이해하였다(권인환, “『유가사지론』 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110).

2.2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초조장 · 재조장 · 조성장의 판본 성격

앞에서 살펴본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초조장 · 재조장 · 조성장의 문자이동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초조장 · 재조장 · 조성장의 판본 성격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성장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삼아 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유형 I”의 문자이동 참조).

둘째, 초조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수정 · 복각된 다음 보각[매목]하여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유형 I” · “유형 H”의 문자이동 참조).

셋째, 재조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고 수정 · 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유형 D” · “유형 E” · “유형 F” · “유형 G” · “유형 H”의 문자이동 참조).

2.3 재론의 여지가 있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검토

여기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선행연구의 몇 가지 내용¹¹⁾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검토 결과를 해당 내용에 각주를 달아 소개하고자 한다.

1) “<도 3>…①¹²⁾은 초조본이 ‘住持’, 재조본이 ‘任持’로 되어 있고, ②¹³⁾와 ③¹⁴⁾은 초조본과 재조본 모두 ‘任持’로 되어 있고, ④는 초조본과 재조본 모두 ‘住持’로 되어 있다.¹⁵⁾ … 모두 ‘任持’로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¹⁶⁾ 초조본의 ‘住持’ 가운데 ①은 재조본에 교정되어 있으나,¹⁷⁾ ④는 재조본에 교정되어 있지 않다.¹⁸⁾”

2) “한편 ③¹⁹⁾에서 초조본이 ‘心心法’, 재조본이 ‘心心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정은 아니고 번역의 차이이다. …초조본의 ‘心心法’이 재조본에서 모두 ‘心心所’로 바뀐 것은 아니다.”²⁰⁾

11) 안대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의 서지적 특징”,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2018. pp.70~71.

12)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7항 참조.

13) 부록의 <표 3-1> 대교표 제1항 참조.

14) 부록의 <표 3-1> 대교표 제2항 참조.

15) ‘④’에 해당되는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부록의 <표 3-3> 대교표에는 없는 내용이다. 단 필자가 별도로 조사한 결과 房山石經을 비롯한 모든 판본에 ‘住持’로 되어 있다.

16) ‘任持’와 ‘住持’에는 모두 ‘維持하다’의 뜻이 있다(橫山紘一, 『唯識 仏教辭典』, 株式會社春秋社, 2011. p.440, 769).

17) 房山石經에는 ‘任持’로 되어 있다. 거란장에도 ‘任持’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房山石經을 비롯한 모든 판본에 ‘住持’로 되어 있고(부록의 <표 3-3> 대교표에 없는 내용임), 거란장에도 ‘住持’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부록의 <표 3-3> 대교표 제24항 참조.

20) 부록의 <표 3-3> 대교표 제24항 및 제22~27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초조장의 ‘心心法’은 수정된 내용이고, 재조장의 ‘心心所’는 수정되지 않은 원래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초조본의 ‘心心法’이 재조본에서 모두 ‘心心所’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心心所’가 ‘心心法’으로 수정된 초조장의 내용이 재조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재조장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저본은 초조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도 4>에서 ①²¹⁾은 초조대장경의 ‘藏’자 오른쪽에 교정부호 ‘卜’자를 묵서로 표시하고 난상에 ‘識’자로 교정하였으며, 이것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음²²⁾을 보여준다. ②²³⁾는 초조대장경의 ‘彼’자 오른쪽에 교정부호 ‘卜’자를 묵서로 표시하고 난하에 ‘假’자로 교정하였으며, 이것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음²⁴⁾을 보여준다. 한편 ③²⁵⁾은 초조대장경의 ‘通’자 중앙에 圓圈을 각필로 표시하였으며, 이것이 재조대장경에 ‘隨’자로 교정되어 있음²⁶⁾을 보여준다. ④²⁷⁾는 초조대장경의 ‘卽’자 왼쪽 아래에 원권을 각필로 표시하였으며, 이것이 재조대장경에 ‘此’자의 삽입으로 반영되어 있음²⁸⁾을 보여준다.”

4) “또 <도 5>처럼 … 특히 ②²⁹⁾에서는 附箋의 주석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蠟’자가 ‘蠟’자로 바뀌어 있음³⁰⁾을 볼 수 있다.”

21) 부록의 <표 3-4> 대교표 제30항 참조.

22) 부록의 <표 3-4> 대교표 제30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초조장의 ‘藏’은 수정되지 않은 원래(즉 개보장 원본)의 내용이고, 재조장과 조성장의 ‘識’은 그 자형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각각 독자적으로 수정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성장의 ‘識’은 개보장에서 수정된 개보장 수정본의 내용이고, 재조장의 ‘識’은 저본(즉 개보장 원본)의 ‘藏’이 거란장에 의거하여 ‘識’으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문제의 문자가 房山石經에 ‘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란장에도 ‘識’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필자는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에 묵서로 표시된 교정 내용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선행연구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조대장경에서 수정된 내용(‘藏’→‘識’)이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의 묵서된 교정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3)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3항 참조.

24)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3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재조장의 ‘假’는 재조장의 독자적인 수정이거나, 아마도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에 묵서로 표시된 교정 내용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선행연구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조대장경에서 수정된 내용(‘彼’→‘假’)이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의 묵서된 교정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5) 부록의 <표 3-4> 대교표 제28항 참조.

26) 부록의 <표 3-4> 대교표 제28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초조장의 ‘通’은 수정되지 않은 원래(즉 개보장 원본)의 내용이고, 재조장과 조성장의 ‘隨’는 그 자형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각각 독자적으로 수정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성장의 ‘隨’는 개보장에서 수정된 개보장 수정본의 내용이고, 재조장의 ‘隨’는 저본(즉 개보장 원본)의 ‘通’이 거란장에 의거하여 ‘隨’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문제의 문자가 房山石經 등에 ‘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란장에도 ‘識’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필자는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에 각필로 표시된 교정 내용(단지 문제의 문자인 ‘通’의 중앙에 圓圈 ‘O’만이 각필되어 있음)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선행연구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조대장경에서 수정된 내용(‘通’→‘隨’)이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의 각필된 교정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7)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0항 참조.

28)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0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재조장의 ‘此’는 재조장에서 독자적으로 보충된 수정이거나, 아마도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에 각필로 표시된 교정 내용(‘此’의 앞 글자에 해당되는 ‘卽’의 왼쪽 아래 부분에 작은 크기의 부호 ‘O’이 각필되어 있음)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선행연구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조대장경에서 수정된 내용(‘卽’→‘卽此’)이 한글박물관 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의 각필된 교정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9)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8항 참조.

30) 부록의 <표 3-2> 대교표 제18항에 나타난 문자이동을 분석해 보면, 조성장과 초조장의 ‘蠟’은 수정되지 않은 원래(즉 개보장 원본)의 내용이고, 재조장의 ‘蠟’은 저본(즉 개보장 원본)의 ‘蠟’이 거

3. 『유가사지론』 제20권의 문자이동

『유가사지론』 제20권(총32장)의 초조장과 천평사경은 조사에 활용되지 못했고, 조성장본의 경우도 제1장부터 제15장까지는 결락으로 인해 조사에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20권 제16장부터 제32장까지 총17장의 원문에 대해서 재조장과 조성장의 문자이동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사지론』 제20권의 재조장과 조성장의 판본 성격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3.1 『유가사지론』 제20권의 문자이동 유형별 분석

『유가사지론』 제20권의 판본 대조를 통해 밝혀진 10개의 문자이동을 3가지의 유형으로 정리·분석하여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부록의 <표 4> “『瑜伽師地論』第20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와 같다.

이제 “유형 가”부터 “유형 다”까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10개의 문자이동에 대한 성격을 그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가 : 제1~7항(7개).

“유형 가”의 문자이동은 재조장에서 수정된 것인데, 수정된 내용이 거란장 계통[방산석경]·북주장 계통과 동일하다. 재조장의 수정은 거란장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형 나 : 제8항(1개).

“유형 나”의 문자이동은 재조장에서 수정된 것인데, 수정된 내용이 거란장 계통[방산석경] 계통과 동일하다. 재조장의 수정은 거란장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유형 다 : 제9, 10항(2개).

“유형 다”의 문자이동은 재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수정된 내용이 독특하다. **재조장의 독자적인 수정이거나, 거란장에 의거하여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유가사지론』 제20권의 재조장·조성장의 판본 성격

앞에서 살펴본 『유가사지론』 제20권의 재조장·조성장의 문자이동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유가사지론』 제20권의 재조장·조성장의 판본 성격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성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조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고 수정·복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란장에 의거하여 ‘蠟’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문제의 문자가 房山石經 등에 ‘蠟’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란장에도 ‘蠟’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필자는 한글박물관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에 朱書로 표시된 부호 ‘:’·‘1’과 附箋에 묵서된 주석 내용(한글박물관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에는 ‘蠟’의 옆에 부호 ‘:’이 朱書되어 있고, ‘蠟’이 있는 행의 아래 변란 밖의 여백에 “一本蠟盧盞へ蜜1也” 9자가 附箋에 묵서되어 붙여져 있으며, 부전지 상단 옆의 여백에 부호 ‘1’이 朱書되어 있음)이 재조대장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선행연구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조대장경에서 수정된 내용(‘蠟’→‘蠟’)이 한글박물관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의 주서된 교정 내용과 附箋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유가사지론』 제66권 · 제20권의 여러 판본을 대조하여 조사하여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과 제20권(재조장본)의 판본 성격과 원문의 문자이동을 구명한 것이다. 이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사지론』 제66권의 판본 대조를 통해 밝혀진 문자이동은 37개이고, 이 문자이동은 13가지의 유형으로 정리 · 분석되었다. 그 결과 조성장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삼아 복각된 것이고, 초조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수정 · 복각된 다음 보각[매목]하여 수정된 것이며, 재조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고 수정 · 복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유형 H”의 문자이동(부록의 <표 3-3>대교표의 제22, 23, 24, 25, 26, 27항)은 초조장에서 이루어진 수정인데, 수정된 내용이 재조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재조장 유가사지론 제66권의 저본은 초조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유가사지론』 제20권의 판본 대조를 통해 밝혀진 문자이동은 10개이고, 이 문자이동은 3가지의 유형으로 정리 · 분석되었다. 그 결과 조성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복각된 것이고, 재조장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삼고 수정 · 복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소장 『유가사지론』 제66권(초조장본)에 묵서(墨書) · 주서(朱書)와 각필(刻筆)로 표시된 교정내용이 재조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조장의 수정된 내용(즉 재조장의 저본인 개보장 원본의 문자가 재조장에서 수정된 것)이 한글박물관소장 초조장본 『유가사지론』의 묵서 · 주서와 각필로 표시된 교정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국립한글박물관과 동국대학교 김성주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표 1> 역대 대장경 일람표

藏 名		刊刻 時期	刊刻地	種數	卷數	函[帙]數	千字文 編次	裝訂	行字數
開 寶 藏	本藏	971~ 983	益州	1076餘	5048餘	480帙	天(1)~ 英(480)	卷軸裝	23行 14字
	續刊	983~ 1122	開封	未詳	1850餘	202帙	未詳	卷軸裝 不一致	23行 14字
趙城藏		1149~ 1173	解州	未詳	6900餘	682帙	天(1)~ 幾(682)	卷軸裝	23行 14字
高麗藏	初雕藏	1011~ 1087	未詳	1492 (推定)	6549 (推定)	639帙 (推定)	天(1)~ 洞(639)	卷軸裝	23行 14字
	再雕藏	1236~ 1251	江華, 南海	1498	6573	639帙	天(1)~ 洞(639)	卷軸裝	23行 14字
契丹藏	大字本	1031~ 1063	燕京 弘法寺	未詳	5790	579帙	天(1)~ 滅(579)	卷軸裝	28行 18字
	小字本	1031~ 1072	燕京 弘法寺	未詳	近1000冊	近200函	未詳	蝴蝶裝	不一致
福州藏	崇寧藏	1080~ 1104	福州 東禪寺	1440	6108	580函	天(1)~ 號(580)	折疊裝	30行 17字
	毗盧藏	1112~ 1172	福州 開元寺	1451	6132	595函	天(1)~ 頗(595)	折疊裝	30行 17字
思溪藏	圓覺藏	? ~ 1126	湖州思溪 圓覺禪院	1435	5480	548函	天(1)~ 合(548)	折疊裝	30行 17字
	資福藏	? ~ 1175	湖州思溪 資福寺	1459	5940	599函	天(1)~ 最(599)	折疊裝	30行 17字
磧砂藏		1234~ 1322	吳縣磧砂 延聖院	1532	6362	591函	天(1)~ 煩(591)	折疊裝	30行 17字
普寧藏		1277~ 1290	杭州餘杭 普寧寺	1430	6004	558函	天(1)~ 感(558)	折疊裝	30行 17字
元官藏		? ~ 1336	北京 徽政院	未詳	6500餘	651函	天(1)~ 於(651)	折疊裝	42行 17字
洪武南藏		1372~ 1398	南京 天界寺	1600	7000餘	670函	天(1)~ 魚(678)	折疊裝	30行 17字
永樂南藏		? ~ 1412	南京 大報恩寺	1610	6331	636函	天(1)~ 石(636)	折疊裝	30行 17字
永樂北藏		1421~ 1440	北京	1610	6331	636函	天(1)~ 石(636)	折疊裝	25行 17字
徑山藏		1589~ 1677	杭州 徑山寺	2090	12600	343函	天(1)~ 史(677)	線裝	20行 20字
黃檗藏		1669~ 1681	黃蘗山 萬福寺	1618	7334	734函		線裝	徑山藏 覆刻本
清藏		1735~ 1738	北京 武英殿	1669	7168	724帙	天(1)~ 機(724)	折疊裝	25行 17字
縮刷藏		1881~ 1885	東京 弘教書院	1916	8534	419책 40질		線裝	5호 활자
頻伽藏		1909~ 1913	上海 頻伽精舍	1916	8416	414책		線裝	4호 활자
己正藏		1902~ 1905	京都 藏經書院	1625	7082	347책 36套		線裝	4호 활자
大正藏		1924~ 1934	大正一切經 刊行會	3053	11970	100책		線裝	5호 활자

<표 3-1> 『瑜伽師地論』 第66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1

類型	A		B				C		
項次	1	2	3	4	5	6	7	8	9
張行字	4 5 7,8	4 6 6,7	6 14 1	18 23 8	21 21 8	22 4 1	10 21 3,4	20 10 3,4	20 10 7,8
天平	住持	住持	皆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趙城	任持	任持	皆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初雕	任持	任持	?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再雕	任持	任持	皆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房山	任持	任持	皆	欲	法若	往	心法	方便	方便
福州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資福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磧砂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普寧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永南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徑山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清藏	住持	住持	當	色	若	住	心法	方便	方便
本文	世尊說此諸法任持有情令住不壞	問有七因緣任持諸行令住不壞何	皆作四句	何色界繫法謂生欲界能現證入隨	預流乃至阿羅漢法若墮一切異生	往一切惡趣業等是名見道所斷法	諸心心所若近惡友等若近善友等	無間加行殷重加行之所造作若無	無間加行殷重加行之所造作若無
趙城	任持	任持	皆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初雕	任持	任持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再雕	任持	任持	皆	欲	法若	往	心所	加行	加行
비고								‘加行’과 ‘方便’은 동의어임. 제1자 ‘无’가 大正藏에는 ‘無’임.	제1자 ‘无’가 大正藏에는 ‘無’임.

<표 3-2> 『瑜伽師地論』第66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2

類型	D					E		F	
項次	10	11	12	13	14	15	16	17	18
張行字	8 12 4-6	15 2 1	15 10 1	15 11 12	15 11 14	8 4 3,4	18 14 8	3 22 9,10	14 23 4
天平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
趙城	即受	𪛗	𪛗	彼	𪛗	生	沒	住持	蠟
初雕	即受	𪛗	𪛗	彼	𪛗	如生	後	住持	蠟
再雕	即此受	𪛗	𪛗	假	𪛗	如生	後	任持	蠟
房山	即受	𪛗	𪛗	彼	𪛗	生	沒	任持	蠟
福州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
資福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蠟
磧砂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蠟
普寧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蠟
永南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蠟
徑山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蠟
清藏	即受	?	?	彼	?	生	沒	住持	蠟
本文	故當知即此受於彼名異熟生廣大喜	𪛗滑等性當知皆是大種差別隨諸	𪛗滑等由如是因如是緣故此諸大	種各各差別變異而生於彼假說澁	種各各差別變異而生於彼假說𪛗	相續如生那落迦如是若生一分餓鬼	受用未盡剎那已後決定壞滅一切	復次由五相故建立任持諸法差別	又如白蠟鉛錫金銀等物融消即流
趙城	即受	𪛗	𪛗	彼	𪛗	生	沒	住持	蠟
初雕	即受	𪛗	𪛗	彼	𪛗	生	後	住持	蠟
再雕	即此受	𪛗	𪛗	假	𪛗	如生	後	任持	蠟
비고		‘𪛗’은과 同字임. ‘𪛗’이 大正藏에 同字인 ‘澁’임.	작동		작동	大正藏은 脚註의 位置가 잘못됨	초조장과 재조장의 字形이 다름		‘蠟’은 ‘蠟’의 同用字임

<표 3-3> 『瑜伽師地論』 第66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3

類型	G			H					
項次	19	20	21	22	23	24	25	26	27
張行字	4 10 11-13	12 6 9	12 23 6,7	9 22 1,2	12 20 5,6	12 23 4,5	13 16 3,4	17 16 4,5	18 18 5,6
天平	?	?	任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趙城	增壽	法	住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初雕	增諸壽	無	任持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再雕	增諸壽	无	任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房山	增諸壽	無	任持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福州	?	?	任持	心所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資福	增諸壽	無	任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磧砂	增諸壽	無	住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普寧	增諸壽	無	住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永南	增諸壽	無	住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徑山	增諸壽	無	任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清藏	增諸壽	無	任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本文	食四心自在通由彼勢力增諸壽行或	法若能攝受善不善无記諸法種子	故又心心所任持不捨說名執受當知	心所互為展轉同事因故名有因法	此言遮心心所等彼非執受故又於	故又心心所任持不捨說名執受當知	若心心所任持不捨若如是緣令成	最後心心所熏習相續雖復已滅經	漢最後心心所等
趙城	增壽	法	住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初雕	增諸壽	無	任持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心法
再雕	增諸壽	无	任持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心所
비고		‘无’가 大正藏에는 ‘無’로 됨.							

<표 3-4> 『瑜伽師地論』 第66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4

類型	I				J		K		L	M
項次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張行字	5 1 8	8 10 7,8	15 1 5	18 12 8,9	2 2 13	14 23 11,12	12 10 5	20 23 3	17 20 5	15 4 9
天平	?	心樂	?	得未	?	?	?	起	?	?
趙城	隨	樂受	識	應得未	憎	融消	慳	趣	用	澀
初雕	通	心樂	藏	得未	憎	融消	何	起	用	澀
再雕	隨	樂受	識	應得未	憎	融消	何	起	用	澀
房山	隨	樂受	識	應得未	增	鎔銷	何	起	用	澀
福州	?	心樂	?	得未	?	?	?	起	?	?
資福	隨	心樂	?	得未	憎	融消	何	起	?	?
磧砂	隨	心樂	?	得未	憎	融消	何	起	?	?
普寧	隨	心樂	?	得未	憎	融消	何	起	?	?
永南	隨	心樂	?	得未	憎	融消	何	起	?	?
徑山	隨	心樂	?	最後未	憎	融消	何	起	?	?
清藏	隨	心樂	?	最後未	憎	融消	何	起	?	?
本文	夫嬰兒等類亦能隨覺非所餘法又	靜慮唯異熟生樂受相續若生第四	復次如五識身相應地說觸處所攝	劫未來現行未來應得未來來	說彼貪所隨增於苦受中多生憎恚	又如白鐵鉛錫金銀等物融消即流	為內可得何以故於內可得外處所	所生起當知是名田事處故善法強	顯無諸作用是名過去諸法差別此	於四大種假名施設澀滑等性是故
趙城	隨	樂受	識	應得未	憎	融消	慳	趣	用	澀
初雕	通	心樂	藏	得未	憎	融消	何	起	用	澀
再雕	隨	樂受	識	應得未	憎	融消	何	起	用	澀
비고	‘通’은 개보장의 고, 자 이 고, 초 조 장 의 다 재 조 장 의 다 음				‘增’은 ‘憎’의 통용자임	‘消’는 ‘鎔’의 通用字임	趙城藏의 慳은 원인미상	趙城藏의 趣은 원인미상	초 조 장 의 誤刻	‘澀’은 ‘澀’과 同字임 ‘澀’이 大正藏엔 同字인 ‘澀’임.

<표 4> 『瑜伽師地論』 第20卷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類型	가							나	다	
項次	1	2	3	4	5	6	7	8	9	10
張 行 字	16 4 12	18 9 14	18 18 2	20 22 2	21 8 12-14	21 12 10	27 2 9,10	21 12 6-8	22 16 2	25 2 11
趙城	受	三	行	應	謂此證	道	諸	一切	以	妙
再雕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處	心	淨
房山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處	以	妙
福州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資福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磧砂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普寧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永南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徑山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清藏	樂	二	作	清	證此謂	過	諸隨	一切	以	妙
本文	那如是觀察熾然明淨所有愛樂當	名第四處觀察彼於如是四處以二	理作意乃得名為出家之想及沙門	己清淨不相應過患心生厭患於己	斷究竟涅槃名無怖處二能證此謂	生厭患當知雜染相應過患亦有二	增上力故於沈掉等諸隨煩惱心不遮	生无暇處三一切處生无常性彼觀己	故心生厭患即於此相多所作故心	復修習佛隨念等令心清淨又復安
비고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66과 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20의 관련성에 대하여

장경준(고려대)

1. 머리말

국립한글박물관에는 고려시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과 재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20이 소장되어 있다. 두 자료는 각각 고려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대장경의 판목으로 인출되어 서지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음은 물론이고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토를 단 석독구결이 기입되어 있어 국어사, 문자사, 불교사, 번역사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고려시대 석독구결(釋讀口訣)에서 한문에 다는 토(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자의 자형을 되도록 간략하게 한 구결자(口訣字)를 기본 단위로 한 자토(字吐)와 한자의 특정 위치에 점이나 선을 찍은 구결점(口訣點)을 기본 단위로 한 점토(點吐)가 그것이다. 자토가 달린 석독구결을 자토석독구결(字吐釋讀口訣)이라 부르고, 점토가 달린 석독구결을 점토석독구결(點吐釋讀口訣)이라 부른다.¹⁾

『유가사지론』 권66과 권20에는 각각 점토와 자토가 달려 있는데 이들은 문자론적, 표기법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이 두 자료를 모두 소장한 것은 동일한 경전을 대상으로 점토석독구결과 자토석독구결을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과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에 관한 데이터는 2018년 12월에 간행한 영인 자료집에²⁾ 실린 해제 “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點吐) 개관”에 제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고,³⁾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에 관한 데이터는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tot_2019_01)”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은 남풍헌 선생님의 발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본 발표의 청중 가운데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부분을 위주로 상세히 해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1) 석독구결임이 전제되어 있거나 석독구결인지 음독구결인지 여부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면 ‘자토구결’, ‘점토구결’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논의에 따라 ‘구결점’과 ‘점토’를 구분하지 않기도 하고, 점토구결을 ‘부호구결’ 또는 ‘부점구결’이라고도 한다.

2) 이 영인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권인한, 김성주, 문현수, 안대현, 이용, 장경준, 황선엽 선생님이 조사와 연구에 참여하였고, 실무 진행은 한글박물관 정내원 연구원이 맡았다.

3) 해제 원고를 넘긴 이후 잠정 판독 및 해독안을 수정하기도 하고 해제 원고의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데이터를 일부 수정하였다. 하지만 수정한 부분을 여기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기로 한다.

2. 『유가사지론』 권20의 구결자와 권66의 구결점

먼저 『유가사지론』 권20에 사용된 구결자의 사용 빈도, 바탕자 및 추정 독법을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유가사지론』 권20에 사용된 구결자

(총빈도 9,603)

번호	구결자	빈도	바탕자	추정독음	번호	구결자	빈도	바탕자	추정독음
1	ㄴ	1192	爲	ㅎ	27	ㄴ	80	在	겨
2	ㄷ	1027	隱	ㄴ/은	28	ㄷ	78	古	고
3	ㄷ	815	乙	ㄷ/을	29	ㄷ	78	斗	두
4	ㄷ	625	良	아	30	ㄷ	71	音	ㄷ/음
5	ㄷ	585	乎	호/오	31	ㄷ	66	知	디
6	ㄷ	500	叱	ㅅ	32	ㄷ	52	兮	히
7	ㄷ	459	是/利	이	33	ㄷ	36	冬	들
8	ㄷ	407	中	ㄷ	34	ㄷ	32	斤	근
9	ㄷ	363	尸	ㄷ/을	35	ㄷ	30	飛	느
10	ㄷ	294	入	ㄷ	36	ㄷ	27	去	거
11	ㄷ	293	彌	며	37	ㄷ	27	羅	라
12	ㄷ	287	之/多	다	38	ㄷ	26	矣	디
13	ㄷ	258	亦	여	39	ㄷ	21	乃	나
14	ㄷ	246	以	로	40	ㄷ	17	令	히
15	ㄷ	193	齊	저	41	ㄷ	11	臥	누
16	ㄷ	182	果	과	42	ㄷ	9	白	습
17	ㄷ	161	只	ㄷ/기	43	ㄷ	6	恨/良	훈/곤
18	ㄷ	150	沙	사/삼	44	ㄷ	5	示	시
19	ㄷ	147	利	리	45	ㄷ	3	刀	도
20	ㄷ	125	爾	곰	46	ㄷ	3	三	?(삼)
21	ㄷ	113	衣	의	47	ㄷ	2	奴	노
22	ㄷ	110	乎	오/호	48	ㄷ	2	ㄷ	마
23	ㄷ	110	支	?(디/히)	49	ㄷ	2	邑	?(디)
24	ㄷ	108	利	리	50	ㄷ	1	之	?(다)
25	ㄷ	85	丁	더	51	ㄷ	1	威	일
26	ㄷ	81	下	하	52	ㄷ	1	子	?(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가사지론』 권20에는 52가지의 구결자가 총 9,603번 쓰였다. 구결자는 한자를 바탕으로 삼아⁴⁾ ‘ㄷ[을], ㄷ[더], ㄷ[하]’처럼 자형이 간단한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ㄴ(在)[겨], ㄷ(以)[로], ㄷ(良)[아], ㄷ(令)[히]’처럼 자형이 복잡한 것은 획을 생략하거나 초서체의 일부를 딴 약체자를 이용하되 그 한자의 음이나 훈에 포함된 소리를 1음절 이내로 표시하는 표음문자의 성격을 지닌다. 일부 구결자는 ‘ㄷ:ㄷ[리], ㄷ:ㄷ[리]’처럼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면서 문법적으로는 사용 환경이 뚜렷이 구분되어⁵⁾ 사용자의 문법

4) 구결자의 ‘바탕자’는 논의에 따라 ‘본자(本字)’, ‘원자(原字)’, ‘정해체(正楷體)’라고도 한다.

5) 대체로 ‘ㄷ’은 조사의 표기에 쓰이고 ‘ㄷ’은 어미의 표기에 쓰였고, 의존명사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ㄷ’을 쓰고 의존명사를 포함할 때는 ‘ㄷ’을 사용한 경향이 있다.

의식이 문자에 반영된, 즉 단순한 표음문자의 차원을 넘어선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구결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구결자와 구결점의 밀접한 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며 구결점의 해독 결과를 구결자로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⁶⁾

이제 『유가사지론』 권66에 사용된 구결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자료에는 14종류의 형태를 지닌 구결점이 총 3,376번 쓰였다.

<표 2> 『유가사지론』 권66에 사용된 구결점 (총빈도 3,376)

명칭	형태	개별 명칭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점	●	단점	2697		79.86%	79.86%
선		사선	237	437	12.94%	92.80%
		역사선	79			
		수평선	118			
		수직선	3			
쌍점		사향쌍점	72	191	5.66%	98.46%
		역사향쌍점	81			
		수평쌍점	15			
		수직쌍점	23			
눈썹		역사향오눈썹	30	50	1.48%	99.94%
		역사향우눈썹	14			
		사향오눈썹	4			
		사향우눈썹	2			
느낌표		역사향느낌표	1		0.06%	100%

길이가 없는 점, 짧은 길이의 선 그리고 네 가지 방향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구결점의 형태는 기존 한자의 자형을 간략히 해서 만든 구결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간결하다.⁷⁾ 구결점의 형태별 사용 빈도는 단점이 약 80%, 네 종류의 선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두 점이 인접한 쌍점이나 점과 선이 인접한 눈썹, 느낌표는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점과 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결자는 다른 구결자와 구분되는 형태상의 특징을 갖추므로써 일정한 음가를 획득하는 일반적인 표음문자의 속성을 지니는 반면, 구결점은 형태를 갖추더라도 그것이 달릴 한자의 특정한 위치에 놓여야 비로소 자신의 음가가 정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⁸⁾ 이런

6) 앞서 예로 든 자토구결의 ‘ㄷ:ㅍ’ 대립은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에서 ‘34(·) : 15~21(-)’의 대립으로 정확히 반영된다. 그리고 ‘ㅍ:ㅅ’ 대립의 경우, 개별 구결점의 대립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 ‘24(\)’은 ‘호리’로 읽을 수 있는데 자토구결에서 ‘ㅍ:ㅅ’[호리]가 예상되는 환경에 쓰이고 ‘ㅍ:ㅍ’[호리]가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결점 ‘34(·), 15~21(-), 24(\)’의 해독 결과는 그에 대응하는 구결자인 ‘ㄷ, ㅍ, ㅍ:ㅅ’로 기록하는 것이 한글로 추정 음가를 기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구결점의 표시 방법은 각주 9) 참조.

7) 구결점이 지닌 형태 구성 요소의 단순 간결함은 15세기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자모의 그것과 비견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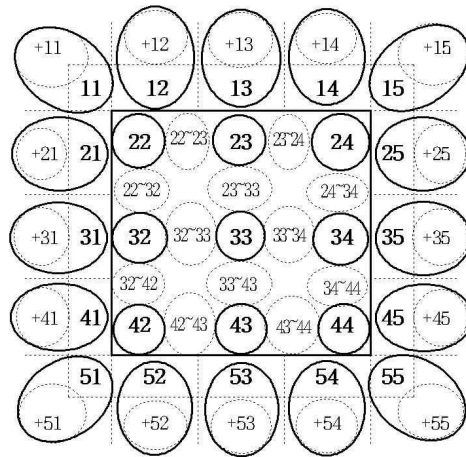
8) 구결점이 형태만으로는 어떤 소리를 나타낼 수 없고 형태에 위치 정보가 더해져야 비로소 구체적인 음가를 지니게 되는 것은, 직접 연관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훈민정음(해례)에서 개별 자모만으로는 안 되고 (초성, 중성, 종성의) 자모들이 서로 합해져야 비로소 소리(와 그것을 적는 글자)를 이룰 수

점에서 구결점은 표음문자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⁹⁾¹⁰⁾

구결점이 놓이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한자의 자형을 정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그 기준 사각형의 안팎을 균등하게 구분한 25곳으로 나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이 되고, 각각의 위치는 숫자를 조합하여 표시한다.¹¹⁾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 2>의 확장형처럼 변별 위치가 더욱 잘게 나누어진다. 기준 사각형 안쪽에서 기본형의 위치 사이에 새로운 위치가 설정되기도 하고, 기준 사각형 바깥쪽은 기본형의 위치 안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이 서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모든 형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¹²⁾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1> 구결점의 위치 구분 모형 - 기본형



<그림 2> 구결점의 위치 구분 모형 - 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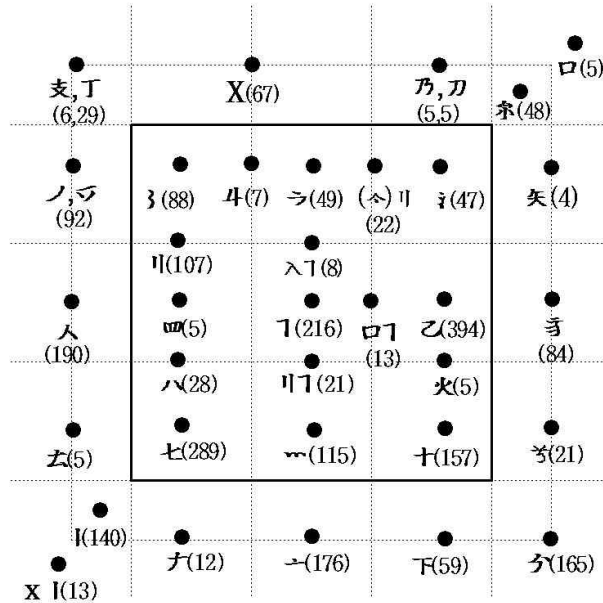
따라서 구결점의 해독 결과, 즉 어떤 구결점이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변별되는 구결점의 형태와 위치를 정확히 그림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해당 구결점의 음가를 기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그림을 점도(點圖)라 한다. 점도는 <그림 1> 내지 <그림 2>의 위치 구분 모형을 바탕으로 각 구결점의 해당 위치에¹³⁾ 형태를 표시하고 그것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는 대응 구결자(들)을 기록한다.¹⁴⁾ 구결점의 빈도는 해당 위치에

있다(‘凡字必合而成音’[예의]; ‘初中終三聲 合而成字’[합자해])고 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 9) 그래서 개별 구결자를 가리킬 때는 ‘ㄴ’처럼 그 형태만 보여 주면 되지만, 개별 구결점을 가리킬 때는 그것의 형태와 위치를 모두 표시해 주어야 한다. 현재 개별 구결점의 표시는 ‘위치정보(형태정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은 ‘11위치의 단점’을 뜻하고 ‘23~33(/)’은 ‘23와 33 사이 위치의 사선’을 뜻한다.
- 10) 이러한 속성을 지닌 문자 체계는 일본 훈점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오코토점(ヲコト点)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 11) 각 위치의 명칭은 ‘조합한 숫자의 한자음+위치’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11’로 표시한 곳은 ‘일일 위치’, ‘12’로 표시한 곳은 ‘일이 위치’로 부른다. 그리고 <그림 2>의 확장형에서 ‘+’는 ‘플러스’로, ‘~’는 ‘...와 ...의 사이’로 부른다. 예를 들어 ‘+11’로 표시한 곳은 ‘플러스 일일 위치’로 부르고, ‘11~12’로 표시한 곳은 ‘일일과 일이 사이 위치’로 부른다.
- 12) 점토구결 자료는 크게 『유가사지론』 계통과 『화엄경』 계통으로 나뉘는데, <그림 2>의 확장형과 같이 위치가 정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이다. 『화엄경』 계통의 변별 위치는 <그림 1>의 기본형으로 기술할 수 있다.
- 13) 점도에 표시되는 위치는 한자의 자형을 정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상적인 위치이고, 실제 현토되는 위치는 한자의 자형에 따라 대체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점도에 표시되는 위치를 ‘기준위치’라 하고 실제 관찰되는 위치를 ‘변이위치’라 하는데,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변이위치의 범위가 넓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를 치고 그 안에 숫자를 기입하여 표시하는데, 본고에서도 이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¹⁵⁾

먼저 단점의 추정 점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변별 위치의 구획이 기준 사각형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준 사각형 안쪽은 변별 위치가 매우 조밀하게 나뉘는 <그림 2>의 확장형이 적용되지만, 바깥쪽에서는 15와 51 위치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이 구분되고 나머지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그림 1>의 기본형에 더 가깝다.¹⁶⁾ 그리고 이런 모습은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다른 권차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유가사지론』 권66의 단점 점도

단점의 해독 결과, 즉 단점이 나타내는 음가는 모두 1음절 이내이고 대체로 하나의 구결자로 대응된다. 한가운데 있는 ‘1’[ㄴ]에 대응되는 33(·)에 인접한 23~33(·), 33~34(·), 33~43(·)은 각각 ‘1’을 포함하는 1음절의 ‘ㄴ 1’[든], ‘ㄴ 1’[곤], ‘ㄴ 1’[인]에 대응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1’을 포함하는 1음절의 구결점을 의도적으로 ‘1’과 인접한 위치에 배치한 것으로써 대응 구결자도 ‘1’을 포함한 두 글자로 표시되는데, 『유가사지론』 다른 권차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해독 결과 ‘X’로 표시된 12~13(·)은 대체로 일정한 환경에서 사용되고¹⁷⁾ 출현 빈도

14) 구결자 대신 ‘x’가 들어간 것은 그 자리에 어떤 구결자가 대응되는지 분명치 않음을 뜻하고, ‘(ㄴ/ㄴ)’로 표시된 것은 환경에 따라 ‘ㄴ’ 또는 ‘ㄴ’에 대응될 수 있음을 뜻한다.

15) 본고에서는 구결점의 빈도를 계산할 때 중복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판독안에서 ‘#’ 표시된 것과 ‘{ }’ 표시된 것은 제외하였다. ‘#’는 구결점의 위치나 형태가 둘 이상의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두 번째 이후의 해석 방안을 가리키고, ‘{ }’는 판독은 되지만 해독에 반영하기 어려운(즉 구결점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임을 가리킨다. 권66의 영인자료집에서 판독안에 ‘{ }’ 표시된 것은 사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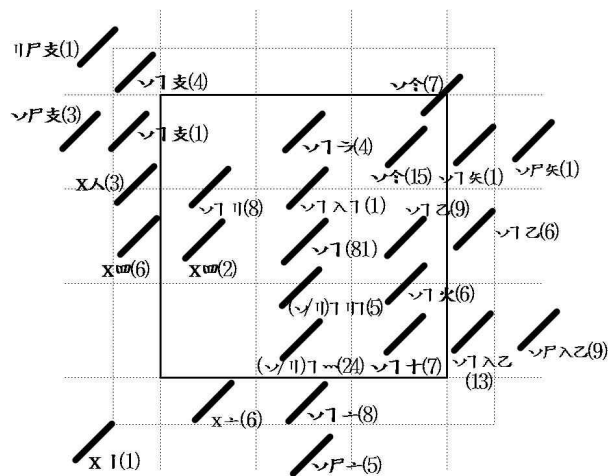
16) <그림 3>의 점도에서 실선으로 그은 기준 사각형의 바깥쪽에 가는 점선으로 그은 사각형은 해당 위치의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점의 위치가 그 경계선 위에 놓인 것은 해당 위치가 안쪽과 바깥쪽의 구분이 없음을 뜻한다. 또한 기준 사각형의 안쪽에 가는 점선으로 그어진 경계선 위에 놓인 단점은 기본형에서 숫자로 표시된 위치들 사이의 위치에 놓인 것임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 표시 방식은 <그림 4> 이하의 다른 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7) 12~13(·)의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ㄴ’[의]로 해독되는 23(·)이나 ‘ㄴ’[로]로 해독되는 43(·)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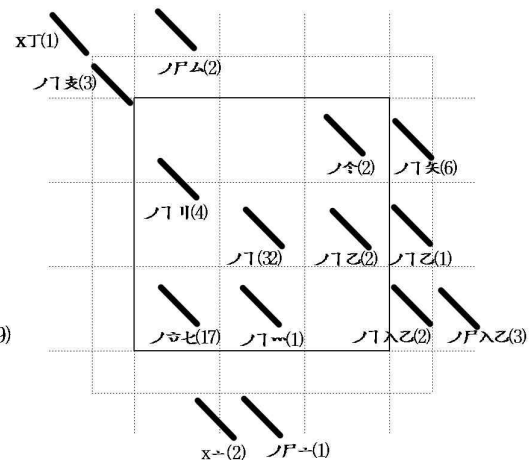
도 높은 편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나타내고 어떤 구결자로 대응시킬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유가사지론』 다른 권차에서 이것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권66의 연구 과정에서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던) 일정한 통사 단위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을 표시하는 부호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부호가 형태상으로 단점의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권66에서 단점 형태가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하는 부호로 사용된 특징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 12~13(·)이 구결점이 아니라 부호의 일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¹⁹⁾

단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결점 형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이 놓이는 위치의 단점의 음가를 포함한다는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도 1음절 이상인 경우가 많고 대응 구결자도 둘 이상이 기본이다.

단점 이외의 구결점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사선과 역사선의 점도는 다음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유가사지론』 권66의 사선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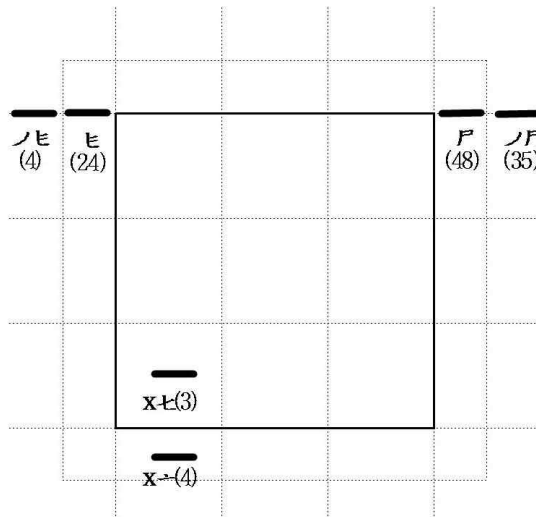


<그림 5> 『유가사지론』 권66의 역사선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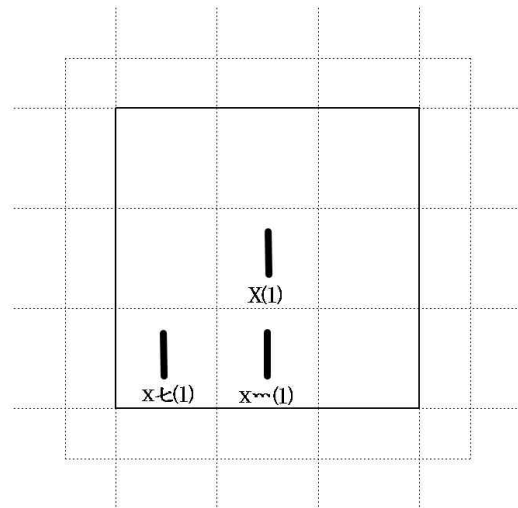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 이 부호에 대해서는 권인한 선생님의 발표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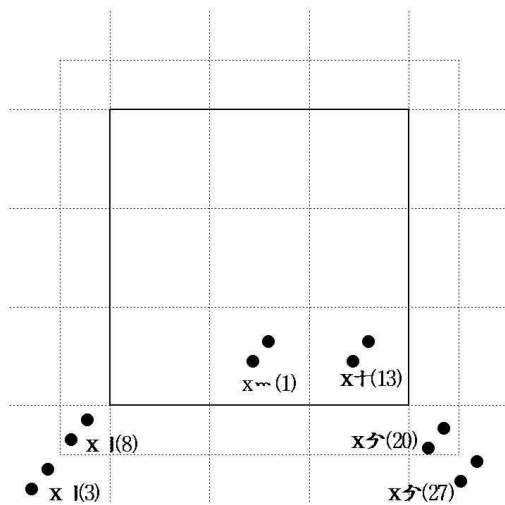
19) 12~13(-)에 대해서는 연구팀 세미나에서 황선엽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다. 앞으로 황 선생님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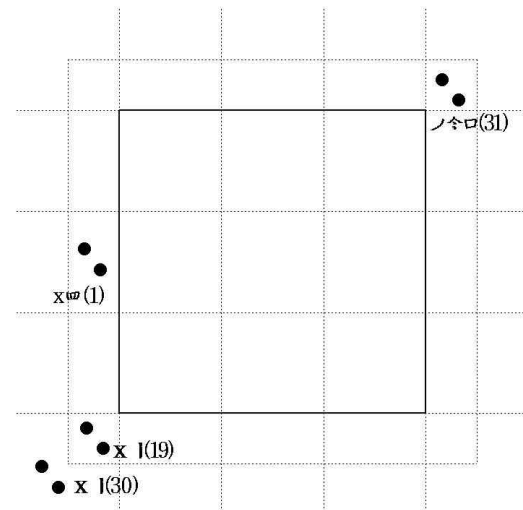
<그림 6> 『유가사지론』 권66의 수평선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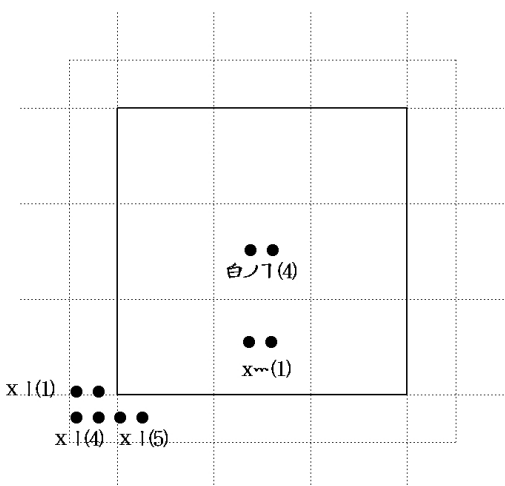
<그림 7> 『유가사지론』 권66의 수직선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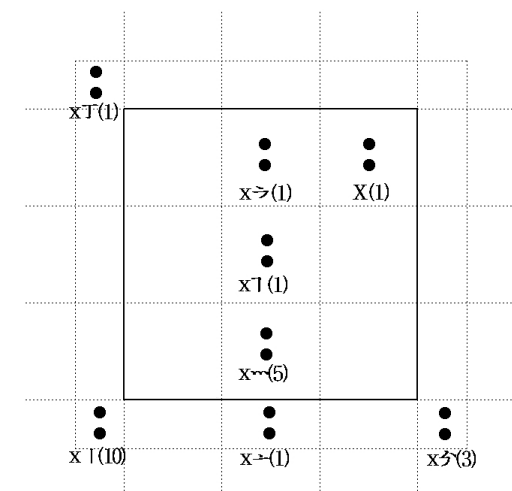
<그림 8> 『유가사지론』 권66의 사향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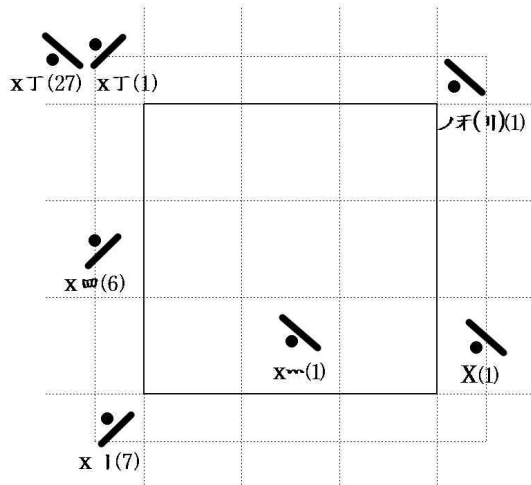
<그림 9> 『유가사지론』 권66의 역사향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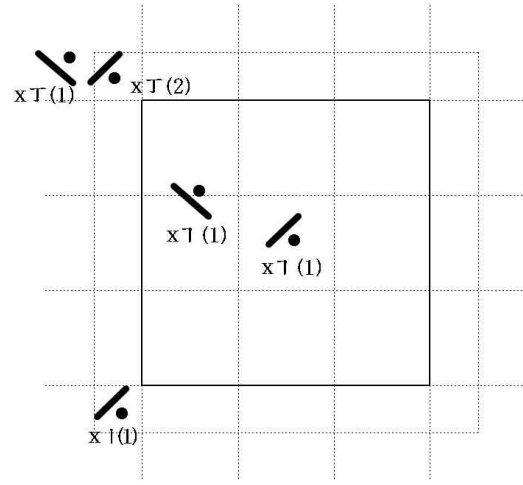
<그림 10> 『유가사지론』 권66의 수평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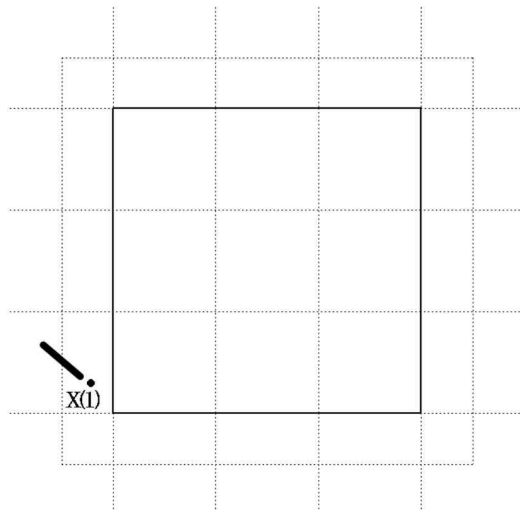
<그림 11> 『유가사지론』 권66의 수직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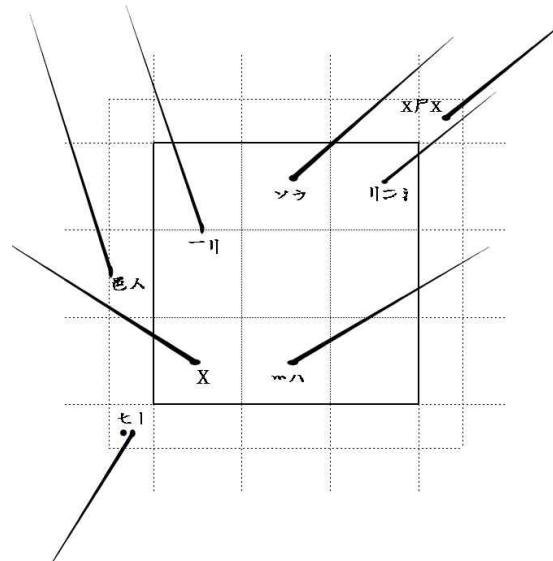
<그림 12> 『유가사지론』 권66의 눈썹 점도(1)



<그림 13> 『유가사지론』 권66의 눈썹 점도(2)



<그림 14> 『유가사지론』 권66의 눈썹 점도



<그림 15> 『유가사지론』 권3, 5, 8에 쓰인 빼침선

以下 <별지 참조>

『瑜伽師地論』卷66의 校正과 註釋 그리고 符號

권인한(성균관대)

<국문 초록>

本稿는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66에 나타난 校正과 註釋 및 各種 符號에 대한 紹介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2장에서는 校正과 註釋 資料들을 살핀 것이다. 먼저 墨書 校正과 音義 部分에서는 다른 初雕大藏經 資料들에서 볼 수 있었던 校正符 ‘卜’字號는 물론 以前의 資料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確認點 表示 ‘ㄱ’, 注意符 表示 ‘;’ 등 새로운 校正 關聯 墨書 符號들의 쓰임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欄外 小貼紙(=附箋)에 쓰여진 難解字의 音義들도 새롭게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11~12世紀代 韓國漢字音 研究에 寄與할 수 있다는 價値를 지닌 것으로 注目할 만하다. 다음으로 角筆 校正과 註釋 部分에서는 誤字 表示, 插入符, 欄下 意味注 등을 살필 수 있었다.

3장에서는 各種 角筆 符號들을 살핀 것이다. 먼저 點吐의 位置 關聯 符號로는 境界線·連結線이 쓰이는 대신 區分線·重複線·指示線은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텍스트 統辭構造의 理解를 돕는 符號로는 合符·逆讀線·段落符·시작 및 끝표시점이 쓰이는 대신 合符逆讀線·述目線·補充線·點圖線·削除線·口訣字·漢字·빠침선·不審紙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에서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은 連結線이 기존에는 『華嚴經』系統에서만 쓰이던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瑜伽師地論』자료에서의 쓰임이 觀察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區分線과 述目線이 逆讀線으로 收斂된다는 점에서 그 價値를 새롭게 照明할 必要가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精密 研究를 期待한다.

主題語: 『瑜伽師地論』 卷66, 墨書 校正과 音義, 角筆 校正과 註釋, 角筆 符號, 連結線, 逆讀線

1. 序言

이 글은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66에 나타난 校正과 註釋 및 各種 符號에 대한 紹介를 目的으로 한다. 『瑜伽師地論』 卷66은 2017년 2월 競賣에 出品될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하여¹⁾ 高麗時代의 角筆口訣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붉은 색 글씨[朱書]로 本文을 修正한 校正本으로서 史料의 價値를 더한다는 評價로써 注目받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筆者를 비롯한 研究팀²⁾에서 이 자료에 記入된 角筆 資料들을 檢討한 結果, 從前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符號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從前과는 差異나는 機能의 符號들도 있으며, 欄上이나 欄下에 角筆로 記入된 註釋까지 보임으로써 『瑜伽師地論』 卷66은 初雕本 중에서도 特別한 價

1) “최초대장경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케이옥션 경매 출품”, 연합뉴스 2017. 2. 9. 기사 참조.

2) 권인한(성균관대, 책임), 김성주(동국대), 문현수(고려대),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 이용(서울시립대), 장경준(고려대), 정내원(국립한글박물관), 황선엽(서울대) <가나다순>

値를 지니는 存在임을 알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念頭に 두고서 2장에서는 校正과 註釋 資料들을, 3장에서는 各種 角筆 符號들을 묶어서 說明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便宜上 從前에 發掘된 資料들에서의 쓰임을 綜合·整理한 아래 <표1>의 體系를 準用하여(장경준 2008: 310) 異同을 對比하고자 한다.

<表1>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의 種類

類型	一次 分類 基準	該當 符號	
Ⅰ	點吐의 位置를 分明하게 表示	境界線	
		區分線	
Ⅱ	同一한 點吐를 두 번 달았음을 表示	重複線	直線型
			複合型
Ⅲ	點吐를 달아야 할 漢字에 달지 않았음을 表示	指示線	
			
		連結線	內部型
			外部型
Ⅳ	텍스트의 統辭構造에 대한 理解를 도움	合符	內部型
			外部型
		逆讀線	
		合符逆讀線	
		述目線	
		補充線	
			
Ⅴ	漢文 原文이나 點吐의 校正 내지 註釋	點圖線	
		削除線	
		校正 符號	○
			人
		口訣字	
		漢字	
不明	아직 그 機能을 把握하지 못함	刪字선	
		不審紙	
		未詳	

2. 校正과 註釋

2.1. 墨書 校正과 音義

(1)15:01:05	(2)15:11:12	(3)14:23:04	(4)14:11:05

(1) 15張 1行 第5字「藏」字 右側에 墨書로 ‘人’ 모양의 校正符 ‘卜’字號³⁾가 表示되어 있고, 欄上에 「識」字가 墨書되어 있다. 이는 「藏」을 「識」字로 交替하라는 뜻이다. 또한 欄上 「識」字 右上에 朱書로 ‘ㄱ’ 表示가 되어 있는데, 이는 指示에 맞게 校正 完了⁴⁾했다는 意味의 確認點(=合點)으로 判斷된다. 實際 이 部分은 再雕大藏經에서 다음과 같이 校正되어 있음이 그 根據가 된다.⁵⁾ “復次如五識身相應地說……”(또 다음으로 五識身相應地에 있는 설명과 같이……).

3) 이 부호는 敦煌 文書들에서는 削除할 글자의 우측에 단독으로 쓰여 削除符의 機能으로 나타난다(管錫華 2001: 118). 日本에서도 비슷한 事例들을 본 적이 있다.

4) 따라서 이 符號는 漢字 「了」字의 草書體에서 派生된 것으로 보고 싶다. 일부 木簡이나 文書들에서는 ‘ㄴ, 3, 丿’의 形態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들도 「了」字의 草書體와 關聯이 깊은 것으로 判斷된다. 「了」字의

草書體: 등 參照.

5) 따라서 이 자료에 나타난 墨書 校正 및 音義들은 再雕大藏經의 制作 過程과 깊은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 1233년(再雕大藏經 板刻 始作) 以前의 12世紀末 頃의 資料로 보아야 할 것이다. 權仁瀚(2019, 곧 나오음) 참조.

(2) 15張 11行 第12字「彼」字 우측에 墨書로 校正符 ‘卜’字號가 표시되어 있고, 欄下에 「假」字가 墨書되어 있으며, 또한 「假」字 右上에 朱書로 ‘ㄱ’ 표시가 되어 있다. 이는 第12字 「彼」字를 欄下の 「假」字로 交替하라는 指示에 맞게 校正 完了했다는 意味이다. 實際 이 部分은 再雕大藏經에서 다음과 같이 校正되어 있음을 參照. “於彼假說澀滑性等, 種種差別.”(그 假定에서 澀滑性 등의 種種 差別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第11字 「彼」字 우측에는 朱書로 ‘;’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校正에 注意가 必要하다는 意味의 注意符로 볼 수 있다.⁶⁾ “彼彼” 두 글자가 重複되어 있으므로 자칫 校正에 錯誤가 일어날 수 있어서 注意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3) 14張 23行 第4字「蠟」字 우측에 朱書로 ‘;’ 표시가 되어 있고, 欄下の 小貼紙에 “一本 蠟盧盍、蜜一也”라는 音義가 달려 있다. 이는 「蠟」字가 다른 本에 「蠟」字로 되어 있음에 注意가 필요한데, 「蠟」字는 “盧盍、(=反)7)”의 音이며, 그 意味는 “蜜蠟”이라는 뜻이다. 또한 小貼紙 右上에 朱書로 ‘ㄱ’ 표시가 되어 있음은 이 지시에 맞게 교정 완료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 이 部分은 再雕大藏經에서 다음과 같이 교정되어 있음을 參照. “又如白蠟鉛錫金銀等物, 融消卽流.”(또 白蠟이니 鉛錫이니 金이니 銀이니 등의 物건을 融消하여 卽流케 하는 것과 같다.)

(4) 14張 11行 第5字「麴」字 우측에 角筆로 된 작은 圈點이 있고, 欄上 小貼紙에 “尺沼反”이라는 音注가 墨書되어 있는데, 이는 「麴」字의 音이 “尺沼反”임을 알려주고 있다. 「麴」字 우측의 角筆 小圈點은 이 音注를 參照하라는 의미일 것이다.⁸⁾ 또한 小貼紙 右下에 朱書로 ‘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음을 確認 내지 了解했다는 意味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 角筆 校正과 註釋

(1) 校正符

①05:01:08通  [339], “○”]

6) 이를 ‘注意符’로 命名할 수 있을 것이다. 東大寺圖書館藏『大方廣佛華嚴經』卷12~20에는 ‘|’ 표시의 角筆符號로 나타나는데, 小林方規 先生은 이를 注視符로 명명하고 있음을 참조.

7) ‘反’은 고려시대 자료들에서 「反」字의 生劃字로 쓰인다. 權仁瀚(2018), p.(4)~(5) 참조. 한편, 중국의 운서들 중에서 “蠟: 盧盍反 蜜一也”의 音義를 보이는 것은 『龍龕手鑑』이 거의 唯一하므로(臺灣 教育部 異體字字典 사이트 參照) 이는 그만큼 12世紀 末葉의 高麗 社會에 『龍龕手鑑』(高麗本)의 普及·利用이 폭넓었음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다.

8) 이 小貼紙는 紙質이나 書體面에서 (3)에서의 것과 區分되어야 할 것인 바, 角筆 圈點과 直接 關聯시켜 解釋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4)에서의 音注는 11世紀代 漢字音 資料로 判斷하고 있다. 역시 權仁瀚(2019, 곧 나옴) 참조.

9) 點圖상의 位置 略號로 그 具體의인 座標는 다음과 같다. 이하 같음.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5張 1行 第8字「通」字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자 中央에 角筆로 記入된 大圈點이 있는데, 이 부분은 再雕大藏經에서 “……乃至愚夫嬰兒等類, 亦能隨覺; 非所餘法.”(…… 愚夫나 嬰兒 등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능히 좇아 깨닫지만, 남은 바 법은 그렇지 않으며)<瑜伽 66 04:22-05:01>로 校正되어 있으므로, 「通」字 근처에서 「隨」字의 痕迹을 찾기 어렵지만(이는 松津에 의한 毀損 때문으로 보인다) 「通」을 「隨」字로 校正하라는 意味의 角筆 校正符(또는 誤字 表示)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②08:12:04即 [51, “○”]

또 하나의 校正符 事例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張 12行 第4字「即」字의 左下에 小圈點이 있는바, 이 부분도 再雕大藏經에서 “是(故)當知即此受於彼名異熟生 廣大喜(樂所攝受)故”(이런 까닭으로 반드시 알아라. 곧 이 受를 거기에서 일컬어 異熟生이라 하는 줄을. 널리 크게 喜樂의 攝受할 바이기 때문이다.)<瑜伽66 08:11-13>로 校正되어 있으므로 이 小圈點도 「即」字와 「受」字 사이에 「此」字를 補入하라는 校正符로 보아야 함이 分明하다. 이 경우도 周邊 어디엔가 角筆로 「此」字를 써넣었을 것으로 豫想되나 역시 欄上이 毀損되어 있어서 確認은 어렵다.



(2) 註釋: 05:18:欄下 [角筆 “有二/宴也”]

5張 18行 欄下에 角筆로 記入되어 있는 “宴也”는 本文에서의 “歡喜”와 關聯된 意味註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宴」字에 “喜樂; 歡樂”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漢語大詞典』 참조). 이 밖에도 이 자료 곳곳에 欄下 角筆 註釋으로 推定되는 예들이 있으나,¹⁰⁾ 그 正確한 意味把握은 어렵다. 앞으로의 精密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角筆 符號

3.1. 點吐의 位置 關聯 符號

(1) 境界線

이는 點吐의 位置 基準이 되는 四角形의 네 邊 또는 그 一部를 表示하기 위해 그은 것이다(장경준 2008: 311). 이 資料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예가 보이는데, 境界線의 모양은 水平線을 基本으로 하면서 必要에 따라 “ㄴ” 모양의 선도 보인다.

10) 09:08:欄下[角筆 “下入田マ(?)也”, 14:11:欄下[角筆 “節”]<앞선 (4)의 사진 참조> 등.

- ①  (02:19:05), ②  (04:08:01), ③  (06:05:08),
 ④  (互 13:10:12), ⑤  (14:20:06), ⑥  (17:19:13), ⑦  (19:21:10)

위에서 보듯이 漢字의 罒[形]이 正四角形이 아니거나 一部 劃의 特異性으로 인해서 點의 位置 判讀에 어려움이 있을 念慮가 豫想될 境遇에 境界線을 그어 該當 點의 位置를 分明하게 指定하는 機能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①은 「貪」字 上部에 水平線을 그음으로써 여기에 찍힌 點이 '12' 位置임을 分明히 한 것이다.

(2) 區分線, 重複線, 指示線: 事例 未見.

(3) 連結線

이는 指示線과 함께 어떤 點吐가 原則적으로 달려야 하는 漢字에 달리지 못하고 그 위나 아래의 漢字에 달렸음을 表示하기 위해 그은 것이다(장경준 2008: 313-314). 이 자료에서는 “有一”, “或一”, “種子”, “當行” 등의 예에서 아랫 글자에 달아야 할 點吐를 그 위 글자에 달았음을 表示하는 內部 垂直線 또는 그에 類似한 형태로만 나타난다.

- ①  09:01:02~03有一 [連結線] ※09:05:14~09:06:01, 09:07:10~11, 17:19:06~07, 18:05:08~09의 “有一”도 同一함.

- ②  14:08:03~04種子 [連結線] ※14:04:02~03, 14:04:14~14:05:01, 14:08:03~04의 “種子”도 同一함.

- ③  17:18:10~11或一 [連結線]

- ④  18:22:04~05當行 [連結線]

이 符號는 既存의 研究들에서는 주로 『華嚴經』 系統에만 쓰였던 것으로 報告되었음에 비하여 『瑜伽師地論』에도 使用例가 나타난 것이어서 그 價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2. 텍스트(Text) 統辭構造의 理解를 돕는 符號

(1) 合符

이는 둘 이상의 漢字가 하나로 묶이는 單位임을 表示하기 위해 그은 것이다(장경준 2008: 316). 이 資料에는 內部 垂直線 4字 合符例만 나타난다.



①04:11:09~12因緣和合

[4자합부]



②06:02:04~07安隱熟變

[4자합부]

(2) 逆讀線

이는 어떤 文章 成分이 語順上 나중에 읽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 그은 것이다(장경준 2008: 317). 여기에서는 나중에 읽는 글자 下部에 그은 水平線의 形態로만 나타난다.



①02:14:12生

[逆讀線(水平)]

※(不隨所)欲觸衆苦事 便生/種種(愁惱怨歎乃至)迷亂(하고 자 하는 바대로 못하므로 衆苦의 일을 접촉하여 곧 갖가지 愁惱, 怨歎 내지 迷亂이라 하는 것을 生하는지라)<瑜伽66 02:14-15>



②02:20:03生

[逆讀線(水平)]

※[生/不捨思]起不捨行(不捨의 思를 生하고 不捨의 行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瑜伽66 02:20>



③03:02:12觀

[逆讀線(水平)]

※若能如實[觀/無常(性)]漸次能斷)一切顛倒(만약 능히 실상과 같이 無常性을 觀하면 점차 능히 일체의 顛倒라 하는 것을 끊는다.)<瑜伽66 03:02~03>



④03:19:02知

[逆讀線(水平)]

※又令[了知/苦諦麤相以爲依止 漸能趣入諦微細相](또 苦諦의 麤相을 이로써 의지 삼아 점차 능히 諦의 미세한 相에 趣入하는 줄을 분명히 알게 한다.)<瑜伽66 03:18-20>



⑤04:09:04有

[逆讀線(水平)]

※由諸行生 方得(有住 [無]有/無生而有住者)(諸行이 生하는 것을 말미암음이 비로소 능히 '住함 있음'이며, 生이 없는 데에는 住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瑜伽66 04:08-09>



⑥05:05:11修

[逆讀線(水平)]

※又此諸食令易入道 能[修/身等四(種念住)](또 이 諸食은 쉽게 入道하여서는 능히 身과 같은 四種念住를 닦게 하니)<瑜伽66 05:05-06>



⑦05:21:09有

[逆讀線(水平)]



05:21:13能

[逆讀線(水平)]



05:22:01養

[逆讀線(水平)] ※若[有/熟變][不能/[長養/諸根]安樂]。(만약 熟變함이 있어서 능히 諸根을 長養하여서 安樂하게 하지 못한다면)<瑜伽66 05:22-23>



⑧13:08:13有

[逆讀線(水平)]

※[若有/外色能饒益者] 現前觸對 有執受色 即便生樂安隱饒益(혹 바깥 물질이 능히 饒益이 있어 現前觸對할 때는 執受가 있는 물질이 곧 바로 즐거움을 내어 安隱하고 饒益하며)<瑜伽66 13:08~09> 등.

(3) 合符逆讀線, 補充線, 述目線: 事例 未見.

(4) 段落符: 이는 既存 角筆資料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符號로서 段落의 始作 部分을 表示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를 聲點인 것으로 誤解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事實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구팀의 오랜 討論을 거쳐 “段落符”로 命名하였으나 앞으로 좀더 適切한 名稱이 있다면 修正될 餘地는 있다.

段落符는 圈點의 位置에 따라 두 種類로 나눌 수 있다.

①段落符1: 漢字의 右上(15) 附近에 位置하며 大體로 大段落의 始作이나 結論部 始作 部分을 表示하는 機能이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 ①01:10:13 又  [段落符1(+15, “○”),
- ②03:03:10 如  [段落符1(15, “○”),
- ③03:07:01 復  [段落符1(15~25, “○”),
- ④03:10:01 復  [段落符1(15~25, “○”),
- ⑤04:01:07 若  [段落符1(15~25, “⊖”),
- ⑥04:06:01 問  [段落符1(15~25, “⊖”),
- ⑦05:08:05 何  [段落符1(15, “○”),
- ⑧05:14:01 復  [段落符1(15, “⊖”),
- ⑨06:03:06 若  [段落符1(15, “○”),
- ⑩06:18:10 於  [段落符1(15“○”) 등.

②段落符2: 漢字의 上中(13) 附近에 位置하며 대체로 大段落 속 小段落의 始作 部分을 表示하는 機能이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 ①01:19:04 如  [段落符2(13, “○”),
- ②02:08:05 又  [段落符2(13, “○”),
- ③02:13:09 又  [段落符2(13#14, “○”),
- ④02:17:09 又  [段落符2(13#14, “○”),

- ⑤02:18:11於  [段落符2(13,“○”),
⑥02:20:11是  [段落符2(13,“○”),
⑦02:22:11依  [段落符2(13,“○”),
⑧03:08:09世  [段落符2(13,“○”),
⑨03:18:13又  [段落符2(13,“○”),
⑩04:22:10又  [段落符2(13,“○”),
⑪05:06:13是  [段落符2(13,“○”),
⑫05:15:04由  [段落符2(13,“⊕”),
⑬05:16:10色  [段落符2(13,“○”),
⑭05:21:08若  [段落符2(13,“○”),
⑮05:22:14若  [段落符2(13,“○”),
⑯06:01:14即  [段落符2(13,“○”)] 등.

위에서 말한 두 段落符 사이의 機能 差異에 대해서는 아래의 科斷表를 통하여 確認할 수 있다. 덧붙여 圈點에 있어서 “○”, “⊖”, “⊕”의 差異는 없는 듯하다.

(12) 證涅槃辨		又出世法，聖道所攝，能證涅槃；彼證涅槃，由引發因故，名有因法。
◎由如是等所說諸相，當知建立有因諸法。		
2、有果法		
(1) 別辨		
A、等流果	復次，此中能生生起因法，彼由各別等流果故，名有果法。	
B、異熟果	若諸後有業及煩惱，彼由各(665c)別異熟果故，名有果法。	
C、增上果	若有三處正現在前，若濕和合正現在前，若卵輒藏，若眼色等，若彼俱生諸心心所，若近惡友等若近善友等二種三法 ²⁵ 。如是一切皆由各別增上果故，名有果法。	
D、士用果	若現法中由染污住，生邪精進，無果劬勞，生憂苦住；若現法中不染污住，生正精進，有果劬勞，生喜樂住；如是一切，皆由各別士用果故，名有果法。	
E、離繫果	若趣世間離欲生道，彼由離繫增上果故，名有果法。又能引出世間之道，及能證涅槃出世聖道，彼由離繫增上果故，名有果法。謂由究竟離繫果故，名有果法。若世間道，非由究竟離繫果故，名有果法。當知是名二道差別。	
(2) 小結		
由如是等所說相故，當知建立有果諸法差別之相：謂隨所應立等流果、若異熟果、若增上果、若士用果、若離繫果。		
(二) 反顯無因果法		
與此相違，應知建立非有因法，非有果法。		
十六、緣生法		
復次，緣生法者：謂無主宰、無作者法。如前<意地>決擇緣起善巧中，已廣分別。		
十七、內法		
(一) 標列		
復次，略由五因，當知建立內法差別，由此因故，說名為內。何等為五？謂假名故、妄執故、增上故、攝受種子故、事故。		

(5) 始作點과 終了點¹¹⁾

이 符號들도 이 자료에 처음 보이는 것이다. 주로 漢字의 左上(21) 附近에 點을 찍어 敍述語 “有, 由, 生, 了, 當” 등에 呼應되는 主語句나 目的語句의 끝을 表示해주는 機能인 듯하다. 松津에 의한 毀損 部分이 많아 始作點 또는 終了點만 있고 相應하는 點이 없는 예들도 보인다.

①01:18:09有  [始作點(+21#+11~21,“.”)] ~ 01:18:13苦  [終了點(+21“.”)] ※若二俱離於此熱癰亦時唯[有癰自性苦]分明顯現(만약 두 가지 모두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이 열나는腫氣에서 그 때는 오직 腫氣의 自性苦가 있어 분명히 드러나는 것과 같이)<瑜伽66 01:17-19>

②03:19:01了  [始作點(+21,“.”)] ~ 03:20:04相  [終了點(11,“.”)] ※又令[了知苦諦麤相以爲依止 漸能趣入諦微細相](또 苦諦의 麤相을 이로써 의지 삼아 점차 능히 諦의 미세한 相에 趣入하는 줄을 분명히 알게 한다.)<瑜伽66 03:18-20>

11) 연구팀에서는 이 符號의 名稱을 “시작표시점”과 “끝표시점”으로 하기로 한 바 있으나, 다른 符號들과의 均衡을 위하여 이와 같이 漢字語로 바꾼 것임을 밝혀둔다.

③04:04:05由  [始作點(+21,“.”)] ~ 04:04:12情  [終了點(+21,“.”)] ※[由於諸行假立有情](諸行에서 有情을 假立한 것을 말미암아)<瑜伽66 04:04>

④04:06:02有  [始作點(+21,“.”)] ~ 04:06:13壞  [終了點(+21,“.”)] ※問: [有七因緣 任持諸行令住不壞](문기를, 일곱 인연이 諸行을 任持하여 住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 <瑜伽66 04:06>

⑤04:17:05由  [시작표시점(+21#+11~21,“.”)] ~ 04:19:06緣  [끝표시점(+21,“.”)]; ※[由此能令諸行生時、無障因緣。諸行生已、相似相續而住、遠離(相違)敗壞因緣]; 若不爾者, 便應滅壞。(이는 능히 諸行이 生하는 때에 장애없는 인연이 諸行을 生하기를 이미 하여서는 서로 비슷하게 계속 住하게 하여 서로 어기거나 무너뜨리는 인연을 멀리 여의게 함을 말미암은 까닭에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곧 滅壞할 것이다.) <瑜伽66 04:17-19>

⑥03:02:12觀  [始作點(11~21,“.”)] ※終了點 ×

⑦05:05:11修  [始作點(21,“.”)] ※終了點 ×

⑧02:07:04倒  [終了點(+11~21,“.”)] ※始作點 ×

⑨02:13:08苦  [終了點(+21,“.”)] ※始作點 ×

⑩02:20:06思  [終了點(+21,“.”)] ※始作點 × 등.

이 밖에 <표1>에서 “V” 및 “不明”으로 分類된 點圖線, 削除線, 校正符, 口訣字, 漢字, 刪침선, 不審紙 등의 角筆 事例는 이 資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校正符는 앞서 墨書 校正符에서의 “卜”字號와 角筆 校正符의 圈點 事例를 본 것이 있을 뿐이다.

4. 結言

이 글은 初雕大藏經『瑜伽師地論』卷66에 나타난 校正과 註釋 및 各種 符號에 대한 紹介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2장에서는 校正과 註釋 關聯 資料들을 살핀 것이다. 먼저 墨書 校正과 音義 部分에서는 다른 初雕大藏經들에서 볼 수 있었던 校正符 ‘卜’字號는 물론 以前의 資料들에서 볼 수 없었던 確認點(=合點) ‘ㄱ’, 注意符 ‘;’ 등 校正 關聯 墨書 符號들의 쓰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欄外 小貼紙에 難解字의 音義 資料도 새롭게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11~12世紀代 漢字音 研究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價値를 지닌 것들로 注目할 만하다. 다음으로 角筆 校正과 註釋에서는 圈點 校正符 및 欄下 意味註 등을 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各種 角筆 符號들을 살핀 것이다. 먼저 點吐의 位置 關聯 符號로는 境界線·連結線이 쓰이는 대신 區分線·重複線·指示線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텍스트 統辭構造의 理解를 돕는 符號로는 合符·逆讀線·段落符·始作 및 終了點이 쓰이는 대신 合

符逆讀線·述目線·補充線·點圖線·削除線·口訣字·漢字·배침선·不審紙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에서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은 連結線이 既存에는 『華嚴經』系統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報告되었던 것인데, 『瑜伽師地論』資料에서 처음으로 쓰였다는 점, 區分線과 述目線이 逆讀線으로 收斂된다는 점, 그리고 以前의 資料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段落符, 始作點·終了點이 처음 보였다는 점에서 그 價値를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權仁瀚(2018), 「中世韓國漢字音の研究(Ⅰ)-祇林寺本 『慈悲道場懺法』 卷4の音注を中心に-」, 『朝鮮學報』 247, pp.(1)-(17).

(2018), 「『유가사지론』 권66의 교정과 주석, 부호 개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각필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pp.104-119.

(2019), 「古代 韓國漢字音의 研究(Ⅱ)-11~12世紀代 高麗時代의 音注 資料를 중심으로-」, (곧 나옴)

안대현(2018),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의 서지적 특징」,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각필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pp.60-73.

이 용(2018), 「각필석독구결의 개괄과 소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각필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pp.28-45.

장경준(2008), 「고려초기 점토구결의 제부호」, 『한국어학』 40, pp.307-339.

管錫華(2001), 『中國古代標點符號發展史』, 成都: 巴蜀書社.

<초청 발표>

平安時代漢字字書總合データベースの公開に向けて (헤이안 시대 漢字 字書 종합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앞두고)

池田証壽(이케다 쇼주, 北海道大學)

【요지】 헤이안 시대 漢字字書 종합데이터베이스 (약칭 HDIC)은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네 종류의 漢字字書 全文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것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고 일본 고사전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수록 대상은 高山寺本 『篆隸萬象名義』, 天治本 『新撰字鏡』, 圖書寮本 『類聚名義抄』,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이다. HDIC의 특색으로는 Unicode 기반으로 표제자와 注文을 모두 전자 텍스트화한 점, 모든 표제자를 이미지로 보여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소장자의 승락을 받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진행한 점을 들 수 있다. 2019년부터 4년 계획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방대한 일본어 훈이 수록되어 있어 가장 중요도가 높은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 대해서 본문 교정과 주석 작성을 추진한다. 본고에서는 그 개요를 보고한다.
【Key words】 篆隸萬象名義, 新撰字鏡, 類聚名義抄, 玉篇, Unicode

1. 前言

헤이안 시대 漢字字書 종합데이터베이스(약칭 HDIC)는 일본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네 종류의 漢字字書의 全文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일본 고사전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2019년 4월부터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4년 계획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본문교정과 주석작성을 추진한다.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는 방대한 일본어 훈이 실려 있어 가장 중요한 일본 고사전으로 일컬어진다.

HDIC 프로젝트의 개요는 2016년 10월에 개최된 구결학회 2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얻은 바 있어 池田(2017)로서 구결연구에 게재된 바 있다. 연구 배경과 경위를 살펴본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과 경위

전통적인 국어학(일본어학) 연구에서 한문 고사전은 字音, 字義, 字體, 일본어 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고사본의 특성상 難字와 僻字가 많기 때문에 이제껏 全文을 교정하여 출판되지는 못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을 크게 바꾼 것은 중국 연구자에 의한 성과로, 2007년에 上海 學林出版社에서 출판된 『篆隸萬象名義校釋』(呂2007)이었다. 『篆隸萬象名義』의 전문을 번각하여 校釋을 덧붙인 책이다. 이듬해 2008년에는 華東師範大學出版社에서 『中古漢字流變』(臧2008)이 출간되었다. 『說文解字』, 原本 『玉篇』, 宋本 『玉篇』, 『篆隸萬象名義』를 대조하였다. 발표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篆隸萬象名義』를 텍스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에 매진해 왔으나 『篆隸萬象名義校釋』의 출판은 충격이었다. 그리하여 구상을 새로이 하여 『篆隸萬象名義』뿐만 아니라 天治本 『新撰字鏡』, 圖書寮本 『類聚名義抄』,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를 포함한 네 종류 사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헤이안 시대 漢字字書 종합데이터베이스」

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발전시켰다.

근래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진보로 한자 고문헌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수월해졌다. 그러나 고사전은 분량이 방대한데다 고사본의 특징상 판독의 난이도가 높다. 일본 고사전의 전자화 텍스트 작성이 어려운 것은 일본 고사전의 토대가 되었던 중국 고사전의 전자화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 고사전의 전자화 텍스트 작성과 함께 중국 고사전 전자화 텍스트 작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宋本『玉篇』의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였다.(2015년 10월 공개) 그 후 2016년 9월에는『篆隸萬象名義』의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2018년 6월에는『新撰字鏡』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類聚名義抄』(觀智院本·圖書寮本)의 공개를 준비중에 있다. 觀智院本『類聚名義抄』는 일본어 훈을 풍부하게 수록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인정되는데 그 일본어 훈 가운데에는 일본의 훈점자료에 쓰인 한문훈독어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의 훈점자료와 한국의 구결자료를 비교대조함에 있어서도 크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HDIC 프로젝트의 개요와 과제, 데이터베이스 공개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HDIC의 개요는 이제까지 池田(2014, 2016, 2017, 2018a, 2018b)에서 거듭 서술하였던 터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점 너른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본고에서 「사전」이라 함은 字書, 韻書, 類書, 音義, 字樣書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단순히 「字書」라고 일컬었을 때에는 部首分類體 字書を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3. 수록 字書

3.1 헤이안 시대의 주요 字書 4종

高山寺本『篆隸萬象名義』는 弘法大師 空海가 찬술한 것으로, 827-835년 무렵에 성립하였으며 原本『玉篇』을 간추려 만든 字書이다.

天治本『新撰字鏡』은 昌住가 찬술하였으며 898-901년 무렵 성립하였고 宮內廳 書陵部가 소장하고 있다. 玄應의『一切經音義』, 顧野王之 原本『玉篇』,『切韻』을 주요 출전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전이다. 만요가나(萬葉假名)로 적은 일본어 훈을 수록하고 있어 일본어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圖書寮本『類聚名義抄』(편찬자 미상)는 1100년 전후에 성립하였고 宮內廳 書陵部가 소장하고 있다. 출전 주기가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原撰本 계통으로 일컬어진다. 慈恩의『法華音訓』, 弘法大師 空海의『篆隸萬象名義』, 玄應의『一切經音義』, 中算의『法華經釋文』, 眞興의『大般若經音訓』, 顧野王之『玉篇』, 스가와라노 고레요시(菅原是善)의『東宮切韻』, 미나모토노 시타고(源順)의『倭名類聚抄』에 의거한 한문주(音注, 意義注, 字體注 등)가 주요 전거이다.『詩經』,『史記』,『文選』 등의 훈점본에서 채록한 가타카나(片假名) 표기 일본어 훈은 한문훈독어 연구에서 중요시된다.

觀智院本『類聚名義抄』(편찬자 미상)는 12세기 후반에 성립하였고 天理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다. 原撰本에 있던 출전주기를 생략하고 불교 어휘를 삭제하였으며 가타카나 표기 일본어 훈을 대폭 증보하였다. 改編本 계통으로 일컬어진다.

高山寺本『篆隸萬象名義』와 觀智院本『類聚名義抄』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天治本『新撰字鏡』과 圖書寮本『類聚名義抄』는 宮內廳 書陵部가 소장하고 있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지정대

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보에 필적하는 가치를 지닌다.

이상 네 종류 사전에 대해서 모든 본문 입력이 완료되어 현재 점검과 교정을 진행 중이다. 수록된 글자수를 대략 헤아리면 다음과 같다. 高山寺本 『篆隸萬象名義』는 약 16,000개 표제자에 약 120,000자 注文이 실려 있다. 天治本 『新撰字鏡』은 약 20,000개 표제항목, 약 24,000개 표제자에 약 190,000자 注文을 싣고 있다. 圖書寮本 『類聚名義抄』는 약 3,600개 표제항목, 약 7,070개 표제자에 약 130,000자 注文을 포함한다.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는 약 32,000개 표제항목, 약 42,000 표제자에 약 310,000자 注文이 실려 있다.

3.2 중국사전

그밖에 중국사전으로 原本 『玉篇』(梁·顧野王, 543年, 卷八·九·十八·十九·二十二·二十四·二十七存), 宋本 『玉篇』(『大廣益會玉篇』, 宋·陳彭年, 1013年, 澤存堂本), 高麗本 『龍龕手鏡』(遼·行均, 997年)을 수록할 계획이다. 宋本 『玉篇』은 약 22,800개 표제자에 약 183,400자 注文이 실려 있고 공개 중이다. 原本 『玉篇』은 2,087개 표제자에 약 88,000자 注文을 갖는다. 高麗本 『龍龕手鏡』은 입력진행중으로 이것은 특히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본문해독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切韻系 韻書는 ‘한자 데이터베이스(漢字データベース)’(川幡太一)에서 공개한 『廣韻』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切韻』 殘卷은 ‘『切韻』諸本輯覽’(大阪大學·鈴木慎吾)이 편리하다.

3.3 분담

입력작업은 北海道大學의 대학원생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高山寺本 『篆隸萬象名義』와 天治本 『新撰字鏡』에 있어서는 李媛(현재 京都大學 人文科学研究所·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 圖書寮本 『類聚名義抄』에 있어서는 申雄哲(현재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이 각각 크게 진력해 왔다.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는 발표자(池田)가 단독으로 全文 입력을 완성하였다.

4. 특색

4.1 오픈 사이언스

HDIC은 오픈 사이언스를 지향한다. 그 특색으로는 Unicode를 기반으로 표제자와 注文 모두에 대한 전자화 텍스트를 작성한 점, 모든 표제자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소장자의 허가를 얻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이상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4.2 Unicode 대응상황

Unicode(CJK통합한자 및 확장한자A-D 합계 74,605자)로 처리할 수 있는 표제자 내역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2017년 3월 全文 입력완료시).

<표> HDIC 데이터베이스 처리 현황(池田2018b)

漢字字書	Unicode	IDS	其他	合計
篆隸萬象名義	15,872	80	48	16,001

高山寺本	(99.2%)	(0.5%)	(0.3%)	(100%)
新撰字鏡	21,408	1512	1080	24,000
天治本	(89.2%)	(6.3%)	(4.5%)	(100%)
類聚名義抄	7,036	25	10	7,071
圖書寮本	(99.5%)	(0.4%)	(0.1%)	(100%)
類聚名義抄	34,213	7,817	271	42,331
觀智院本	(80.8%)	(18.5%)	(0.7%)	(100%)

위 표의 IDS는 한자모양설명문자(Ideographic Description Sequence)로 처리한 것이다. 가령 ‘語’를 ‘言語’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天治本 『新撰字鏡』과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서 해당하는 예가 많다. IDS로 기입된 용례 가운데 天治本 『新撰字鏡』과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서 공통되는 것은 145자에 이른다. 다음 예(1)과 (2)의 ‘孝鳥’와 ‘為鳥’는 Unicode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이다.

예(1)

- 孝鳥 字豆良。(天治本 『新撰字鏡』 卷第八13表, 鳥部第七十五 小学篇)
為鳥鶉 三字上同。(同)
孝鳥為鳥鶉 四字字豆良。(享和本 65表, 鳥部六十三)

예(2)

- 孝鳥 *ウツラ(觀智院本 『類聚名義抄』 僧中132, 百十一鳥部, *는 합점(合點)을 표시)
為鳥 *同(同)

天治本 『新撰字鏡』의 ‘字豆良’,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ウツラ’는 평목 평과의 새인 메추리(ウズラ, 역사적假名표기법으로는 ウヅラ)를 가리킨다. 일본어에서는 ‘鶉’로 적는 경우가 많다. ‘孝鳥’와 ‘為鳥’는 天治本 『新撰字鏡』과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서 각각 표제자로 쓰이고 있어 인용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孝鳥’와 ‘為鳥’ 가운데 ‘為鳥’는 형태가 가까운 자체인 ‘鶉’가 Unicode에 존재한다(CJK 확장한자C, U+2B6D4).

天治本 『新撰字鏡』에서 ‘鶉’ ‘鶉’에 대해서는 예(3)과 같이 ‘鶉’은 이체자인 ‘鶉’과 동일 항목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으나 ‘鶉’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3)

- 鶉鶉 二同。常倫反。鶉。于豆良。(天治本 卷第八8裏, 鳥部 第七十五)
 鶉 同。常倫反。鶉。字豆良。(享和本 64表, 鳥部 六十三)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서는 예(4)와 같이 ‘辜鳥’를 ‘正’, ‘鶉’을 ‘今’으로 주기하여 제시하고 注文에서 ‘鶉’을 ‘或’으로 주기한다.

예(4)

- 辜鳥 正今或鶉 音淳(L) ウツラ(觀智院本 僧中114, 百十一鳥部)

이상 IDS로 표시한 용례에서는 형태가 가까운 자체가 Unicode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為鳥’은 ‘為鳥’(CJK 확장한자C, U+2B6D4), ‘辜鳥’은 ‘鶉’(CJK 확장한자C, U+2A1BE)로 처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3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Unicode로 상당수의 한자를 커버할 수 있다할지라도 필획의 미세한 차이까지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본 이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1>은 高山寺本 『篆隸萬象名義』에서 IDS로 처리된 표제자의 원본 이미지의 예이다.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池田(2018a)의 것을 가져온 것이다. 각각의 이미지 아래에는 파일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1_016_B47.jpg는 第一帖 16葉 뒷면 4행 7번째 글자임을 나타낸다.



<그림1> 高山寺本 『篆隸萬象名義』 표제자 중 IDS 처리 용례

이것들을 IDS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𠂔二方	𠂔王𠂔立豕	𠂔王电	𠂔イ𠂔ム旧女	𠂔イ胃
𠂔木𠂔竹目	𠂔口一奇	𠂔才興	𠂔𠂔并	𠂔月峯
𠂔人ト月𠂔𠂔丙	𠂔尸五	𠂔𠂔欺	𠂔𠂔羊	𠂔木刀
𠂔++勺ノ	𠂔++穴艸	𠂔竹瀏	𠂔人凶	𠂔豆并
𠂔豆交	𠂔++𠂔ム一豆	𠂔圣瓦	𠂔𠂔𠂔台	𠂔𠂔既
𠂔門盖	𠂔弓瞿	𠂔弓子	𠂔丸弓	𠂔𠂔𠂔リ
𠂔行弓	𠂔戈冒	𠂔金盧	𠂔金微	𠂔金属
𠂔𠂔𠂔	𠂔𠂔𠂔𠂔耳万	𠂔孝言	𠂔車比	𠂔車缶
𠂔𠂔兒	𠂔尸𠂔𠂔口			

원문 이미지와 IDS를 대조하면 원문 이미지와 차이가 있는 것이 많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해독결과를 바탕으로 본래 올바른 자체를 복원한 후 IDS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림2>는 복잡해 지기 때문에 IDS로 처리하지 않은 표제자의 원본 이미지이다.



<그림2> 高山寺本『篆隸萬象名義』표제자에서 IDS로 처리하지 못한 예

4.4 소장자의 허락

HDIC에 수록된 네 종류 字書의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한 소장자 및 출판사의 허락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高山寺

高山寺本『篆隸萬象名義』(高山寺聖教 重書類 第三號)는 2013년 9월 15일에 高山寺의 전 주지인 오가와 지에(小川千恵) 스님과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團의 이시즈카 하루미치(石塚晴通) 단장(北海道大學 명예교수)의 배려로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 原本『玉篇』卷第二十七(高山寺聖教 重書類 第一號)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얻었다.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사진은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團에서 촬영한 것에 의거하였다.

(2) 宮内廳 書陵部

天治本『新撰字鏡』(13책, 559函28號)과 圖書寮本『類聚名義抄』(1帖, 503函212号)는 2014년 3월 10일부(宮内書發343號)로 宮内廳 書陵部로부터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大廣益會玉篇』(3책, 515函106號)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허락을 받았다.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京都大學文学部國語学國文学研究室編『新撰字鏡 増訂版』(臨川書店, 1967年)에 수록된 영인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편저자 및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이다.

(3) 天理圖書館과 八木書店

觀智院本『類聚名義抄』(청구기호: 813- 179)는 소장자인 天理圖書館과 영인본 출판처인 八木書店과 거듭된 협의 끝에 2016년 11월 18일부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부분공개를 2019년 3월 이후,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전체공개를 2021년 3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양해받을 수 있었다.

5. 공개 계획

5.1 高山寺本 『篆隸萬象名義』

2016년 9월에 『篆隸萬象名義』의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공개하였다. 이것은 『篆隸萬象名義』의 全文 텍스트를 TSV(tab-separated values) 형식의 데이터로 github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공개 이후로도 수시로 데이터 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경 이력은 모두 github 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소는<https://github.com/shikeda/HDIC>이다. 李·池田(2016)은 그것에 관한 보고이다.

5.2 天治本 『新撰字鏡』

2018년 6월에 『新撰字鏡』의 全文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공개하였다. 『新撰字鏡』의 경우에도 『篆隸萬象名義』와 마찬가지로 全文 텍스트를 TSV 형식의 데이터로 github를 통해 공개하여 수정 기록을 남기고 있다. 池田·李(2017)은 그것에 관한 보고이다.

5.3 圖書寮本 『類聚名義抄』

圖書寮本『類聚名義抄』는 담당자인 신웅철 씨와 협의하여 2019년 가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5.4 觀智院本 『類聚名義抄』

觀智院本『類聚名義抄』의 全文 텍스트 공개는 고해상도 컬러 영인이 출판된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2021년 3월을 목표로 공개를 준비중이다. 그때까지는 표제자에 한정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몇몇 부수를 예시로 注文내용까지 포함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6. 당면한 과제

6.1 일본 고사전의 體例

體例란 저작의 구성이나 형식을 말한다. 일본 고사전에는 한자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체례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池田·劉·鄭·張(2018)에서는 觀智院本『類聚名義抄』의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고려하여 체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용어를 정의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HDIC에 수록된 字書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1) 구성

HDIC에 수록된 漢字字書는 部首分類를 기본으로 한다. 高山寺本『篆隸萬象名義』는 全 6帖에 542개 부수를 수록한다. 天治本『新撰字鏡』은 全 12卷에 160개 부수를 수록하며 ‘親族部’ ‘臨時雜要字’ 등은 意義分類의 요소를 지닌다. 표제항목은 대부분 單字이지만 일부 두 글자 이상으로 된 표제항목도 확인된다. 圖書寮本『類聚名義抄』는 法部 前半만 잔존한다. 觀智院本『類聚名義抄』는 篇目, 佛上, 佛中, 佛下本, 佛下末, 法上, 法中, 法下, 僧上, 僧中, 僧下 총 11帖으로 구성된다. 佛上에서 僧下까지 10帖에는 120개 부수가 배치되어 있다.

(2) 항목

한자로 된 표제어를 표제자라고 하고 표제자 바로 아래에 音注, 일본어 훈 등이 기입된 小字 雙行으로 된 부분을 注文이라고 지칭하겠다. 표제자와 주문을 묶어서 항목이라고 부르겠다. 표제자는 한 글자로 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두 글자 이상인 속어 항목 및 이체자 항목도 적지 않으므로 전자를 單字형식, 후자를 複字형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複字형식은 항목내용에 따라 이체자와 속어로 구분된다. 각 字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 ID번호를 부여한다. ID번호 부여는 卷·쪽·行·字數를 기본으로 한다.

(3) 注文의 요소

주문은 字體注, 音注, 義注, 일본어 훈,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드물게 표제자에 聲點이나 傍訓이 기입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표제자補注라 지칭하겠다. 이들 요소를 레벨1로 정의한다. 주문의 요소는 다시 하위 레벨을 설정한다. 字體注에서는 이체자 및 ‘正’ ‘俗’ 등의 주기, 音注에서는 反切·類音注·假名音注, 義注에서는 한자의미주, 일본어 훈에서는 萬葉假名·片假名이다. 이들 정보를 레벨2로 정의한다. 또한 字體注의 ‘正’ ‘俗’ 등의 주기는 李(1997)의 용어를 빌려 字級이라고 부르겠다. 聲點은 『篆隸萬象名義』『新撰字鏡』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類聚名義抄』(圖書寮本·觀智院本)에서 확인되는데 기능적 요소이므로 音注나 일본어훈에 딸린 속성정보로 취급하겠다. 속성정보의 종류로는 轉倒符, 抹消符, 補入符; 「|」符, 反復符, 略字; 又·亦, 未詳; 聲點, 鼻音符號, 假名傍書를 들 수 있다(기능적 차이를 ;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들 속성정보를 레벨3으로 정의한다. 聲點의 朱墨 구별, 문질러 지운 흔적과 訂正의 유무는 컬러 복제본을 통해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속성정보는 레벨4로 정의한다.

레벨3과 레벨4는 최종적으로 태그 부여가 필요하다. 플레인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요소는 비고로 주기한 다.

(4) 항목의 하위분류

표제항목은 주문에 ‘形’ ‘音’ ‘義’를 모두 갖춘 기본항목과 그밖의 확장항목으로 나눈다. ‘形’은 표제자 자체와 字體注, ‘音’은 字音注, ‘義’는 한문의미주와 일본어 훈으로 구성된다. 확장항목은 표제자에 대한 ‘形’ ‘音’ ‘義’ 가운데 일부만을 갖춘 것으로 기본항목에서 이어진다. 주문이 없는 항목이나 주문에 ‘未詳’이라고 기입된 항목도 확장항목에 포함한다. 또한 확장항목 없이 기본항목만으로 구성된 항목을 독립항목, 기본항목과 확장항목을 모두 갖는 항목을 연속항목이라고 부르겠다. 연속항목 가운데 기본항목을 母항목, 확장항목을 子항목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하위분류는 『類聚名義抄』(圖書寮本·觀智院本)의 데이터 처리와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

(5) 埋字와 脫字

埋字와 脫字에 대해서는 『篆隸萬象名義』를 바탕으로 고찰한 李(2015)가 있으며 『新撰字鏡』에 적용한 池田(2017)도 있다. HDIC에 수록된 字書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기로 한다. 埋字(うめじ)란 큰 글자로 필사되지 않고 작은 글자로 주문 안에 편입된 표제자를 지칭한다(李2015). 표제자와 주문을 묶어서 항목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매물항목으로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脫字는 李(2015)에 따르면 표제자는 탈락된 채 주문만 남은 脫字A와 『說文解字』 등에 본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본래 『篆隸萬象名義』에 존재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脫字B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일반화하여 표제자가 탈락되었지만 주문은 존재하는 항목을 표제자탈락항목이라 하고, 본래 해당 字書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을 탈락항목으로 부르기로 한다.

6.2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Unicode 보급

이 연구를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Unicode와 인문정보학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Ikeda & Li (2018)에서 회고하여 서술한 바 있으나 다시금 고찰해 보자면 Unicode 규격의 제정·확장과 그것의 보급·실용의 관점에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Unicode 제정기 : CJK통합한자 20,902자(1992년), Windows95(1995년)

Unicode 보급기 : 확장A-B 추가 70,195자(2001년), Windows XP(2001년)

Unicode 실용기 : 확장C-D 추가 74,596자(2010년), Windows 7(2009년)

우선 Unicode 규격이 처음 제정된 시기(1990-1999년)에는 6,000자 정도의 한자처리가 가능한 단계였으므로 『篆隸萬象名義』의 소재정보와 諸橋轍次 『大漢和辭典』의 檢字番號를 대조한 데이터 작성이 중심이었다.

다음으로 Unicode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2000-2009년)에는 2003년에 한자데이터베이스(川幡太一), 2004년에 한자자체규범 데이터베이스HNG(石塚晴通), 2005년에 탁본문자 데이터베이스(安岡孝一)·CHISE IDS(守岡知彦), 2006년에 GlyphWiki(上地宏一), 2007년에 SAT(大正新脩大藏經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가 등장하면서 인문정보학이 활기를 띠었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수월해져서 HDIC에 수록된 字書의 표제자 이미지를 잘라내어 표제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표제자의 Unicode 텍스트 입력을 진행하였다.

Unicode 실용기(2010년 이후)에는 HDIC에 수록된 字書의 주문을 입력하는 데에 진력한 시기이다. 『篆隸萬象名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宋本 『玉篇』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의 『廣韻』 데이터를 집어 넣어 각 字書의 원문 이미지를 컴퓨터 상에서 참조하면서 『新撰字鏡』과 『類聚名義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상 세 시기로 구분되는 각 단계에서는 플레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처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고사전 본문의 구조화를 통해 각종 태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3 텍스트 데이터의 작성

여기서는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를 예로 들어 텍스트 데이터 작성의 실례를 보이도록 하겠다. <그림3>은 劉·李·鄭·張·池田(2017)에서 든 예를 가져온 것인데 이것을 CSV 형식으로 입력한다. 각 필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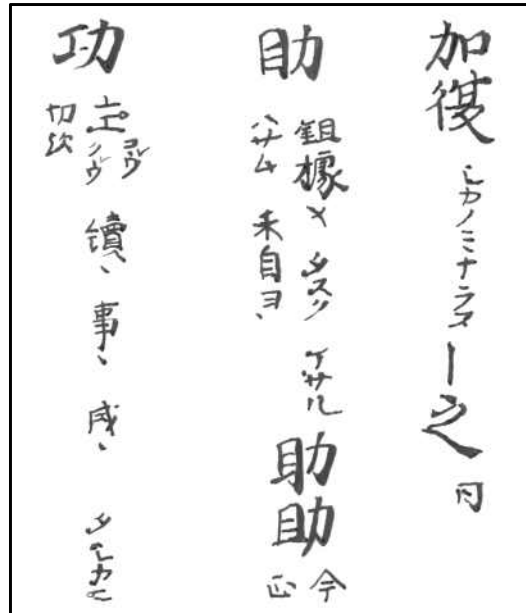
KR_ID, KR2ID, KR_Tenri_p, KR_vol_radical, KR_vol_name, KR_radical, Entry, Entry_original, KR_def, Remarks

KR_ID는 표제ID로서 K·권 번호(2자리)·風間書房版 영인본의 쪽 번호(3자리)·행 번호(1자리)·단 번호(1자리)·字順(1자리)을 나타낸다. KR2ID는 風間書房版 영인본의 항목ID로서 KR_ID에서 字順 정보를 제외한 것이다. KR_Tenri_p는 八木書店版 영인본의 표제자ID로서 T·권 번호(a/b/c)·쪽 번호(3자리)·행 번호(1자리)·단 번호(1자리)·字順(1자리)을 나타낸다.

KR_vol_radical은 권·부수 번호로서 v·권 번호(1-10)#·부수번호(1-120)를 나타낸다. KR_vol_name은 卷名으로서 佛上에서 僧下까지를 나타내며, KR_radical은 部首名을 나타낸다.

Entry는 표제자, Entry_original은 원본 자형에 가까운 표제자, KR_def는 주문을 나타낸다.

Remarks는 비고란이며 주석을 기입한다.



<그림3>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기재례(원본 모사)

예(5)

K08084810, K0808481, Tc090810, v8#8, 僧上, 力, 功, ○, 音工(L-R) 「コウ(@N)」 「クウ(@N)」 續也 事也 成也 タシカニ(LHLH) 切歟, 「續也」は「續也」を誤写, 和訓「タシカニ」は「功」字の字義に不对應で不審だが, 「切」(原文は異体字「十刀」に作る)に対応。

예(5)는 <그림3>의 '功'에 대한 데이터로서 單字形식의 예이다. 이 용례에서는 聲點(L平聲, H上聲, R去聲, S入聲, @無로 표시), 假名字音, 鼻音기호(N으로 표시)가 혼재된 복잡한 내용을 지닌다. 비고란에 주석을 기입하였다.

예(6)

K08081810,K0808181,Tc087810,v8#83,僧上,力,助,目力,鉏據反 タスク(LL@) マサル(HH@)
ハサム 和自ヨ(@L)

K08081821,K0808182,Tc087821,v8#83,僧上,力,助 / 助, / ○,今正

예(6)은 <그림3>의 ‘助’와 그것의 이체자에 대한 데이터로서 單字형식의 기본항목에 複字형식으로 이체자를 나타내는 확장항목의 예이다.

예(7)

K08084411,K0808441,Tc090411,v8#83,僧上,力,加 / 復,○ / ○,シカノミナラス

K08084421,K0808442,Tc090421,v8#83,僧上,力,一(加) / 之,○ / ○,同

예(7)은 <그림3>의 ‘加復’ ‘加之’의 데이터로 複字형식으로 속어를 나타내는 예이다. 여기서는 생략하였으나 ‘加復’의 두 행 앞에 위치하는 ‘加’가 音注와 일본어 훈을 갖춘 기본항목으로 존재하며 그것에 연속되는 확장항목의 일부이다. ‘加復’은 『顏氏家訓』『書證』에 ‘加復秦人滅學’라는 문구에서 유래하는 일본어 훈일 것으로 추정된다. ‘加之’는 용례가 많아서 출전을 특정할 수 없다.

6.4 주석 작성

HDIC에 수록된 字書들은 고사본이며 잘못 필사된 부분을 다수 포함한다. 관련문헌을 대조해 가면서 교감할 필요가 있다.

『篆隸萬象名義』의 교감은 白藤(1977a), 白藤(1977b), 宮澤(1977), 上田(1986), 呂(2007), 臧(2008) 등의 훌륭한 성과가 있으며 그것들을 참조하여 연구를 심화해 갈 수 있게 정비되었다.

『新撰字鏡』은 일본어 훈을 포함하는 항목에 대한 것으로 山田(1916)과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1958)이 있고, 『切韻』 인용부분에 대해서 上田(1984)가 교감하였다. 『玉篇』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篆隸萬象名義』의 原本 『玉篇』 殘卷과 逸文을 대조한 宮澤(1977)이 참고가 된다. 그밖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類聚名義抄』은 原撰本人 圖書寮本에 대해서 신웅철 씨가 번각과 校注 작성을 진행 중이다. 申(2014)는 言部, 申(2017)은 足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향후 완성이 기대된다.

改編本人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 대해서는 正宗(1955)에 수록된 「漢字索引」과 「假名索引」이 토대가 된다. 이 두 색인은 실질적으로 長島豊太郎 씨가 편찬한 것이다.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에 수록된 일본어 훈은 『日本國語大辭典』(小學館)과 같은 대형 국어사전에 다수 인용되었으며 일본고전문학 작품의 주석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聲點이 달린 일본어 훈은 단어의 清濁과 액센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력한 자료이다. 성점이 달린 한자음(反切, 類音注, 片假名) 주기는 한자음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유력한 자료이다. 이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정리·분석하였으므로 그들 성과를 취합하여 반영한 주석 작성이 기대된다.

6.5 HDIC Viewer의 개발

HDIC Viewer는 HDIC에 수록된 漢字字書を 검색 및 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劉·李·池田2018 참조). 시스템 설계 및 유지는 劉冠偉(北海道大學 대학원 문학원·일본학술진흥연구회 DC2) 씨가 담당한다.

주소는 <https://hdic2.let.hokudai.ac.jp>이다. 현재 시범운영 단계인데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검색화면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HDIC Viewer의 검색화면

7. 부족한 字種에 대한 대책

7.1 국제규격 등록을 위한 조건

Unicode에 등록되지 않은 字種 처리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최신 견해는 池田(2018a)에 정리한 바 있다. 이하 그 내용을 다시금 서술하기로 한다.

등록되지 않은 字種을 국제규격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복수의 자료에 출현할 것, 고사본 고판본의 문자판독이 안정되어 있을 것, 활자 번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7.2 일본의 문자코드 규격 개발과 보급

일본 국내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사용 가능한 문자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것은 컴퓨터상의 문자환경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일본 국내의 문자코드 규격인 JIS X 0208:1997의 개정 및 JIS X 0213:2000 개발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내 규격을 제정하는 데에 수년이 소요되고 그 내용이 국제규격(ISO 및 Unicode)에 반영되는 데에 다시 수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문자코드 규격에 등

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7.3 일본에서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노력

일본 국내에서 字種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大正新脩大藏經 데이터베이스(SAT) 팀이다. 2016년 5월에 제61회 국제 동방학자회의에서 SAT 대표자인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교수(東京大學)가 중심이 되어 ‘한자문화권 공통 한자기반 구축을 향하여’라는 세션이 개최되었다. 국제규격 개발 담당자까지 포함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HDIC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경계를 초월한 한자 공통코드화라는 과제에 대해서 고사전 연구는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회의를 마치고 3년 뒤에 공간된 李·池田(2019)는 그것을 위한 한 걸음이다.

8. 結語

이번에 구결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초청받아 일본 고사전 연구를 소개할 기회를 얻고 또한 최신 구결자료 연구를 접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일본 이외의 한자 고사본 고판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판본과 그것의 활자변각본에 의해 축적되어 온 지금까지의 연구를 고사전을 통해 검증하고 새로운 과제를 쫓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清末民初의 학자 王國維는 일찍이 ‘傳世文獻’과 ‘出土文獻’의 내용을 대조하여 연구해 가는 二重證據法을 제창하여 각각의 자료적 가치를 높였는데, 여기에 ‘域外文獻’을 더하여 ‘三重證據法’이라 할 수 있는 동향인 것이다. ‘域外文獻’이란 중국 관점의 명칭으로 한국, 북한, 베트남, 일본에 현존하는 한문 고사본·고판본·비문을 지칭한다. 은 왕조 초기의 도읍이었던 鄭州에 위치하는 鄭州大學 漢字文明研究센터가 맹주가 되어 中國人民大學 吳玉章中國語言文字研究所, 上海交通大學 海外漢字文化研究센터, 한국의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베트남 사회과학원 漢喃研究院 등이 참가하여 한자연구센터 연맹을 결성하였다(2018년 10월). 일본 고사전에 관해서는 上海交通大學 海外漢字文化研究센터의 王平 교수가 「中日韓 古代字典 聯合檢索」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수의 저작을 출판하였고 中國人民大學의 王貴元 교수가 「日本藏 漢文古字書 集成与整理研究」(國家社科基金重大項目)를 추진중이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는 2018년부터 7년 계획으로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한자와 동아시아 문명연구-한자로드의 疎通·動因·導航」을 시작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동향 속에서 고사전과 훈점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였을 따름이다.

参考文献

- 池田証壽(2014) 「平安時代漢字字書総合データベースの構築」,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紀要』 142, pp.79-90.
- 池田証壽(2016) 「平安時代漢字字書総合データベース構築の方法と課題-『類聚名義抄』を中心に-」, 石塚晴通監修高田智和・馬場基・横山詔一編 『漢字字体史研究二 字体と漢字情報』, pp.360-376, 勉誠出版.
- 池田証壽(2017) 「『新撰字鏡』 본문 해독상의 문제들 -HDIC의 소개와 그 활용-」, 『口訣研究』 38, pp.59-56, 口訣学会.

- 池田証壽(2018a)「平安時代漢字字書綜合數據庫の紹介—以《篆隸萬象名義》和《新撰字鏡》為中心」, 上海交通大學海外漢字文化研究中心第二屆國際學術研討會“東亞文化圈古辭書研究”, 2018年6月30日-7月1日, 中国·上海.
- 池田証壽(2018b)「平安時代漢字字書綜合數據庫の構建及其公開」, 『東亞文獻研究』21, pp.263-273, 韓國交通大學校東亞研究所·中國上海師範大學人文與傳播學院.
- 池田証壽·李媛(2017)「天治本新撰字鏡全文テキスト構築の方法と課題」, 『じんもんこん2017論文集』, 情報処理学会, pp.37-44.
- 池田証壽·劉冠偉·鄭門鎬·張馨方(2018)「観智院本『類聚名義抄』全文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構築の方法」, 日本語学会2018年秋季大会, 2018年10月13-14日, 岐阜大学.
- 上田正(1986)『玉篇反切総覧』, 私家版.
-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1958)『新撰字鏡国語索引』,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増訂再版1975臨川書店).
- 白藤礼幸(1977)「掲出字索引」,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団編『高山寺古辞書資料第一』, pp.369-484, 東京大学出版会.
- 白藤礼幸(1977a)「校勘篇」,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団編『高山寺古辞書資料第一』, pp.485-496, 東京大学出版会.
- 申雄哲(2014)「図書寮本『類聚名義抄』の翻字と校注(言部)」, 『訓点語と訓点資料』138, 訓点語学会, pp.46-71.
- 申雄哲(2017)「図書寮本『類聚名義抄』の翻字と校注(足部)」, 『訓点語と訓点資料』132, 訓点語学会, pp.50-81.
- 正宗敦夫(1955)『類聚名義抄 第二卷』, 風間書房.
- 宮澤俊雅(1977b)「掲出字一覧表」,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 団編『高山寺古辞書資料第一』, pp.497-635, 東京大学出版会.
- 山田孝雄(1916)『新撰字鏡攷異并索引』, 六合館(西東書房1933年改版).
- 李媛(2015)「埋字と脱字—篆隸万象名義の掲出字数をめぐる問題—」, 『訓点語と訓点資料』135, 訓点語学会, pp.37-56.
- 李媛·池田証壽(2016)「篆隸万象名義の全文テキストと公開システムについて」, 『じんもんこん2016論文集』, 情報処理学会, pp.95-102.
- 李媛·池田証壽(2019)「公開した古辞書テキストデータから見たUCS符号化提案—天治本新撰字鏡掲出字を例に—」, 『東洋学へのコンピュータ利用第30回研究セミナー』,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附属東アジア人文情報学研究センター.
- 劉冠偉·李媛·鄭門鎬·張馨方·池田証壽(2017)「部首分類体日本古辞書の項目構造の多様性に対応したマークアップ・ツールの開発」, 『じんもんこん2017論文集』, 情報処理学会, pp.97-102.
- 劉冠偉·李媛·池田証壽(2018)「スマホで古辞書II—平安時代古辞書の総合的インタフェースについて—」, 『じんもんこん2018論文集』, 情報処理学会, pp.83-88.
- Ikeda Shoju and Li Yuan (2018), Building a General Database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Dictionaries in Early Japan: Tenreibanshōmeigi in HDIC Project, 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of Letters 13, Graduate School of Letters Hokkaido University, pp.49-64.
- 李景遠(1997)『隋唐字樣學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呂浩(2007)『篆隸萬象名義校釋』, 上海:學林出版社.

臧克和(2008)『中古漢字流變』, 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附記 この研究は, JSPS科研費基盤研究A「平安時代漢字字書総合データベースの機能高度化と類聚名義抄注釈の作成」(課題番号19H00526)による成果の一部である。

번역: 신웅철(경성대학교 HK연구교수)

<개인 연구 발표>

『北塞記略』에 기록된 동북방언 어휘의 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一考察

김준수(서울시립대)

1. 머리말

역사학계에서 『北塞記略』은 북방 지리 정보를 체계화해 유통시킴으로써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北塞記略』은 그것의 한 부분인 『公州風土記』에 당시의 동북 방언의 어휘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가 높다. 『北塞記略』에 실린 어휘는 총 25개이며, 한자의 훈(訓)이나 음(音)을 빌려 표기한 차자표기로 기록되어 있다.

小創進平(1994)에서는 『北塞記略』에 기록된 어휘를 전체적으로 다루었으며, 이기문(1991)에서는 어휘의 기원과 관련하여 종종 『北塞記略』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北塞記略』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기에, 이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곽충구(2017)에서는 『北塞記略』을 참고하여 동북방언에 남아있는 만주통구스어와 몽골 차용어를 찾아내었다.

본고는 『北塞記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北塞記略』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표기 방법과 변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즉, 본고의 목적은 『北塞記略』에 실려 있는 어휘의 어원(語原)을 탐구하기보다는 당시 차자표기로 기록된 어휘의 소리값을 밝히고 그 음운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北塞記略』에 나타나는 표기 방식과 18세기와 20세 사이의 일어난 동북 방언의 변화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北塞記略』 소개¹⁾

2.1. 『北塞記略』의 저자

『北塞記略』의 저자는 조선 후기의 문신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이다. 그는 정조 즉위 초 홍국영이 집권하면서 1777년(정조1)에 함경도 慶興府使로 좌천됐는데, 이 때 국토의 최북단인 북관 지역을 직접 경험했다. 손성필(2018: 11)에 따르면 홍양호는 서울 지역에서 세거한 사족 가문 출신의 소론계 정치인으로 소론 당평론과 강화 양명학파의 영향을 받아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고자 한 관인 실학자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1) 『北塞記略』의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손성필(2014)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8세기 함북지역 정보 서술한 최초 저술 … 後代 북방 지리서의 전범”(교수신문, 2013. 11. 30 19:30, <http://www.kyosu.net>)을 참고하여 기술했음을 밝힌다.

2.2. 『北塞記略』의 내용

『北塞記略』은 가장 이른 시기인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저술로 함경도 지방의 풍토(風土)를 기록한 책이다. 홍양호가 경흥에 부임하여 보고 들은 정보를 일차적으로 정리한 책은 『朔方風土記』이다. 이후 홍양호는 『朔方風土記』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그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동국여지승람』, 『淸一統志』 등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北塞記略』을 펴낸다. 『北塞記略』은 홍양호의 문집인 『이계외집(耳溪外集)』 권12(1843년 인행된 전사자본)에 수록되어 있다. 그 목차를 보면 공주풍토기(公州風土記)·북관고적기(北關古蹟記)·교시잡록(交市雜錄)·강외기문(江外記聞)·백두산고(白頭山考)·해로고(海路考)·영로고(嶺路考)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공주풍토기(公州風土記)	경흥의 자연환경·민호(民戶)·교통·풍속·산물(產物)들을 기록함
북관고적기(北關古蹟記)	용당(龍堂)·적지(赤池)·적도(赤道)·구덕릉(舊德陵) 등의 고적지에 대한 해설과 옛 응주(雄州)·영주(英州)·공험진(公嶮鎭)·다신산성(多信山城) 등의 옛 주·군·현과 진(鎭)·성(城)의 명칭·유래·경계 등을 해설함
교시잡록(交市雜錄)	국경의 제시(諸市)에서 열리는 단시(單市)·쌍시(雙市)와 개시(開市)·공시(公市) 등의 교역 상황을 적음
강외기문(江外記聞)	두만강 밖의 영고탑(寧古塔)·혼춘(渾春)·길림(吉林)·선성(鄞城)·흥경(興京) 등의 경계와 유래 등을 설명함
백두산고(白頭山考)	산의 위치, 산명의 유래, 천지의 크기, 거느리고 있는 주요 산봉(山峯)과 천지에서 발원하는 강들의 형세를 설명함
해로고(海路考)	동해안에 있는 주요 고을에서 다른 고을로 가는 뱃길의 방향과 거리를 적음
영로고(嶺路考)	회령·경성·경원·단천·함흥 등 관북 지방의 주요고을에 있는 고개들을 통해 다른 고을로 나아갈 수 있는 영로(嶺路)를 적음

<표 1> 『北塞記略』의 목차와 그 내용

3. 『北塞記略』의 어휘의 변화

① 巫覡謂之師

위는 ‘무당’을 동북 방언에서 ‘師’의 훈(訓)인 [스승]으로 발음했다는 기록이다. ‘師’가 혼독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小創進平(1944ㄴ: 121-122)은 ‘무녀(巫女)’는 함경북도에서 ‘스승 [si-sin]’, ‘스승이 [si-sin-i]’로 발음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세국어 문헌에서 ‘스승’이 ‘무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1) 前聖愼焚巫武王親救喝 넷 님그미 스승 스로몰 삼가시고 『두시언해초 25b:3-4』

위에서 ‘巫’가 ‘스승’에 대응되는 것을 볼 때, ‘스승’은 오래전부터 ‘무당’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한자와 관련된 문헌에서 ‘師’는 ‘스승 사’(『訓蒙』 上17b/34a), ‘스승/스승 스’(『千字』

4a), ‘스승 스’(『類合』上17b) 등처럼 그 훈이 모두 ‘스승’으로 나타난다.

정호완(1991)에서는 ‘스승’이 처음에는 ‘제사장(무당)’과 ‘행정의 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함경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스승’이 ‘무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승이(명천)’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했다.

여타의 지역과 다르게 ‘스승’이 ‘무당’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육진방언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곽충구(2018)에서도 육진방언은 음운, 어휘 면에서 보수적이고 잔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고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육진방언에서의 음운론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스승’과 ‘스승이’, ‘스승이’의 관계를 검토해본다. 곽충구(2007)에서는 동북 방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명사 어간 말에 ‘ㅣ’가 결합되어 어간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했다. 가령 육진방언에서 ‘감튀(감투), 상튀(상투)’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스승이’는 ‘스승’에 ‘ㅣ’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스승이’는 ‘스승이’에서 끝음절 ‘ㅣ’에 의하여 구개성 반모음인 /y/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주필(2010: 195-196)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일부 방언에 보이는 [hak'yo]와 같은 예를 바탕으로 통시적으로 초기 움라우트가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아니라 /i/나 /y/를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에 /y/를 첨가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최전승(1998: 76)에서는 ‘그디다(瞞)’의 사동형 ‘괴이다’(瞞他, 『同文』上:33) 등의 사례를 통해 ‘으’가 하향 이중모음 ‘의’로 전환되어 나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²⁾ 더불어 이른 시기인 16세기에 ‘鴻 괴려기 흥 鴈 괴려기 안’(『훈몽』상:8b)의 예처럼 /i(y)/에 의해 선행 음절 /ㅡ/가 이중모음 /ㅡ/으로 변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방언에서는 18세기 이후에 ‘스승>스승이>스승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8세기 이후에 동북방언에서는 명사 어간 뒤에 ‘ㅣ’가 덧붙는 현상과 후행하는 /i(y)/로 말미암아 선행 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1차 움라우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淺灘曰膝

‘淺灘曰膝’은 음차를 이용한 기록인데, 당시 동북 방언에서 ‘淺灘[얕은 여울]’을 ‘膝(무릎슬)’과 유사한 음으로 읽었다는 것이다. 小創進平(1944: 91)에 의하면, 함경도에서는 냇물의 급류가 있는 지점을 [s'il]이라고 한다고 하며 함경남도에서 보이는 ‘살품[sal-phum], ‘물쌀[mul-s'al], ‘물사품[mul-sa-phum], ‘물쌀품[mul-s'at-phum]의 ‘살, 쌀, 쌀’은 모두 [s'il]과 근원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여울’의 15세기 형태는 ‘여흘’이며, ‘여울’의 형태는 19세기에 가서야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열슬” 정도를 ‘여울’의 재구형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중부 방언에서는 유성음 사이에서 ‘ㅅ’이 약화되어 ‘ㅎ’으로 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치찰음인 ‘ㅅ’에 의해 앞 음절의 ‘ㄹ’이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즉 [*jəlsal] > [jəlh^sal] > [jəhil]과 같은 과정을 생각할 수 있겠다. 동북 방언에서는 [*jəlsal] > [jəlsil]의 변화 이후 앞음절이 탈락하여 ‘슬[sil]’이 되었으며 이후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 ‘쓸[s'il]’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헌에서 ‘膝’의 독음은 ‘슬^H’(『訓蒙 上:14b/28a』, 『類合 上:16a』)이다. 한국 한

2) 최전승(1998: 68)에 따르면 움라우트는 기원적인 원래의 1차 움라우트(이중모음화)와 재구조화된 2차 움라우트 규칙(전설 단모음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음에는 ‘쌍’이나 ‘씨’를 제외하면 초성이 경음으로 시작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北塞記略』의 저자는 ‘쓸’[sʰil]과 최대한 비슷한 음을 가진 ‘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貫牛曰輪道里

‘貫牛’는 소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송아지를 무료로 양도받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함경도에서는 ‘윤도리’라고 한다. 황대화(2011: 417)의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윤두를 주다(이전에 부자가 소를 주고 새끼를 가져가는 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물론 ‘윤도리’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輪道里’는 음차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小創進平(1944ㄴ: 383)을 참고하면, 이러한 뜻을 가진 어휘는 함경도밖에 없으며 ‘윤두리쇠’[yun-du-ri-sö], ‘윤둘’[yun-dul], ‘윤두쇠’[yun-du-sö], ‘인두’[in-du]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리와 관련하여 ‘輪道里’를 18세기의 음으로 읽는다면 [윤도리]가 된다. 전승음에서 ‘輪道里’의 독음이 각 ‘륜(윤)’(『訓蒙 中:13a』), ‘도’(『訓蒙 中:4b』), ‘리’(『訓蒙 中:5a』)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의 방언형이 ‘윤두리’였다면, 당연히 저자는 [두]의 독음을 가진 한자어를 사용했을 것이다.³⁾

등장하는 순서에 의거하면 ‘윤도리’는 구형(舊形), ‘윤두리’는 신형(新形)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동북 방언에서는 18세와 20세기 사이에 일련의 ‘ㄴ>ㄷ’의 모음상승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박기영(2010: 377)에서는 18세기 중엽의 ‘·’의 제2단계 소실 때문에 모음 체계가 불안정해졌고 이런 불안정한 체계는 고저대립의 관계를 형성하며 곧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예:>이’, ‘어:>으’, ‘오:>우’로 나타나는 소위 고모음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모음상승 현상의 영향에서 동북 방언도 예외는 아니었다. 곽충구(1994: 257-258)에서는 함북 육진방언에서 ‘가도-(圍)>가두-’ 등의 ‘ㄴ>ㄷ’의 변화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황대화(2011: 34-36)에 따르면 함경북도 경흥군 장안리에서는 ‘일곱(七)’을 [닐곱]으로, ‘삼촌’을 [삼춘]으로, ‘곶’을 [곶]으로 발음했다는 자료가 있다.

④ 鳥網曰彈

‘鳥網’는 일종의 새를 잡는 덫이란 뜻으로 표준어 ‘올가미’에 대응한다. 여기서 ‘彈’은 음차이다. 小創進平(1944ㄴ: 393/1994ㄴ: 337)는 ‘탄’[tʰan]이 만주어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자료편에서 방언형 ‘탄[tʰan]’(함남·함북), ‘탕[tʰaŋ]’(함남 일부), ‘탄코[tʰan-kʰo]’(함북 일부) 등을 제시하였다.

‘탄’ 계열은 동북 방언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로 그 기원에 대해서 이기문(1991: 207)에서는 小創進平(1934)은 [tʰan]이 만주어 dan(打鵞雁的套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어두 有氣音의 존재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였다. 만약 ‘탄’이 만주어 ‘dan’의 차용이라면, 유성음 [d]를 긴장음 [pʰ]도 무기음 [p]도 아닌, 유기음 [pʰ]로 받아들인 것은 음성학적으로 이상하다. 또한 한국 한자음에 ‘단’[ta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tʰan]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방언이 유기음으로 실현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인접 지역에서 ‘땀’이나 ‘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탄’을 자생적으로 생겨난 함경도만의 특수한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한자음에서 독음이 [두]인 한자는 ‘斗, 頭, 豆, 柱’ 등과 같이 상당히 많았다.

⑤ 海棠實曰悅口

‘海棠實’은 아그배나무의 열매로 모양은 배와 비슷하나 아주 작고 맛이 시고 뽕다고 한다. 여기서 ‘悅口’는 음차로, 동북 방언에서는 아그배나무의 열매를 [열구]라고 부른 것이다. 小創進平(1944ㄱ: 383)에는 ‘열귀[yəl-gwi]’, ‘열구[yəl-gul]’, ‘열기[yəl-gi]’가 실려 있는데, ‘열구’는 경기도 경성과 강원도 양양에만 나타난다. ‘열귀’는 중부 방언인 ‘열구’에 ‘이’가 덧붙은 것이라고 생각되며, ‘열기’는 ‘열귀’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준수(2018)에서는 선행자음이 연구개·후음이 경우에는 ‘기’가 /uy/가 [wi]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 20세기 동북 방언에서 /기/의 구조를 상향이중모음 /wi/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음절 附音이 탈락하는 ‘열귀>열기’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열구’는 함경도만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중부 방언과 공유하고 형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사 어간 말에 ‘ㅣ’가 결합되는 현상이 18세기 말만 해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⑥ 門曰烏喇

小創進平(1944ㄱ: 393)은 ‘門’은 오래 전부터 [o-rɛ]라고 했고 ‘烏喇’의 독음은 이를 가리킨다고 했으며 다만 함경도의 많은 지방에서는 [o-rɛ]가 인근 마을, 주택, 일가 친척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2) 가. 오래 문 『千字 27a』

나. 오래 문 門 『百聯 2a』

중세국어 문헌에도 ‘오래’라는訓이 나타난다. 한자의 훈과 음이 보수적인 『천자문』이나 초학자에게 한시를 가르치기 위한 책인 『백련초해』에서 ‘門’의訓이 ‘오래’인 것을 볼 때, ‘오래’는 중부 지방에서 들어온 어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방언권에서 ‘오래’가 소멸하였지만, 함경도에서는 ‘오래’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민족언어정보화(2007)를 참고하면, ‘문’의 방언형인 ‘오래’는 충북, 황해, 평북에도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문(1991: 267)에서는 “訓蒙字會 凡例가 … 일부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釋을 添記하고 있다. … ‘門문문 國語 오래문’(中 4,7) 등 … 이들은 訓蒙字會의 처음 것이 오히려 新釋이요 첨기된 것이 舊釋 또는 ‘常用之釋’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래’는 舊形이고 ‘문’은 新形으로, 동북 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에서 ‘오래’는 그 자취를 감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흥미로운 점은 ‘오래’는 함경도에서 ‘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마을(村)’ 등의 주변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喇’의 현재 독음은 [라]이며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그 독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18세기에 ‘라발 喇叭’(『倭語 上34b』)과 ‘喇嘛 라마중’(『蒙類 下:8b』)이 확인되는데, 저자가 [래]를 독음으로 하는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喇’를 쓴 것은 당시의 방언이 [오라]일 가능성이 있다.⁴⁾ 중세국어 시기에는 /h/는 하향이중모음 /ay/였기 때문에, 동북 방언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절 부음 /y/가 탈락하여 [o-ra]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8-20세기 사이에, [오라]는 뒤에 ‘ㅣ’가 덧붙여 다시 [오래]가 된 것이다.

4) 당시에 ‘喇’가 [래]였을 가능성도 있겠다. ‘喇’가 音部인 ‘束(속)’이나 ‘刺(랄)’에 대한 유추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소리 역시 [래]와는 거리가 멀다.

⑦ 邊涯曰域

‘邊涯’는 물가(水邊)를 가리키며 ‘域’은 음차이다. 小創進平(1944ㄱ: 392)에서는 함경남북도에서는 ‘水邊’을 [mul-jɔk]으로 말하는데 ‘域’은 이 때의 [jɔk]에 해당하는 말인 듯하다고 언급한다.

(3) 가. 물력[mul-lyək] : 황해, 함남, 함북, 평남, 평북

나. 물여가리[mul#yə-ga-ri] : 경기 연천, 함남 영흥

다. 물역수가리[mul-yək-su-ga-ri] : 황해 황주

라. 물역카리[mul-yək-kʰa-ri] : 함남 신고산·안변·덕원·문천·고원

마. 물열수가리[mul-yəl-su-ga-ri] : 평남 평양

(3)은 小創進平(1944ㄴ: 92)에 나와 있는, ‘물여-’ 계열 방언의 분포이다. 추가적으로 한민족언어정보화(2007)에는 ‘물열’(함북 경성), ‘물열’(함북 경원)의 존재가 확인된다. 두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음을 중심으로 보면, ‘역’이 제일 넓은 분포를 보이지만, ‘열, 열, 열’도 일부 나타난다. 아마 가장 기원이 되는 것은 ‘열’일 것이다. ‘열’의 15세기 형태는 ‘넙’이다. 즉, ‘넙>역’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진호(2012)는 양순음과 연구개음의 PK-교체는 비록 약한 세력을 지니지만 고대국어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오늘날의 ‘열’에 대응하는 방언으로는 ‘여가리(함북), 여주가리(황해 웅진), 여카리(강원 이천·중성), 역새기(함북 중성)’ 등이 나타난다. (3나-라)를 참고하면, 동북 방언에 나타나는 방언형은 ‘물+X(‘열’의 방언형)’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의 ‘열’은 ‘곁(側)’이라는 의미와 ‘옆구리(脇)’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강이나 하천의 옆구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물열’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부 방언권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는 ‘물가’에 그 세력이 밀려 ‘물열’은 소멸하였으며 그 잔존 세력이 일부 방언권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8세기 이전에 다른 방언권에서 ‘넙’의 중성 ‘ㅂ’이 ‘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함경도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중부 방언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3)번과 같은 방언형이 보존될 수 있었다.

(3가) ‘물력’은 ‘물넙’에서 ‘ㄴ’이 앞선 ‘ㄱ’에 동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즉, 순행적 유음화에 의해서 ‘물력’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함북 경원 지방에 ‘물열’이 나타남을 언급했는데, 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ㅂ, ㄱ’과 ‘ㅅ’교체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흥미로운 것은 ‘域’의 훈과 음은 ‘지경 역’인데, 중세국어의 문헌에서 ‘域 앵엿 역’(『訓蒙上3b』)으로 나타난다. ‘앵엿’이 무엇을 칭하는지는 미상이지만 ‘물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⑧ 墻壁曰築

‘墻壁’은 ‘담’을 의미하고 ‘築’은 그것의 소리로서 [툑] 또는 [뚝]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小創進平(1944ㄱ: 392)에서는 함북의 회령·중성·경원 지방에서는 ‘墻’을 [tjuk]이라고 하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tʃuk] 또는 [tʃuk-tam]이라 한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최북단에 가까운 회령·중성·경원 지방은 구개음화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다.

동북 방언에는 ‘죽(뚝)’과 ‘담’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합성형인 ‘죽담’도 있었다. 한

민족언어정보화(2007)를 참고하면, 함경도에 국한하여 ‘담, 돌담, 독, 죽담, 토죽, 흙담’ 등의 방언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죽(독)’은 동북 방언 고유의 방언형일 가능성도 있지만 ‘築’을 音讀字⁵⁾로 삼아 생긴 듯하다. ‘築’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술 룩’(『新類 下:10b』)으로 나타나는데, ‘(담을) 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동북 방언에서는 ‘築’을 차용하여 ‘담’의 의미로 사용했는지도 모른다. 저자인 홍양호가 ‘築’을 쓴 것이 전적으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음가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룩]이 함경도에서 [독](죽)으로 나타난 것, 즉 초성 ‘ㄷ’이 유기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⑨ 南曰前

小創進平(1944ㄱ: 316, 393)에서는 한반도 전체에 걸쳐 ‘南’을 [ap] 또는 [alp]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함경도에서 일반적으로 경상도와 강원도 등으로부터 온 사람을 ‘압흐로 온 사람(앞에서부터 온 사람)’과 같이 부르고 있다고 제시했다. ‘南 앞 남’(『訓蒙 中:2b』)처럼 ‘앞’은 ‘남(南)’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한민족언어정보화(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남산’이 있는데, 이 때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산’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前’[압]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방언형인 것이다.

⑩ 北曰後

‘南曰前’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체에서 ‘北’을 ‘後’의 訓인 ‘뒤’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들은 대체적으로 남향으로 짓기 때문에 남쪽은 당연히 앞쪽이, 상대적으로 북쪽은 뒤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북궁 뒤의 산이 ‘북악산(北岳山)’이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상으로 ‘後’[뒤] 역시 동북 방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前, 後’는 모두 訓讀字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⑪ 小車名曰跋高

『北塞記略』에서는 ‘小車’에 대해 “無輪 様兩木如弓 後有橫輓以受物 輕疾勝車 尤利雪上 如風帆行水⁶⁾”의 설명을 해놓았는데, ‘小車’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썰매’인 것이다. ‘跋高’는 ‘썰매’의 방언형으로 발음 그대로 [발고]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이기문(1991:211)에서는 ‘발귀’의 古形은 “발괴”였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나나이어 ‘pāra’에 소급시킬 수 있다고 했다.⁷⁾ 小創進平(1944ㄴ: 319)에 따르면 ‘썰매’의 방언형 분포는 다음과 같다.

5) 借字表記의 문자체계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남풍현, 2000: 16).

音借	音讀字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서 그 표의성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
	音假字	한자를 음으로 읽되, 그 표의성은 버리고 표음성만을 이용하는 차자.
訓借	訓讀字	한자를 훈으로 읽으면서 그 표의성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
	訓假字	한자를 훈으로 읽되, 그 표의성은 버리고 표음성만을 이용하는 차자.

6) 이에 대한 해석은 小創進平(1944ㄱ: 393)에서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바퀴가 없고 양쪽 나무가 활처럼 휘었다. 뒤에는 橫輓가 있어서 짐을 싣는다. 가볍고 빠른 것은 수레보다 나으며 더욱이 눈 위에서 유리하고 돛단배처럼 물 위를 간다.”

7) 이기문(1991: 211)에서는 『訓蒙字會』에서 중국어 ‘把犁’와 ‘발외’를 들고 “似車而無輪”이라 한 것을 참고했다. 그리하여 중국어의 ‘把犁’는 통구스제어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차용일 가능성이 크며, 한국어의 “발괴”와 통구스어의 “pāra”의 관계는 오랜 옛날에 일어난 차용이라고 언급했다.

- (4) 가. 발구[pal-gu] : 경기 연천, 강원 평창·홍천, 황해 곡산, 함남 신고산, 평남, 평북 등
 나. 발귀[pal-gwi] : 함남, 함북
 다. 발기[pal-gi] : 함남 홍원, 함북 성진·길주
 라. 설매[səl-mɛ] : 강원 삼척, 경북 울진, 평남 중화
 마. 소달구지[so-dal-gu-ji] : 황해 황주, 평남 평양

한민족언어정보화(2007)에 따르면 전남·전북에서 ‘쪽발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발구’라는 형태가 전국적으로 널리 쓰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의 ‘설매’가 18세기에나 이르러야 등장한다는 것이다.

- (5) 가. 눈 우희 설마 산형호다(雪上趕獸) 『漢清 4:52』
 나. 雪馬 설마 『廣才 器用:1b』
 다. 설매 『韓佛 393』

일반적으로 표준어 ‘설매’의 기원을 ‘雪馬’에서 온 것으로 보며, 표준어 ‘설매’는 19세기에 가서야 등장한다. 18세기 이전 또는 『北塞記略』이 집필된 시기까지만 해도 언중들 사이에서 ‘설매’는 그리 자주 쓰이던 단어가 아니었던 듯하다. ‘설매’의 기원이 ‘雪馬’이고, 널리 통용되었다라면 홍양호는 ‘小車’ 대신 ‘雪馬’를 사용했을 것이다.

‘발구’형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과 ‘설매’형이 18세기 말에나 가서야 문헌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舊形 ‘발구’가 新形인 ‘설매’에게 밀리어, 중부 방언에서는 그 자취를 감추고 일부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함경도 지역에만 동시에 남아 있는 ‘발구’, ‘발귀’, ‘발기’의 관계는 밝힌다면, ‘발귀’는 ‘발구’에서 ‘ㅣ’가 덧붙은 것이고, ‘발기’는 ‘발귀’에서 음절 부음인 /w/가 탈락되어 나타난 것이다. 위에서 ‘열구’가 ‘열귀’가 되고, ‘열귀’가 ‘열기’가 되는 것과 평행한 것이다.

‘跋高’의 각각의 한국 한자음은 ‘발’([韓佛 304])과 ‘고’([類合 下:48b])이다. 『北塞記略』이 쓰였던 시기만 해도 ‘발구’는 [발고]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만약 당시의 방언형이 ‘발구’였다면 [구]를 독음으로 가지고 있는 한자를 사용했을 것인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윤도리>윤두리’처럼 ‘ㄱ>ㄷ’의 모음상승이 일어난 것처럼 ‘발고>발구’도 ‘ㄱ>ㄷ’ 변화를 겪었다.

아마도 ‘고’나 ‘고지’는 ‘탈것(車)’을 의미하는 형태소인 듯하다. ‘발고’는 ‘발(足)’을 사용하는 탈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매’의 다른 방언형으로 함남·함북에는 ‘빙고’가, 평남·평북·강원·함경에는 ‘빙구’가 있는데, 이것들은 ‘빙(氷)+구(탈것)’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복합어일 것이다. 추가적으로 표준어 ‘달구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6) 가. 輶 돌고지 요 『訓蒙 中:13a』
 나. 아기를 다가 돌고지에 엮느니라 『翻朴 上:56b』
 다. 달구지 車 『韓佛 462』

16세기에 ‘달구지’는 ‘돌고지’로 나타나는데,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라는 뜻의 ‘돌-’⁸⁾과 ‘고지(탈것)’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이후 ‘돌고지’도 ‘발고>발구’와 마찬가지로

8) 현대국어 ‘달다’는 15세기에 ‘돌-’([釋譜])로 나타난다.

‘ㄱ>ㄷ’의 모음상승을 겪어, 19세기에 ‘달구지’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빙고’와 ‘빙구’도 ‘빙고>빙구’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⑫ 多路岐

『北塞記略』에서는 ‘多路岐’를 “地宜麻織細布 無線桌 不蠶桑 衣袴用狗皮 襪用牛革 長沒脛名曰多路岐 不着鞋屣”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小創進平(1944ㄱ: 393)은 ‘多路岐’가 소가죽으로 만들며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밭에서 풀을 벨 때 사용하는 중국신발이라고 했으며, 만주어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기문(1991: 207)에서는 ‘多路岐’가 만주어에서 왔다는 근거를 小創進平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8세기의 문헌인 『同文類解 上:58』과 『漢清文鑑 11:11』에서 ‘ㄷ로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이 책들에서 ‘ㄷ로기’를 만주어 단어로 hūwaitame gūlha로 들었음을 언급했다.

‘ㄷ로기’는 표준어로 ‘가죽신’의 의미에 해당하는데, 小創進平(1944ㄴ: 202)에 따르면 함경도 지방에서 ‘다루기[ta-ru-gi]’, ‘도레기[to-re-gi]’, ‘도로기[to-ro-gi]’, ‘도록신[to-rok-sin]’, ‘도뢰기[to-rö-gi]’가 나타난다. 유일하게 평북 박천·회천·강계·자성·후창에서 ‘다루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인근 함경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함북의 학성·경원에서 ‘오로기’가 나타난다¹⁰⁾.

‘가죽신’의 방언인 ‘ㄷ로기’는 그 어원이 불분명하나 동북 방언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형태임은 틀림없다. 저자 홍양호가 18세기 ‘ㄷ로기’를 ‘多路岐’[다로기]로 나타낸 것은 18세기 ‘·’의 비음운화와 관련이 있다. 이기문(1998:201-202)은 18세기 후반에 ‘·’가 어두음절에서 ‘·>ㅈ’로 변하여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문자 ‘·’만이 1933년까지 사용되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홍양호는 ‘ㄷ로기’를 ‘多路岐’로 표기했으며 이는 정확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다로기]는 여러 음운 변동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된다. ‘다루기’는 [다로기]에서 ‘ㄱ>ㄷ’의 모음 상승이 일어난 것이며, ‘도뢰기’는 [ㄷ로기]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난 형태이다. ‘도레기’는 ‘도뢰기’에서 ‘ㅅ’/ö/가 ‘ㄱ’/e/로 교체된 것이다.¹¹⁾ ‘도록신’은 ‘도로기+신’의 합성어인데, ‘도로기’에서 말음 ‘ㅣ’가 탈락한 뒤 ‘신’과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⑬ 茨仁曰馬房

‘茨仁’은 마름과의 한해살이풀로 연못이나 늪에 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며 표준어는 ‘마름’이다. 한민족언어정보화(2007)에 따르면 방언형은 크게 ‘마름’ 계열과 ‘올밤’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마름’ 계열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반면에 ‘올밤’ 계열은 경상도 지역

9) 小創進平(1944ㄱ: 393)에서 참고하면 해석은 다음과 같다. 지방에서는 의당 삼으로 細布를 짠다. 線桌도 없어서 옷이나 바지는 개가죽을 쓰고 버선은 소가죽을 쓰는데 길이가 정강이까지 가는 것을 多路岐라고 하며 짚신은 신지 않는다.

10) 이기문(1991: 207)에서는 만주어에는 olongdo(넓적다리에 올라오는 장화)와 함께 olo-(강을 걸어서 건너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ološon(물을 걸널 때 신는 가죽 장화)과 olosi(ološon을 신고 강의 모래가 모여 얇은 곳을 파내는 사람)가 있다고 했다. 의미로 보면 ‘오로시’는 olongdo나 ološon과 가까우나 음운으로 보면 olosi와 가깝다면서, 그 특징은 가죽장화로 하여금 olosi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미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11) 첫음절의 ‘ㄷ’가 ‘도’로 바뀌는 것은 예상외의 변화이지만, 이기문(1998: 210)에서는 ‘스매>소매’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ㅅ>ㅈ’의 변화도 특수한 경우는 아닌 듯하다. 김준수(2018: 49)에서는 ‘모뢰>모레’가 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에만 나타난다. 小創進平(1944ㄱ: 393)에서는 함경북도에는 ‘말방이’[mal-beŋ-i]가, 함경남도에는 ‘마름’[ma-rim], ‘말배’[mal-be], ‘말뱅이’[mal-beŋ], ‘마래미’[ma-re-mi]가 나타난다고 한다.

저자 홍양호가 함경북도 경흥에 있었기 때문에 함경북도의 ‘말방이’를 근거로 하면 ‘馬房’¹²⁾은 [말방]으로 혼독되었을 것이다. ‘말방이’는 ‘말방’에 ‘ㅣ’가 덧붙은 것으로 전형적인 동북 방언의 특징을 보여준다. ‘말뱅이’는 ‘말방이’에 음라우트가 일어난 형태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함경북도는 함경남도에 비해 음라우트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요인은 중앙 방언과 가장 멀리 떨어졌다는 지리적인 원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북 방언의 ‘馬房’[마방]은 동북 방언 특유의 방언형은 아닌 것이다.

⑭ 俗名夜來

‘夜來’에 대해서 『北塞記略』에서는 “豆滿江産松魚 每四月風和始出 巨口鱗極細 鰓有四 似松江之鱸 名曰松魚 其以是歟 夏有魚 似秀魚而小”¹³⁾라고 말하고 있다. 小創進平(1944ㄱ: 393, 402)에서는 함경북도에서는 ‘야뤼’[ja-rwi], ‘야리’[ja-ri]가, 함경남도에서는 ‘야리’[ja-ri]가 존재함을 제시하며, 만주어 ‘yaru(河魚類)’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곽충구(2017)에서는 ‘夜來’가 [야리, 야뤼]를 표기한 것으로 보며 만주어 ‘yaru’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된 방언형으로는 ‘야리’, ‘애리’, ‘야뤼’ 등이 있다. ‘야뤼’는 만주어 ‘yaru’에서 ‘ㅣ’모음이 붙은 것이며, ‘야리’는 음절 부음 /w/가 탈락된 것이다. 앞서 ‘발귀>발기’처럼 동북 방언에서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음절 부음 /w/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⑮ 高阜曰德

‘高阜’은 표준어 ‘언덕’을 가리키며 ‘德’은 음차로 보인다. 즉 동북 방언에서는 [덕]이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이는 小創進平(1944ㄱ: 391)에서 함경도에서 ‘언덕’이 [tək]으로 나타나는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앞의 책 자료편을 참고하면 함남의 많은 지역에서 ‘언덕’을 ‘둔덕’[tun-dək]이라고 하기도 한다.

⑯ 猫曰虎樣

‘猫’는 고양이를 지칭한다. 小創進平(1944ㄱ: 392)에서는 함북에서는 ‘고애’[ko-jɛ], ‘고내’[ko-nɛ], ‘고냉이’[ko-nɛŋ-i]가, 함남에서는 ‘고애’[ko-jɛ], ‘고양’[ko-jaŋ], ‘고애’[ko-ɛ], ‘공애’[koŋ-jɛ], ‘고냉이’[ko-nɛŋ-i]가 나타난다고 했다. ‘虎樣’의 한자음은 ‘호’(^{『訓蒙 上:17a』})와 ‘양’(^{『類合 下:51a』})이므로 [호양]이라 발음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小創進平(1944ㄱ: 392)은 ‘虎樣’ 고양이의 모습이 호랑이와 유사하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 戲字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北塞記略』에서 ‘猫曰虎樣’이 다른 방언들과 함께 열거되었다는 점과 저자가 당시의 음을 세밀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虎樣’을 단순히 놀이를 위한 글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양]이 차용어일 가능성과 ㄱ-약화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다.

⑰ 山峰曰嶂

‘山峰’은 ‘산봉우리’를 의미하며, ‘嶂’은 혼독되었던 듯하다. ‘嶂’의 훈은 ‘메부리 돌릴’이며

12) ‘물 마’ ^{『訓蒙 上:10b』}, ‘방 방’ ^{『類合 上:22b』}에서 그 훈과 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小創進平(1944ㄱ: 394)에서의 번역에 따르면, “두만강에서 나는 송어이다. … 여름에 나며 송어와 비슷한데 작다. 俗名으로 夜來라고 한다.”와 같다.

20세기 『新字典』에서 확인된다. 小創進平(1944-: 393, 402)에서는 『千字文』에는 ‘岡, 嶽, 岵’ 등을 ‘뫼부리’, 『白聯抄』에도 ‘岫, 峯, 岳, 嶠’를 ‘뫼부리’라고 했으며 『杜詩諺解』에서도 ‘峯, 岡, 嶠’를 ‘뫼부리’라고 풀이했는데, 이 경우에 ‘嶠’를 훈으로 읽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嶠’의 훈독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결정내리기는 어렵지만 오늘날의 방언형을 참고할 수 있다. 한민족언어정보화(2007)를 보면, 오늘날 동북 방언에는 ‘봉오리’(함경), ‘뫼뵤·뫼·뵤’(함북 경흥)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뵤’인데, 이는 ‘뫼’의 중성과 종성 사이에 ‘ㅣ’가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北塞記略』이 지어졌을 당시에, 경흥에서는 ‘산뫼우리’를 아직 ‘ㅣ’가 덧붙지 않은 형태인 ‘뫼뫼, 뫼’ 정도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으로 ‘嶠’도 동북 방언의 고유한 어형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⑱ 橡實曰栗

‘橡實’는 ‘상수리’인데 도토리과 비슷한 열매이며, ‘栗’은 [밤]으로 훈독되었을 것이다. 小創進平(1944-: 394)에서는 함경도 지방에서는 밤이 매우 드물고 실물 또는 명칭을 알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상수리나무 열매를 [pam]이라 부른다고 했다. ‘상수리’에 대한 방언형은 크게 ‘밤’ 계열과 ‘도토리’ 계열로 구분되는데, 동북 방언, 특히 함북 지역은 ‘밤’ 계열이 우세했던 것이다.

4. 『北塞記略』의 어휘 정리

4.1. 차자표기의 방법

차자표기는 한자의訓과 음을 빌려 표기한 것으로,訓借와 음借로 나뉜다. 훈차는 다시 훈독자와 훈가자로, 음차는 음독자와 음가자로 구분할 수 있다. 『北塞記略』에 나온 동북 방언 어휘의 표기 방식을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훈차	훈독자	①師, ⑨前, ⑩後, ⑰嶠, ⑱栗
	훈가자	⑬馬房
음차	음독자	⑧築, ⑮德, ⑯虎樣
	음가자	②膝, ③輪道里, ④彈, ⑤悅口, ⑥烏喇, ⑦域, ⑪跋高, ⑫多路岐, ⑭夜來

<표 2> 차자표기 방법에 따른 어휘 분류

모두 18개의 어휘 중, 훈독자가 4번, 훈가자가 2번, 음독자가 3번, 음가자가 9번 활용되었다. 음가자가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은 동북 방언을 세밀하게 전사하기 위한 저자의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음과 다르게 하나의 한자에는 여러 개의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훈차를 이용하면 자칫 독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음은 비교적 고정되어 전승되기 때문에, 음차를 활용하면 해당 단어의 소리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北塞記略』에 록된 방언들은 주로 음차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4.2. 18-20세기의 동북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첫째, 동북 방언은 ‘발구>발귀’, ‘열구>열귀’처럼 명사 뒤에 ‘ㅣ’가 덧붙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北塞記略』의 표기에서는 이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이후에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8세 말에서 20세기 사이에는 ‘윤도리>윤두리’, ‘발고>발구’, ‘다로기>다루기’처럼 일련의 ‘ㄴ>ㄷ’의 모음상승 현상이 동북 방언에 존재했다.

셋째, 20세기 동북 방언에서 ‘기’는 상향이중모음 /wi/였으며, 음절부음 /w/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발귀>발기’, ‘열귀>열기’, ‘야뤄>야리’의 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동북 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함북보다 함남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난 듯하다. 예를 들어, ‘스승이>스령이’, ‘도로기>도뢰기’, ‘말방이>말뱅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동북방언 어휘의 어원

『北塞記略』에 기록된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여타의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동북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어 어휘이며, 다른 하나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이다. 전자에는 ③輪道里, ④彈, ⑧築, ⑫多路岐, ⑭夜來, ⑯虎樣이 속하며, 후자에는 나머지 것들이 속한다. 전자의 ④彈, ⑫多路岐, ⑭夜來 등은 차용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동북 방언이 지리적으로 중부 방언과 멀고,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앞서 『北塞記略』의 저자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北塞記略』에 기록된 동북 방언의 어휘를 살펴보았다. 홍양호는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 동북 방언에 대한 상당히 정밀한 표기를 시도하였고 당시의 함경도의 방언들을 잘 기록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18~20세기의 동북 방언의 특징과 어휘들의 어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다른 문헌들과 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를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아 보완해 갈 것이다.

참고문헌

<논저류>

곽충구(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20世紀 初 러시아의 Kazan에서 刊行된 文獻資料에 依한-』, 국어학총서20, 태학사.

곽충구(2007), 동북방언의 어휘, 방언학 5, 한국방언학회, 23-70.

김준수(2018), 『하향이중모음 ‘니, 기’의 변화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小創進平(1994ㄱ), 이진호 역(2009),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小創進平(1994ㄴ), 이상규·이순형 교열(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손성필(2014), 『北塞記略』의 편찬 경위와 편찬자 문제,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301-333.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이진호(2012), 국어_PK-교체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63, 국어학회, 247-273.

<기 타>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2007 한민족 언어정보 통합검색프로그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http://encykorea.aks.ac.kr>)

교수신문, “18세기 함북지역 정보 서술한 최초 저술 … 後代 북방 지리서의 전범”(2013. 11. 30 19:30), (<http://www.kyosu.net>)

음변화로 본 ‘병’의 음가

張碩(寶雞文理學院)

1. 서론

‘병’은 사라진 글자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병은 한국어 음운사 뿐만 아니라 어휘사, 방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병에 대한 정확한 해설은 꼭 필요하다.

‘병’의 음가와 관련하여 河野六郎(1945)에서는 처음으로 ‘병’의 음가를 유성 양순 마찰음 [β]로 재구하였다. 이송녕(1948), 허웅(1960), 이기문(1961), 윤황애(1962), 김석득(1964), 김완진(1967), 양재철(1967), 김무림(2004)을 비롯한 대부분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현재 학계에서도 ‘병’의 음가에 대해 유성 양순 마찰음 [β]로 재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β] 음가설의 증거는 주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병이 유성음 사이에만 출현하므로 병을 유성음으로 재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脣乍合而喉聲多’라는 『訓民正音』의 설명,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의 범례, 『四聲通解』의 범례를 통해 병을 양순 마찰음으로 재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訓民正音』에는 무성 양순 마찰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는데 [β]로 표기하는 글자를 만든 원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飜譯老乞大』, 『飜譯朴通事』, 『四聲通解』가 중국어 교과서로서 범례의 내용도 중국어의 음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중국어를 표기할 때 쓰이는 병과 한국어를 표기할 때 쓰이는 병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병의 음가를 재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물론 ‘병’의 음가에 대한 다른 주장도 있다. 남광우(1959), 김동소(2002)를 비롯한 학자들은 ‘병’이 특정한 음가를 가지지 않고 대개 [b]와 [w]의 두 발음을 절충적으로 표기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종희(1983), 서영석(1989) 등 학자는 ‘병’의 음가를 유성 양순 파열음 [b]로 해석했다. 그리고 우민섭(1997)은 ‘병’의 음가를 순치 유성 마찰음 [v]로 봤다. 이러한 절충표기설, [b]음설, [v]음설도 문제가 있다. 우선, 『訓民正音』에서 이미 ‘병’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병’을 절충적 표기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15세기 문헌을 보면 주로 연철 표기를 사용하고 연철 표기는 형태보다 발음을 더 중시한다. 더군다나 『訓民正音』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형태소를 밝혀 적으라는 기록이 없다. 상징표기 문자는 오히려 당시 한국어의 문자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징표기 문자의 존재는 『訓民正音』의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과 어긋나고 상징표기설의 설득력이 높지 않다. 다음, 후기 중세 한국어의 순음 파열음을 제외한 다른 파열음은 유성과 무성으로 대립되는 문자가 없는데 순음 계열만 유성과 무성으로 대립되는 문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박종희(1983), 서영석(1989)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b]음설도 문제가 있다. 마지막, 우민섭(1997)은 범어의 ‘va’가 ‘ㅂ’로 음역된 점을 근거로 하여 ‘병’의 음가를 [v]로 보았다. 범어의 음운 체계와 당시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眞言을 표기한 한글의 음가는 당시의 문헌들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한글의 음가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고려 없이 眞言의 한글 표기를 통해 당시 한글의 음

가를 逆推定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이동석(2013)에서는 기존연구를 비판하면서 ‘빙’의 음가를 활음 [w]로 해석하였다. 활음설은 일본학자인 小倉進平(1923)이 처음 제기한 주장이고 장향실(2003), 이동석(2004) 등 후속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활음은 高母音에서 中母音이나 低母音으로 빨리 움직이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투입한 개념이다(P.Ladefoged and I.Maddieson 1996:322). 이에 따르면 활음은 모음에 속한다. ‘빙’은 자음에 속한 것이 분명하고 그의 음가를 기술할 때 활음보다 접근음(approximant)¹⁴⁾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w]는 강한 [원순성] 자질을 가진 분절음이다. 만약 ‘빙’은 강한 [원순성] 자질을 지닌 분절음이라면 『訓民正音』은 ‘ㄲㅅ’ 말고 다른 설명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⁵⁾ 『訓民正音』은 ‘빙’에 대해 ‘ㄲㅅ’으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아 ‘빙’은 강한 [원순성] 자질을 지닌 분절음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빙’은 선학들에 의해 긴 시간동안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로서 ‘빙’의 음가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 논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빙’은 再考를 요구한다.

‘빙’의 음가를 재구하는 데에 있어서 문헌 자료가 아주 중요하다. ‘빙’은 사라진 글자로서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이 분명하다. 문헌 자료를 통해 ‘빙’과 관련된 음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음변화를 통해 ‘빙’의 음가를 재구할 수 있다. 자음을 ‘C’로 표기하고 모음을 ‘V’로 표기하여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1음절과 2음절 단어를 ‘C1VC2’, ‘C1V1C3C4V2C2’로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C1’은 어두 초성에 있는 자음이고 ‘C2’는 어말 종성에 있는 자음이며 ‘C3’은 어중 종성에 있는 자음이고 ‘C4’는 어중 초성에 있는 자음이다. ‘빙’은 ‘C4’ 자리에만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V2’와 ‘C3’은 ‘C4’ 자리와 인접하고 ‘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V2’ 자리에 모음이 올 수 있고 ‘C3’ 자리에는 ‘ㄹ’, ‘ㅅ’만 출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C4V2’의 연쇄와 ‘C3C4’의 연쇄 즉 ‘빙+모음’과 ‘ㄹ/ㅅ+빙’의 두 가지 연쇄를 고찰하고 ‘빙’과 관련된 음변화를 분석하여 ‘빙’의 음가를 재구하고자 한다.

2. ‘빙+모음’의 음변화로 본 ‘빙’의 음가

2.1. ‘빙+모음’의 음변화에 대하여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빙’은 ‘아’와 ‘어(어’로 시작하는 중모음 포함), ‘으(으’로 시작하는

14) 접근음은 능동부(active articulator)와 수동부(passive articulator)가 아주 가까워서 난기류(turbulence airflow)가 생성되지 않고 마찰 소음도 동반되지 않는 자음이고(朱曉農 2010:149) [j], [w]는 대표적인 접근음이다. 따라서 [j], [w]를 비롯한 음성은 자음으로도 쓰일 수 있고 모음으로도 쓰일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성에는 모음만 나타나고 초성, 종성에는 자음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음으로 쓰인 [j], [w]를 접근음으로 부르고 모음으로 쓰인 [j], [w]를 활음으로 부른다.

15) 『訓民正音』에서는 ‘빙’에 대해 ‘ㅇ連音唇音之下, 卽爲唇輕音者, 以輕音唇ㄲㅅ而喉音多也.’라고 설명하였다. 『訓民正音』에서는 분절음의 [원순성] 자질을 ‘口張’과 ‘口蹙’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분절음의 [원순성] 자질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빙’의 음가가 [w]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口蹙’을 선택하여 ‘빙’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모음 포함)’와 ‘으(‘으’로 시작하는 중모음 포함)’, ‘오’와 ‘우(‘우’로 시작하는 중모음 포함)’, 그리고 ‘이(‘이’로 시작하는 중모음 포함)’와 결합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결합을 살펴보고 ‘병’과 관련된 음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1.1. ‘ㅂㅅ’, ‘ㅂㅅ’의 음변화에 대하여

후기 중세 문헌에서 ‘병’은 ‘아’, 혹은 ‘어’와 결합하는 형태가 쉽게 발견된다. 예를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1)

가. 太子 | 것바시 드외야 빌머거 사니다가 (『釋譜詳節』24:52ㄱ)

나. 北道에 보내어시닐 글발로 말이스븐들 가삼 겨샤매 오늘 다르리잇가 (『龍飛御天歌』26)

다. 性 비히시 어득고 년가바 어루 큰 일 몬 니르리로다 (『月印釋譜』13:10ㄴ)

라. 劫은 時節이니 時節에 모딘 이리 만히야 흐리워 罪業을 니르바들씨라 (『月印釋譜』1:16ㄴ)

마. 思議 몬호믈 도바 나토니라 (『月印釋譜』17:30ㄴ)

(2)

가. 蕩子는 것바시라 (『金剛經三家解』4:22ㄱ)

나. 文은 글와리라 (『訓民正音諺解本』1ㄴ)

다. 性 비히시 어듭고 년가와 이기여 큰 法 니르디 몬히샤믈 가줄비니라 (『法華經諺解』2:190ㄱ)

라. 又 업슨 功德을 니르와드샤 (『月印釋譜』2:54ㄱ)

마. 悲와 智와로 도와 生死 涅槃에 住티 아니히실시 (『圓覺經諺解』上1-2:118ㄱ)

(1)에서 제시한 예는 모두 ‘병’이 ‘아’와 결합하는 예이다. (2)에서 제시한 것처럼 ‘ㅂㅅ’가 같은시기 문헌 혹은 후기 문헌에서는 ‘와’로 표기된 형태가 확인된다. (1)과 (2)를 통해 ‘ㅂㅅ’에서의 ‘병’이 활음 [w]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계속 예문을 보겠다.

(3)

가. 붓그며 구버 겹긔 먹더니 (『月印釋譜』21:54ㄱ)

나. 그 床에 ㄴ드기 누버 잇고 (『月印釋譜』21:43ㄱ)

다. 혼갓 거출오 더러버 (『月印釋譜』13:38ㄱ)

라. 熱惱는 더버 설볼씨니 (『月印釋譜』1:29ㄱ)

마. 목숨 브거버 손소 몬 죽노이다 (『月印千江之曲』52ㄱ)

(4)

가. 또 성앙을 구워 브티라 (『救急簡易方』6:67ㄱ)

나. 베 브레 누워 두의티디 몬히엿도다 (『杜詩諺解』16:4ㄴ)

다. 외롭고 더러워 그렛 아스믈 더레요니 (『杜詩諺解』22:53ㄴ)

라. 므스미 더워 火 | 發히야 (『楞嚴經諺解』8:85ㄴ)

마. 노푼며 브거워 히미 難히 이기리로다 (『杜詩諺解』8:9ㄱ)

(3)에서 제시한 예는 모두 ‘병’이 ‘어’와 결합하는 예이다. 이러한 예들의 후대형은 (4)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벼’가 후대 문헌에서 ‘워’로 표기된 형태가 확인된다. 이로부터 ‘벼’에서의 ‘병’은 활음 [w]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곶-’, ‘뚝-’, ‘곶-’, ‘늪-’과 같은 용언은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예가 확인된다.

(5)

가. 倬妁은 부드럽고 고아 스랑호울씨라 (『楞嚴經諺解』8:131ㄴ)

나. 썰리 도아 發호씨라 (『楞嚴經諺解』7:50ㄱ)

다. 甘草 구어 저기 붉거든 사호니라 (『救急方諺解』下:26ㄱ)

라. 아슬라히 荊州 衡山에 누어쇼라 (『杜詩諺解』23:34ㄱ)

(2마), (4가), (4나)에서 이미 제시한 것처럼 ‘뚝-’, ‘곶-’, ‘늪-’은 ‘-아’ 혹은 ‘-어’와 결합할 때 ‘도와’, ‘구워’, ‘누워’ 형태가 확인된다. 그리고 15세기 문헌에서 ‘곶-’의 활용형은 ‘고와’ 형태가 확인된다.¹⁶⁾ 예문 (5)를 아울러 고려하면 15세기 중후반에 ‘고와’와 ‘고아’, ‘도와’와 ‘도아’, ‘구워’와 ‘구어’, ‘누워’와 ‘누어’가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표기법에 의해 생긴 표기의 공존이고 또 하나는 음변화에 의해 생긴 발음의 공존이다.

만약 표기법의 문제라면 ‘고와’, ‘고아’가 /owa/, /oa/ 중 어떤 것을 표기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ㄷ워’, ‘ㄷ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 ‘보-(見)’의 활용형인 ‘보아’와 ‘보와’가 모두 확인되므로¹⁷⁾ ‘고와’, ‘고아’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김현(1999: 211-212)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와’와 ‘고아’, ‘누워’와 ‘누어’를 비롯한 공존형이 표기법보다는 음변화에 의해 생긴 것으로 해석했다.

계속해서 음변화의 측면을 보겠다.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병’이 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이 활음 [w]로 변한 다음에 활음 [w]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바’, ‘벼’가 각각 ‘와’, ‘워’로 변한 것은 아주 일반적인 변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이 탈락한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모음 ‘오’, ‘우’ 뒤에 활음 [w]가 탈락하는 음변화가 흔히 일어난다(김현 1999). 따라서 ‘뚝-’의 활용형 ‘도아’는 ‘도바→도와→도아’의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고와’와 ‘고아’를 비롯한 공존은 음변화에 의해 생긴 발음의 공존이다.

2.1.2. ‘뵈’, ‘보’의 음변화에 대하여

후기 중세 문헌에서 ‘뵈’, ‘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들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6)

가. 값 가본디 쉬우물 爲호야 (『月印釋譜』14:80ㄱ)

나. 므술히 멀면 乞食호디 어렵고 하 잣가뵈면 조티 몬호리니 (『釋譜詳節』6:23ㄴ)

다. 사르미게론 더러본 서근 내를 ㄹ리뵈며 (『月印釋譜』18:39ㄴ)

라. 聖祖仁政을 도뵈시니이다 (『龍飛御天歌』96)

16) 뵈는 거집중은 고와 城을 기우리혀 나노소니 (『杜詩諺解』22:43ㄱ)

17) 내 紫磨黃金色身을 보아 (『釋譜詳節』23:11ㄴ)

親히 宮人을 보샤 顔色을 보와 슬피시니 (『內訓』2:70ㄴ)

마. 스ᄃᆞᆫ 軍馬를 이길씩 ᄃᆞᆫ 물리조치샤 모딘 도즈굴 물리시니이다 (『龍飛御天歌』35)

바. 그 머근 後에는 여러 가짓 상ᄃᆞᆫ 이리 나니라 (『月印釋譜』1:43ㄱ)

(7)

가. 中은 가온디라 (『訓民正音諺解本』9ㄴ)

나. 荊州人 鄭審薛據는 書信을 보내요미 갓가오니 (『杜詩諺解』7:13ㄴ)

다. ᄃᄃᆞᆫ ᄃᆞᆫ 前으로 제 올호라 (『月印釋譜』9:31ㄴ)

라. 賢豪 經綸을 도오니 (『杜詩諺解』22:41ㄱ)

마. 거티 먼 스ᄃᆞᆫ 소니 꾸물 꾸엿거늘 (『金剛經三家解』3:37ㄱ)

바. 상ᄃᆞᆫ 말스ᄃᆞᆫ 값간도 이베 내디 아니ᄃᆞᆫ (『內訓』1:25ㄴ)

(6)에서는 ‘병’이 ‘으(‘으’로 시작하는 중모음 포함)’와 결합된 ‘ᄃᆞᆫ’형태를 가진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 (7)에서는 ‘ᄃᆞᆫ’가 ‘오’로 변한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계속해서 ‘ᄃᆞᆫ’의 예를 보겠다.

(8)

가. 서ᄃᆞᆫ 賊臣이 잇고 (『龍飛御天歌』37)

나. 그저 더러ᄃᆞᆫ 거긔셔 微妙ᄃᆞᆫ 法을 나토며 (『釋譜詳節』13:33ㄴ)

다. 목수미 뜨거ᄃᆞᆫ 거실씩 손소 죽디 묻ᄃᆞᆫ ᄃᆞᆫ (『釋譜詳節』6:5ㄱ)

라. 설ᄃᆞᆫ 일도 이러ᄃᆞᆫ (『釋譜詳節』6:5ㄴ)

마. 물로미 쉬ᄃᆞᆫ ᄃᆞᆫ 가줄비시니라 (『月印釋譜』14:76ㄴ)

(9)

가. 아바님 서울 겨샤 (『月印釋譜』10:1ㄱ)

나. ᄃᆞᆫ 더러운 내라 (『楞嚴經諺解』3:7ㄱ)

다. 뜨거운 恩愛를 다 ᄃᆞᆫ (『楞嚴經諺解』1:41ㄴ)

라. 또 人間에 이셔도 艱難ᄃᆞᆫ 설운 苦와 듯오니 (『法華經諺解』2:84ㄴ)

마. 쉬운 히미면 엇데 기피 물이리오 (『杜詩諺解』24:30ㄱ)

(8)과 (9)의 예를 보면 ‘ᄃᆞᆫ’형태가 ‘우’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변화에 대해 보겠다. 김완진(1972: 53)을 비롯한 학자들은 */wΛ/, */wi/를 설정하고 이러한 이중모음이 再音素化하면 각각 ‘오’, ‘우’가 된다고 주장하며 위에서 제시한 ‘병’의 변화를 ‘βΛ>*/wΛ>o’, ‘βi>*/wi>u’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주장은 ‘병’이 음소 /β/일 경우만 가능하다. 둘째, 현대 한국어에서 ‘오’, ‘우’를 */wə/, */wi/로 재분석할 수 없는데 과연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오’, ‘우’를 */wΛ/, */wi/로 재분석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셋째, */wΛ/, */wi/는 문증되지 않는다.

김주필(2001: 35-44)에서는 ‘병’이 [+순음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절음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순음성] 자질은 후행하는 ‘으’나 ‘으’에 [원순성]의 영향을 미쳐 원순모음화 현상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병’ 뿐만 아니라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도 [+순음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으’, ‘으’은 선행하는 [+순음성] 자질로부터 영향을 받아 각각 ‘오’, ‘우’로 변했다면 같은 시기에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가 서로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은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 많이 확인되지 못한다. 한편, 현대 한국어에서 ‘으:우’, ‘어:오’는 체계적으로 ‘평순모음:원순모음’의 대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음 밑에서

‘으’가 ‘우’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가 ‘오’로 발음되는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순음성] 자질은 후행하는 [-원순성] 자질을 가진 분절음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김주필(2001)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병’, ‘으’, ‘으’는 모두 [-원순성] 자질을 가진 분절음이지만 ‘오’, ‘우’는 모두 [+원순성] 자질을 가진 분절음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공시적으로 양순음 뒤에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이 없다. 따라서 ‘병’은 양순음으로서 후행하는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만약 ‘병’이 활음 [w]로 변하면 이론적으로 ‘으’, ‘으’를 원순모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활음 [w]는 [+원순성] 자질을 가진 분절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 보겠다. 15세기의 한국어에 이중모음 */오•/, */우•/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오•], [우•]가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w]가 강한 [+원순성] 자질을 지닌 분절음이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오•], [우•]가 원순음으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세기 한국어에 [+원순성] 자질을 가진 모음은 /오/, /우/, /와/, /워/, /외/, /위/, /왜/, /웨/가 있다. 음성적으로 활음 [w], [으]¹⁸⁾, [으], [오], [우]는 후설 고모음이고 활음 [j]는 전설 고모음이며 [아], [어]는 후설 저모음이다. 따라서 음성적으로 [오]와 [오•], [우]와 [우•]는 제일 유사하다. 청자는 명확하지 않은 소리를 해석할 때 矯正(correction), 誤矯正(hypo-correction), 過度矯正(hyper-correction)할 수 있다(J.J.Ohala 1993: 257-258). 청자가 정확히 교정하면 음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오교정하거나 과도교정하면 음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5세기 한국어에 음소 */오•/, */우•/가 없고 음성적으로 [오]와 [오•], [우]와 [우•]가 아주 유사하다. 청자는 [오•], [우•]를 듣고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소리를 각각 [오], [우]로 오교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바로 음변화 ‘보→오’, ‘보→우’의 원인이 된다.

2.1.3. ‘보’, ‘부’의 음변화에 대하여

후기 중세 한국어에 ‘보’, ‘부’를 가진 형태가 있다. 예를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10)

가. 갓가보물 자바 니르시니라 (『月印釋譜』17:27ㄴ)

나. 두루 돌보며 붓그려더라 (『釋譜詳節』3:8ㄱ)

다. 내 겨지비 고보미 사룻 中에도 짝 업스니 (『月印釋譜』7:11ㄱ)

(11)

가. 갓가오물 자바 니르시니라 (『法華經諺解』5:177ㄱ)

나. 아히뽽 서르 돌오던 사르미 다으니 (『杜詩諺解』24:47ㄴ)

다. 顏色이 도흐며 고오미 아니오 (『內訓』1:13ㄱ)

(10)은 ‘보’를 가진 형태를 제시한 것이고 (11)은 그들의 후대형을 제시한 것이다. (10)과 (11)을 통해 ‘보’가 ‘오’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가. 이제 호오사 무덥 서리엿 나모 아래 이셔도 두리부미 업소니 (『月印釋譜』7:5ㄴ)

18) 최근 안영희(2015)에서는 ‘으’의 음가를 평순 후설 고모음으로 재구하였다.

- 나. 므거부미 自在홀씨오 (『月印釋譜』11:7ㄴ)
 다. 더뵤 치뵤로 설버ㅎ다가 (『釋譜詳節』9:9ㄴ)
 (13)
 가. 두리움 滅히샤매 니르리 (『法華經諺解』3:163ㄱ)
 나. 또 惑業이 어듭고 므거우미 이서 (『楞嚴經諺解』7:86ㄴ)
 다. 反逆흔 사람 주규를 치워 더위를 디내놋다 (『杜詩諺解』24:2ㄱ)

(12)는 ‘부’를 가진 형태를 제시한 것이고 (13)은 이러한 형태의 후대형을 제시한 것이다. (12)와 (13)을 통해 ‘부’가 ‘우’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가 ‘오’로, ‘부’가 ‘우’로 변한 현상에 대해 보겠다.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병’이 아무 변화를 겪지 않고 탈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차적으로 ‘병’이 활음 [w]가 되고 이차적으로 활음 [w]가 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을 보겠다. 만약 ‘보’, ‘부’에서의 ‘병’이 탈락한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탈락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오’, ‘우’는 후설 고모음이고 ‘으’, ‘으’도 후설 고모음이다. 앞서 2.1.2에서 후설 고모음인 ‘으’, ‘으’가 후행할 때 ‘병’이 탈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후설 고모음인 ‘우’, ‘오’가 후행할 때 ‘병’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오’, ‘우’는 원순 모음이고 원순 모음은 선행하는 ‘병’을 탈락시킬 수 있다는 가정도 있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오’, ‘우’는 선행하는 양순음인 ‘ㅂ’, ‘ㅍ’, ‘ㅁ’을 탈락하는 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보’, ‘부’에서의 ‘병’은 아무 변화를 겪지 않고 탈락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가능성을 보겠다. ‘보’, ‘부’에서의 ‘병’은 활음 [w]로 변하면 그들은 각각 [wo], [wu]가 된다. ‘wo→o’, ‘wu→u’의 음변화에 대해 음운론적, 음성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음운론적으로 */wo/, */wu/는 w계 이중모음에서의 체계적 빈칸이고 활음 [w]가 후행하는 [o], [u]와 새로운 이중모음으로 융합되지 못하므로 활음 [w]가 탈락한다. 한편, [wo]와 [o], [wu]와 [u]는 음성적으로 유사성이 많고 청자가 쉽게 [wo], [wu]를 [o], [u]로 오분석한다. 따라서 ‘wo→o’, ‘wu→u’의 음변화를 청자의 오분석에 의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1.4. ‘비’의 음변화에 대하여

후기 중세 문헌에 ‘비’를 가진 형태가 있다. 예를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 (14)
 가. 俱夷 ㅼ덴 갓가비 가습고져 (『釋譜詳節』3:15ㄱ)
 나. 각시 ㅼ노라 ㄴ 고비 빗여 드라 末利花鬘을 몸애 므스뵤나 (『月印千江之曲』18ㄱ)
 다. 곧 알되 六識이 멀터비 境을 알씨니라 (『月印釋譜』11:48ㄱ)
 라. ㄴ 如 사비 爲蝦 (『訓民正音』解例:56ㄱ)
 마. 오히려 讀誦을 어려비 너기거니와 (『月印釋譜』1序:23ㄴ)
 (15)
 가. 그 사르미 갓가이 나 니거늘 (『法華經諺解』2:125ㄴ)
 나. 고이 ㅎ오 조ㅎ니로 그 우회 ㄴ고 (『法華經諺解』2:140ㄱ)
 다. 또 열 ㅎ을 그슴호몬 ㄴ른 ㅎㅁ로 멀터이 보미라 (『楞嚴經諺解』2:7ㄴ)

라. 모든 水母들히 사이로 누늘 사마 그 類 ㄴ독히니라 (『楞嚴經諺解』7:89ㄱ)

마. 二乘의 道 求호미 어러이 낫고 (『法華經諺解』3:174ㄴ)

(14)와 (15)를 통해 ‘비’에서의 ‘빙’이 탈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빙’의 탈락과 관련 하여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빙’이 활음 [w]가 되고 나서 탈락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빙’이 아무 변화를 겪지 않고 바로 탈락한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을 보겠다. 이동석(2013)에서는 ‘빙’의 음가를 [w]로 재구하고 ‘비>이’에 대해 당시 */wi/ 이중모음이 없기 때문에 ‘빙’이 탈락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당시 이중모음 */wΛ/, */wi/가 없어 ‘뵤’, ‘뵤’는 각각 ‘오’, ‘우’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7), (9)에서 제시한 것처럼 ‘뵤’, ‘뵤’의 후대형은 ‘오’, ‘우’가 아니고 ‘오’, ‘우’이다. 따라서 ‘빙’의 탈락 원인에 대해 ‘빙’이 우선 [w]로 변한 다음에 [w]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두 번째 가능성을 보겠다. 김주필(2001: 44-47)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모음 [i]와 대립 되는 원순모음이 없기 때문에 ‘빙’의 [순음성]이 후행하는 모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순음성] 자질 자체가 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이:위’는 서로 ‘평순모음:원순모음’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비’, ‘뵤’, ‘포’, ‘ㅁ’은 ‘이’와 결합하면 각각 [비], [뵤], [피], [미]로 발음되는 것이지 [뷔], [뵤], [휘], [뵤]로 발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김주필(2001)에서 제시된 가능성을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앞서 ‘빙’이 ‘아’, ‘어’, ‘오’, ‘우’, ‘오’, ‘우’와의 결합형을 통해 ‘빙’의 음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빙’은 일차적으로 활음 [w]로 변했다. 그러나 이 모음들은 모두 전설모음이 아니다. ‘이’는 전설모음이고 이것은 다른 모음과의 차이점이 된다. ‘이’는 경구개에서 발음되고 선행하는 모든 자음들을 경구개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²⁰⁾ 따라서 음성적으로 ‘빙’은 ‘이’의 앞에서 [빙]가 아니고 [빙j]가 된다. [빙j]는 경구개음이므로 활음 [w]로 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에서의 ‘빙’은 아무 변화를 겪지 않고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2.2. ‘빙’의 음가에 대하여

19) 15세기 중기 문헌에서는 ‘-디비’가 확인되고 후대 문헌에서는 ‘-디위’, ‘-디외’ 등 형태가 확인된다. 이기문(1972:45)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bi>wi’의 변화를 겪은 형태로 해석하였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wi/를 표기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디위’, ‘디외’ 형태들이 혼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고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디비’의 ‘빙’이 활음 [w]가 되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디비’가 ‘-디위’, ‘-디외’로 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보겠다. 첫째, 결과적으로 ‘비’는 ‘위’ 혹은 ‘외’로 변하고 ‘위’, ‘외’에서는 활음 [w]가 없다. 만약 ‘비’의 ‘빙’이 탈락되면 ‘-디비’는 ‘-디이’가 된다. 같은 모음 연쇄하게 되면 음절수가 줄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 혹은 ‘우’가 다시 사입된다. 둘째, ‘-디비’는 ‘-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의 ‘되다’는 ‘드뵤다’이었다. ‘-디비’의 후대형태는 ‘-디비’를 계승하지 않고 ‘드뵤다’의 영향을 받으면 ‘-디외’가 되고 ‘-디외’는 계속 ‘-디위’가 된다. 셋째,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드뵤다’의 활용형 중에는 ‘드비’와 ‘드뵤’가 있는데 이들의 후대형태는 ‘드이’, ‘드위’이다. 의미상 ‘드비’와 ‘드뵤’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혼동되기 쉽다. ‘-디비’는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 ‘-디외’가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모두 가설이고 이 문제를 남기며 후고를 기약한다.

20) 현대한국어의 예들은 이호영(1996: 136-137) 참조.

분절에서는 ‘병’의 음가를 다시 재구하겠다. ‘병’의 음가를 재구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가령 C환경에서 분절음 ‘A’가 ‘A→B’라는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A→B/C’로 표기한 것이 일반적이다. ‘A→B’의 변화 유형, 변화 환경, 변화 원인이 파악된 상태에서 분절음 ‘A’를 통해 분절음 ‘B’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A→B’의 변화 원인, 변화 유형, 변화 환경이 파악된 상태에서 분절음 ‘B’를 통해 분절음 ‘A’의 성격을 逆推定할 수도 있다.

2.1에서는 ‘병+모음’의 음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병’은 ‘아’, ‘어’, ‘으’, ‘으’, ‘오’, ‘우’와 결합하면 활음 [w]로 변한 반면에 ‘이’와 결합하면 탈락한다. 그리고 ‘병’의 기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²¹⁾ 본고는 이동석(2010: 222-246), 이동석(2013: 91-94)의 주장을 따른다. 즉 ‘병’은 ‘ㅂ’이 약화된 형태로 ‘ㅂ’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2.1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가. ㅂ→(병)→w/ $_[-전설성][+모음성]$

나. ㅂ→(병)→Ø/ $_ [+전설성][+모음성]$

(16)에서 제시한 음변화는 자음의 약화다. 자연언어에서 자음의 약화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²²⁾

가. 이중자음(geminate) > 단자음(simplex)

나. 파열음(stop) > 마찰음(fricative) > 접근음(approximant)

다. 파열음(stop) > 유음(liquid)

라. 구강음(oral) > 성문음(glottal)

마. 非鼻音(non-nasal) > 비음(nasal)

바. 무성음(voiceless) > 유성음(voiced)

(16)에서 제시한 음변화를 다시 보면 음성적으로 ‘ㅂ’은 무성 파열음이고 활음 [w]는 유성

21) 병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p/ 기원설, /*b/ 기원설, /*β/ 기원설, /*ϕ/ 기원설로 나눌 수 있다.

/*p/ 기원설의 대표 학자는 河野六郎(1945), 이승녕(1954), 박병채(1967), 박동규(1985), 류렬(1992), 이동석(2010), 김한별(2012) 등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와 방언자료를 이용하여 병의 기원을 고찰하였다. 특히 고대한국어 문헌과 전기중세한국어 문헌에서 병이 확인되지 못하는 점, 현대 한국 방언에서 병의 반사형인 ‘ㅂ형태’가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여 ‘ㅂ>병’의 통시적 변화를 재구하였다. 한편, 이동석(2010)에서는 병을 가진 단어들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병이 생겼다고 언급하고 병을 ㅂ에서 변해온 것으로 해석하였다.

/*b/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小倉進平(1939), 박종희(1982), 배운덕(1989), 서영석(1989), 박창원(1996) 등 있다. 그리고 이기문(1972), 최명옥(1978), 김무림(2004) 등 학자는 /*β/ 기원설을 주장하고 /*ϕ/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주로 강길운(1993)과 고동호(1994)이다. 그러나 병이 /*b/, /*β/, /*ϕ/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15세기 전의 한국어에서 이러한 음소의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현존 고대 한국어 자료,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통해 음소 /*b/, /*β/, /*ϕ/가 존재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b/, /*β/, /*ϕ/가 문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이 /*ϕ/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p/ 기원설을 따라 논의한다.

22) 자음의 약화 유형은 R.L.Trask(2000: 56)을 참조하였다.

접근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음변화는 우선 (17바)의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17나)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16)의 음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가. $p(\text{ㅂ}) \rightarrow [b \rightarrow \beta \rightarrow \text{ㅍ}(\text{ㅂ})] \rightarrow w / \text{ } _ [-\text{전설성}][+\text{모음성}]$

나. $p(\text{ㅂ}) \rightarrow [b \rightarrow \beta \rightarrow \text{ㅍ}(\text{ㅂ})] \rightarrow \emptyset / \text{ } _ [+ \text{전설성}][+\text{모음성}]$

(18)에서 제시한 것처럼 ‘ㅂ’의 가능한 음가는 [b], [β], [ㅍ] 3가지다. ‘ㅂ’은 ‘A→B/C’에서의 ‘A’에 해당되고 활음 [w], [∅]는 ‘B’에 해당되며 ‘[-전설성][+모음성]’과 ‘[+전설성][+모음성]’은 ‘C’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는 ‘B’와 ‘C’를 통해 ‘A’를 역추정하는 것이다. 활음 [w]의 조음 위치는 양순-연구개이고 ‘ㅂ’의 조음 위치는 양순이다. 그리고 전설 모음의 조음 위치는 경구개고 비전설모음의 조음 위치는 경구개보다는 연구개와 더 가깝다. 따라서 ‘ㅂ’이 후행하는 비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의 조음 위치는 양순-연구개로 바뀔 것이고 곧 활음 [w]가 된다. ‘ㅂ’은 전설 모음과 결합하면 그의 조음 위치는 양순-연구개로 바뀌지 못하고 탈락한 길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 [b], [β]는 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 [bw], [βw] 혹은 [bɣ], [βɣ]가 되지만 이러한 음성들은 활음 [w]와의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접근음 [ㅍ]는 후설 모음과 연쇄하게 되면 발음의 위치가 양순으로부터 양순-연구개로 바뀌게 되고 곧 [w]가 된다. 따라서 ‘ㅂ’의 음가는 양순 접근음 [ㅍ]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 [b]와 [β]는 모두 /ㅂ/의 변이음에 불과하다. 15세기 한국어의 양순 자음 체계는 현대 한국어와 비슷하므로 15세기의 한국어에 [b]와 [β]는 /ㅂ/의 변이음일 가능성이 높다. 변이음은 잘 인식되지 못한 음성이고 문자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ㅂ’의 음가는 [b], 혹은 [β]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기 중세 문헌에서 ‘ㅂ’의 사용 양상을 보면 ‘ㅂ’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 두루 사용되었지만 <楞嚴經諺解(1461)>부터는 사실상 사용이 폐지되었다. ‘ㅂ’은 겨우 20년도 넘지 않은 세월에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ㅂ’은 아주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음운론적으로 음성 [b], [β], [ㅍ], [w]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표1> [b], [β], [ㅍ], [w]의 성격

음소	/p/		-	/w/
음성	[b]	[β]	[ㅍ]	[w]
성격	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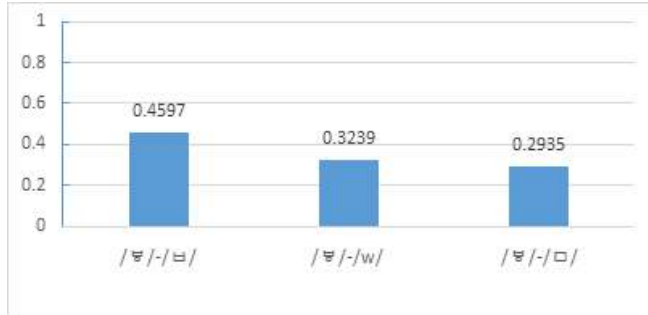
[b], [β]는 /p/에 속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활음 [w]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ㅍ]는 /p/, 혹은 /w/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쉽게 음변화가 일어나 사라진다. 음운론적 측면을 볼 때 ‘ㅂ’의 음가를 [b], [β] 보다 [ㅍ]로 재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을 통해 ‘ㅂ’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도 있다. 박선우(2018)에서는 ‘확률적 음운대립 모델(Probabilistic Phonological Relationship Model)’을 이용하여 ‘ㅂ’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확률적 음운대립 모델에 의하면 어떠한 환경에 출현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절음들은 엔트로피(entropy)가 높고, 예측이 쉬운 분절음들은 엔트로피가 낮다. 음운론적 대립되는 두 음소는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 대체로 균등한 확률로

분포하므로 엔트로피가 높다. 반면 상보적으로 분포할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낮다. 다시 말하자면 엔트로피 값이 0에 가까우면 두 분절음은 변이음의 관계이고, 이와 반대로 엔트로피 값은 1에 가까우면 두 분절음은 음소의 관계이다.

박선우(2018)에서는 ‘병’을 음소로 가정하여 다른 음소들과의 대립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세기 /병/-/ㅂ/, /병/-/w/, /병/-/ㅁ/의 엔트로피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병/-/ㅂ/, /병/-/w/, /병/-/ㅁ/의 엔트로피 값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병’은 음소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한 자음 음소의 변이음들을 보면 서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병/-/w/와 /병/-/ㅁ/의 엔트로피 값은 /병/-/ㅂ/의 엔트로피 값보다 낮기 때문에 ‘병’의 음가는 [-공명성] 자질을 지닌 [p]보다 [+공명성] 자질을 지닌 [w], [m]와 가깝다. 그리고 /병/-/ㅁ/의 엔트로피 값은 /병/-/w/의 엔트로피 값보다 낮으므로 ‘병’의 조음위치는 양순-연구개보다 양순일 가능성이 크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다. ‘확률적 음운대립 모델’을 이용하여 ‘병’과 다른 음소의 대립을 분석하였는데 /병/-/ㅂ/, /병/-/w/, /병/-/ㅁ/의 엔트로피 값이 높지 않으므로 15세기 한국어에서 ‘병’은 음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병/-/ㅁ/의 엔트로피 값이 가장 낮기 때문에 ‘병’의 음가를 [+공명성], [+순음성] 자질을 지니는 양순 접근음 [β]로 재구하는 것이 문제 없다.

3. ‘ㄹ/ㄷ+병’의 음변화로 본 ‘병’의 음가

후기 중세 문헌에서는 ‘ㄹ병’, ‘ㄷ병’의 연쇄가 확인된다. 우선 예문을 보겠다.

(19)

가. 北道에 보내어시닐 글발로 말이스ㄹ들 가삼 겨샤매 오늘 다르리잇가 (『龍飛御天歌』26)

나. 彩는 빛난 필획이라 (『釋譜詳節』23:38ㄱ)

다. 두루 돌보며 붓그려히더라 (『釋譜詳節』3:8ㄱ)

라. 그 고지 늑을붉고 貴흔 光明이 잇더라 (『釋譜詳節』11:31ㄴ)

‘ㄹ병’의 연쇄는 (19)에서 확인된다. ‘글발’은 ‘글 + 발(가늘고 긴 모양)’로 분석되고 (19나, 다, 라)도 이와 같이 분석된다. 이러한 음변화는 자음의 약화로 볼 수 있고 ‘ㄹ’은 후행하는 ‘ㅂ’을 ‘병’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

- 가. 오늬 나래 내내 웅보리 (『龍飛御天歌』16)
- 나. 옛봐 便을 得흥 거시 업기 호리이다 (『釋譜詳節』21:52ㄱ)
- 다. 太子ㅣ 것바시 ㄷ외야 빌머거 사니다가 (『釋譜詳節』24:52ㄱ)

(20)에서는 ‘△붕’의 연쇄가 제시되어 있다. (20나), (20다)에서는 ‘△’ 대신 ‘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장석(2016: 211-213)은 이러한 문제를 표기법 문제로 보고 ‘옛’, ‘것’에서의 ‘ㅅ’은 ‘△’ 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20)의 단어들의 ‘붕’은 모두 형태소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은 ‘ㄹ’과 같이 후행하는 ‘ㅂ’을 ‘붕’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ㄹ붕’, ‘△붕’의 연쇄 성격과 비슷한 ‘ㄹㅇ’, ‘△ㅇ’의 연쇄도 확인된다.

(21)

- 가. 照浦 줄애 (『龍飛御天歌』43)
- 나. 놀애를 불러 깃거ㅎ더니 (『月印釋譜』2:40ㄱ)
- 다. 울에 번게 ㅎ니 사르미 다 놀라더니 (『釋譜詳節』6:32ㄱ)
- 라. 舊은 매 놀애 티ㄷ시 가비얍고 (『月印釋譜』10:78ㄱ)

(22)

- 가. 또 ㄴ여 ㅼ이샤 (『內訓』2:101ㄱ)
- 나. 西로서 온 눈 파란 ㄴ을 ㄴ이리라 (『南明集諺解』下:65ㄱ)
- 다. 므스글 ㄴ유려 ㅎ는다커든 (『法華經諺解』2:206ㄱ)
- 라. 므리 어느 方을 브터 이에 흘러 붓이노 (『楞嚴經諺解』8:80ㄴ)

‘ㄹㅇ’, ‘△ㅇ’의 연쇄 중의 ‘ㅇ’은 모두 ‘ㄱ’으로 소급된다. 이러한 음변화도 자음의 약화로 볼 수 있고 ‘ㄹ’, ‘△’은 후행하는 ‘ㄱ’을 ‘ㅇ’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계속해서 ‘ㅇ’에 대해 보겠다. 기존연구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ㅇ’의 음가를 주로 유성 성문 마찰음 [ɦ]로 재구한다. [ɦ]는 특정한 발음 위치가 없고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발음 위치가 달라진다. [ɦ]는 아주 약한 자음으로서 활음의 역할도 할 수 있다.²³⁾ 그리고 장석(2016: 226-228)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ㅇ’과 현대 한국어의 ‘ㅎ’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는데 후기 중세 한국어의 ‘ㅇ’은 활음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접근음 [j], [w]는 자음이지만 활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의 ‘ㅇ’은 접근음의 성격과 아주 비슷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붕’은 ‘ㅂ’이 탈락하거나 활음 [w]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의 한 단계로 해석된다. 그리고 후기 중세 한국어의 ‘ㅇ’도 ‘ㄱ’이 탈락하는 과정에서의 한 단계로 해석된다. 따라서 ‘붕’과 ‘ㅇ’의 성격은 아주 비슷하고 ‘붕’은 접근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존연구는 ‘△’, ‘붕’과 ‘ㅇ’을 묶어 ‘유성 마찰음 계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23) 신지영(2012: 295-296)에서는 ‘잘하다’와 관련된 음성 실험을 제시하였다. ‘잘하다’는 [잘하다]와 [자라다]의 두 가지 발음이 있다. [잘하다]와 [자라다]의 차이는 후행하는 모음의 시작 부분에서 관찰되고 [잘하다]의 둘째 음절 [ㅈ]는 그 시작 부분에서 ‘ㅎ’이 [ɦ]로 실현되면서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 감소가 관찰된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유음과 ㅎ의 융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ㄹ-ㅎ’에 있는 ‘ㅎ’의 가능한 음운 자격은 활음이다.(차재은, 정명숙, 신지영 2003: 780-781)

장석(2017)에서는 ‘△’의 출현 위치에 따라 ‘△’을 ‘△1’, ‘△2’, ‘△3’, ‘△4’로 나누어 각각의 음가를 살펴보고 ‘△’의 음가를 [z]보다는 치조 접근음 [ʃ]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도 접근음의 성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 ‘○’과 같은 계열에 있는 ‘병’의 음가는 양순 접근음 [β]로 재구하고자 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병+모음’, ‘ㄷ/△+병’의 음변화를 통해 ‘병’의 음가를 다시 재구하였다. 우선, 후기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병’은 ‘아’, ‘어’, ‘으’, ‘으’, ‘오’, ‘우’, ‘이’와 결합한 형태가 확인된다. ‘병’은 ‘아’, ‘어’, ‘으’, ‘으’, ‘오’, ‘우’와 결합하면 활음 [w]로 변한 반면에 ‘이’와 결합하면 탈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음변화들은 공식 ‘A→B/C’를 적용하여 ‘B(산출 결과)’와 ‘C(음변화 환경)’, 그리고 음변화 유형과 음변화 원인을 모두 파악된 상태에서 ‘A(병)’의 음가를 양순 접근음 [β]로 재구하였다.

3장에서는 ‘ㄷ/△+병’의 음변화를 고찰하였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ㄷ/△+병’의 연쇄의 성격과 비슷한 ‘ㄷ/△+○’의 연쇄도 있었다. ‘○’은 활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자음이므로 ‘병’의 성격과 아주 비슷하다. 따라서 ‘병’의 음가는 약한 자음인 양순 접근음 [β]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 강길운(1993), 『국어사정설』, 한국문화사.
- 고동호(1994), 「국어 양순 마찰음의 재구와 그 변화」, 『언어연구』9,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65-93.
- 김동소(2002), 『중세 한국어 개설』,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석득(1964), 「중세순경음병음소고」, 『인문과학』12, 연세대, 1-19.
- 김완진(1967), 「한국어발달사 상」, 『한국문화사대계V언어문학사(상)』,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15-164.
- 김완진(1972), 「다시 β>w를 찾아서」, 『어학연구』8-2, 서울대, 51-62.
- 김주필(2001), 「병의 [순음성] 관련 현상과 ㅎ로의 약화」, 『국어학』38, 국어학회, 27-54.
- 김한별(2012), 「순경음 병에 대한 통시적 연구- ㅂ 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김 현(1999), 「모음간 w탈락과 w삽입의 역사적 고찰」, 『애산학보』, 울산대, 195-254.
- 남광우(1959), 「병 △ 논고」, 『논문집』4, 중앙대, 115-140.
- 류 렬(1992), 『조선말 력사2』, 사회과학출판사.
- 朴銅圭(1985), 「병과 非母字脣-音譯上特의 한 原則」,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27-56.
- 박병채(1967), 「韓國文字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上)』,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415-485.

- 박선우(2018), 「정보이론 기반 중세국어 ‘병’의 음운론적 대립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79, 한국어학회, 63-89.
- 박종희(1982), 「중세국어 음운단위에 관한 연구-순경음 병을 중심으로-」, 『논문집』16, 원광대, 91-112.
- 박종희(1983), 『국어 음운론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 배운덕(1989), 「순경음 병에 대하여-알타이제어의 중간자음 b와 관련하여-」, 『인문과학연구』8, 성신여자대학교, 1-32.
- 서영석(1989), 「중세국어의 순음연구」, 『동국어문논집』3, 동국대, 87-125.
- 신지영(2012),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교양.
- 안영희(2015), 「언어접촉과 시기층위」, 『국어학』75, 국어학회, 129-164.
- 양재철(1967), 『국어음성학과 문법』, 언문연구회.
- 우민석(1997), 「범어 음역을 통해서 본 중세국어 음운」, 『한국언어문학』39, 한국언어문학회, 87-109.
- 윤황애(1962), 「이조초기 문헌에 나타난 병의 자음체계상의 위치」, 『한국어문학연구』4, 이화여대, 189-200.
- 이동석(2004), 「雞林類事를 통해서 본 ‘ㄸ’계 합용병서와 ‘병」, 『국어사연구』4, 국어사학회, 235-253.
- 이동석(2010), 「‘병’ 포함 어휘의 형태론적 분석」, 『국어사연구』11, 국어사학회, 221-249.
- 이동석(2013), 「‘병’의 음가론」, 『국어사연구』17, 국어사학회, 71-117.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승녕(1948), 「조선어학개설」, 『조선교육』2-7, 조선교육연구회, 50-58.
- 李崇寧(1954), 「唇音攷-特히 唇輕音 ‘병’를 中心으로 하여」, 『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40-76.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장 석(2016), 「△-병의 연쇄로 본 △의 음가」, 『구결연구』36, 구결학회, 203-235.
- 장 석(2018), 『△반치음 연구』, 역락.
- 장향실(2003),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병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48, 민족어문학회, 65-91.
- 차재은·정명숙·신지영(2003), 「공명음 사이의 /ㅎ/의 실현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 고찰」, 『언어』28-4, 한국언어학회, 765-783.
- 최명옥(1978), 「병, △와 동남방언」, 『어학연구』14-2, 서울대, 185-194.
- 허 웅(1960), 『국어음운론』, 정음사.
- 朱曉農(2010, 『語音學』, 商務印書館.
-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 近澤印刷所出版部.
- 小倉進平(1939), 「朝鮮語の語の中間に現はれる[b]」, 『靑丘學叢』30.(小倉進平(1944)에 재수록)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下)』, 岩波書店.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鉉’語考-』, 言波書店.
- J.J.Ohala(1993), the Phonetic of Sound Change, Historical linguistics: Problems and perspectives, Longman, 237-278.

P.Ladefoged and I.Maddieson(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Blackwell.
R.L.Trask(2000), Historical Linguistics,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석독구결 ‘ㅎ(ゝ)-’의 분포와 특이 용법

김지오(동국대)

.....<목차>.....

1. 서론
2. ‘ㅎ-’의 분포 : 선행 요소를 중심으로
3. 석독구결 ‘ㅎ-’의 특이 용법
 - 3.1. 비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ㅎ-’의 이중적 기능
 - 3.2. 한문의 생략된 동사를 재현하는 ‘ㅎ-’
 - 3.3. ‘있다’의 의미로 번역되는 ‘ㅎ-’
 - 3.4.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지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ㅎ-’
 - 3.5. 기능 파악이 어려운 ‘-아’ 뒤의 ‘ㅎ-’
4. 결론

.....

1. 서론

석독구결은 한문을 번역한 자료이다. 같은 한역 자료라 하더라도 15세기 언해와는 다르게 한문 원문 위에 번역 결과를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한문의 문법이 구결 번역에 언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석독 번역문에는 다른 자료들에 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제약이나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석독구결의 현토 양상을 살펴본 논의로 김지오(201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석독구결 번역의 특수한 양상을 ‘어순’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석독구결의 타동사문에서는 부사의 위치가 목적어 앞으로 고정되며, 단형 부정문(부정 부사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어순)이 만들어질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처럼 구결 자료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엇이 고려시대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고 무엇이 석독구결 자료 안에서만 발생하는 언어 현상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국어사 기술, 나아가 고대국어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어순’이나 ‘허사’의 문제처럼 한문의 간섭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요소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가장 한국어다운 요소라고 짐작되는, 그리고 한문의 간섭 현상을 크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ㅎ-’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앞선 연구와 다른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설정했던 최초 가설은 “‘ㅎ-’는 가장 한국어다운 형태이므로 원문의 간섭이나 한문 위에 구결을 직접 현토하는 번역 방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독구결의 ‘ㅎ-’에는 다른 시대 또는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쓰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한문 번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발생한 현상들로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ㅎ-’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포와 출현 환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특이한 쓰임을 보이는 ‘ㅎ-’들을 살펴본다.

2. '하-'의 분포 : 선행 환경을 중심으로¹⁾

‘ㅎ-’의 기능과 의미는 앞에 어떤 형태와 어떤 구문이 오는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선행 요소들을 중심으로 ‘ㅎ-’의 출현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ㅎ-’의 출현 환경을 전체적으로 제시한 후, 세부적인 환경과 특징적인 예문들에 대해 살펴본다.

◆ ‘ㅎ(ㅇ)-’의 출현 환경

- I 한자어+ㄹ-** : 1음절, 3음절, 4음절 한자
- II 고유어+ㄹ-** : - 사제 어간, 부사
- ‘갈다’류, ‘아니하다’류, ‘이러하다’류, ‘그러하다’류, ‘어떠하다’류
 - ㄱ 尸 {爲} 入 乙 ㅅ -, 爲 ㅅ ㅅ -
- III 조사+ㄹ-2)**
- 대격조사 을(乙)+ㄹ-
 - 처격조사 아귀(ㄱ ㅏ)+ㄹ-
 - 주격조사 이(ㄴ)+ㄹ-
 - 구격조사 로(ㄴ)+ㄹ-
 - 보조사 도(ㄷ)+ㄹ-
 - 조사 여(ㅈ/ㅅ)+ㄹ-
- IV 어미+ㄹ-3)**
- 평서, 감탄, 명령형 어미+ㄹ-
 - 의문형 어미+ㄹ-
 - 연결어미 : -려(ㄹ), -며(ㅏ)+ㄹ-
 - 연결어미 : -아(ㅏ)+ㄹ-, -오(ㅗ/ㅛ)+ㄹ-
 - 사동형 : -ㄹ 이(ㄴㅁ)+ㄹ-
 - 당위/가능형 : -ㄹ - (ㄷ 應/可/容ㅅ)+ㄹ-
 - 의도형 : -과(爲/欲/爲欲ㅅ)+ㄹ-, -ㄹ 더(ㅅ ㅍ)+ㄹ-

2.1. 한자+ㅎ-

- 1) 환경 조사 및 논문에 제시된 예문들은 장경준 선생님의 ‘sktot_2019_01’ 버전을 이용하였고, 현대 어역도 ‘sktot_2019_01_D번역본’의 번역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부분은 필자가 적절하게 수정한 것이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2) <금광명경>에는 ‘ ハハコノソコ ’와 같이 조사 “익” 뒤에 ‘ ㅎ- ’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은 ‘ ハハ ’의 형태를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 3) 어미 형태 중에서 ‘ -아(ㄴ) ’와 ‘ -고(ㄴ) ’ 뒤의 ‘ ㄴㅏㅓ ’, ‘ ㄴㅓㅓ ’의 예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뒤에 나타나는 ‘ ㄴㅓㅓ ’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 ㄴㅓㅓ ’과 ‘ ㄴㅓㅓ ’은 동일한 환경에서 ‘ ㄴㅏㅓ , ㄴㅓㅓ ’과 ‘ ㄴㅏㅓ , ㄴㅓㅓ ’으로도 나타나므로 ‘ ㅓ ’는 강세의 보조자 ‘ ㄴ ’이 약화된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 ㅓ ’는 동사 ‘ ㅎ- ’와는 무관한 형태이다. 그리고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 ㅓ ’ 뒤에서도 ‘ ㅓ ’가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연결어미 ‘ ㅓ ’가 선어말어미 뒤에서는 ‘ ㅓ ’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결어미의 특수한 표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 ‘ ㅎ- ’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1.1. 1음절 한자

【용례】 蓋, 開(2), 居(5), 舉(2), 乞(3), 堅, 見(14), 兼, 敬, 告(3), 顧, 供(2), 空(4), 過(19), 觀(13), 廣, 壞(7), 教, 俱(11), 求(7), 闕(2), 歸(3), 今(19), 棄, 起(10), 乃(25), 念(15), 多(2), 斷(9), 答(2), 塗, 度(7), 讀(4), 動(4), 同(3), 得(6), 登, 等(63), 來(11), 練, 禮, 了(4), 流, 利, 離(3), 滿(2), 忘, 滅(12), 无(14), 無(16), 問, 微, 美, 發(7), 放(4), 白, 犯(2), 變(2), 伏, 復(8), 服(2), 覆(2), 敷, 思(3), 捨(21), 死, 散(3), 上(2), 生(18), 噬, 宣, 設, 說(5), 攝(2), 成(2), 續(2), 誦(4), 灑, 修(25), 受(6), 守(2), 順, 習(2), 勝(2), 昇(2), 施(4), 示(2), 識, 食(4), 信(8), 實, 深, 謁, 愛, 養, 嚴(2), 如(2), 與(6), 餘(5), 亦(32), 演(8), 然(17), 緣(5), 穢, 預, 悟, 臥(2), 往(2), 王(4), 欲, 用(2), 又(2), 愚, 願, 願, 爲(7), 有(33), 隱(2), 依(14), 宜, 以(2), 爾, 異(3), 尠(2), 引(2), 忍, 入(38), 作(37), 嚼, 長, 障(2), 在(11), 著(9), 轉(14), 絕(2), 淨(4), 除, 照(3), 調(2), 存, 坐(7), 住(38), 奏, 卽, 增(14), 證(13), 持(11), 知, 執, 集(3), 讚(2), 處(9), 清, 聽(2), 請, 推, 出(16), 取, 聚, 趣(4), 治, 置(2), 歎(2), 退, 破, 辦, 平, 稟, 下, 何(3), 學(2), 含, 解(4), 行(13), 向(3), 現(4), 顯(3), 護(2), 或(39), 化(4), 悔, 洽

목록에는 현대국어에도 사용되는 “居하다, 兼하다, 告하다, 空하다, 觀하다, 求하다, 念하다, 答하다, 得하다” 등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목록 중 일부는 고유어로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초 단어들, 예를 들어 ‘보다, 묻다, 나(가)다, 알다, 있다, 없다’ 같은 형태들까지 ‘見ㅎ-, 示ㅎ-, 問ㅎ-, 出ㅎ-, 知ㅎ-, 有ッ-, 無ッ-’로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자료 내에서 고유어로 사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로 ‘보다 vs 見ㅎ다’의 사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보다】

見ㄷ立, 見ㄴ가, 見ㄴ호, 見ㄴ가 1 1 + 1, 見白ㄴ가 1 1 + 1, 見ㄴ今, 見ㄴ(尸), 見ㄴ口ハ 1, 見ㄴト 1 ㄴ가, 見ㄴ尸, 見ㄴト 1 ㄴ가 1, 見ㄴトㄴ, 見ㄴ矢セㄴ, 見ㄴ1ㄴ, 見白ㄴ

(2) 【見하다】

見ㄴ白ㄴ牙가, 見ㄴ尸, 見ㄴナㄴセ 1, 見ㄴㄴ호, 見ㄴ가, 見ㄴ가ㄴ今セ, 見ㄴㄴ, 見ㄴ今+

고유어와 동일한 의미의 한자 파생어가 수의적으로 선택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 고유어 ‘보다’를 선택하고 언제 한자파생어 ‘見ㅎ-’를 선택하는지 규칙은 찾기 어렵다.⁴⁾ 그러나 일부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 용법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生’과 ‘示’와 같은 단어들이 그러하다. ‘生’이 자동사로 쓰일 때는 ‘生ッ-’로, 타동사로 사용될 때는 고유어로 ‘生ㄴ-’로 나타난다(*生ㄴㄴ/스로 나타나지 않음).

한편 ‘ッ-’가 붙은 1음절 한자어 목록 중 일부 단어는 고유어 말음첨기가 표시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爾セㄴ-, 尠ㄴㄴ-, 何ㄴㄴ-, 何ㄴㄴ-, 順ㄴㄴ-, 如ㄴㄴ-, 等ㄴㄴ-’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한자+ㄴㄴ-’로 출현했다 하더라도 말음첨기가 생략된 표기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4) 구결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자적 번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송되고 암송되는 것이 오랜 전통인 점을 고려해보면 음수율적인 고려에 의해 고유어 어간과 한자 파생어 어간이 선택되는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2.1.2. 2음절 한자

【용례】假誑, 歌舞, 呵擯, 假有, 覺了, 各別, 覺寤, 懇責, 懇責, 堪忍, 漑灌, 開導, 開敷(2), 開示(2), 開演(4), 開闡, 舉罪, 建立, 乞食, 檢束, 怯弱, 堅固(7), 見聞, 見迹, 錮除, 堅持, 見知, 缺減, 決定, 決擇(2), 謙下, 熒獨, 驚怖, 顧待, 困苦, 恭敬(5), 供給, 供養(22), 共住(2), 共聚, 空閑(2), 串修, 觀見(2), 貫飾, 觀察(14), 光潔, 廣大(2), 誑有, 翹足, 教化, 究竟, 求願, 救濟, 具足(23), 久住, 求請, 俱行(6), 救護(5), 窮苦, 窮原, 匱乏, 勤苦, 勤修(2), 汲井, 飢苦(2), 饑饉, 棄捨(2), 年盛, 斷滅(8), 端坐, 談說, 大覺, 對面, 對治(5), 覩見(2), 度脫(3), 同居, 同事(2), 踊, 同住, 領受, 了達(2), 了知(9), 離散, 利益(6), 滿足(8), 滅除(3), 滅盡, 明斷, 明達, 明利(2), 冥暗, 明淨(2), 無極(2), 無上(2), 無相, 无勝, 無穢, 無有, 無義, 無二, 無作, 無障, 無塵, 無行, 未滅, 微妙, 美妙, 微細(3), 未順, 未調, 迷惑, 薄祐, 飯食, 發起(7), 發生(8), 發心(6), 發意(2), 拔除, 放逸(3), 傍住, 背面, 犯戒, 變動, 覆蓋, 本有, 奉事, 奉施, 奉獻, 分別(6), 分布, 譬喻, 貧窮, 斜曲, 捨離(5), 思惟(18), 思擇, 散亂, 相續, 上昇, 相違(4), 相應(18), 常全, 常住(2), 上好, 色美, 生起(2), 生疑, 生在, 善巧, 鮮白, 宣說(4), 說法(6), 說宣, 攝受(11), 攝取(2), 成立(2), 成立, 成滿(5), 成佛, 成熟(2), 盛壯, 成就(33), 成辦, 洗浣, 洗浴, 洗除, 洗足, 洗滌, 少小, 束帶, 屬耳, 速疾, 誦持(2), 誦持, 衰退(4), 衰歇, 授記, 殊妙, 隨順(3), 修習(23), 數習, 殊勝, 垂飾, 受用(3), 隨入, 隨轉, 受持(5), 修集(4), 隨逐(2), 修治, 隨學, 修行(16), 守護, 殊好, 順行, 習近(4), 習行(3), 示現(8), 信奉(4), 失念, 深信, 甚深(3), 樂斷, 樂修, 安隱(3), 安住(17), 闇鈍, 闇昧, 愛味, 哀愍, 愛著, 愛重, 憶念(3), 嚴飾, 嚴淨, 嚴好(2), 延年, 演說(5), 猒離, 猒背, 猒惡, 猒患, 葉茂, 永斷(2), 羸頓, 盈滿, 榮盛, 營爲, 往生, 嬈亂, 饒益(7), 勇健(2), 用心(2), 憂慮, 憂愁, 右遶, 耘除, 云何(18), 願求(4), 遠離(19), 圓滿(13), 謂言, 圍遶(2), 爲脫, 有德(2), 有力, 有緣, 柔輒, 有恩, 有智, 遊行, 潤澤, 應現, 依止(9), 已斷, 已辦, 引發(2), 仁慈, 入胎, 自勵, 慈愍(2), 諮受, 自在(6), 自策, 作禮, 作意(2), 殘缺, 雜染, 雜住(2), 障礙, 長養(2), 莊嚴(8), 藏護, 長毫, 在家, 寂滅(4), 寂靜, 積集, 顛倒, 轉上, 轉勝, 轉身, 翦除, 正觀, 精勤, 頂禮, 正信, 正身, 鼎位, 整衣, 正住, 正直, 精進, 除遣, 濟度(2), 除滅, 制伏(4), 調伏, 調柔, 調適, 調淨, 尊重, 存活, 籌量, 住在, 衆多, 增廣, 證得(27), 增益, 證入, 增長(8), 知量, 止息, 震動, 盡命, 盡性, 眞實, 執持(2), 執取, 集會(2), 遮止, 讚歎, 慙恥, 策勵, 處分, 徹見, 清涼, 聽聞(9), 請問, 聽法(2), 聽受, 清淨(15), 剃除(2), 超出(2), 摠略(2), 摠持, 最妙, 摧伏(2), 最勝(4), 摧殄(2), 推求, 出家(4), 出世(6), 出現, 充滿, 充樂(2), 臭穢, 趣入(2), 取著, 聚集, 熾然, 親近(5), 寢息, 沈重, 稱量, 僞美, 僞揚, 僞歎(2), 脫去, 貪寔, 貪着, 泰然, 通達(5), 統領, 退屈, 退失, 退轉, 破滅, 敗壞, 徧滿(2), 平等(3), 怖畏, 諷誦, 疲厭(2), 下足, 恒轉, 解了, 解脫(6), 行向(3), 虛假, 虛度, 顯示, 現前(3), 現行(7), 顯現(2), 絢煥, 狹小, 惠施, 護念(3), 華開, 化度, 化生, 和雅, 化誘(2), 歡愛, 歡喜(3), 悔除, 迴向(2), 獲得(8), 曉了, 孝事, 毀犯, 興盛(3), 悌求, 詰難, 下劣(4), 散亂, 沒溺, 障導(2), 好樂(2), 利樂(2), 衰老, 紹隆, 愛樂, 安樂

2음절 한자들은 ‘동사+동사(見聞)’, ‘동사+명사(乞食)’, ‘부사+동사(同居)’, ‘형용사+형용사(廣大)’, ‘형용사+명사(無上)’, ‘부사+형용사(上好)’의 구조를 갖는다.

2.1.3. 3음절 한자

【용례】勤精進, 六大動, 般涅槃(4), 轉微妙, 正思惟(2), 現在前, 爲受用

2.1.4. 4음절 한자

【용례】結跏趺坐, 恭敬尊重, 光耀焰盛, 教化調伏, 駢擯遠離, 極善攝受, 端正美好, 嬾惰懈怠, 了了顯現(2), 無障無礙, 微妙秘密, 未隱未斷, 性多睡眠, 修得圓滿, 修習圓滿, 審正觀察, 如理作意, 遠離閑居, 遊行乞食, 作意思惟(10), 寂靜清涼, 展轉勝上, 正念現前, 躁動輕舉, 增長廣大, 清淨調柔, 合掌恭敬(3), 希有難量, 正審觀察, 方便作意, 作意錯亂, 難養難滿, 顛倒思惟, 熾燃明淨, 審正觀察

2.2. 고유어+ㅎ-

‘착하다, 가름하다, 더하다, 가물가물하다’처럼 고유어에도 ‘하-’가 붙을 수 있는데, 석독구결에도 고유어에 ‘ッ-’가 결합한 예들이 적지만 나타난다.⁵⁾

(3) 가. 少계 어간+ㅎ- : 少セッ-, 嬰セッ-, 俱セッ-, 懷セッ-, 順セッ-, 從セッ-
나. 부사+ㅎ- : 與セッ-, 周セッ-, 善セッ-, 已シッ-, 自ノッ-(?)

(4) - 같다류 : {等/如/若}ノッ-, 如セッ-, 如ハッ-, 等ヲッ-, 矣セッ-
- 아니하다류 : 不テッ-, 不ハッ-, 未テッ-, 未ハッ-, 未リッ-, 非テッ-
- 이리하다류 : 是セッ-, 爾セッ-, 尔ニッ-, 斯モッ-
- 그러하다류 : 然セッ-, 然シッ-
- 어떠하다류 : 何ニッ-, 何セッ-

(5) - 되다 : 凡{爲}入乙ッ-
- 삼다 : 爲シッ-

(3가)의 경우 ‘セ’이 말음첨기인지 접미사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少セッ’는 ‘앗ㅎ-’를, ‘順セッ, 從セッ’는 ‘쫘ㅎ-’를 표기한 말음첨기로 파악되므로⁶⁾ ‘嬰セッ, 俱セッ, 懷セッ’도 고유어 어간에 ヌ가 붙은 예로 함께 분류하였다. (3나)는 단독으로 쓰인 부사 ‘與セ’, ‘周セ’, ‘善セ’, ‘已シ’들이 확인된다.

한편 (5)에 제시된 동사 ‘삼-’의 경우는 전개 양상이 독특하다. 고유어 어간에 ‘ッ’가 연결된 ‘{爲}シッ-’뿐만 아니라 고유어 어간인 ‘{爲}シ-’이 이중 출현하며, ‘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爲ッ-’는 나타나지 않는다.⁷⁾

5) ‘-… 故ノッ-’도 ‘ㅎ-’에 선행하는 형태로 출현하지만, 해석과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목록에서 보류한다.

6) 이현희(2009: 150)에서는 ‘앗#ㅎ-(小)’가 이완합성어적인 구성에서 ‘아츠-’와 같은 긴밀합성어적인 단계를 거쳐 중세국어의 ‘앗-’의 단계에까지 변한 것으로 보았다. ‘順セッ’, ‘從セッ’도 이완합성어 ‘쫘#ㅎ’가 나중에 긴밀합성동사화하여 ‘조츠-’가 된 다음에 다시 ‘쫘-’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7) ‘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爲’는 고유어 ‘{爲}シ’와 한자어 ‘爲ッ-’가 함께 사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6) 가. 卽^ㄷ 此 解脫圓滿¹ 無餘依涅槃界^ㄷ {以}^ㄷ 而^ㄴ 上首 {爲}^ㄷ 소^ㄷ리¹ㄷ <유가05:16-17> : 곧 이 해탈원만은 무여의열반계로써 으뜸을 삼는 것이다.

나. 是 如^ㄷ 소^ㄷ리¹ㄷ 涅槃^ㄷ 首 {爲}^ㄷ 正法^ㄷ 聽聞^ㄷ 소^ㄷ 當^ㄴ 知^ㄷ 五種 勝利^ㄷ 獲得
소^ㄷ리¹ㄷ <유가05:17-18> : 이와 같은 열반을 으뜸으로 삼아 정법을 자세히 듣는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 뛰어난 이익[勝利]을 획득하는 것이다.

(7) 가. 謂¹ 聞所成慧^ㄷ {以}^ㄷ 因 {爲}^ㄷ 소^ㄷ카 <유가05:01>

: 말하자면 문소성혜로써 인을 삼으며,

나. 謂¹ 我¹ 乞食受用^ㄷ 因 {爲}^ㄷ 소^ㄷ카 <유가08:20-21>

: 즉, “나는 음식을 구걸하여 수용하는 것을 인으로 삼아

(6~7)를 통해 ‘소-’가 관여하든 아니하든, 이 두 형태는 의미는 물론 통사적 환경까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비심리용언에도 ‘-어^ㅎ-’가 연결되는데 역시 ‘^ㅎ-’가 있든 없든 그 의미나 통사적 틀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 실현된 ‘^ㅎ-’도 ‘-어^ㅎ-’의 구성에서 연결어미 ‘-어’에 해당하는 형태의 생략형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2.3. 조사+^ㅎ-

2.3.1. 대격조사 ‘을(ㄷ)’ 뒤에 나타나는 ‘^ㅎ-’

‘소-’의 ‘^ㅎ-’는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ㅎ-’가 앞선 문장에 제시된 동사를 받는 경우로, ‘ㄷ’과 ‘소-’가 분리된 구성이다. 두 번째는 앞선 문장에 ‘^ㅎ-’를 지시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ㄷ’과 ‘소-’의 긴밀성이 높아 한 단위 구성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이다. 먼저 첫 번째 예들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8) 塔^ㄷ 遶^ㄴ 소^ㄷ카 三市^ㄷ 소^ㄷ카 소^ㄷ카 <화엄08:10>

; 塔을 오른쪽으로 돌되 세 번을 하는 경우에는

(9) 伏忍^ㄷ 得^ㄷ 소^ㄷ카 {者} 空^ㄷ 無生^ㄷ 소^ㄷ카 忍^ㄷ 得^ㄷ 소^ㄷ카 乃^ㄷ 至^ㄷ 소^ㄷ카

一地^ㄷ 十地^ㄷ 소^ㄷ카 不可說^ㄷ 德行^ㄷ 소^ㄷ카 <구인14:15-16>;

伏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空이니 無生이니 하는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내지)一地니 十地니 하는 不可說의 덕행을 얻는 이도 있었다.

(10) 가. 猶^ㄴ 소^ㄷ카 大海^ㄷ 소^ㄷ카 一滴^ㄷ 소^ㄷ카 水 如^ㄷ 소^ㄷ카 소^ㄷ카 소^ㄷ카 <화엄09:03>

; 비유하면 大海의 한 방울 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나. 譬^ㄴ 소^ㄷ카 鳥足^ㄷ 소^ㄷ카 所^ㄷ 空 如^ㄷ 소^ㄷ카 소^ㄷ카 亦^ㄷ 소^ㄷ카 大地^ㄷ 소^ㄷ카 一^ㄷ

微塵 如^ㄷ 소^ㄷ카 소^ㄷ카 소^ㄷ카 <화엄09:09>; 비유하면 새발로 밟는

하늘과 같으며 또한 大地의 한 微塵과 같음을 이룹니다.

(8)은 ‘遶塔三市’을 번역한 것이다. ‘塔^ㄷ 三市^ㄷ 遶^ㄴ 소^ㄷ카’으로 현토할 수 있지만, 대격이 두 번 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ㄴ’을 이용해 ‘遶’를 먼저 번역하고 ‘소-’를 이용해 ‘遶’를 다시 받도록 하였다.⁸⁾ (9)의 원문은 “得伏忍者 得空無生忍 乃至 一地十地不可說德行”

8) 이강혁(20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결어미 ‘V+-오^ㄷ’ 뒤에 나타난 ‘^ㅎ-’는 ‘오^ㄷ’에 연결된 동

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동사 ‘得’을 생략하였지만, 구결에서는 생략된 동사를 재현하기 위해 ‘っ-’를 삽입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있다. (10)의 경우는 ‘大海より一滴の水如く乙猶ッロ乙イテ」’로 풀어도 무방하지만, ‘っ’를 사용해 앞의 ‘猶’와 ‘譬’를 의미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앞뒤 문장에 ‘ㅎ-’가 지시하는 동사가 없는 경우로, ‘N乙’과 ‘っ’와의 연관성 속에서 ‘っ’의 의미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명사는 대부분 비동작성(실체) 명사인 것이 특징이다.

(11) 가. 大小便乙ッホ 時+ 1 <화엄04:12>; 大小便을 할 때에는

나. 三生乙ッロ 正位+ 入ッ1ヒカリヲ{者} 或ッ1 四生+ 五生+ 乃+ 至リ 十生+ ノ乙ッロ得ホ 正位+ 入ッ1ヒカリヲッナカ <구인11:17-18>; 三생을 하고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혹은 四生이니 五生이니 내지 十生이니 하는 것을 하고 능히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하며

다. 大寂無爲+ 1 金剛藏乙ッニカ 一切 報乙 盡+ 無極ッ1ヒセ 悲乙ッニカ <구인11:04>; 大寂無爲인 金剛藏을 하시며 一切 報를 다하고 無極한 慈悲를 하시며

(11가)는 ‘大小便時’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원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동사가 필요하다. 석독구결에서는 ‘大小便을 할 때’처럼 ‘누다’라는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っ-’를 이용해 문맥상 적절한 동사를 화자로 하여금 추측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乙ッ-’에 대해서는 3.1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2.3.2. 처격조사 ‘아귀(ヨ+)’ 뒤에 나타나는 ‘ㅎ-’

처격조사 뒤의 ‘ㅎ-’는 2가지로 용법이 구분된다. 첫 번째는 ‘ヨ+’와 ‘っ-’가 분리된 구성으로 ‘っ-’는 앞서 제시된 동사를 받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맥 안에 ‘っ-’를 지시하는 동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이때 ‘ㅎ-’는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후자의 예만 몇 가지 소개한다.

(12) 가. 我+ 1 {於}長夜ヨ+ッヨ 其身乙 愛著ッヨホ 充飽 令リ{欲}ハ 而… 飲食乙 受カヨヨ 1+ 1+ <화소09:17-19>; ‘나는 오랜 세월에 있어 내 몸을 애착하여서 充飽하게 하려고 飲食을 받은 것이라서

나. 三 {於}在家衆ヲ+ッ1 諸 无間業乙 偃塞 能 未ハッホ <유가21:18-19>; 셋째는 재가의 무리에게 있는 여러 무간업을 막는 것을 능히 못하며,

(13) 가. 八部 阿須輪王+ 現ヨ+ 鬼神乙 轉ッロ 天上ヨ+ッヨ 道乙 受ナカ <구인11:17>; 八部 阿須輪王은 현재에서 鬼身을 轉하고 天上에서 道를 받으며

나. {於}菩提 道場ヨ+ッヨ 佛慧+ … 不共法+ 等ッ1乙 成就ッハ 是 波羅蜜義+ 1+ <금광05:17-18>; 菩提道場에서 佛慧이니 … 不共法이니 하는 것 등을 成就하는 것, 이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12~13)의 ‘っ’는 앞뒤 문장에 지시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으로, ‘ヨ+’와 ‘っ-’의

사를 되받는 기능을 한다.

긴밀성이 높아 ‘ㄴ+ㄷ’가 ‘~에 있다’는 의미의 관용구처럼 사용된다. 이런 ‘ㄴ+ㄷ’는 대부분 한문 원문에 ‘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2)의 유형들은 두 요소의 긴밀성이 높아지면 (13)처럼 ‘-에서’의 의미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국어라면 ‘-에서’가 나타날 자리인데, 여기에 대응하여 ‘ㄴ+ㄷ’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에서’의 ‘서’가 ‘이시/시(有)-어’에서 문법화한 형태인 만큼, ‘서’에 대응되고 있는 ‘ㄷ’을 통해 ‘하-’가 ‘있다’의 의미에 대응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증한다. 이런 ‘ㄴ+ㄷ’의 ‘ㄷ’에 대해서는 3.2장에서 논의한다.

2.3.3. 주격조사 ‘이(ㄴ)’ 뒤에 나타나는 ‘하-’

이때의 ‘하-’ 역시 2가지로 용법이 구분된다. 첫 번째는 문맥상 반복되는 동사(생략된 동사)를 받는 대동사 ‘하-’로 ‘ㄴ’와는 별다른 긴밀성이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문맥 안에 ‘ㄷ’을 지시하는 동사가 없으며,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하-’이다. 두 번째 경우만 예시문을 제시하고, 이때의 ‘ㄷ’에 대해서는 3.2장에서 ‘ㄴ+ㄷ’와 함께 논의한다.

- (14) 微細 罪過^ㄴ 無明^ㄷ 因^ㄴ 種種^ㄷ 業行 相^ㄴ 無明^ㄷ 因^ㄴ 是^ㄷ 二地^ㄷ 障^ㄴ 礙^ㄷ <금광07:17-18>; 微細 罪過가 있는 것도 無明을 因하며 갖가지 業行相이 있는 것도 無明을 因하는 것이라, 이를 二地의 障礙라고 하며

2.3.4. 구격조사 ‘로(ㄴ)’ 뒤에 나타나는 ‘하-’

‘ㄴ+ㄷ’의 용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모두 <구역인왕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형식은 대체로 ‘-ㄴ 故^ㄴ’나 ‘因^ㄴ’와 같은 표현들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현 예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 (15) 가. 諸^ㄴ 有^ㄷ 本有^ㄷ 法^ㄴ 三假^ㄷ 集^ㄴ 假有^ㄷ <구인15:01>; 무릇 있는 本有의 法은 三假가 모인 까닭으로 하여 假有한 것이며
나. 幻師^ㄴ 幻法^ㄷ 見^ㄴ 諦實^ㄷ 即^ㄴ 皆^ㄷ 無^ㄴ <구인15:09>; 幻師가 幻法을 보듯이 諦實로 하니 곧 모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2.3.5. 보조사 ‘도(ㄴ)’ 뒤에 나타난 ‘하-’

현대국어 ‘하기도 하다’에 대응되는 표현도 나타난다.

- (16) 或^ㄴ 國土^ㄷ 乞^ㄴ 妻子^ㄷ 或^ㄴ 手足^ㄷ 或^ㄴ 心肺^ㄷ 或^ㄴ 髓腦^ㄷ <화소12:13-14>

2.3.6. 조사 ‘여(ㄴ/는)’ 뒤에 나타나는 ‘하-’

나열구문에서 아우름 동사의 기능을 하는 ‘하-(A : B : C : ㄷ)’와 명명구문에서 (名 曰 X : ㄷ), 화법구문에서 ‘告^ㄴ (인용문) : ㄷ’로 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인용동사나 명명동사가 없어도 ‘-라고 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 (17) 가. 即^ㄴ {爲}-^ㄴ 二^ㄴ 義^ㄷ 故^ㄴ <구인14:21-22>; 들을 것 없으며 말할 것 없는 것을, 곧 하나인 것의 義라 하며 둘인 것의 義라 하는

2.5.2. 연결어미

연결어미 ‘-저(ㄹ)’와 ‘-(며)까’ 뒤의 ‘ㄴ-’는 나열구문에서 나열된 요소를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연결어미 ‘-아’ 뒤에서도 ‘ㅎ-’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예문 일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3.5에서 진행한다.

- (19) 가. 五欲ᆞ 及七王位ᆞ 富饒ᆞ 自樂ᆞ 大名稱ᆞ ノ今乙 求ッッッッ¹ヒ¹ 不矢リ <화엄 09:12>; 五欲이니 및 王位니 부유함이니 自樂이니 큰 名稱이니 하는 것을 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
- 나. 無盡無減海印出妙功德陀羅尼… 無盡無減無邊佛身能顯現陀羅尼…ノ尸乙ッッッ¹ヒ¹ <금광 14:07-15>; … 無盡無減無邊佛身能顯現陀羅尼니 하는 것을 해서 하 여야 한다.

한편 석독구결 자료에는 ‘ㄱ’와 기능이 거의 동일한 연결어미 ‘ㄱ/’가 사용되는데 여기에도 ‘ㄴ’가 연결된 예들이 나타난다.

- (20) 가. 王位乙 皆セ 能 捨ッカッ 施乙 好イッ今セ 者乙 悉ッ 化ッ十 從セ 令リナク
 <화엄18:01>
 나. 三者 一切 衆生リ 生死ッ十 往還ノム 其 因緣乙 隨ノットノ 入乙 是 如支
 見知ッカ <금광04:22-23>

2.5.3. 기타 어미

사동형, 당위/가능형, 의도형 표현에 사용된 ‘ㄴ’의 용례이다.

- (21) 가. 能^カ 無生法忍^ニ 滿足^ス 令^リッ^ル 矣^ニ 是^レ 波羅蜜義^ニ 리^カ <금광05:15-16>
 나. 善^ニ 而^テ 1 {哉} 이 仁者^ニ 諦^リ 聽^カ 이 應^セッ^ル 나^ニ | <화엄09:02>
 다. 五者 甚深 無生法忍^ニ 得^ル {爲} 人ッ^ル 矣^ニ ナ^ニ 1 리^カ | <금광03:09>
 라. 若^シ 王^ヲ 身^ニ 手足^ニ 血肉^ニ 頭目^ニ 骨髓^ニ : 노^ニ 今^ニ 得^ル 로^ニ 乙^ニ 스^ル 入^ル 1 我^ヲ {之}
 身命^ヲ 1 必^ニ 冀^リ 1 入^ル 1 存活^スッ^ル 세^ニ 이^ニ 호^로 乙^니 스^르 | <화소10:19-20>

(21가)의 ‘ハ」는 ‘-게 하-’의 의미를, (21나)의 ‘テ應/可/容ハ」는 ‘-해야 한다’의 의미를, (21다)의 ‘爲/爲欲/欲ハ」와 (21라)의 ‘セイ」는 ‘-고자 하-’의 의미를 갖고 있어 현대국어 ‘하-’의 환경과 동일하다. 이때 사동, 당위, 의도형 어미들은 ‘-ハ-’ 없이 ‘シルハフルト」, ‘テ應セ」, ‘{爲}」, ‘セイ」 단독으로도 나타난다.

3. 석독구결 ‘ㅎ-’의 특이 용법

3.1. 비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ㅎ-’의 이중적 기능

서정수(1975)에서는 ‘ㅎ-’의 기능을 ‘형식동사’와 ‘대동사’로 구분하였다. 형식동사 ‘하-는 ‘공부’, ‘암전’과 같은 서술성 명사와 결합해 선행요소가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미적으로는 잉여적이다. 반면 대동사 ‘하-’는 ‘밥’, ‘머리’와 같은 비서술성 명사 뒤에 붙어 선행명사가 암시하는 적절한 동사의 의미를 대리한다. 가령, ‘밥하다’의 ‘하다’는 ‘공부하다’의 ‘하다’와는 달리 무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짓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적절한’ 의미는 문맥이나 문화적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독구결에서 비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ッ-’는 현대국어의 대동사 ‘하-’와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 예로 명사 ‘王’을 살펴보자. <화엄경소> 자료에는 ‘王’과 ‘ッ-’가 결합한 ‘王ッ-’가 4번 나타난다. 만일 현대국어에도 “왕하다”란 단어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어휘화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왕(王)’은 비서술성 명사이므로, 단독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대동사 ‘ㅎ-’가 붙어 이것이 표상 가능한 의미를 가령, ‘왕 노릇하다, 왕위에 오르다, 왕으로써 다스리다 ...’ 등의 의미들 가운데에서 관습과 사용 빈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거쳐 “왕하다”란 단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구결문에서의 ‘王ㅎ-’는 상황이 다르다. 한문에서 ‘王’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통치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王ッ-’에서는 이미 완전한 동사의 의미를 ‘王’이 이미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ッ-’는 서정수(1975)의 설명에 따르면, ‘王’이 서술어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문법적 기능만 수행하는 무의미적인(의미적으로 잉여적인) 형식동사 ‘ㅎ-’의 기능을 수행한다.

	품사	‘하-’와의 결합	의미	‘하-’
현대 국어의 王	명사	비서술성 명사+하-	왕이 되다 왕에 즉위하다 왕 노릇하다 왕으로써 다스리다 ...	대동사
석독의 王	명사, 동사	동사+ㅎ-	통치하다	형식동사

석독구결 안에서 ‘王(왕/통치하다), 上(위/올라가다), 下(아래/내려가다)’같이 명사·동사가 공존하는 형태들은 여전히 서술성 명사 ‘공부, 학습’에 붙는 ‘ㅎ-’와 동일한 기능을 취한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다.

그런데 한문이라고 해서 모든 명사가 동사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문에서도 명사로만 사용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완전한 비서술성 명사에 연결되어 서술성을 완성하는 기능을 하는 ‘ㅎ-’를 사용할 때에는 목적격조사 ‘乙(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2) 가. 大小便乙ッホ 1 時+1 <화엄04:12>; 大小便을 할 때에는

나. 三生乙ッロ 正位ヲ入ッ1ヒカリニ{者} <구인11:17>

; 三生을 하고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다. 大寂無爲ニ 1 金剛藏乙ッニカ <구인11:04>; 大寂無爲인 金剛藏을 하시며

(22가)의 ‘大小便’의 ‘ㅎ-’은 ‘누다, 용변을 보다’라는 의미가 문맥에 의해 쉽게 파악되는 반면, (22나)의 ‘三生을 하다’와 (22다)의 ‘金剛藏을 하다’의 ‘ㄴ’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三生’은 윤회하는 흐름 안에서 ‘3번째 삶’을 의미하므로 그 뒤의 ‘ㄴ’은 ‘살고, 윤회하고, 마치고’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金剛藏’이 ‘등각(等覺)의 경지에 이른 보살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설한 부처의 가르침’을 의미하므로, ‘ㅎ-’에는 ‘수행하다, 펼치다, 베풀다’ 등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문 원문에 구체적인 동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어 번역 상에는 동사가 필요할 때 ‘ㄴ-’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서정수(1975)에서 말한 ‘대동사’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나 ‘밥-하다’에서 ‘하다=짓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金剛藏-하다’에서는 ‘ㄴ’의 의미에 대한 유추나 지시성이 약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석독구결의 비서술성 명사	N+ㄴ-	N=동사와 명사 통용	ㄴ : 형식동사
	N+ㄷ+ㄴ-	N=명사로만 全用	ㄴ : 대동사
현대국어의 비서술성 명사	N+ㄴ-	N=명사로만 全用	ㄴ : 대동사
	N+ㄷ+ㄴ-		

3.2. 한문의 생략된 동사를 재현하는 ‘ㅎ-’

현대 한국어에서는 문장 내 계속 반복되는 동사라고 해서 그 동사를 생략하고 ‘ㅎ-’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령 ‘내가 과일을 **사**고, 생선을 **사**고, 과자를 **사**고, 떡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사용된 ‘하다’가 앞에서 반복된 ‘사다’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한문에서는 앞의 문(文)이나 또는 뒤에 문(文)의 동사를 받아서 생략하거나, 동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양백준 1989:91-92). 석독구결에서는 한문 원문에서 생략된 동사 자리에 ‘ㄴ-’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동사를 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3) [원문] 得伏忍者 得空無生忍 乃至 □一地十地不可說德行

伏忍乙 得^ㄴモカリカ{者} 空: 無生: ノ今セ 忍乙 得^ㄴモカリカ 乃至 至^ㄴ 一地: 十地: ノ今セ 不可說セ 德行乙^ㄴ 一モカリナ | <구인14:15-16>; 伏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空이니 無生이니 하는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내지)一地니 十地니 하는不可說의 덕행을 얻는 이도 있었다.

(24) 此 五相乙 由^ㄴ 尸入乙 當ハ 知^ㄴ 是乙 名下 初處^ㄴ 十 觀察^ㄴ ヲア丁ノチリ丁
<유가17:04-05>; 이 다섯 상으로 말미암아 (관찰)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를 일컬어 처음 처소[初處]에서 관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23)은 한문 원문에서 반복으로 인해 생략된 ‘得’을 재현하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24)는 앞서 ‘五相’을 관찰하는 내용이 나열되고, 또한 문맥 뒤에 ‘觀察’이라는 동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앞뒤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觀察’의 의미를 ‘ㅎ-’가 대행하고 있다.¹⁰⁾

10) 장경준(1998:45-46)에서는 중세국어 언해문에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ㅎ-’가 있음을 지적한

결론적으로 이때의 ‘ㅎ-’는 결론적으로는 대동사의 기능하는 평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대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환경’은 전혀 한국어 ‘ㅎ-’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반복된 동사의 생략을 재현하는 (23~24)와 같은 ‘ㅎ-’는 한문 번역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있다’의 의미로 번역되는 ‘ㅎ-’

석독구결의 ‘ㅎ-’ 가운데에서 단연 특이한 현상은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ㅎ-’이다. 현대국어의 ‘하다’의 의미는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ㅎ-’가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구결자료 내에서도 흔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 출현 환경 대부분이 처격조사 ‘ㄴ + (ㄹ +)’ 뒤에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25) 가. 是 時 + 大自在梵王 1 {於}大會 ㄷ 中 ㄴ + ッ + ナハニ 1 ㄴ 座 ㄷ 從 ㄷ 而 ㄴ 起 ㄴ 下
 <금광13:18>; 이 때 大自在梵王은 大會 가운데에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나. {於}此 正法 ㄴ + ッ 1 補特伽羅 1 三摩地 ㄷ 得 ㄴ ㄹ 已 善 宣說 ㄴ ㄹ 已 善 開示 ㄴ
 ㄹ ㄴ ㄴ ㄴ ㄴ ㄴ <유가15:08-09>; 이 정법에 있는 보특가라는 삼마지를 얻어서는 이
 미 잘 펼쳐 말하고, 이미 잘 열어 보이고 하는 것이다.

다. 三 {於}在家衆 ㄴ + ッ 1 諸 无間業 ㄷ 偃塞 能 未 ㄴ + ッ ㄴ <유가21:18-19>
 ; 셋째는 재가의 무리에게 있는 여러 무간업을 막는 것을 능히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처격 조사 뒤에 ‘ㅎ-’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한문 원문에 ‘於’자가 있을 때 ‘-ㄴ + ッ-’가 출현하기 때문에, 한자 ‘於’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현상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한자 ‘於’는 ‘-에’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의 용법 외에도 동사로도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漢韓大辭典] 於	
① 있다, 존재하다(在)	① …에, …에서 (지점이나 처소)
② 가다	② …에게 (대상)
③ 하다, 되다, 만들다	③ …을 향하여 (방향)
④ 뒤따르다, 친근하다	④ …으로써, …에 따라 (방식이나 대상)
⑤ 의지하다	⑤ …을 위하여 (목적)
⑥ 살다	⑥ …에 의해 (피동)
⑦ 후대하다, 환대하다	⑦ …에 관하여, …에 대하여 (동작의 대상)
	⑧ …로, …까지 (귀착)
	⑨ …에서부터, …부터 (기점)
	등등

한문 번역에서 특정 한자들은 한자를 한 번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풀어내는,

바 있다.

일종의 재독(再讀)을 하는 글자들이 있다. ‘雖’나 ‘及’과 같은 글자가 대표적이다. ‘雖’는 한국어에서 양보의 연결어미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문 번역에서는 ‘비록’이란 부사로 한번, ‘~하더라도’라는 연결어미로 재독하는 것이 상례이다. ‘及’ 역시 한국어의 나열조사 ‘-와/과’로 한번 풀어내도 족하지만, 석독구결이나 언해문에서는 나열된 명사 뒤에 ‘와/과’를 붙이고 ‘及’을 다시 ‘및’으로 풀어내는 일이 흔하다. 만약 ‘於’도 재독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면, ‘ㄴ +’라는 처격조사로 한 번, ‘있다’라는 존재사로 두 번 풀어내는 과정에서 ‘ㄴ-’가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를 갖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 ‘ㅎ-’의 고유한 용법이라기보다는 ‘於’를 재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예들이 있다. 바로 ‘於’와는 전혀 무관한 환경인데도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26) 微細 罪過^{リット} 無明^乙 因^ノ ヌカ 種種^セ 業行相^{リット} 無明^乙 因^ノ ヌカ
 四 是^乙 二地^セ 障^ノ ヌカ <금광07:17-18>
 : 微細 罪過가 있는 것도 無明을 인하며 갖가지 業行相이 있는 것도 無明을 인하는 것이라, 이를 二地の 障礙라고 하며,

(26)은 “微細罪過因無明”과 “種種業行相因無明”을 번역한 문장이다. ‘罪過’와 “業行相”이 명사이므로 보조사 ‘ㄴ’만 현토하여 ‘罪過^ㄴ 無明^乙 因^ノ ヌカ’, ‘業行相^ㄴ 無明^乙 因^ノ ヌカ^四’로 해도 무방한데¹¹⁾ 주격조사 ‘ㄴ’과 함께 ‘ㄴ-’를 사용하고 있다. 구결학회 강독회 공동 발제문과 이용(2013)의 번역 모두 이때의 ‘ㄴ-’를 ‘있다’로 번역하고 있다. ‘있다’의 의미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ㄴ-’가 반드시 ‘있다’일 필연성은 없다. (22나·다)의 ‘비동작명사+乙+ㄴ’ 구성처럼 이때의 ‘ㅎ-’는 대동사로, 문맥적 의미에서 포착되는 동사를 대신하는 기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있다’ 이외에도 ‘나타나다, 생기다, 만들어지다, 발생하다...’ 같은 자동사를 대신하는 ‘ㅎ-’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존재사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ㄴ+ㄴ-’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¹²⁾

참고로 서술격 조사 ‘-니’도 ‘있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듯한 예들이 있어, ‘있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ㅎ-’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7) 가. 伏忍^乙 得^ヒ ヌカ^リ 者^ハ 空^ニ 無生^ニ ノ^セ 忍^乙 得^ヒ ヌカ^リ <구인14:15>
 ; 伏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空이니 無生이니 하는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나. 乃^ハ 至^ニ 一地^ニ 十地^ニ ノ^セ 不可說^セ 德行^乙 ヌ^ッ 一^ヒ ヌカ^リ <구인14:15-16>
 ; (내지) 一地니 十地니 하는 不可說의 덕행에 이르기까지를 얻는 이도 있었다.

(27)의 현상은 해석이 어렵지만, ‘-이-’가 ‘있다’란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조사 뒤에도 ‘-이-’가 연결될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대어에서 부득이 ‘있다’를 보충한 현상

11) 동국대 역경원 번역도 “미세한 죄과는 무명으로 인함이요, 가지가지 업행의 모습도 서로 무명으로 인함이다. 이 두 가지 거친 마음에 의지함이 곧 이지의 장애이다.”로 되어 있다.
 12) ‘ㄴ+ㄴ-’의 ‘ㅎ-’가 ‘있다’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단지 현대어 해석에서 ‘있다’로 해석되기 때문이 아니다. ‘ㄴ+ㄴ-’가 ‘於’와 호응해서 출현한다는 사실, 재독 과정에서 ‘於’가 지니고 있는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를 받았을 가능성, 중세국어 ‘에서’가 출현할 위치에 대응되며 ‘서’가 존재동사 ‘시[有]’에 기원을 둔다는 여러 사실을 통해 도출된 사실인 반면, (26)의 ‘ㅎ-’가 ‘있다’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오직 현대어 해석만을 근거로 두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으로 파악된다.

만약 ‘ㅎ-’가 ‘於’와 같은 한자 번역과 무관하게 ‘있다’는 의미를 지시할 수 있다면, (27)의 예들도 ‘ㄷ’, ‘ㄷ’로 나타났겠지만 ‘ㄷ-’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자와 무관하게 ‘ㅎ-’가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일 수도 있다.

3.4.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지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ㅎ-’

한문과 국어의 어순 차이의 핵심은 동사와 목적어에 있는데, 석독구결에서는 역독점을 사용해 목적어 앞에 있는 동사를 목적어 뒤에 해석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석독구결이라고 해서 항상 어순을 한국어 어순인 SOV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구문에서는 한문의 어순 그대로 번역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유구문·발원구문·화법구문·비유구문이 대표적이다.

사유구문	사유동사+ㅍ/ㅍㅈ	(사유 내용)	ㅎ-
발원구문	발원동사+ㅅㅅ	(발원 내용)	ㅎ-
화법구문	발화동사+ㅍ/ㅍㅈ	(발화 내용)	ㅎ-
비유구문	비유동사+ㅅㅅ	(비유 내용)	ㅎ-

어순까지 한국어 어순으로 풀어내는 석독구결의 엄밀한 체계를 따르자면 위 구문들도 목적어절 다음에 동사를 풀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ㅎ-’는 불필요하다.

사유구문	(사유 내용)	사유동사-
발원구문	(발원 내용)	발원동사-
화법구문	(발화 내용)	화법동사-
비유구문	(비유 내용)	비유동사-

석독구결의 방식으로 현토를 할 때 목적어가 길어지게 되면 되돌아가야 할 동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현토를 하는 사람은(또는 구결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역독(逆讀) 동사를 멀리에서 찾아야 하는, 회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 문장에서는 (한문 텍스트 작성자가 아닌 이상) 목적어의 길이가 예측 불가능하지만, 사유구문·발원구문·화법구문·비유구문에서는 인용되는 내용에 대한 길이감(단어나 구가 아닌 문장 단위임)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문들에서는 도치문처럼 동사를 먼저 해독하고, 그 뒤에 앞의 동사를 다시 받는 ‘ㅎ-’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역독된 동사를 찾는 부담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¹³⁾

따라서 이런 구문들에 사용된 ‘ㅎ-’는 석독구결의 어순 풀기 원칙에 따라 SOV로 풀어냈다면 사용될 필요가 없고, 한문의 SVO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ㅎ-’인 것이다. 이때의 ‘ㅎ-’는 앞에 제시된 사유동사·발원동사·발화동사·비유동사의 의미를

13) 석독구결 자료에서 어순에 대한 처리 방식은 1)역독점을 사용해서 어순을 우리말 어순대로 풀어내거나, 2)역독점을 사용하지 않고 한문 어순대로 풀어내는 방식이 존재하는 셈이다. 후자의 경우 ‘V+정동사어미. ~-’를 사용하거나 ‘V+부동사어미, {인용문} ~-’의 두 방식이 존재한다.

복사하는 동시에, 역독된 동사의 정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길이가 긴 목적어절을 처리하는 독특한 석독구결의 방식에서 사용하게 된 ‘ㅎ-’라고 볼 수 있다.

3.5. 기능 파악이 어려운 연결어미 ‘-아’ 뒤의 ‘ㅎ-’

적독구결의 ‘-ㅓㅓ-’ 구성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첫 번째, ‘已ㅓㅓㅓㅓㅓㅓ’의 ‘ㅓㅓㅓ’은 ‘ㅓㅓㅓ, ㅓㅓㅓ’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곤’에서 ‘ㄱ’이 약화되어 ‘ㅓㅓ’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연결어미 ‘-ㅓ’ 뒤에 강세의 보조사 ‘ㄱ’과 주제의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로(황선엽 2003:126-129), 형식동사 ‘ㅎ-’와는 무관하다. ②두 번째는 ‘(-ㅓㅓ) ... 乙以ㅓㅓ-’나 ‘乙 由ㅓㅓ-’에 나타나는 형태인데,¹⁴⁾ 이때의 ‘ㅓㅓ-’는 문맥의 앞뒤에 나타난 (반복)동사를 지시하는 대동사 ‘ㅎ-’로 ‘-ㅓㅓ#ㅓㅓ-’가 분리된 개별 형태이다.¹⁵⁾ ③세 번째는 중세 국어나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어하(ㅎ)-’처럼 두 형태의 관계가 긴밀한 경우로,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장경준(1998)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어하-’는 심리구문이나 동작성이 낮은 동사에 연결되어 ‘동작성의 강화’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비심리용언에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고, 동사와 형용사가 공존할 경우 동사에 ‘-어흐-’가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비심리용언에 연결되는 ‘-어흐-’는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부는 ‘지속’이나 ‘시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어흐-’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8) 가. 五欲: 及^セ 王位: 富饒: 自樂: 大名稱: ノ今乙 求^ソッ^ソッ^ッテ 不^レ矢^リ <화엄
09:12>; 五欲이니 및 王位니 부유함이니 自樂이니 큰 名稱이니 하는 것을 구하여
하는 것은 아니니

가' . 塔乙 遶ノ尸ム 三市乙ッホ 1 | + 1 當 願 衆生 勤セ 佛道乙 求ノ尸ム 心ヲ十 解
歡尸 無ヒ立 <화엄08:10>

나. 便^스 自^스 思^스 惟^스 나^스 我^나 已^시 心^스 一^스 境^스 性^스 乙^스 證^스 得^스 ッ^ス ノ^ノ 一^ス リ^ス セ^ス ヲ^ス 實^스 如^스 矣^스 了^스
 知^스 나^스 乙^스 セ^ス | <유가23:21-22> ; 곧 스스로 사유하기를 ‘나는 이미 심일경성을 증득
 하여 한 것이다’ 하여 실상과 같이 안다.

나'. 若 有^ナ | 此^コ 作 {於}現身^セ 中^ナ + 必^ハ 賢聖法^コ 證得^ソ 今^セ 器 非^キ ナ^リ |
 | <유가02:09-10>

다. 又 知恩ノ尸入乙 依るノ尸ム 謂 有恩ッヒセ 者ヲ十 大師ヲ 恩乙 念ッウホ 作意思惟ッウ 歡喜乙 發生ッカッム<유가28:16-17>; 또 은혜를 아는 것을 의지하여 하되, 말하자면 은혜 있는 자에게 대사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작의하고 사유하여 환희를 일으키며 하는 것이니.

라. 敬禮¹ノ自口²ノ示セ³ | 譬喩⁴ノ入⁵ノ入⁶ 無⁷ニ下⁸ 深無相義⁹乙¹⁰ 說¹¹ニ口¹²ト¹³乙¹⁴ニ <金광13:04>; “敬禮합니

14) 단, <유가09:22-23>에 나타난 ‘由ゝゝ’의 ‘ゝ’는 앞에 제시된 동사를 지시하는 대동사가 아니라 ‘-ゝゝ’ 구성으로 파악할 만하다. 이 예를 제외하고 모든 ‘由ゝゝ’는 앞뒤 반복되는 동사를 지시하는 대동사 용법으로만 나타난다.

15) ... 開誘ノ尸ム 或ッヲ 如來乙 供養ソ白イ今セ 門乙 以ッ ッ尸カッ 或ッヲ 難思セ 布施門乙 以ッ ッ尸カッ <D화엄17:05-06>: 열어달래되 혹은 如來를 供養하는 門으로써 (開誘)하기도 하며 혹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布施門으로써 (開誘)하기도 하며

う + 從セ 俾リナカ <화엄18:05> : 마땅함을 좇아 널리 나타내되 그 마음에 쾌히 하여 色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道로부터 따르게 하며

다. 菩薩1 {爲}シイ 國ニ 財ニノミテ 捨ッロ 常ニ 出家ノ尸入乙 樂イッウホ 心ニ 寂靜ノ尸入乙 現イナカ <화엄18:15> : 菩薩은 (중생을) 위해 나라니 재산이니 하는 것을 버리고 항상 出家하는 것을 좋아 하여서 마음에 寂靜한 것을 나타내며

(24)의 ‘好/樂’은 동사 ‘즐기-’나 형용사 ‘동-’로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¹⁷⁾ 만약 ‘好イ/樂イ’를 장윤희(2006:95)에서 제안한 대로 ‘도호(동-+연결어미-오-)’라고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심리형용사에 ‘-어호-’가 연결된 유형과 평행한 형태가 되어 ‘동작성을 강화’하는 ‘-어하-’의 용례를 확보하는 예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세국어 국어의 ‘-어호-’의 출현 분포와도 다르게 비심리용언에 연결된 ‘-이ッ-’만 나타나고, 대신 심리용언에는 ‘-이ッ-’가 연결되는 듯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4. 결론

‘-이ッ-’는 석독구결의 구결자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구결자 중 하나이다. 한문에는 구현되지 않는 한국어의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호-’라는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즉 ‘호-’는 한문과 한국어 교점의 최전선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셈인데, 한문 문법과 국어 문법의 간극만큼 석독구결에서는 특수한 ‘호-’의 용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여러 현상 5가지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한국어에서는 명사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한문에서는 명사·동사가 통용되는 현상으로 인해(王·上·下) ‘비서술명사+이ッ-’가 현대국어에서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석독구결에서는 여전히 형식 동사의 쓰이고 있다. 대신 한문에서도 명사로만 전용(全用)되는 명사 뒤의 ‘이ッ-’는 대동사의 용법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대신 그 형식이 ‘명사+乙+호-’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 한문에서는 앞·뒤 문(文)의 동사를 받아서 생략하거나, 동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사를 쉽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는 빠져 있는 동사를 ‘이ッ-’를 사용해 재현하고 있다. 이런 기능은 우리말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용법이고 한문 번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기능이다.

세 번째, 처격조사 ‘う +’ 뒤에 ‘이ッ-’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 ‘호-’가 ‘있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호-’의 고유한 용법일 가능성보다는, ‘있다’의 의미와 ‘~에’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於’를 재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상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석독구결은 한문의 어순을 우리말 어순대로 풀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목적어가 짧은 경우에는 역독된 동사를 찾는 것이 쉽지만, 목적어가 길 경우는 동사로 회귀해야

17) ‘好イ’와 ‘樂イ’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에서는 ‘좋다’란 의미보다는 ‘즐기다, 기쁘다’란 형태일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此}ニ 菩薩1 稟性ノ尸 仁慈ニ 好イ 惠施乙 行ッロナ1 <화소 09:10>; 이 보살은 타고난 仁慈이라서 즐거/즐거이/기쁘게 惠施를 行하니”, “別々 樂イ 諸1 佛ニ 國土う + 往生ッセイッ 不ッカ 味尸 不ッミ 著尸 不ッミッカ <화소13:14>; 특별히 즐거/즐거이/기쁘게 모든 부처의 국토에 왕생하고자 하지 않으며, 맛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하며”

하는 부담감이 크다.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사유구문·발원구문·화법구문·비유구문에서는 동사를 뒤로 돌리지 않고, 한문 원문대로 먼저 풀어내고 인용문 뒤에 다시 ‘ㄷ-’를 사용하여 역독되어야 할 동사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석독구결에서도 ‘-어ㅎ-’ 구성이 아주 적지만 나타난다. 그런데 선행하는 용언이 비심리용언만 출현하다는 점이 현대국어뿐 아니라 중세국어와도 다른 점이다. 다만 심리용언에는 ‘-오ㅎ-’가 ‘-어ㅎ-’ 대신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예가 나타난다.

參考文獻

- 김성주(2005가), 석독구결의 사동연구, 구결연구14, 147-171.
- 김성주(2005나), ‘爲’에 현토되는 구결자와 기능, 구결연구15, 29-54.
- 김지오(2019), 석독구결 번역의 정형성 고찰-부사의 위치 고정과 단형 부정 제약 현상을 중심으로, 구결학회 6월 월례강독회 발표문.
- 김창섭(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3-85.
- 박진호(2008), 자리채우미, KLing2,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1-6.
- 박진호(2010), 자리채우미에 대한 토론, 국어학회 2010년 여름학술대회 발표집, 국어학회.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서정수(1991), 기능동사 ‘하-’에 대한 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34.
- 양명희(1990), 현대국어 동사 ‘ㅎ-’의 의미와 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1998),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대학사.
- 양백준/윤화중譯(1989), 中國文語文法, 청년사.
- 윤만근(1982), 동사 ‘하’의 통시적 관찰을 통해 본 그 성격과 동사 ‘하’의 기저구조, 언어학5, 한국언어학회, 117-141.
- 이강혁(2019), 전기중세국어 ‘(-)ㅎ-’연구-자토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 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225.
- 이은규(1997), 석독 입결 ‘ㄷ ㅅ’ 무리의 분포, 어문학60.
- 이은규(2004), 석독 입문의 동사 “삼-”의 의미 기능; 화엄경소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언어과학연구30, 177-198.
- 이은규(2013), 석독 입결 ‘ㄷ ㅅ’의 기능 연구, 민족문화논총53.
- 이현희(2009), ‘조초’의 文法史, 진단학보107, 129-175.
- 장경준(1998), ‘-어 하(ㅎ)-’의 통합 현상에 관한 연구: 현대국어와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준(2001), 석독구결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 구결연구7, 113-134.
- 장경준(2002), ‘-어 ㅎ(>하)-’ 통합 현상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4-2, 박이정, 239-253.
- 장경준외 3인(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학47, 91-144.

정언학(2003), 中世國語 ‘-어 이셔>-에서>-어셔’의 文法化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31(4), 33-58.

정연주(2017), 구문의 자리채우미 ‘하다’ 연구, 국어학총서75, 태학사.

조재형(2007), ‘-어 잇다’ 構成의 분포와 意味의 역사적 變化, 어문연구 35(4), 79-108.

황국정(2001), 석독구결의 ‘ㅅ + + ㅈ + -’ 구문에 대하여, 어문논집44.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문법 형태소 ‘-라’의 고찰

조재형(전남대)

1. 緒論

이 논문의 목적은 후기중세국어시기에 문헌자료에서 보이는 ‘-라’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 형태소가 고대국어시기의 부사격조사 ‘-良’의 잔존형임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國語史 研究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배출해왔다. 특히 ‘訓民正音’이 창제된 후기중세국어시기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국어 연구에 대한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자료에 대한 꼼꼼한 共時的 研究方法은 箇箇의 語彙와 文法素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지만, 반면에 차자표기와 훈민정음 표기 사이에서 보이는 通時的 變化相에 대한 충분한 說明力을 지니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 논의를 철저한 檢證없이 그대로 受容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역시 문제를 지니게 되었다.

本攷의 論議 대상인 ‘-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그러한 듯하다.

후기중세국어시기의 ‘-라’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고대국어시기의 ‘-良’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후기중세국어시기의 ‘-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라’를 볼 수 있는 문헌 자료의 빈약도 이러한 문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라’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후기중세국어 자료에서 확연히 발견할 수 있는 ‘-라’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

본고는 후기중세국어시기의 문법 형태소 ‘-라’가 고대국어시기의 ‘-良’의 후대형임을 논의하기 위해 ‘-라’의 통사적 기능과 ‘-良’의 통시적 변화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후기중세국어시기의 ‘-라’에 대한 고찰

후기중세국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라’의 모습은 극히 제한적이다.

- (1) ① 아모드라셔 온동 모르더시니(月釋 2:35)
- ② 跋提라셔 阿那律이드려 널오디(月釋 7:1b)
- ③ 有蘇氏라셔 姐己로 紂의게 드러놀(內訓 序:3b)

허용(1975/1995: 347)에서는 용례 (1)의 ‘-라셔’는 원래 출발을 나타내는 처소부사격조사로 보았고 (1) ②, ③의 예에서는 주격조사처럼 전용된 것으로 보면서도¹⁾, 그 출발점을 표시하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소부사격조사로 보았다. 반면 일부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근거로 (1)의 ‘-라셔’를 ‘이다’의 활용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1) 김현주(2013: 144)에서는 ‘-에서’가 주격표지로 쓰이는 예가 15세기 자료에서 빈번하고 보이며, 탈격표지가 주격표지로 발달하는 것이 탈격의 일반적 문법형태화 경로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2) ① 덕월이라셔(주자증손여씨향약 37권)

② 제 아비라셔(속삼 열:4)

③ 瑞香이라셔(속삼 열:7)

(2)의 예들은 형태적으로는 ‘이다’의 활용형 ‘이라’에 ‘셔’가 붙은 것이다. 특히 선행체언의 음성적 환경에 따라 ‘이, Ø’ 등으로 ‘-이다’의 어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1)에서는 이러한 ‘이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1) ②, ③에서는 ‘-이다’의 ‘이’가 ‘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도, (1) ①에서는 ‘*아모디라셔’로 그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의 ‘-라셔’는 기본적으로 처소부사격의 표지를 수행하고 있지만, (2)의 ‘-이라셔’는 주격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16세기 문헌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의 ‘-라셔’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허웅(1975/1995)에서는 ‘-라셔’는 원래 ‘-라’와 ‘-셔’의 두 형태소로 된 말이었으나, 융합된 형태로 보고 있다. 허웅(1975/1995)의 의견대로라면 우리는 통시적으로 ‘-라셔 < -라 + -셔’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법 형태소 ‘-라’를 추출할 수 있다.

(3) ① 서울셔 당당이 보면 비치 업스리니(初杜解 15:21a)

② 제 모미 누분 자히셔 보디(釋譜 9:30a)

③ 네 일즉 업디 아니햏야셔 엇데 업수를 아는다(楞解 2:4b)

한편, 용례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셔’에 대해서는 주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셔’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에셔’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면서 이루어졌다.

‘-에셔’의 形成 過程에 관한 論議들은 대부분 ‘-에셔’의 ‘셔’를 ‘이시- + -어’ 또는 ‘시- + -어’의 축약형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前者의 경우 ‘-에셔’의 형성에 대해서는 ‘-에 이셔’가 축약된 것으로 보며²⁾, 後者の 경우는 ‘시- + -어’가 축약되어 문법화를 거친 ‘-셔’와 ‘-에’가 결합하여 ‘-에셔’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³⁾.

한편, 허웅(1975/1995: 348)에서는 ‘-라셔’와 같은 말로 ‘-러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드-’에만 붙어 ‘어드러셔’⁴⁾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사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어드러’⁵⁾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셔’를 조사로 설정하고 있다.

상술한 논의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셔’의 설정이다. 만약 ‘-셔’를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로 설정할 수 있다면, (1)의 ‘-라셔’에서 ‘-라’와 ‘-셔’를 통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⁶⁾

2) ‘-에셔’가 ‘-에 이시- + -어’의 축약형으로 보는 견해는 상당히 일찍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연구로는 Ramstedt(1939), 박양규(1972), 洪允杓(1976), 이남순(1987), 안병희·이광호(1990/2001), 고영근(2002) 등이 있다.

3) ‘시- + -어’의 축약형 ‘-셔’와 ‘-에’가 결합하여 ‘-에셔’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李崇寧(1976), 李智涼(1993), 白樂天(2000) 등이 있다. 南基卓·趙宰亨(2014)에서는 성조를 이용하여 ‘-에셔’의 문법화를 논의하였고, 통시적 국어사 자료를 이용하여 ‘-에 이시- + -어 > -에셔’의 주장을 비판하고 ‘-에셔(< -에 + 시- + -어)’의 형성 과정을 논의한 바 있다.

4) 이 智慧 업슨 比丘ㅣ 어드러셔 오뇨(月釋 17:84)

5) 王이 어드러 가시니잇고(月釋 10:14)

6) 허웅(1975/1995: 376)에서는 (3)의 용례를 제시하면서 ‘-셔’는 “‘자리’, ‘출발점’, ‘비교’를 나타내는 위치말에 붙어 그 뜻을 강조하고, 풀이씨나 어찌씨에 붙어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며, 특히 “자리토씨와 어울려서, 다른 성분의 말에 붙기도 하고, 어찌씨(말)나 풀이씨에도 붙기 때문에 자리토씨는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편, 위 용례 (1)에 대한 허웅(1975/1995)의 논의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라셔’는 원래 출발을 나타내는 처소부사격조사이며, 주격조사처럼 전용된 예가 보이면서도 출발점을 표시하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소부사격조사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에서’가 ‘-에’와 ‘-서’가 결합한 문법 형태소라는 의견을 고려하면, ‘-라셔’의 ‘-라’와 ‘-에서’의 ‘-에’는 그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라’의 始原을 밝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점이다.

한편 고려가요의 다음 예는 ‘-라’와 매우 관련이 깊어 보인다.

(4) 어디^ㄴ라 더디^ㄴ던 돌코 누리^ㄴ라 마치^ㄴ던 돌코(靑山別曲 13)

위 예는 『靑山別曲』의 대목인데, 위 (4)의 ‘-라’에 대해 朴喜淑(1981: 11)에서는 ‘-良’의 관련성도 考慮해볼직하다고 하였다. 趙宰亨(2009b: 124~125)에서는 위 ‘-라’에 대해 ‘-이라’의 變異形으로 볼 수도 있으며, ‘어디이라’, ‘누리이라’로 각각 ‘어디이다’, ‘누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장 의미상 ‘-에’와 선행 체언의 [+有情性]에 의한 ‘-에게’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더욱이 후행하는 서술어 ‘던지다’와 ‘맞히다’의 대상이 각각 ‘어디’, ‘눌/누리’⁷⁾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한편, ‘어디’의 경우,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어디 < 얻 + -의’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주장은 문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위 ‘어디라 < 어디 + -이다’로 보는 견해도 후기중세국어 문헌에서 ‘어디’ 뒤에 서술격조사가 오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

한편, 다음의 용례도 ‘-라’의 설정을 가능케 하는 것들이다.

(5) ① 蘇武 | 아므라^ㄴ토 아니코 잇거늘(三綱忠6)

② 何有鄉^ㄴ온 아므라^ㄴ타 몰홀 고디니 無住^ㄴ를 니르니라(金三2:21a)

③ 大衆이 다 아므라^ㄴ 브디신 동 몰라 흐거늘(月釋20:2a)

④ 자내 종기도 아므라^ㄴ 혼 줄 모르고(순천72:2)

⑤ 아므라^ㄴ나 마나 헤디 말오(飜老上49ab)

⑥ 아므라^ㄴ니 아니코 아니 주고(순천80:2)

위 용례 (5)는 15~16세기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15세기 자료에서는 ‘아므’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허재영(2001: 243)에서는 ‘아므’를 어기로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곧 15세기 ‘아므’의 경우 ‘아모’, ‘아마’와는 달리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아므리/아므라’의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15세기에 ‘아므’는 어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애·김인균(2013: 118~119)에 따르면 단독으로 쓰이는 ‘아므’의 형태가 문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어기로 쓰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15세기 자료에서 ‘아므’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찾을 수 없지만, (1)에 제시된 여러 형태들을 통해 ‘아므’를 추출해 낼 수 있으며, 각 결합형들의 형성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아므’가 어기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5)의 용례들은 정성애·김인균(2013)의 의견을 수용하면 ‘아모 + -라토/-ㄴ/-나/-니’로 분석이 가능하고 여기서 ‘-라’를 분석해 낼 수 있다.

한편, ‘아므리’와 ‘아므라’에 나타난 ‘-리’와 ‘-라’에 대한 논의가 본고의 주목을 끈다.

7) ‘누리라’는 ‘누리 + -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선행연구가 ‘어디’라는 점에서 ‘누구’ 정도의 어휘가 오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한편, ‘눌 + -(이)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기 문학 작품에서 ‘눌드려’가 다수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문제에 추후에 다루고자 한다.

‘아므라’와 관련된 대표적 논의로는 허웅(1975/1995), 박희식(1984), 이현희(1985), 고정익(1985), 구본관(1998) 등이 있다.

허웅(1975/1994: 257)에서는 ‘새라’와 ‘새려’ 형태를 ‘새-라’와 ‘새-려’로 분석하고, 이때의 ‘-라’와 ‘-려’를 입자씨에 붙어 어찌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박희식(1984: 47)에서는 ‘-라/려’와 ‘으라’를 같은 것으로 보고 부사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고정익(1985: 63)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라’와 ‘새려’의 ‘-라, -려’를 부사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한편, 구본관(1998: 299)에서는 파생 접미사의 변별 조건 2, 3에 따라 ‘-라(려, 레)’를 파생접미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아므리’와 ‘아므라’는 어기 ‘아므’에 각각 ‘-리’와 ‘-라’가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두 형태는 ‘-리’와 ‘-라’라는 형태적 차이점 외에도 기능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곧 ‘-리’와 ‘-라’가 가지는 기능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현희(1985: 233)에서는 ‘엇디’와 ‘엇더’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므리’와 ‘아므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현희(1985)에서는 ‘-디, -더’와 ‘-리, -라’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접미사로 보았으며, 선행 음절에 따라 ‘-디, 더’나 ‘-리, -라’로 선택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엇디-ㅎ다’와 ‘엇더-ㅎ다’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중세 ‘어드리’의 형태에 나타나는 ‘-리’를 처소와 방편의 뜻을 명확히 해 주는 접미사로 처리하면서 ‘아므리’의 ‘-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곧 이현희(1985)에서는 ‘-리’와 ‘-라’의 차이를 의미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리’는 처소의 의미에서 방법의 의미로 전용되어 쓰일 수 있었으나, ‘-라’의 경우는 오직 처소의 의미만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리’, ‘-라’가 지닌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미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후기중세국어 자료를 통해 문법 형태소 ‘-라’를 분석해 낼 수 있고, ‘-라’는 처소의 의미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고대국어시기의 ‘-良’

이 시기의 ‘-良’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鄉歌, 口訣, 吏讀表記에서 ‘-良’이 단독형으로 副詞格助詞에 쓰인 예가 보인다. 『三國遺事』 향가에 3회, 『均如傳』 향가에 2회, 『大明律直解』에 4회의 예가 그것이다.

- (6) ① 東京明期月良(處容歌 1)
- ② 一等隱枝良出古(祭亡妹歌 7)
- ③ 彌陀刹良逢乎吾(祭亡妹歌 9)
- ④ 此良夫作沙毛叱等耶(禮敬諸佛歌 11)
- ⑤ 手良每如法叱供乙留(廣修供養歌 6)
- ⑥ 無量壽佛前乃(願往生歌 3)
- ⑦ 上吟⁸⁾乃村居利支稗 (함안 성산산성 12호 목간)

위 (6) ①, ②, ③의 ‘-良’은 처소부사격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④에 대해서 兪昌均(1994)에서는 ‘이이라’의 표기로 보고, 그 의미는 ‘이 때문에’로 해석하고, ⑤의 ‘手良每如’도 ‘손이 라마다’로 보고 있는데, ‘-良’을 ‘이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兪昌均(1994)의 주장은 그대로 受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④의 경우,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此良’이

8) ‘吟’은 해독자에 따라 ‘人, 𐄂, □’로 해석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吟’으로 파악한다.

‘此+부사격조사’의 형태라면 ‘祭亡妹歌’의 ‘此矣’와 비교했을 때, ‘此良’의 표기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矣’는 ‘-中’의 異表記이기 때문이다.

- (7) ① 난주~우(나중에)
 ② 근바~아(근방에)
 ③ 군처~어(군청에)

한편, 일부 경상 방언에서는 (7)의 경우와 같이 부사격조사의 선행명사가 /o/으로 끝나는 경우, 선행명사의 모음에 동화되어 부사격조사가 ‘-우, -아, -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 -어’이다.

이 특이한 부사격조사에 대해 박은용(1979: 32~33)에서는 국어와 동일 계통 언어의 처소부사격조사로 만주어의 ‘-de’, 통구스어의 ‘-da, -de, -do’, 몽고어의 ‘-du/dü, -tu/tü, -ta/te’, 토이기어의 ‘-da/de, -ta/te’를 제시하면서 알타이공통조어의 처소부사격조사를 “*-te”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재구로 인해 박은용(1979)에서는 원시국어에서 “*-ta/te”의 형태가 부사격조사로 사용되다가 “*-ra/rə”의 과정을 거쳐 ‘-a/ə’의 형태로 변했다고 추측하였다. 알타이제어의 부사격조사에 대한 논의는 조규태(1982: 16-17)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원시국어시기의 ‘-ra/rə > -a/ə’에 대한 논의는 金炯秀(1981: 16-17), 金亨柱(1984: 9)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이상신(2007)에서는 경주방언의 처격조사 ‘-아’와 알타이 祖語의 ‘*-a’, 그리고 古代國語의 ‘-아(良)’가 같은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慶州 地域語의 다음 예는 ‘아’ 발음 처격형이 共時的인 曲用의 過程에 의해 生成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듯하다고 하였다.

- (8)10 가마~아~ ← 가매~이~(袋) + 처격조사

이상신(2007: 56~57)에서는 위 (8)에 대해 處格形이 母音同化에 의한 것이라면 처격조사가 ‘가매~이~’의 ‘ㅣ’로 동화되어 ‘가매~이~이’ 정도의 처격형이 나와야 할 것이고, 처격조사 ‘아’에 의한 것이라면 ‘가매~이~아’(>‘가매X’) 정도의 처격형이 나와야 하지만, 실현되는 처격형은 ‘가마~아~’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어간이 ‘가마X’(‘가마니’ 혹은 ‘가마~이~’)일 때 만들어진 처격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전 時期의 처격조사와 通時的으로 생성된 처격형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1)의 ④ ‘此良’을 ‘此+부사격조사’의 형태로¹¹⁾, ⑤ ‘手良每如’는 ‘手(명사) + -良(부사격조사) + -每如(보조사)’로 보고자 한다.

한편, (5) ⑥, ⑦의 ‘-乃’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할 만하다.

- (9) ① 徐那伐(三國史記 新羅本紀第一)
 ② 徐耶伐, 斯盧, 新羅(三國史記 34)
 ③ 徐羅伐, 徐伐(三國遺事 第一)

9) 박은용(1979)에서는 향가에서 처소부사격조사와 연결어미에 사용된 ‘良’과의 연관성도 강조하였다.

10) 이상신(2007: 55)에서 인용.

11) ‘此 + 부사격조사’와 ‘彼 + 부사격조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趙宰亨(2010)을 참조.

위 (9)의 예들은 新羅 國號의 異稱이다. 신라 국호의 異稱 간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박은용(1968: 55)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0) ① 2음절 형태로 ‘伐’이 없는 것: 新羅, 斯盧
- ② 3음절 형태: 徐那伐, 徐耶伐, 徐羅伐
- ③ 2음절 형태로 ‘伐’이 있는 것: 徐伐

위 (10)의 분석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②와 ③의 관계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② ‘徐那伐, 徐耶伐, 徐羅伐’의 형태적 특징부터 파악하고자 한다.

(10) ②의 ‘徐那伐, 徐耶伐, 徐羅伐’은 ‘徐 + (那, 耶, 羅) + 伐’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耶’이다. 왜냐하면 위 용례상으로는 ‘那’와 ‘耶’와 ‘羅’는 그 독음이 비슷해야 하나 현대 한자음이나 조선시대 한자음에서 세 字의 독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국어시기의 자료를 살펴보면 ‘那’와 ‘耶’와 ‘羅’의 독음이 互用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耶’와 ‘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 (11) ① 耆郎矣兒史是史藪邪(讀耆婆郎歌5)
- ② 達阿羅浮去伊叱等耶(彗星歌10)
- ③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耶(千手大悲歌8)
- ④ 烽燒邪隱邊也藪耶(彗星歌4)
- ⑤ 此盼喰惡支治良羅(安民歌6)
- ⑥ 脚烏伊四是良羅(處容歌4)
- ⑦ 二于萬隱吾羅(千手大悲歌7)

위 (11)의 ‘邪’, ‘耶’, ‘羅’는 모두 15세기 국어의 종결어미 ‘-라’에 대응하는 것이다. 兪昌均(1994: 440~441)에 따르면, 『三國遺事』 소재 향가에서의 ‘等邪’가 『均如傳』 소재 향가에서는 ‘等耶’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等邪 = 等耶’의 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邪’와 ‘耶’가 동일 음가를 지녔음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兪昌均(1994: 442~443)에서는 ‘邪’와 ‘耶’는 일찍부터 ‘通作字’, ‘或作字’로써 等價的이었다고 記述하고, 또한 두 漢字의 上古音을 재구하면서 ‘羅’와 ‘良’과 互用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上述한 내용을 참고하면, 고대국어시기의 ‘耶’와 ‘羅’와 ‘良’의 독음이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那’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說文解字』에서는 ‘那’의 독음을 半切로 ‘諾何’라고 제시하고 있다. 聲母字가 동일한 漢字로는 ‘乃’가 대표적이며, ‘那’와 ‘乃’는 중고음의 경우도 그 聲母가 ‘泥’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고음 시기부터 그 讀音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앞서 논의한 ‘耶’와 ‘邪’의 독음으로 『說文解字』에서는 ‘乃都’라고 半切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최소한 중국 상고음에서 음가상 ‘那 ≡ 乃 ≡ 耶 ≡ 邪’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고대국어시기의 ‘耶’와 ‘羅’와 ‘良’이 互用字라는 점에서 고대국어시기의 ‘那’가 ‘羅’와 ‘良’과 역시 互用字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를 신라 국호의 이칭인 ‘徐那伐, 徐耶伐, 徐羅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문 (6) ⑥, ⑦의 ‘-乃’가 ‘-良’의 異表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6) ⑥, ⑦의 ‘-乃’는 ‘-良’의 異表記이며, 문장의 내용을 감안하면 부사격조사로

볼 수 있다.

4. ‘-라’와 ‘-良’의 관계

‘-라’와 ‘-良’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借字 ‘良’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吏讀와 鄉歌에 局限되었으며, 口訣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 논의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非副詞格助詞로 사용된 ‘-良’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그 讀音을 [라/리]로, 形態素를 ‘-라/리’로 파악한다는 것이다.¹²⁾ 이 점은 독음을 형태소 추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고 형태소 자체를 ‘-라/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연히 독음이 [라/리]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시대 吏讀文을 근거로 ‘-良’을 ‘-아/어’로 설정하고 ‘동사어간 + -良’에서 ‘-良’이 [라/리]로 소리가 나는 이유를 連音으로 파악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고대국어시기의 ‘-良’을 ‘-아/어’로 보는 의견에 문제점은 없는가와, 非副詞格助詞의 形態에 적용시킨 규칙을 부사격조사 ‘-良’에 적용시킬 수 없는가이다. 즉, ‘良’으로 표기한 형태소 자체가 ‘-라/리’이기 때문에 자연히 독음이 [라/리]가 될 수 없는가이다.

고대국어시기의 借字 ‘良’의 독음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徐在克(1975), 南豐鉉(1977/1999), 金完鎭(1980), 양희철(2005), 趙宰亨(2009a) 등이 있다. 이 중, 金完鎭(1980)과 趙宰亨(2009a)를 제외하고 모두 ‘良’의 독음을 ‘아/어’로 재구하고 있다.

徐在克(1975: 14)에서는 『光州千字文』에서 한자 ‘良’의 훈이 ‘알’¹³⁾로 기록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상도 방언의 ‘-아’형 부사격조사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차자표기¹⁴⁾ ‘良’의 독음이 ‘아/어’인 이유는 ‘良’이 訓假字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光州千字文』의 ‘良’의 訓 ‘알’은 同時代의 한자교습서인 『石峯千字文』, 『新增類合』의 訓¹⁵⁾이 모두 ‘어덜’인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시기적으로 『光州千字文』이 다른 자료에 비해 앞선다는 점¹⁶⁾과 이후의 천자문 자료가 『光州千字文』 계열과 『石峯千字文』 계열로 양분된다는 점에서 『光州千字文』의 ‘良’의 訓 ‘알’은 古形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이유로 徐在克(1975) 이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차자표기 ‘良’의 독음을 모두 ‘아/어’로 보고 있다.

특히, 南豐鉉(1977/1999: 251~254)에서는 徐在克(1975)의 논의를 이용하여 고대국어시기의 ‘良’의 독음은 다음의 12)와 같이 차자표기에서 ‘良’의 다양한 用例가 반영해주는 언어적 사실과 同音異字表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2) ① 所良(바), 先良(몬져)(舊譯仁王經)
- ② 望良-(彗星歌) : 望阿 -(怨歌)
- ③ 影良- : 影尔- ‘蠅螻’의 俗名(鄉藥救急方)
- ④ 說良尔(니르아금), 盡良古(다으아고)

12) 물론 ‘花乎白良’(願往生歌6), ‘盡良’(稱讚如來歌)과 같이 일부 ‘동사 어간 + 연결어미’의 형태에서 ‘-良’을 ‘-아/어’로 파악하기는 하나, 이때의 동사 어간의 형태를 후기중세국어 어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고대국어시기에 과연 그 어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13) 良 알 량.

14) 주로 이두에서의 ‘良’.

15) 『石峯千字文』 良 어덜 냥, 『新增類合』 良 어덜 량.

16) 『光州千字文』: 1575年, 『石峯千字文』: 1583年.

양희철(2005)에서는 主論議의 방향을 徐在克(1975)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희철(2005: 322)에서는 ‘良’의 字典 의미 중에서 ‘長’에 주목하고 있다.

(13) 알은 거스란 그 아로물 브더니 너기고 : 長者란 任其長호고 (금강경삼가언해 4:25)

양희철(2005)에서는 위 예에서 ‘長’이 ‘알’에 해당하기 때문에 『光州千字文』의 ‘良’의訓이 ‘알’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한편, 趙宰亨(2009a: 105~107)에서는 上述한 논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14) ① 『光州千字文』을 제외하고 ‘良’의訓으로 ‘알’이 기록된 文獻이 없다.

② 남풍현(1977/1999)에서의 논의는 徐在克(1975)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徐在克(1975)와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③ 양희철(2005)에서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

(14)의 ①과 관련해서는 이기문(1981)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이기문(1981: 4, 15)에서는 지방에서 간행한 『光州千字文』이 棺板인 『石峯千字文』에 비해 간행시기가 빠르고, 『石峯千字文』에 수록된 한자의 훈과 음이 『訓蒙字會』나 『新增類合』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光州千字文』의 새김(訓)이 16세기 전라도 지역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⁷⁾ 또한 『百聯抄解』의訓이 『光州千字文』과 유사하다는 점은 前述한 논의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알-’이 존재했더라도 방언에 머무르는 수준이었을 것이며, ‘알-’은 경주지방 방언으로 이루어진 향가나 중앙방언과 연관성이 있는 고려시대의 구결이나 이두와는 연관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趙宰亨(2009a: 106)에서는 『光州千字文』의 ‘良’의訓 ‘알’이 잘못 기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光州千字文』에서 ‘良’ 다음 漢字가 바로 ‘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¹⁸⁾

(14)의 ②에 대해서 趙宰亨(2009a)에서는 남풍현(1977/1999)의 주장은 다양한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차자 ‘良’의 독음이 ‘아’인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조선 후기의 이두자료, 15세기의 『鄉藥救急方』, 14세기의 『舊譯仁王經』, 鄉歌의 ‘良’의 독음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徐在克(1975)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14)의 ③에 대해서 趙宰亨(2009a)에서는 양희철(2005)에서는 ‘알’의 의미를 ‘가장 좋은’으로 해석하고 ‘알짜, 알숙, 알맞다, 아름답다’에서 ‘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推測일 뿐으로 論據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趙宰亨(2009a: 111~117)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고대국어시기의 ‘良’의 독음을 [라/리]로 규정하고 있다.¹⁹⁾

(15) ① 향가 자료에서 부사격조사가 아닌 경우에 사용된 ‘良’은 대부분 [라/리]로 읽힌다.

② 고대 지명어에 사용된 ‘良’은 모두 [라]로 읽을 수 있다.

17) 이기문(1981)에서는 『石峯千字文』이 간행되기 전에 『光州千字文』 계통의 천자문이 지방에서 간행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光州千字文』 계통의 천자문에 대해 그 새김과 字音が 표준삼을 만하지 못하고, 漢字의 字形도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았고, 이런 이유로 당시의 중앙정부가 당대의 명필인 韓濩의 글씨로 표준이 되는訓과 字音を 달아 『石峯千字文』을 棺板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18) 知 알 디.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내용은 趙宰亨(2009a: 111~117)을 참조.

- ③ 일본 『万葉仮名』에서의 ‘良’의 독음이 ‘ラ’이다.
- ④ 현대 일본어에서는 아직도 ‘良’이 ‘라’로 읽히는 예가 많다.
- ⑤ 중국의 불경지역에서 ‘良’이 이미 ‘라’로 읽히고 있다.

趙宰亨(2009a)에서 (15)의 내용과 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 (15) ①, ②를 제외하고는 異見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鄉歌 해독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지만, (15)의 ③, ④, ⑤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고대시기의 한자음의 전과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대국어시기의 ‘良’의 독음이 [라/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8세기경의 新羅語를 記錄한 것으로 推定되는 傳仁容寺址 木簡이 발견되었고, 그 중 1행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16) 大龍王中白主民渙次心阿多乎去

傳仁容寺址 木簡의 1행에서 ‘心阿多乎’에 대해, 김영옥(2012: 38~39)에서는 文字의 쓰임이나 語順, 解釋 등을 검토해 보면 이것이 漢文은 아님이 明白하기 때문에 이 句節을 吏讀로 看做하고, 이때의 ‘阿’를 ‘心[마슴]’에 後接하는 助詞로 解釋하며, 이것은 處所格을 表示하는 ‘-良’의 音假字가 ‘阿[아]’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시기의 ‘阿’의 음가가 [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준환(2011: 35)에서는 ‘兒史沙叱望阿乃(怨歌 8)’에서 ‘望阿乃’는 ‘뵈라나’로 해독이 가능하나, ‘望’을 ‘*뵈-’로 볼 수 없는 한, 影母의 ‘阿’가 ‘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可’를 聲符로 하는 諧聲字 중에는 ‘阿’와 같이 來母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였다. 더욱이, 김영옥(2012: 42~46)에서는 글자체를 비교하면서 일본 平假名の ‘ら’와 釋讀口訣의 ‘ㄹ’가 모두 新羅吏讀字인 ‘良’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료와 한국의 자료의 시기가 동일하지 않고, 일본 자료의 독음 [라]와 한국 자료의 독음 [아/어]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上述한 논의를 고려하면 고대국어시기 자료에서의 ‘良’의 독음은 [라/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良’이 부사격조사로 사용된 예가 고려말조선초 이두 자료에서 확인된다.

- (17) ① 徒流罪良 犯爲在乙良 唯只 決杖一百遣(大明律直解 1:19b)
- ② 同僚官亦 文案良 同着署爲在 五人內良中(大明律直解 1:34a)
- ③ 監臨勢要之人乙良 官吏矣 合死罪良 減一等齊(大明律直解 26:3a)
- ④ 凡 徒流人果 迂徒人果 充軍人果 囚徒人等乙 決斷後良(大明律直解 27:3b)

위 예에 대해서 박철주(2005: 9~11)에서는 ‘-良中’이 空間性이 있는 場所名詞나 非空間性的인 場所名詞와 結合하는데 반해, ‘-良’은 일반명사나 시간명사의 실질적인 장소와 통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박성중(1996: 186)에서는 ‘-良’을 소위 奪格으로 보고 ‘-에서, -으로부터’ 정도의 문맥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위 용례는 이 시기의 ‘-良’이 고대국어시기의 ‘-良’과 후기중세국어시기의 ‘-라’를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위 용례의 ‘-良’은 의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후기중세국어시기의 ‘-라’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단독 형태소로 처리할 수 없는 없을 것이다. 다만, 통시적으로 고대국어시기의 ‘-良’이 ‘-라’처럼 후기중세국어시기에 일부 표현에서 화석화 되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論

본고는 이 논의를 통해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법형태소 ‘-라’가 고대국어시기의 ‘-良’의 잔존형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國語史 研究는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많이 배출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 성과에 비해 차자표기와 훈민정음 표기 사이에서 보이는 通時的 變化相에 대한 충분한 說明을 못했고, 일부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철저한 檢證없이 그대로 受容하여,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또한 잘못된 공시적 논의로 인해 몇몇 형태소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인 대표적인 경우가 ‘-라’이다.

이에 본고는 후기중세국어시기에 보이는 ‘-라’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여 ‘-라’를 추출해내었고, 통시적으로 그 기능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대국어시기의 ‘-良’의 형태 및 독음에 대한 기존 논의를 고찰하여 기존 논의와는 다르게 ‘-良’의 독음으로 [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기존 논의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새로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당연시해온 기존 논의의 성과를 재검증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2002),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정의(1980), 「15세기 국어의 어휘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金炯秀(1981), 「韓國語와 蒙古語와의 接尾辭 比較研究」, 『동악어문논집』 15. 1~124.
- 김영옥(2012), 「古代國語의 處所格 ‘-良’에 對한 研究：八世紀의 金石文. 木簡. 角筆 資料를 中心으로」, 『口訣研究』 28. 33~50.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김현주(2013), 主語 標識 {-께서}의 形成에 대하여, 어문연구 4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3~159.
- 金亨柱(1984), 「韓國語와 滿洲語와의 接尾辭 比較研究」, 『東亞論叢』 21. 83~106.
- 南基卓·趙宰亨(2014), 「후기중세국어시기의 ‘-에서’의 形成 過程에 대한 考察」, 『어문론집』 58, 5~28.
- 南豐鉉(1977), 「국어 처격조사의 발달」, 『국어국문학논총(이승녕선생 고회 기념)』, 탑출판사. [南豐鉉(1999)에 재수록]
- _____(1999), 『국어사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박성중(1996), 「조선초기이두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博士學位論文.
- 朴良圭(1972), 「國語의 處格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27호.

- 박은용(1968), 「吏讀文<新羅>의 形態素分析和 冠形語尾의 比較研究」, 『국문학연구』 1. 49~79.
- _____(1979), 「副詞 및 副詞形成接尾辭의 機能變異에 對한 Altai諸語와의 比較研究」, 『연구논문집』 21. 3~77.
- 박철주(2005), 「대명률직혜의 처격 및 구격 조사에 대한 고찰」, 『한글』 269, 5~51.
- 朴喜淑(1981), 「十四世紀 借字表記의 格助詞에 관한 연구」, 『關大論文集』 9-1, 1~37.
- 박희식(1984), 「中世國語의 副詞에 대한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백낙천(2000), 「국어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 분석과 의미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徐在克(1975),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啓明大 國學研究所.
- 안병희 · 이광호(1990/2001), 『中世國語文法論』, 학연사.
- 양희철(2005), 「이두 ‘良’의 연구」, 『清大學術論叢』 6. 319~340.
- 俞昌均(1994), 『鄉歌批解』, 螢雪文化社.
- 이기문(1981), 「千字文 研究(1)」, 『韓國文化』 2. 1~17.
- 李南淳(1983), 「‘에’와 ‘로’의 統辭와 意味」, 『언어』 8-2, 213~239.
- 이상신(2007), 「‘아’ 末音 處格形에 대한 音韻論的 研究」, 『語文研究』 134. 39~61.
- 李崇寧(1976), 「15世紀 國語의 雙形語 ‘있다, 시다’의 發達에 대하여」, 『國語學』 4, 國語學會, 1~23.
- 이준환(2011), 「鄉札 表記字 漢字音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研究』 26. 5~55.
- 이지양(1993), 「國語의 融合現象과 融合形式」,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1985), 「‘흐다’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 - 누러흐다類와 엇더흐다類를 중심으로 -」, 『한신 논문집』 2, 221~247.
- 정성애 · 김인균(2013), 「중세 국어 ‘아ㅁ’ 결합형 연구」, 『우리말연구』 34, 115~140.
- 조규태(1982), 「위치자리토씨 ‘에’의 어원 연구」, 『배달말』 7. 61~73.
- 趙宰亨(2006), 「處所副詞格助詞의 用法 考察」, 『語文研究』 132. 157~182.
- _____(2009a), 「古代國語時期의 借字表記 ‘良’의 讀音 考察」, 『어문론집』 40. 101~123.
- _____(2009b), 「‘-에’形 副詞格助詞의 通時的 研究」, 中央大 博士學位論文.
- _____(2010), 「‘이어긔, 그어긔, 더어긔’에 대한 考察」, 『語文研究』 145, 103~129.
- 허 웅(1975/1995), 『우리옛말본 : 15세기국어형태론』, 샘문화사.
- 허재영(2001), 「중세국어 부정극성어 ‘아ㅁ라타’ 연구」, 『언어학』 28, 239~261.
- 洪允杓(1976), 「{-에서}와 {-이게}에 대한 고찰」, 『論文集』 3, 65~82.
- Ramstedt, G. J.,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국어 완망상 형태의 통시적 접근

이수진(전남대)

1. 서론
2. 국어사의 완망상 형태소
3. {-거-}와 {-엇-}의 분포 및 관계
4.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국어사에서 완망상(perfective)¹⁾ 형태소로 다뤄진 바 있는 선어말어미 {-거-}²⁾, {-엇-}의 통시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시제, 상, 서법 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들은 어느 한 기능으로 엄격한 분리가 어렵다. 다만 {-거-}와 {-엇-}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밝힘에 있어 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 변화상을 포착하고자 한다.³⁾ 자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중세국어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난점을 지니고 있는 {-거-}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고대국어 자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이 논문에서는 시제와 상, 서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소위 ‘TAM’로 불리는 범주에 대한 논의는 자세히 진행하지 않는다. 완망상(perfective)이라는 용어는 박진호(2011)의 용어를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완망상(perfective aspect)이 기존에 사용하던 ‘완료상’이라는 용어보다 사태를 바라보는 ‘조망’이라는 개념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박진호(2011: 304, 주 12)에서는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을 ‘완결된(completed)’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완망상의 본질이 “종결, 완결, 끝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온전히 시야에 넣고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perfective aspect를 ‘완료상, 완결상’, imperfective aspect를 ‘불완료상, 미완료상, 비완결상’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perfective aspect가 사태를 바라보는 ‘조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완망상 형태소들이 시제나 서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거-}와 {-엇-}은 환경에 따라 이형태가 나타나는데 { }는 해당 형태소의 이형태를 아우르는 표시로 사용하며, 각각의 개별 형태는 ‘-어-’, ‘-나-’ 등과 같이 ‘ ’로 나타내기로 한다.

3) 어떤 형태소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상의 선어말어미의 분석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헌을 대상으로 15세기 언어 사실에 접근해 보면, 시상의 선어말어미로 파악되는 {-거-}, {-더-}, {-느-}는 어느 한 기능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들 선어말어미 역시 각각 변화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기(2014: 33)에서도 다른 선어말어미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이들에 기댄 논의도 순환론적 접근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시상의 선어말어미를 연구하는 것에는 자료적 한계와 논증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어말어미들이 어떤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여 각각의 기능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거-}는 선어말어미로서 단독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미 어말어미의 일부로 파악함이 옳아 보이기도 한다. {-거-}는 일반적으로 {-더-}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이해되는데 실상 15세기에는 이들의 관계가 붕괴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면서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엇-}은 또한 어떠한가. 현대국어의 ‘-엇-’은 일반적으로 과거시제로 이해된다. {-엇-}의 발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우연적 구성 {-어#잇-}으로부터 {-엇-}이 발달하였다는 사실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 논문에서는 {-거-}와 {-엇-}이 통시적으로 완망상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 두 형태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지 고대국어에서 근대국어에 이르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자료들인데 실상 {-엇-}과 관련하여 중세국어에 출현하는 예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국어사의 완망상 형태소

2.1. {-거-}

2.1.1. 선어말어미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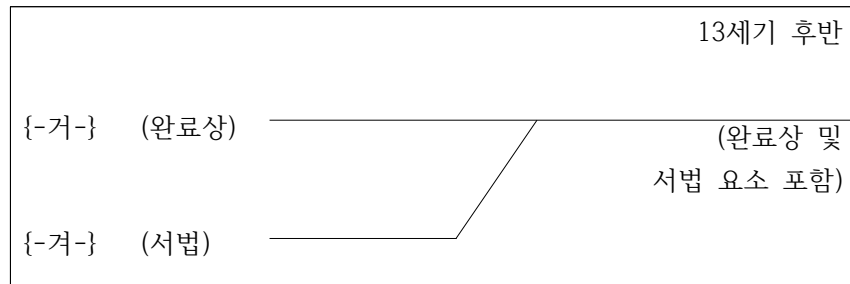
국어사에서 완망상 형태소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거-}와 {-엇-}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완망상’으로만 이해되지 않으며 중세국어의 {-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거, 완료 및 완료상, 확인법으로 파악하는 논의로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거-} 자체의 기능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국어사에서 완망상 형태소로 파악할 수 있는 {-거-}와 {-엇-}의 변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고대국어 {-거-}의 기능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병기(2014: 53-55)에서는 고대국어 {-거(去/去)-}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선행연구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에 대해서 대체로 확인법으로 보는 측면이 우세한데 고정익(1992), 오창명(1995), 김영옥(1996), 박성종(1996), 황선엽(1996), 백두현(1997)은 확인법으로 보았다. 이승옥(1967, 1973)은 과거, 박진호(1998: 168)은 완료상, 근접과거, 이금영(2000)은 완료, 김지오(2012: 209)는 미지각으로 파악하여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의 기능을 과거나 완료상, 미지각 등으로 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병기(2014: 54)에서는 기존에 {-거-}를 확인법으로 보는 논의들은 고영근(1981/1998) 이후 통용된 ‘확인법’이라는 용어를 따른 측면이 크며, 기능 검증보다는 분포 기술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백두현(1997: 91)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논의되었다고 보았는데, 백두현(1997)에서는 {-거-}가 서법 범주에 속하면서 ‘완료 및 완료의 지속’이라는 시상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거-}의 기능을 다룬 연구 중에서 박진호(1998: 167-168)의 분석을 주목할 만한데 박진호(1998)에서 고대국어 차자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거-}는 완료상(perfect aspect) 내지는 근접과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⁴⁾ 박진호(1998)에서는 석독구결 ‘-ㄱ(在)-’는 서법 범주에 가까

4) 다만 조건, 명령, 감동 표현에서의 {-거-}는 제외하였다. {-거-}가 조건절과 명령형에 나타나는 것에

운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중세국어의 {-거-}가 서법 범주를 가지는 것은 ‘-겨-’의 용법 일부가 {-거-}와 합쳐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고대국어의 ‘-겨-’는 서법 범주에 가깝고, {-거-}는 완료상 내지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금영(2000)에서도 {-거-}는 고대국어 시기에 완료상으로 기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거-}가 확인법의 ‘-겨-’의 용법을 흡수하여 기능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았다.⁵⁾

이병기(2014: 55)에서는 고대국어 {-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자료적 한계가 있지만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고려했을 때 완료상으로 보는 견해가 그나마 체계적인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1> 고대국어 시기 {-거-}의 기능 변화

고대국어 시기에 완망상으로서 기능하였을 {-거-}는 중세국어 시기에 들어서 공시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시-’, ‘-시거-’의 선어말어미 통합 순서를 고려해 볼 때, ‘-거시닐’, ‘-거시든’ 등의 형태에서는 충분히 {-거-}라는 형태소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영근(1978/2010: 145-154)에서 ‘-건마른, -거니와, -거든, -거늘’은 하나의 어미로 설명하여 중세국어의 {-거-}는 연결어미의 일부로 파악하였다.⁶⁾

-거-가 선어말어미로서의 위상이 확실했던 공시태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 -거-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중세국어 시기에 -거-는 이미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이전 시기는 자료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2. 어말어미 {-거}

대해 {-거-}의 단독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닌 확인법의 기능을 하는 ‘-ㄹ-’의 기능을 {-거-}가 흡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5) 이금영(2000: 40, 주 31)에서는 완료상으로 기능하던 {-거-}가 확인법 기능의 ‘-겨-’의 용법을 흡수한 시기는 13세기 후반 이전이라고 추정하였다. 박진호(1998)이나 이금영(2000)에서 완료상 {-거-}가 ‘-겨-’의 기능을 흡수하여 서법 요소로 변화하였음을 설명할 때 향가 자료가 이러한 변화의 중간 과정을 보여준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병기(2014: 55)에서는 향가와 석독구결 간의 언어사실에 대하여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6) ‘-거시닐’, ‘-거시든’과 같은 경우 ‘-시-’라는 선어말어미가 {-거-}와 ‘-닐’, ‘-든’ 사이에 통합하여 선어말어미 {-거-}를 분석할 법 하지만 고영근(1981/1998: 320-338)에서는 이를 ‘불연속형태’로 처리하고 ‘거-나, 거-늘, 거-니와, 거-든, 거-ㄴ마른’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시적으로 ‘-거늘’의 ‘-닐’이 단독으로 쓰인 예가 없다는 점 역시 상기할 만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하게 어미의 일부가 된 것이라기 보다는 완망상의 {-거-}가 점차 자기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1.에서 살펴본 바 고대국어 시기 선어말어미 {-거-}는 완망상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거’는 특정 환경에서 어말어미라고 볼 수 있는 예들이 나타난다.

- (1) ㄱ. 그 아기 님굽 설 머거 아비 보라 니거지라 혼대 <월석8:101ㄴ>
 ㄴ. 네 사름 드리샤 석슬 치자브시니 내 니거지이다 <용가 58>
- (2) ㄱ. 아드릭 뜨디 헝마 크거사 아비 아숨 피화父子를 처섬 一定헝야 <월석13:30ㄱ>
 ㄴ. ㄱ궤 ㄱ새 자거늘 밀므리 사으리로디 나거사 죽므니이다 <용가 67>
 ㄷ. 父母 거심 젓 일후몬 羅卜이라니 父母 업거시사 부텃기 가스바 出家호니 <월석 23:85ㄴ>7)

예문 (1)의 종결어미 ‘-거지라’를 분석할 때 ‘-거- + -지- + -라’로 분석할지, ‘-거 # 지- + -라’로 분석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지라’의 ‘-지-’를 선어말어미로 상정한다면 {-거-}는 선어말어미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가 공시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어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병기(2014: 49)의 지적처럼 아직 선어말어미 ‘지’의 재구는 가설단계로 볼 수 있다.

예문 (2)에서 ‘-사’와 통합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현희(1995)에서 ‘사’를 어말어미로 처리하는 방안과 보조사로 처리하는 방안을 낸 바 있다. 만일 ‘사’가 어말어미라고 했을 때 ‘거’는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지만 ‘사’를 보조사와 어말어미라는 두 부류로 보게 되면 ‘헝거사, 헝야사’의 분석이 한결 용이해진다. 김소희(1996: 24-25)에서는 ‘헝거사, 헝야사’에 통합된 ‘-사’의 보조사 및 어말어미 문제와 관련하여 중세국어 공시적으로는 {-거-}가 선어말어미로 기능을 잃었다고 보아 ‘-거사’를 하나의 어미로 처리함이 온당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어말어미 ‘-거’의 공시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승재(1989: 17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음독구결 자료인 『尙書都官貼』에 나타난 ‘是去有在等以’의 ‘去有’가 ‘-거#이시/잇-’에서 온 것으로 파악한 것이나⁸⁾ 장윤희(2005: 137)에서 ‘-去有-’를 “-고 있-” 정도의 ‘구 연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去’를 연결어미로 파악한 것 등에 고대국어 시기에 어말어미로 파악할 수 있는 ‘去’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⁹⁾

2.2. {-엇-}

선어말어미 {-엇-}은 생성은 시상체계 변화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거-}는 {-더-}와의 계열관계가 점차 느슨해져 가고 있었으며, 고대국어 시기의 완망상의 기능 역시 ‘-겨-’의 서법적 용법을 흡수하여 확인법의 기능도 띠게 되어 변

7) 이 예는 ‘-거시사’ 형태로 확인되는 유일례로 보인다.

8) 이금영(2000: 43)에서는 이승재(1989)의 논의에 대해 선어말어미 ‘-거/어-’가 기원적으로 어말어미 ‘-거/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인 문법 형태 변화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9) 이금영(2000: 44) 역시 ‘-去有-’의 ‘去’를 어말어미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병기(2014: 54-55)에서는 선어말어미 {-거-}와 의미적으로 통하는 어말어미 ‘-거’를 상정할 수 있고, ‘-거지라’, ‘-거#이시/잇-’ 등에 포함된 ‘-거’는 ‘계’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고는 보았다. 다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아우르는 문법 범주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어말어미 ‘거’의 의미를 선어말어미 {-거-}의 기능과의 관련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하였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대국어 시기에 존재했을 어말어미 ‘거’의 확인 정도에 그치기로 한다.

화의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완망상 표현 {-어#잇-}이 축약한 {-잇-}은 중세국어 시상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중세국어의 {-거-}가 아직은 완벽하게 확인법이 아닌 고대국어의 완망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노걸대, 박통사류의 ‘了’의 번역에 쓰인 {-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석주연(2001/2003)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를 ‘완료(perfect)’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거-}의 사태에 현재 관여적인 성격에 의해 서법 범주로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잇-}의 생성 이후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에 쓰인 ‘-거다/어다’가 『淸語老乞大』, 『蒙語老乞大』에서는 ‘-앗/엇-’으로 번역되었음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잇-}의 기능이 완망상이라고 보아야 성립할 수 있는 설명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이 ‘완료’의 기능을 가진 {-거-}가 {-잇-}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은 {-거-}가 가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잇-} 역시 이전 시기의 {-거-}의 기능을 수행하던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잇-}의 형성은 ‘-어#잇->-엿->-엇-’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잇-}의 형성을 이야기 할 때 15세기에 존재하는 {-어#잇-}, {-엿-}, {-엇-}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변이형(free variant)으로 보는 견해와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후자에 대해서는 이승욱(1973), 허웅(1977), 한동완(1986)을 들 수 있으나¹⁰⁾, 15세기에 공존하는 세 형태에 대해서는 자유변이형이라고 보는 입장이 좀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잇-}이라는 우연적 구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去有-’ 구성과 연관지어 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금영(2000: 44)에서 ‘-去有-’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15세기 국어의 형태를 ‘-거/어#시-’의 통사론적 구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15세기에 출현하는 ‘-거시-’의 ‘시’는 존재동사 어간 ‘시(有)’로 보려 하였다. 아래는 이금영(2000: 44)에 제시된 예이다.

(3) ㄱ. 故園엿 버드리 이제 이어 떠러디거시니 엿데 시러곰 시름 가온디 도로 다 나느니 오 <두해16:51>

ㄴ. 나는 므스미 직ㄴ티 드외요물 들히 너기거시니 아스와 아춘아드를 므슴 슬허 늙므를 비ㄴ티 흘리가니오 <두해25:14>

ㄷ.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有德ᄒ신 님를 여히오와지이다 <정석가>

ㄹ. 그 오시 다 헐어시아 有德ᄒ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정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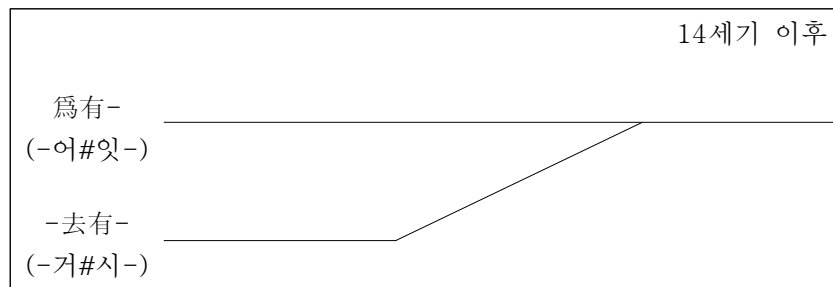
ㅁ. 날거시든 내 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상저가>

예문 (3)에서 {-거시-}의 ‘-시-’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로는 볼 수 없으므로 존재동사 어간 ‘시(有)-’가 통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시’를 어간으로 보게 되면 자연히 ‘거’는 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중세국어 완망상으로 기능하는 우연적 구성 {-어#잇-}과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금영(2000: 53)에서는 ‘-去有-’가 ‘爲有-’에

10) 이승욱(1973: 203), 한동완(1986: 243)에서는 {-거-}, {-더-}가 기능 변화한 동기를 {-잇-}의 형성과 관련시켰는데 이병기(2014: 38)에서는 ‘-거시-’, ‘-시거-’의 공존은 {-잇-}의 형성기 이전부터 출현한 것이므로 이들의 판단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승욱(1973: 195-196)에서는 {-더-}의 기능 변화가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체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엿-}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잇-}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자리매김한 것은 16세기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병기(2014)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흡수되었다고 보았으며 조선 이두에서 ‘去’가 ‘爲有-’에 통합되는 예가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더이상 완료상의 선어말어미로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엇-}의 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잇-}과 {-거#시-}를 바로 연관시키기는 아직 무리이지만 두 구성 모두 동일한 기능을 했다는 점, 고대국어 시기의 {-거-}가 후대에 {-엇-}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기능상의 동질성을 가졌다는 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2> ‘-去有-’과 ‘爲有-’의 변화

3. {-거-}와 {-엇-}의 분포 및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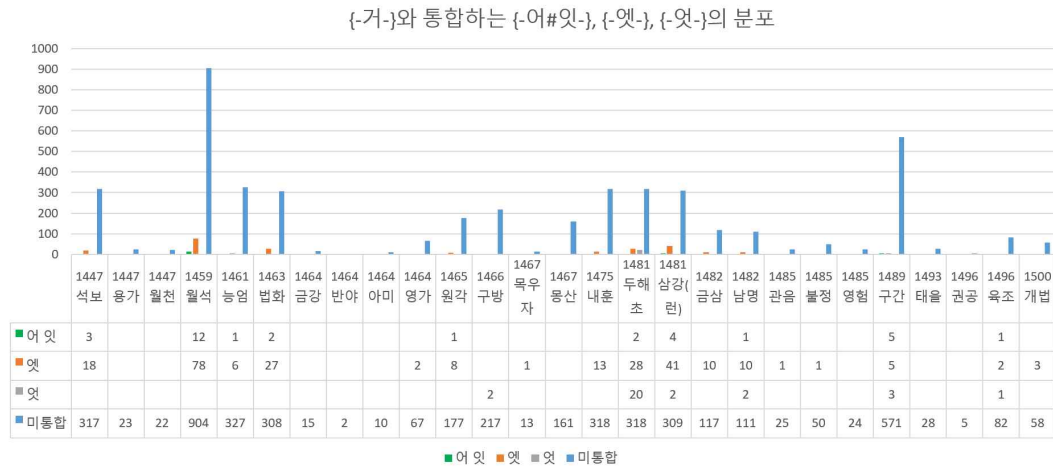
앞서 완망상 형태소 {-거-}와 {-엇-}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문헌 상에 나타나는 {-거-}와 {-엇-}의 분포를 통해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의 {-거-}는 과연 공시태로서 선어말어미 {-거-}를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리고 선어말어미로 처리할 수 있다면 {-거-}의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결국 완망상으로서의 {-거-}를 공시태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공시태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통합하는 어미와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중세국어의 ‘-거든’, ‘-거늘’, ‘-건마른’, ‘거니’, ‘-거나’, ‘-거지라’, ‘-거라’, ‘-것-’ 등에서 선어말어미 {-거-}를 분석할 일은 요원하다. {-거-}와 분리하여 후행하는 어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를 앞당겨 고대국어로 가면 이들의 통합은 분명 {-거-}라는 선어말어미와 ‘-늘, -든, -나, -ㄴ+마른, -니’의 통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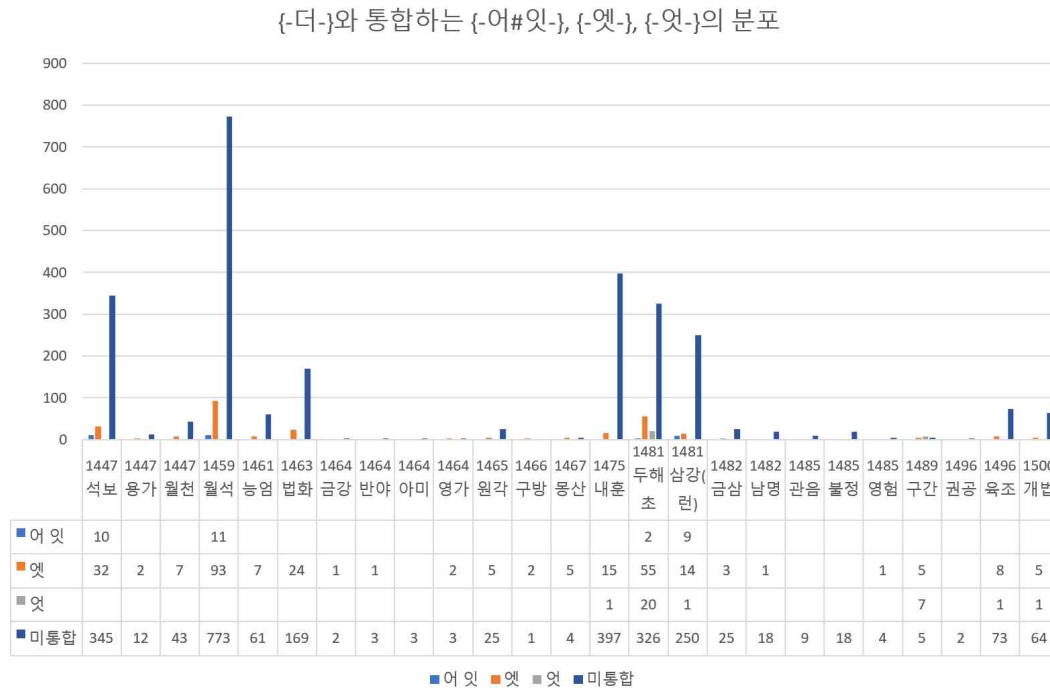
15세기의 {-엇-}이 자유변이형이라는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동일한 기능의 형태소가 통합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어#잇-}, {-엇-}, {-엇-}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그림 3>은 15세기 문헌에서 {-거-}와 통합하는 {-어#잇-}, {-엇-}, {-엇-}의 분포이며, <그림 4>는 {-더-}와 통합하는 것을 분석하여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이다.¹²⁾

11)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금영(2000: 45)의 설명처럼 ‘-거#시-’의 구성이라 한다면, 어말어미 ‘-거’는 연결어미 ‘-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에 의해 ‘완료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잇-}과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구형과 신형의 관계로 이해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렵다. ‘-去有-’의 후대형인 ‘-거#시-’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2)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국어사 말뭉치 자료에서 시상형태소로 언급되었던 {-거-}, {-더-}, {-느-}과 {-어#잇-}, {-엇-}, {-엇-}을 추출한 56,185개 데이터에서 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필터한 것이다. 15세기 문헌에서 {-거-}와 통합한 활용형은 4895개였으며, 이 중 {-



<그림 3> 15세기 문헌의 {-거-}와 {-어#잇-}, {-옛-}, {-엇-}의 통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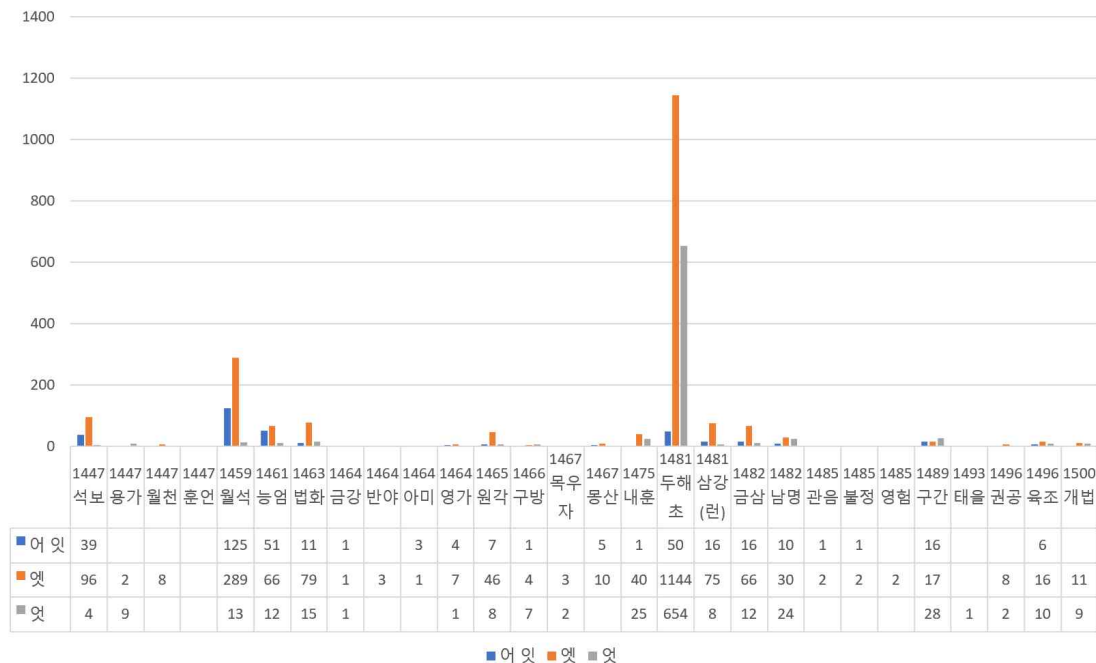


<그림 4> 15세기 문헌의 {-더-}와 {-어#잇-}, {-옛-}, {-엇-}의 통합 분포

선어말어미 {-거-}가 고대국어 시기의 기능을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면 우연적 구성 {-어#잇-}과 통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았는데 {-어#잇-}, {-엇-}, {-옛-} 전체적으로는 {-거-}와 결합 빈도가

어#잇』과 통합한 것은 32, {-옛-}과 통합한 것은 254개, {-엇-}과 통합한 것은 30개였으며, 이외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와 통합한 것은 4895개였다.

높지 않았다. 의외로 본래 구성인 {-어#잇-}보다 축약형 {-엣-}이 더 활발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더-}와의 통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위 <그림 4>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과의 통합 빈도와 관련하여 15세기 문헌에 {-어#잇-}, {-엣-}, {-엇-}이 얼마나 출현하는지도 <그림 5>를 통해 확인해 보자.¹³⁾



<그림 5> 15세기 문헌에 출현하는 {-어#잇-}, {-엣-}, {-엇-}

최동주(1995)에서는 중세국어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를 논하며 {-거-}와 {-더-}의 대립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최동주(1995)에서는 {-거-}와 {-더-}가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립되는 환경에서 점차 차이가 나며, {-더-}의 사용 환경이 줄어든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 둘의 대립 관계가 15세기 이전에 이미 붕괴되어 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분포 상으로는 {-더-}와의 대립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러한 대립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

{-어#잇-}을 {-엣-}과 자유변이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한 논의는 한동완(1986), 한재영(2005)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재영(2005: 719)에서는 향가 자료를 이용하여 {-엇-}을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어#잇-}이나 {-엣-}과는 다른 {-엇-}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였으며 제한된 환경에서이기는 하나 중세국어에서 {-엇-}이 {-엇-}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4) ㄱ. 니르샤디 ㅅㅅ를 두겨시다 듣고 婚姻을 求호노이다 <석보11:28ㄱ>

ㄴ. 엇던 功德을 닛ㅅ시관디 能히 이 큰 神通力이 겨시며 <월석18:75ㄱ>

13) <그림 5>는 문헌들의 활용형 수량을 표준화 하지 않은 출현 데이터이다.

- ㄷ. 또 舍利弗아 더 부테 無量 無邊 聲聞 弟子를 두겨시니 <월석7:69ㄱ>
 ㄹ. 智勝王子ㅣ 보빅 노리게엿 거슬 두겨시다가 아바님 道 得히시다 듣좁고 <능엄
 1:101ㄴ>
 ㄱ. 나라히 乾坤의 쿠믈 두겨시니 王이 이제 叔父ㅣ 尊히시도다 <두해8:10ㄴ>
- (5) ㄱ. 이 菩薩이 엇던 功德을 닷관딴 能히 이 큰 神通力을 뒤시며 <석보20:40ㄱ>
 ㄴ. 經과 袈裟와 바리와를 내다 가져다가 이 塔애 녀히 뒷습다가 <석보24:31ㄴ>
- (6) ㄱ. 엇던 功德을 닷마시관딴 能히 이 큰 神通力이 거시며 <월석18:75ㄱ>
 ㄴ. 舍利弗아 더 부테 無量 無邊 聲聞 弟子를 두겨시니 다 阿羅漢이니 <월석7:69ㄱ>

예문 (4)~(6)은 ‘두다’와 결합하는 ‘잇-(거시-)’의 예이다. 특이하게도 ‘두다’와 결합할 때에는 {-어#잇-}, ‘-어 거시-’ 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가 생략된 형태로 보인다.¹⁴⁾ 특이한 점은 예문(5 ㄱ)이다. (5 ㄱ)은 문수사리가 세존께 아뢰는 말씀이다. ‘이 보살이 ... 어떤 공덕을 닷기에 능히 이 큰 신통력을 두고 있으며’ 정도로 해석이 된다. 예문 (6)와 비교하여 보자.

(5 ㄱ)은 ‘뒤시며’로 나타나며 (6 ㄱ)은 ‘거시며’로 나타난다. 이는 (5 ㄱ)에서는 ‘NP이 NP를 뒤시며’로 ‘보살이 신통력을 두고 있다’로 해석되고 (6 ㄱ)은 ‘보살이 어떤 공덕을 닷기에 능히 이 큰 신통력이 계시며’로 문형이 달라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어) 이시-’는 ‘두-’와 보조용언의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조용언이라면 본용언 ‘두-’를 제외하여 ‘거시-’가 본용언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7) ㄱ. 先生의 뒷논 道理는 羲皇스 우희 나고 <두해15:37ㄱ>
 ㄴ. 簡易흔 노픈 사르미 뜨디여 匡床과 竹火爐 쏜 뒷쏘다 <두해16:43ㄴ>
 ㄷ. 노니는 子ㅣ 불휘 업소니 새지블 ㅁ숯 프서리에 브터 뒷노라 <두해19:33ㄱ>
 ㄹ. 取측히며 捨상호믈 ㅁ스매 뒷거니 엇데 값간인들 니즈리오 <남명下:48ㄱ>
 ㄱ. 더운 므를 그 위즈애 브서 뒷다가 입긔 평히거든 <구간1:20ㄴ>

예문 (7)은 ‘뒷-’의 /j/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두시언해』에서부터 확인된다. 이는 구어적인 성격이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잇->-엇-’의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 {-어#잇-}과 {-엇-}의 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엇-}을 {-어#잇-}과 다른 층위에 있는 형태로 보려는 입장에서는 {-어#잇-}과 {-엇-

14) 기존에는 이를 소위 ‘비통사적 합성어’인 ‘두겨시다, 뒷다, 뒷다’로 보아 사전의 표제항으로 처리하는 태도도 있었으나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해석 또한 ‘두겨시다’, ‘뒷다’는 ‘두어 있다, 두었다’, ‘뒷다’는 ‘두었다’로 처리하고 있어 ‘뒷[두- + 스-]’와 같이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합성어로 보기에 이미 합성어가 된 ‘뒷-’ 형태에서 ‘ㅣ’가 탈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두겨시다’, ‘뒷다’, ‘뒷다’는 ‘-어 거시-’, {-어#잇-}, {-엇-} 형에서 ‘-어’가 생략된 형태가 용언 어간과 융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어’가 생략될 이유가 없는 바, ‘두-’가 가지는 특이한 활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같은 음운론적 환경을 지니는 ‘주다’의 경우는 {-어#잇-}이나 {-엇-}과 결합하는 예를 찾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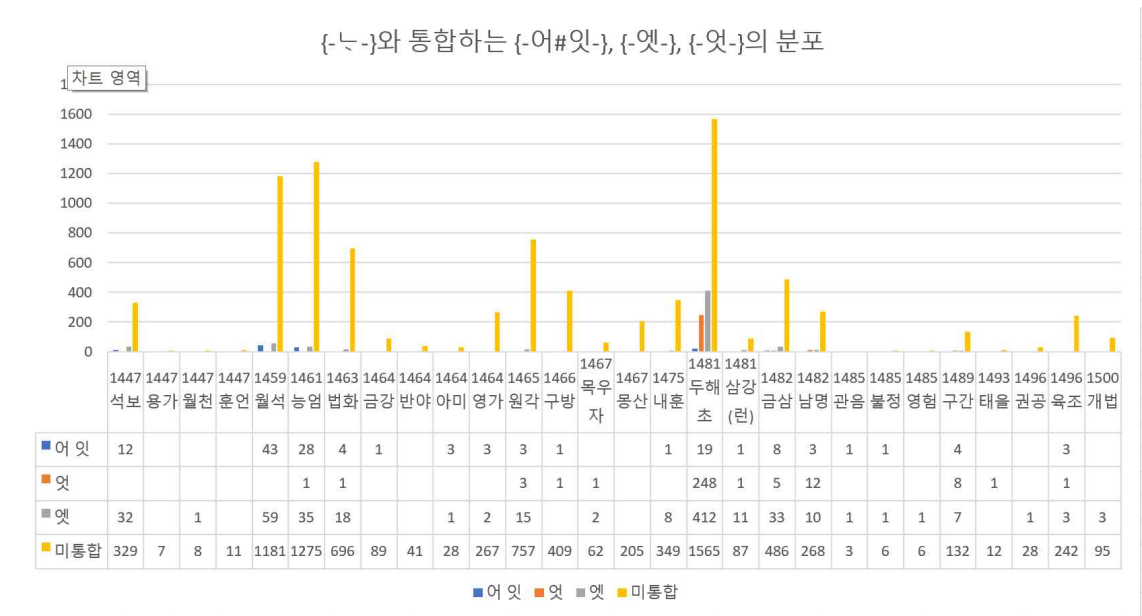
-}의 환경적 차이나 의미적 차이를 논하고 있다. 한동완(1986: 226)에서는 {-어#잇-}과 {-엿-}에 후접되는 어미군의 분포의 차이를 들어 이기갑(1981)의 근거 중 하나인 두 형태의 환경이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 그의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잇-}, {-엿-}의 후접하는 어미군의 분포(한동완(1986: 226))

후접어미군	-어#잇-	-엿-
-더(시)니, -더(니)라		○
-거늘, -거든		○
-다가		○
-던, -논, -논		◎
-노니, -느니, -느니라	○	
-며	◎	
-어	◎	
-르, -르썩	◎	

(※ ○ :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 빈도 ◎ : 절대적으로 높은 결합 빈도)

한동완(1986: 226)에서는 {-어#잇-}과 {-엿-}에 후접되는 어미군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긴 하였으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이기갑(1981)에서 {-엿-}이 {-어#잇-}의 단순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의 근거로 든, 분포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어#잇-}과 {-엿-}의 후접 어미군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어#잇-}이 {-엿-}으로 축약되는 과정은 음운론보다 더 높은 층위, 즉 문법 층위의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동주(1995: 109-111)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이 어미군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의미특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는데, 동일한 시상형태소 ‘-느-’가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어#잇-}이 {-엿-}으로 축약되거나 반대로 견제한다든지 하는 ‘의미기능의 역학작용’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였다. 다만 {-거-}와 {-더-}가 {-어#잇-}, {-엿-}, {-엇-}과 통합하는 양상과 {-느-}가 {-어#잇-}, {-엿-}, {-엇-}과 통합하는 양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위의 <표 1>을 참고하여 다음 <그림 6>을 확인해 보자.



<그림 6> 15세기 문헌의 {-ㄴ-}와 {-어#읏-}, {-읏-}, {-읏-}의 통합 분포

{-읏-}이 {-어#읏-}의 축약이며 중세국어 문헌에서 적지 않은 수가 출현하지만 {-거-}나 {-더-}와 통합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그림 6>의 『두시언해』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거-}, {-더-}와 {-ㄴ-}의 통합 양상은 확실히 두드러진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거-}, {-더-}와 {-어#읏-}류의 통합이 {-ㄴ-}보다 활발하지 않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국어 시기의 {-거-}는 완망상으로서 기능하는 선어말어미였다. 석독구결의 ‘-ㅈ-’는 완망상 선어말어미였으며 ‘-ㅈ-’의 서법적 기능을 흡수하면서 서법적으로도 쓰였다. 어말어미 {-거-}는 존재동사 {시-}와 {-去有(거#시)-}로 완료지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爲有(-어#읏-)’에 흡수되면서 중세국어 시기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완망상의 {-어#읏-}은 축약형 {-읏-}과 자유변이형 {-읏-}으로도 쓰였는데 {-거-}의 기능이 완망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근대국어 시기에 {-읏-}이 {-거-}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다만 완망상이 사태 관여적인 완료적 기능에 의해 확인법 등의 서법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 시간적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 있어서 문법화의 진행에 따라 ‘과거’라는 시제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고광모(2004), 「과거시제 어미 ‘-었-’의 형성에 대하여」, 『형태론』 6-2, 박이정, 367-375.
- 고영근(1991/1998),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부자(2006),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편, 123-207.
- 석주연(2001),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주연(2003),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태학사.
- 안병희(1967),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65-261.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금영(2000),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갑(1981), 「15세기 국어의 상태 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 173·174, 한글학회, 401-422.
- 이병기(2014), 「선어말어미 {-거-}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 연구』 19, 국어사학회, 31-63.
- 이승욱(1970), 「과거시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211-222.
-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승욱(1986), 「중세국어 시상법의 형태범주」, 『동아연구』 1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40.
- 이승재(1989), 「고려시대의 이두자료와 그 판독」, 『진단학보』 67, 진단학회, 115-131.
- 이카라시 고이치 역(2006), 「고노 로쿠로(河野 六郎)의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 (1946)의 번역」, 『형태론』 8-2, 도서출판 박이정, 451-462.
- 이카라시 고이치 역(2007), 「중기조선어의 시칭체계에 대하여」, 『형태론』 9-1, 도서출판 박이정, 219-240.
- 이현희(1991),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연구부어문연구실, 57-76.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옥(2002), 「과거시제 어미의 형성과 변화」,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135-165.
- 한동완(1986), 「과거시제 ‘었’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국어학회, 217-248.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연구』, 태학사.
- 한동완(2000), 「‘-어#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도서출판 박이정, 257-285.
- 한재영(1986), 「중세국어 시제체계에 대한 관견」, 『언어』 11-2, 한국언어학회, 258-284.
- 한재영(2002), 「16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와 변화 양상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199-219.

- 한재영(2005), 「‘엇’과 ‘더’의 통합관계」, 『우리말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709-725.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1977),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 『세림 한국학 논총』 1, 세림학술재단(허 웅(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에 재수록).
- 허 웅(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前間恭作(1924), 「龍歌古語箋」, 『東洋文庫論叢』 2, 東京(前間恭作著作集(1974)에 재수록).
- 前間恭作(1974), 『前間恭作著作集』, 京都大学文学部 国語学国文学研究室.
- 河野六郎(1946/1979),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467-480.
- 河野六郎(1952/1979), 「中期朝鮮語の時稱體系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508-534.
- Bybee, J.(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 R. Perkins and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나주임씨가 인간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특징

선훈빛(서울대)

1. 머리말

나주임씨가 인간¹⁾은 나주임씨 가문에 전하는 『叢巖公手墨內簡』 인간(이하 『총암공』)과 『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簡』(이하 『창계』)를 총칭한 것이다. 『총암공』은 창계(滄溪) 임영(林泳)의 아버지인 총암(叢巖) 임일유(林一儒, 1611~1684)가 작성한 편지 6편과 피봉 2건을, 『창계』는 임영이 작성한 편지 1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 43)에 따르면 그들의 후손들이 편지들을 모아 성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임씨가 인간은 다른 가문의 한글 편지와 비교하면 자료의 양이 적지만²⁾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가문의 한글 편지의 수를 고려하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³⁾

나주임씨가 인간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1994)에 의해서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 박부자(2015: 158)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1994)에 『창계』에 수록된 인간 13건이 영인, 판독문, 수신자 등과 함께 제시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이후 나주임씨가 인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글 간찰 역주 사업 대상 자료로 선정되어 영인,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a, b)로 나타났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주임씨가 인간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강희숙(2010)에 와서 인간에 나타난 구개음화 교정 현상을 다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b)에서는 나주임씨가 인간을 판독하였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에서 제시했던 판독문과 비교하여 연구자들이 자료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박부자(2015)에서는 『창계』의 발수신인의 관계와 발신연도를 족보, 분재기 등 고문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기존 논의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나주임씨가 인간은 인간의 경어법 관련 논의들에서 종종 예로 제시된 적은 있지만 이 인간의 발·수신자 간의 경어법 사용에 대해서 다룬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나주임씨가의 인간을 대상으로 17세기에 2대에 걸친 이 가문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인간에 나타난 문장종결형을 바탕으로 경어법을 고찰하고 그 속에 담긴 이 지역 화자들의 의식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2. 인간의 발·수신자 관계

1)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b)에서는 『叢巖公手墨內簡』과 『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簡』의 판독 자료를 권을 나누어 자료집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叢巖公手墨內簡』과 『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簡』을 '나주임씨가 인간'으로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나주임씨가 인간'이라 지칭하는 것은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b)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또한 이 글을 기술하는 과정에 있어 자료의 출전을 제시할 때에도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b)를 따라 '총암공'과 '창계'로 한다는 것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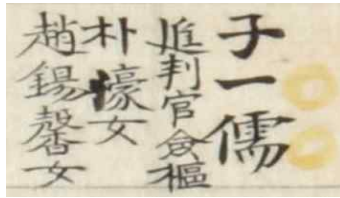
2)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b c)에 수록된 인간들과 비교하면 나주임씨가 인간의 수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언간에 나타난 경어법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간의 발·수신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임일유는 두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바로 박호(朴濤)의 딸 반남박씨(潘南朴氏, 1612~1643)와 조석형(趙錫馨)의 딸 임천조씨(林川趙氏, 1626~1683)이다. 그는 슬하에 네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을 두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임일유 일가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만 있었다. 편지 수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창계』에서 임영이 ‘누의님’이라 지칭한 수신자를 ‘누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본 논의들이 다수 있었다.⁵⁾ 그런데 박부자(2015)에서 임일유가 별급한 분제기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임영 형제들의 출생 순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박부자(2015: 167)에서는 임영이 편지를 보낸 누이가 누나가 아닌 동생이라는 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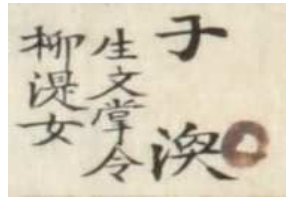
『만가보』에 기록된 임일유 일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⁶⁾

순서	언간 이름	작성 시기	편수	순서	언간 이름	작성 시기	편수
1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1550~1592	188	13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언간	1704~1843	20
2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현풍 곽씨 언간	1602~1652	147	14	추사가 언간	1754~1839	45
3	나주임씨가 『충암공수목내간』 언간	1682~1683	8	15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1765~1883	167
4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1640~1683	96	16	추사 언간	1818~1844	40
5	은진송씨가 송준길가 『선세언독』 언간	1630~1764	40	17	『순원왕후어필』 언간	1837~1852	25
6	해주오씨 오택주가 『어필』 소재 명안공주 관련 언간	1680~683	12	18	조용선 편저 『봉서』 소재 언간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	40
7	『숙희신한첩』 언간	1653~1696 추정	35	19	순원왕후어필봉서 언간	1841~1856	33
8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1658~1700	37	20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	1863~1922	91
9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 내간』 언간	1649~1696	18	21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1882~1895	134
10	『숙명신한첩』 언간	1652~1688	67	22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궁녀 언간	1883~1895	36
11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	1684~1709	124	23	순명효황후 언간	1894~1904	10
12	고령박씨가 『선세언적』 언간	1660~180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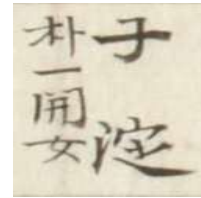
- 3) 황문환(2004), 이래호(2015)에서는 조선 시대 언간 자료를 연대별로 정리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전남 지역의 것으로는 나주임씨 가문의 『叢巖公手墨內簡』과 『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簡』, 해남 윤씨, 영광 연암김씨 가문의 언간이 있다. 이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주 사업(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국학고전연구, 2002. 12. 1.~2003. 11. 31.)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결과물이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 4)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어법은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대경어법을 일컫는다.
- 5) 기존 논의들에서 임영이 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남동생과 누나’의 관계의 것으로 본 것에 대해 박부자(2015: 164)에서는 족보나 관련 고문서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6) 아래의 그림은 『萬家譜』에 수록된 것이며 한국학자료센터 누리집(<http://kostma.aks.ac.kr/>)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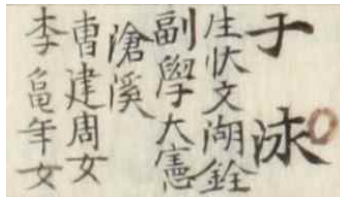
[그림 1] 임일유와 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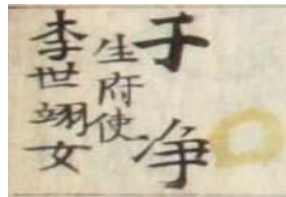
[그림 2] 첫째 아들 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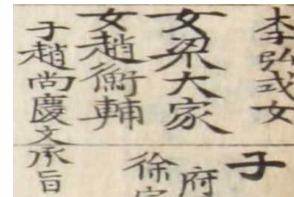
[그림 3] 둘째 아들 임정(澄)



[그림 4] 셋째 아들 임영



[그림 5] 넷째 아들 임정(淨)



[그림 6] 셋째 딸과 넷째 딸

『萬家譜』에는 위와 같이 임일유 일가 구성원들이 안내되어 있다. 아들의 경우 아들의 이름과 함께 그의 부인이 누구의 소생인지 기록되어 있고 딸은 이름은 없으며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정보는 『萬家譜』에서 찾을 수가 없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제외하면 부인, 아들, 두 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을 뿐이다.

다음은 『羅州林氏大同譜』에 기록된 임일유 일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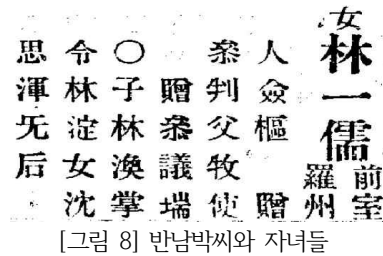
[그림 7] 『羅州林氏大同譜』

[그림 7]과 같이 『羅州林氏大同譜』에는 임일유 일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임일유가 반남박씨와 결혼한 후 임천조씨와 재가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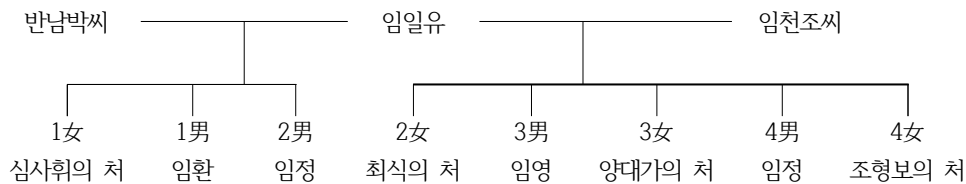
그런데 『潘南朴氏世譜』를 통해 임일유의 첫 번째 부인인 반남박씨의 자녀들에 대한 정보

확인하였다.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 <http://kostma.aks.ac.kr/FamilyTree/>(검색일: 2019. 7. 25.).

를 확인할 수 있었다.⁷⁾



『潘南朴氏世譜』에 따르면 반남박씨에게는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다. 바로 첫째 아들 임환, 둘째 아들 임정과 심사희와 혼인한 첫째 딸이다. 이를 통해 임일유의 남은 자녀인 임영, 임정, 딸 세 명은 임천조씨에게서 태어났음을 알 수 짐작할 수 있다. 박부자(2015)에서 제시했던 분재기와 [그림 7]의 『潘南朴氏世譜』 자료를 통해 임일유 일가의 가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임일유 일가의 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나주임씨가 인간의 발·수신 정보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총암공』은 임일유가 ‘비오개집’에게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오개집’은 나주임씨가 인간에서 『총암공』에만 등장하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임일유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다. 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을 비롯한 여러 논의들에서 ‘비오개집’을 임일유의 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오개’ 뒤에 ‘집’이라는 택호가 있다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⁸⁾ 『창계』에서 임영이 양대가의 처를 ‘낭서방집’(『창계』-6), 조형보의 처를 ‘도서방집’(『창계』-2), ‘도서방딕’(『창계』-6)이라 하였다. 이 점에 미루어 ‘비오개’가 임일유의 딸이라면 심사희의 처와 최식의 처 중 한 명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총암공』에 수록된 편지는 봉투에 발·수신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 발·수신 정보를 정

7) [그림 7]은 한국학자료센터에 디지털화 된 『반남박씨세보』에서 검색하여 얻은 것이다.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 <http://kostma.aks.ac.kr/FamilyTree/>(검색일: 2019. 7. 25.).

8) 박부자(2014)에서는 인간에 나타난 택호 ‘-딕, -집, -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박부자(2014: 212~219)에 따르면 ‘-집’은 주로 혈연관계에서 사용되었는데 ‘X-집’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X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편의 성, 남편의 성씨, 남편의 성씨+서방, 남편의 벼슬명, 지명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오개집’은 이 중에서 ‘지명+-집’의 구조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비오개집’이 임일유의 딸들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총암』에 셋째 딸과 넷째 딸의 호칭이 ‘낭서방집’, ‘도서방딕’으로 등장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비오개집’은 첫째 딸이나 둘째 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오개’가 어느 지역의 지명인지 입증할 수 있으면 수신자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비오개(배오개)’는 전남 곡성군, 서울 종로구, 경기도 강화군, 충북 청원군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지목하기가 어렵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 강희숙(2010)에서는 전남 나주에 임일유의 본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전남 곡성군 일대로 추정하였다.

리하기에 수월하다. 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⁹⁾

구분	발신자	수신자	발.수신자 관계	화계	비고
『총암공』-1	총암	비오개	아버지 / 딸	상 → 하	
『총암공』-2	총암	비오개집	아버지 / 딸	상 → 하	
『총암공』-3	총암	비오개	아버지 / 딸	상 → 하	
『총암공』-4	총암	-	?아버지 / 딸	?상 → 하	수신자 표시 없음.
『총암공』-5	총암	비오개집	아버지 / 딸	상 → 하	
『총암공』-6	-	-	?	?	발.수신자 표시 없음.
『총암공』-7	-	□오개집	아버지 / 딸	상 → 하	발신자 표시 없음.
『총암공』-8	총암	비오개	아버지 / 딸	상 → 하	

(* 발.수신자에 괄호 표시가 있는 것은 언간 내용에 나온 호칭이다.)

[표 1] 『총암공』의 발.수신 정보

[표 1]에 보이는 것처럼 『총암공』은 아버지가 딸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이다. 다만 『총암공』-6은 수신자 표시가 없고 ‘비오개 영결서라’라고 시작할 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2005b: 326)에서는 발.수신자에 대한 간지가 없어 그 정보를 알 수가 없고 해당 번호의 언간이 『총암』에 실려 있지만 다른 언간들과 달리 글씨체가 달라 임일유의 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았다. 『총암공』에서는 1~7번까지의 언간을 통해 아버지가 딸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창계』에는 임영을 중심으로 작성된 언간들이 있다. 임영은 세 인물에게 언간을 보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임영의 어머니 임천조씨, 넷째 여동생 ‘도셔방딕’, 조카이다. 『창계』 속 언간들은 수신자가 정확하게 제시된 것이 드물고 본문에 수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 등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창계』의 발.수신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수신자의 이름/호칭은 언간의 봉투나 본문에 나타난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또한 언간의 번호는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b)의 것을 따랐다. 『창계』의 경우도 동일하다.

구분	발신자	수신자	발·수신자 관계	화계	기타
『창계』-1	주 영	(어마님)	아들 / 어머니	하 → 상	
『창계』-2	주 영	-	아들 / 어머니	하 → 상	
『창계』-3	동심 상인 영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4	동심 상인 영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5	동심 상인 영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6	동심 상□ □	누의님, 도셔방덕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7	-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8	-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9	-	누의님, 도셔방덕	오빠 / 여동생	상 → 하	판독 불가 부분 있음
『창계』-10	동심 영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11	□□□	누의님, 도셔방덕	오빠 / 여동생	상 → 하	판독 불가 부분 있음
『창계』-12	동심 □□ □	누의님, 도셔방덕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13	동심 영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14	동심 □	누의,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15	동심 상인	누의님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16	-	누의님, 도셔방덕	오빠 / 여동생	상 → 하	판독 불가 부분 있음
『창계』-17	동심 상인 영	누의님, 도셔방덕	오빠 / 여동생	상 → 하	
『창계』-18	(삼촌)	(족하)	삼촌 / 조카	상 → 하	

(* 발·수신자에 괄호 표시가 있는 것은 언간 내용에 나온 호칭이다.)

[표 2] 『창계』의 발·수신 정보

『창계』-2에는 『창계』-1과 달리 수신자에 대한 표시가 없다. 다만 『창계』-1과 같이 발신자에 대한 정보로 ‘주 영’이 나와 있고 내용에 임영이 자신을 ‘주느’이라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를 어머니 임천조씨로 짐작할 수 있다. 『창계』-7과 『창계』-8은 수신자를 추정할 만한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창계』-7에는 도셔방덕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인 ‘경예’의 근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를 ‘도셔방덕’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b)에서는 『창계』-3부터 『창계』-7까지가 임영이 도셔방덕에게 보낸 것이라는 점에 미루어 ‘도셔방덕’으로 추정하였다. 『창계』-18 또한 수신자 표시가 없으나 언간 본문에서 발신자가 자신을 ‘삼촌’으로, 수신자를 ‘족하’로 가리켰다. 다만 조카의 성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에서는 수신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았다.¹¹⁾

10) 『창계』-7에는 “경예는 마천수 열던을 누리와 오이고 이제야 문선이나 넘히랴 허니(경예는 사마천 열전을 내리 외우고 이제야 문선이나 읽히려 합니다.)”와 같이 경예가 임영의 아래에서 수학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11) 기존 논의들에서 『창계』-18의 수신자를 여성으로 보는 것은 당시 남성과 남성 간에는 한문 편지를 주고받은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희(2005: 254)에서도 부자나 형제 등 남성들끼리는 한문 편지로 교류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끝에 아들에게 안부나 당부를 덧붙이는 등의 특수한

지금까지 나주임씨의 가계도와 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주임씨가 인간의 발·수신 정보를 살펴보았다. [표 1]과 [표 2]를 통해 나주임씨가 인간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성별	화계	대상	언간 번호	비고
『총암공』	남성 → 여성	상 → 하	딸	1~5번, 7~8번	6번은 영결서임.
『창계』		하 → 상	어머니	1~2번	
		남성 → ?여성	상 → 하	여동생	3~17번
	조카			18번	

(?: 발·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추정을 하는 경우)

[표 3] 나주임씨가 인간의 성격

3. 화계에 따른 경어법 사용 양상과 특징

이 장에서는 나주임씨가 인간의 경어법이 화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언간에서는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발신자가 모두 남성이고 수신자는 여성이거나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총암공』과 『창계』의 발신자의 성별이 동일하므로 발신자의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¹²⁾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따라 상위자와 하위자로 나누어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상위자 → 하위자] 화계에 따른 경어법 사용

나주임씨가 언간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낸 경우는 『총암공』과 『창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총암공』은 6번 영결서를 제외한 1~5번, 7~8번이고 『창계』는 3~18번이다. 『총암공』과 『창계』에서의 [상위자 → 하위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위자 → 하위자]

ㄱ. 아버지 → 딸: 『총암』-1, 2, 3, 4, 5, 7, 8

ㄴ. 오빠 → 여동생: 『창계』-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ㄷ. 삼촌 → 조카: 『창계』-18

(1ㄱ)과 (1ㄴ)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직계 관계이지만 (1ㄱ)은 부모, 자식 관계이고 (1ㄴ)은 형제 관계이므로 대우의 등급이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1ㄷ) 역시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위계가 높지만 (1ㄷ)은 (1ㄴ)보다는 (1ㄱ)과 언어 사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서만 남성과 남성 간의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12) 최근에는 언간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호 (2019)에서는 『송규림가 언간』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 차이를 살펴보았다.

3.1.1. 아버지와 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자와 하위자가 대화를 할 때에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하여라체를 사용한다.¹³⁾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족 관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부모를 기준으로 자식은 하위자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높임의 등급 중 가장 낮은 안높임 등급의 하여라체를 사용한다. 『총암공』에서도 다른 언간들과 동일하게 아버지가 딸에게 하여라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아버지가 딸에게 사용한 하여라체의 평서형 용례이다.

(2) -다

- ㄱ. 전일 유무 보되 지금 되답 묻^하엿더니 또 유무 보고 든든^하며 무스히 잇는
가 시브니 다^하행^하다<『총암공』-1>
ㄴ. 보션 와시니 두거니와 후의논 마라 안심티 아니타<『총암공』-2>

(3) -도다

- ㄱ. 정이 정이 집고 쓰디 서라 마즈니 쇼쇼 불여^하 일 이버시나 봄눈 스투 하
논도다<『총암공』-6>
ㄴ. 서르 알안 디 삼십십여 년이로다<『총암공』-6>

(4) -니라

- 두 순 연^하여 더그니 보고 답장이나 불서 더글 거슬 밋일 천연^하여 못 덕으며
서온^하여 ^하더니라<『총암공』-5>

(5) -노라

- 우리도 무스히 디내노라<『총암공』-1>

(6) -과라

- 보션은 병등의 므스 일 슈고이 기워 보낸고 ^하며 즉시 신과라<『총암공』-3>

하여라체의 평서형은 (2~6)과 같이 ‘-다, -도다, -니라, -노라, -과라’와 같은 종결형이 실현되어 나타난다. (2)에서는 종결형 ‘-다’의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2ㄱ)은 형용사 어간 ‘다^하행^하-’에, (2ㄴ)은 보조용언 어간 ‘아니^하-’에 ‘-다’가 직접 결합한 것이다. (3)은 종결형 ‘-도다’의 예로 (3ㄱ)은 ‘-도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 (3ㄴ)은 서술격조사 ‘이다’ 뒤에 ‘-도다’가 결합하여 ‘-로다’로 교체된 형태이다. (4)는 종결형 ‘-니라’가 실현된 것으로 ‘-니-’가 ‘-다’에 선행한 형태이다.¹⁴⁾ 『총암공』에서는 ‘-니라’에 ‘-더’가 결합된 ‘-더니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6)은 ‘-다’에 ‘-과-’가 선행하여 결합된 종결형 ‘-과라’의 예이다. 딸이 보낸 버선을 받고 즉시 신어보았다는 내용이다. 황문

13) 황문환(1997/2002:33)에서는 모녀간, 모자간, 부녀간, 부자간, 주종간과 같이 준비 낙차가 분명한 관계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하여라체를 사용한 양상이 뚜렷하다고 보았다.

14) ‘-다’에 ‘-니-’가 선행할 경우 ‘-다’는 ‘-라’로 교체된다. ‘-니-’ 외에도 ‘-느-, -더-, -리-, -거-, -과-, -오-’가 ‘다’와 결합할 경우에도 교체가 일어난다(고영근, 1987/2010:144).

환(1997/2002:101)에서는 ‘-과라’의 시제를 과거로 해석하였다. 고영근(1981/2011:46)에서는 ‘-과라’가 ‘-거다/어다’와 더 유사하다는 점에 미루어 ‘-과라’를 ‘-거/어-’에 ‘-오-’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거다/어다’와 달리 타동사와 비타동사에 두루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았다.

다음은 혀여라체의 의문형이다. 의문형은 종결어미 ‘-가’가 결합한 형태와 ‘-고’가 결합한 형태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고 후자는 설명 의문문에 쓰인다. ‘-가’, ‘-고’ 외에 ‘-랴’와 ‘-다’가 결합한 종결형도 나타난다. 먼저 혀여라체 의문형의 판정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7) -ㄴ가

- ㄱ. 예 이신 제 잠간 혀 스이 춘 디 안니다 뉘 증이 아니 날 거시로디 지금 혀리디 못혀가 시브니 분별혀노라<『총암공』-2>
- ㄴ. 전일 유무 보고 깃브되 병환이 채 혀리디 묻혀였는가 시브니 위연 든 병이 의약도 식골도곤 나을 거시로디 지금 묻 도혀는가 시브니 녀녀혀노라<『총암공』-3>

(8) -ㄴ가

- 정낭은 녀환의 고릅기 가위가워 ㄴ이업스니 치위예 상혀가 민망혀여 혀노라<『총암공』-5>

(9) -랴

- ㄱ. 우리는 반흔이 드러오니 새로이 참혹혀물 다 덕혀랴<총암공-2>
- ㄴ. 우리는 계요 디내거니와 심식야 도혀 뼈 이혀랴<총암공-3>

혀여라체의 판정의문문 의문형은 (7~9)와 같은 종결형으로 실현된다. (7)은 보조 용언 어간에 ‘-ㄴ가’가 결합된 것으로 ‘-ㄴ가 시브니’의 구조로 나타난다. (7ㄴ) ‘-ㄴ가’에 ‘-앗-’이 결합한 종결형 ‘-앗는가’가 어간과 결합한 예이다. (9)는 ‘-리-’에 ‘-아’가 결합한 종결형 ‘-랴’로 혀여라체에서만 확인되는 종결형이다.

다음은 혀여라체 의문형의 설명의문문 용례이다.

(10) -ㄴ고

- 기별 모르니 답답혀더니 유무 보고 깃브되 병이 지금 혀리 묻혀였는가 시브니 엇혀디 그려고<『총암공』-2>

다음은 혀여라체 의문형의 ‘-ㄴ다’이다.

(11) -ㄴ다

- 새히예 도혀 잇혀다<『총암공』-4>

‘-ㄴ다’는 ‘-랴’와 마찬가지로 혀여라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종결형이다. 황문환(1997/2002:154)에 따르면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에 따른 형태상 구별이 없고 주어가 2인

칭일 때에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버지 임일유가 딸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위의 예문은 ‘(너는) 새해에 좋게 있느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주어로는 2인칭 대명사 ‘너’가 사용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319)에서는 ‘-ㄴ다’를 ‘-르다’와 더불어 2인칭을 주어로 택하는 특수한 의문형 종결어미로 보았다.

다음은 혀여라체의 명령형이다.

(12) 넷 슈지니 내 관 속의 잘 녀흐라<『충암공』-7>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판정의문	설명의문	그 외	
혀여라체	-다(-다, -느다), -도다(-느도다, -로다), -니라, -노라, -과라	-ㄴ가, -르가, -랴	-ㄴ고	-ㄴ다	-라

[표 4] 발.수신자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 경우

3.1.2. 오빠와 여동생의 경우

『창계』에서는 오빠가 여동생에게 사용한 청자경어법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오빠와 여동생은 한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의 위치와 나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혀여라체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높이는 혀소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전남 지역의 언간인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고목류』를 보면 언니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사촌 오빠가 사촌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어법의 사용이 다를 수 있다.

(13) [언니 → 동생]

- ㄱ. 급급 대강 적는 거시 우리 형제 낭누로 싱이식벨혀은 지 녀려 날포 되니
싱각홀스록 즈다 꿈인가 싱신가 시부다(『해남』-21)
- ㄴ. 스제 슬퍼라(『해남』-21)
- ㄷ. 어린 것들 다리고 원노의 엇지 세안의 가야 우리 형제 셔스로도 어느 대
반기거나 제 동기간 궂치 알들고 슬들냐(『해남』-21)

(14) [사촌 오빠 → 사촌 동생]

- ㄱ. 동남은 완인 시일 무상혀녀 직년 납월의 한마님 삼년을 맞즈오니 추감 어
느 만혀은 줌 즈부 신네을 당혀니 비회 일반일닌(『해남』-26)
- ㄴ. 치하 엇지 촌지로 다혀게느(『해남』-26)
- ㄷ. 히포 셔쫘도 막히니 시시 향념 무익이며 거년 신년 일망 지닉니 츠시 쇼

15) 『창계』에서 임영이 여동생에게 보낸 언간은 총 15건인데 박부자(2015:180)에 따르면 현전하는 언간 중 『창계』를 제외하면 총 10건이 넘지 않을 정도로 남성 동기가 여성 동기에게 보낸 편지가 매우 적다고 한다. 남성 동기가 여성 동기에게 보낸 언간 논의에서 『창계』가 자주 언급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의 신상 평안호고 허셔방괴셔도 년호녀 일안호시고 귀중 신아도 무양
출길호가(『해남』-26』)

『해남』에서 언니와 동생 간의 편지에서는 상위자인 언니가 하위자인 동생에게 호여라체를 사용하였다. 반면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 간의 편지에서는 상위자인 사촌 오빠가 하위자인 사촌 동생에게 호소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창계』에서도 이와 같은 경어법 사용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임영이 넷째 여동생에게 보낸 언간에 나타난 호소체의 평서형이다.

(15) -ㅣ

- ㄱ. 박피셔는 사름이 즈조 돈니 껍 든든히<『창계』-3>
- ㄴ. 다만 슈원 형님 편지 가기 보내기 어려울가 신브<『창계』-4>

(16) -넉

- ㄱ. 나는 음식은 집이예셔는 낫게 먹오되 괴운이 김히 곤호여 민망히 스연 다 못 덕어 이만<『창계』-3>
- ㄴ. 발인이 수일이 격호여 겨시니 절절이 못 견딘 일□산흔날 결관호엿습닌<『창계』-14>

(17) -르쇠

석물은 망두와 계절과 상돌을 다 시작호여 호라 호니 역식 적디 아니코 한아 바님 계절도 석물이 미비호매 그도 호라 호고 부예셔 가져온 상돌이 도티 아니호매 예셔 고티라 호니 구월 너로 필역을 밋디 못호니 아직 힘기 디속을 덩 터 못홀쇠<『창계』-3>

(18) -데

- ㄱ. 범스를 감식 극진극진이 호니 전년이예셔 더욱 갓줍게 디내고 광둥 토식 도 저년이나 다르디 아니호니 다힘호데<『창계』-4>
- ㄴ. 시예는 희가 꽤히 비최니 그는 극흔 다힘이레<『창계』-10>

(19) -외

갯 소망이 미양 글편이 둥호매 이 테엿 글을 더 숭상호기에 경서를 만히 넘히 디 못호니 앓가외<『창계』-7>

(20) -ㅁ새

겨울히 느려오려 호면 아모려나 인마 두 필과 조림 술권호여 보냄새<『창계』-5>

위의 예에서는 종결형에 ‘-ㅣ’가 결합되어 있어 호소체의 종결형임을 알 수 있다. (15)에서는 어간에 ‘-ㅣ’가 결합하여 ‘든든히, 신브’와 같이 실현되었다. (16)에서는 용언 어간에 ‘-넉’이 결합하였는데 (16ㄴ)의 경우 ‘-넉’에 ‘-습-’이 선행한 ‘-습넉’의 형태가 쓰였다.¹⁶⁾

‘-늑’에 ‘-습-’이 결합한 것은 부모님 중 한 사람의 상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신자는 임영보다 하위자이지만 부모님의 발인과 결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7)에서는 ‘-르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쇠’가 축약되어 나타난 것이다.¹⁷⁾ (18)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데’로 서술격조사 ‘이다’ 뒤에서는 ‘-레’로 교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는 종결형 ‘-외’로 ‘-오-’와 ‘-ㅣ’가 통합한 형태이다. (20)에서는 [약속]을 나타내는 ‘-ㅁ새’가 실현되었다.

다음은 호소체의 의문형이다. 호소체의 의문형은 ‘-ㄴ, ㄹ + -가’, ‘-ㄴ, ㄹ + -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창계』에 나타난 호소체 의문형을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호소체 의문형의 판정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21) -ㄴ가

- ㄱ. 소설은 스형의 쇼식이 쇼흔가 시브니 이제는 인심이 꺾 딴뎡호연가 호늑
<『창계』-4>
- ㄴ. 누의님도 아니 이시니 내 막음을 더욱 조금도 의지홀 딴 업서 호는 줄 일
뎡 각별 싱각호는가 호늑<『창계』-9>
- ㄷ. 경여는 글을 이제나 착실이 시작호연가<『창계』-3>
- ㄹ. 마즘 옛 낭반 과거 보라 서울 가매 □□늑 회진서는 과거들을 □□기 호
고 득닌 약닌 다 문무 초시를 호니 문운은 극통호엇는가 시비<『창계』-6>
- ㅁ. 아마도 의약 인스 잘못호 타신가 더욱 통호호여 막음이 하 치이늑<『창계』-6>

(22) -던가

- ㄱ. 열이튼날 보내 도보올 츠자 보늑고 열이튼날 편지는 종시 못 어더 보니
므슴 번거호 말이나 잇던가<『창계』-5>
- ㄴ. 예는 범식 서어는 호되 궤히 집고 집압희 큰 물이 둘넛고 ㄱ장 유벽호니
평시에 궤서 왓던들 이도 쇼흔 짜히런가 시브나 쇼절 이실가 잡손 업고
약지도 향지 토산은 호호니 도병의는 므던호나 뉴의 제스의도 반찬이 극
난호고 식되 ㄱ장 어려우니 ㄱ을노 나쥬로 느리고져 호나 그도 아직 채
뎡티 못호엇늑<『창계』-4>

(23) -르가

- ㄱ. 누의님은 년제 미쳐 느려오려거니와 그째 마즘 더브러 둔니리나 이실가
아디 못호니 흥혀 험과 달나 만나기 쉽디 아닐가 녀녀호늑<『창계』-3>
- ㄴ. 낭셔방집도 올라가랴 □□니 누의님도 느려와서 호 사이나 동싱덜 ㄱ지나

16) 호소체에서 ‘-습-’이 개재된 ‘-습니’형이 나타난 것에 대해 황문환(1997/2002)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황문환(1997/2002:50)에서는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과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에 나타난 경어법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자료들에서도 ‘-습니’형이 나타났다. [남편 → 아내], [장모 → 사위]의 언간에서의 호소체에서는 ‘-습니’형이 나타나지 않지만 [손위 누이 → 손아래 올케], [남동생 → 누이]의 언간에서는 ‘-습니’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7) 황문환(1997/2002:111)에서는 이를 ‘-리로-’가 포함된 연결형이나 종결형 등에서 관찰되는 것이고 ‘-르쇠’는 ‘-리로-’의 축약 ‘-르로- → -로- → -르-’ 중 마지막 단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모들가 브라나 설은 고비는 더욱 크이업술가 헛닉<『창계』-6>
 ㄷ. 나는 시방 □□으로 머므니 시월 초싱이면 □□□고 도라갈가 시비<『창
 계』-6>

(21ㄱ)은 형용사 어간에 ‘-ㄴ가’가 결합한 예이고 (21ㄴ~ㄷ)은 동사 어간에 ‘-ㄴ가’가 결합한 예이다. (21ㄷ)은 서술격조사 ‘이다’에 ‘-ㄴ가’가 결합한 예이다. (22)는 ‘-더-’가 ‘-ㄴ가’에 결합된 형태로 (22ㄱ)은 형용사 어간에 결합한 예이고, (22ㄴ)은 서술격조사 ‘이다’ 뒤에 결합하여 ‘-더-’가 ‘-러-’로 교체한 예이다. (23)은 ‘-ㄴ가’의 예로 (23ㄴ)에서는 ‘없다’와 결합할 경우 매개모음 ‘-으-’가 결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헛소체 의문형의 설명의문문의 예이다.

(24) -ㄴ고
 엇디 우리 썩려 이리 절박은 화고을 만난고<『창계』-6>

(25) -던고
 흥 서방집을 닉월 초싱 가 더브러 오라 헛니 더욱 전의 누의님 못 드려와 헛
 시던 일이 싱각^헛이며 아마 일도 하 뭇뭇 쉽살^헛니 어이 전의는 그리 뭇식 어
럽dot던고 헛닉<『창계』-12>

(26) -ㄴ고
 오는 날 편지 불셔 보완 디 오란가 헛며 이리 온 후는 부예 기별도 헛 번도
 못 드러시니 더욱 갓 기별이야 어이 드를 길히 이실고<『창계』-3>

설명문의문에서는 의문 부사 ‘엇디, 어이’와 함께 의문형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헛소체의 명령형이다.

(27) -소
 ㄱ. 싱동서 응당 내 쇼식을 알고져 홀 거시니 무스히 왕환^헛 줄 기별헛소<『
 창계』-4>
 ㄴ. 부체 올흔 마치 세 곳셔 왔거늘 헛 곳 치을 두엇더니 □□니 니 세 즈르
자닉 가지고 두 즈르란 내 말노 니현 주소<『창계』-12>

(28) -게
 잇다감 왕^헛에게도 아히나 주게<『창계』-11>

『창계』에서는 헛소체의 명령형으로 ‘-소’와 ‘-게’ 결합형을 확인할 수 있다. 임영은 자신의 여동생을 낚취 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높여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헛소체에서는 수신자에게 대명사 ‘자닉’을 사용하는 예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¹⁸⁾ 그동안 임영이

18) 박부자(2015:483)에서는 임영이 여동생에게 헛소체를 사용한 것은 동일 수신자에게 2인칭 대명사 ‘자니’를 사용한 것과 통한다고 보았다. 위의 예 외에도 『창계』에서 ‘자니’가 하소체에서 쓰인 예는 ‘앗가 낚숨을 곳 꾸엇더니 자니 편지를 보니 아루시미 잇노가 설운 둥 일변 든든히<『창계』-10>, 자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남동생이 누나에게 보낸 편지로 논의되어 왔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호소체를 사용하여 특이한 용법을 보이는 예로 주목 받은 것이다.¹⁹⁾ 그런데 박부자(2015)를 통해 임영의 이 편지는 오빠가 여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더이상 특이한 용법이라 볼 수 없다.²⁰⁾ 다만 앞에서 든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고문서 간찰류·고목류』에서와 같이 상위자가 하위자를 대우하는 정도에 따라 하위자에게 호소체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호소서체의 명령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게’형이다. ‘-게’형은 『창계』에서도 (28)의 예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쓰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게’형의 용례가 적은 것에 대해 安貴男(1996:224)에서는 ‘-게’형이 생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호소체와 어우러진 것으로 보았다. 명령형 ‘-게’의 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거이다’의 ‘-다’가 절단되어 ‘-게’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게 호-’ 구문에서 후행절 생략으로 ‘-게’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²¹⁾ 고광모(2002)에서는 다음과 같이 『靑丘永言』의 예를 들어 명령형 ‘-게’의 형성을 19세기 전반으로 보았다.²²⁾

- (29) 長衫 쓰더 치마赤衫 덧고 念珠란 버셔 唐나귀 밀치 호세 ... 十年호 功夫도 너
갈 되로 니게 밤中만 암거스의 품에 드니 念佛景 업세라(고광모, 2002:134
재인용)

또한 허웅(1989)에서 제시한 송강 정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오게’ 이후 명령법의 ‘-게’가 19세기 중엽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게’의 형성 시기가 18세기 후반보다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보았다(고광모, 2002:139).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는 16세기에 이미 종결형 ‘-게’가 명령형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0) 오직 너월 초상의 곳 가면 시월로 올 거시니 치위예 오살 다가져 갈쇠 이리
오게 순화 가디니 었디 호느고 모든 직상 도관의 가속이 다 이리 오느(『순천
김씨묘』-6)

너 노력올 제 노력오나지라 호여시니 일명 제 집의 잇기도 어려워 그리호였는가 시브<『창계』-13>, 서울 말은 자니야 잘 어더 돛노가 시브니 겸수 말고 드른 말이어든 그별호소<『창계』-15> 등과 같이 더 확인할 수 있다.

- 19) 이승희(2005)에서도 남동생이 누나에게 보낸 편지로 보았으나 ‘누의님’이 누나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여동생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기술하였다.
- 20) 발표자의 아버지는 전남 고흥군 출신으로 평소 형제들과 대화하실 때 ‘자네, ~하소’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많다. 아버지의 손위 형제들인 고모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고모들에게 또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자네, ~하소’의 표현을 사용하신다. 아버지께서는 고흥에서는 하소체가 상위자가 하위자를 대우할 경우에도 쓰이지만 (형제 관계에서) 하위자가 상위자를 대우할 때에도 쓰이고 말씀하셨다. 강희숙(2007)에서는 이를 광주 방언의 상대높임법에서 발견되는 보수적 측면이라고 하였지만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자네’를 쓸 때에는 [-대우, -격식, +친밀]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보아 고흥군과는 의미 자질이 다를 수 있다.
- 21) 전자의 입장으로는 徐泰龍(1985), 安貴男(1996)을, 후자의 입장으로는 고광모(2002), 이승희(2004), 남미정(2008/2011)을 들 수 있다. 安貴男(1996:228)에서는 16세기 후반에 호계체가 성립되었지만 호계체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형 ‘-소/오’ 형이 ‘-게’의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남미정(2008/2011:197~199)에서는 전자와 같은 입장에 대해 ‘-거- + -이’의 결합이 유독 명령형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게’가 호니류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게 호소’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문증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22) 앞서 이기갑(1978)에서 명령형 ‘-게’가 최초로 확인되는 문헌이 『靑丘永言』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30)은 安貴男(1996:230)에서 제시한 예를 재인용한 것이다. 安貴男(1996)에서는 16~20세기 인간을 대상으로 경어법을 논의하였는데 『순천김씨묘 출토 인간』에 나타난 ‘오게’를 예로 들어 ‘-거이다 > -게’의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²³⁾ ‘-게’형 명령형은 지금까지 19세기 중반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安貴男(1996)에서 제시한 ‘오게’와 『창계』에 나타난 (28)의 예를 통해 등장 시기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입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판정의문	설명의문	
호소체	-ㅣ, -니, -르쇠, -데, -외, -ㅁ새	-ㄴ가, -던가, -르가	-ㄴ고, -던고, -르고	-소, -게

[표 5] 발.수신자가 오빠와 동생의 관계인 경우

3.1.3. 삼촌과 조카의 경우

『창계』-18은 임영이 조카에게 보낸 인간으로 임영이 수신자를 ‘족하’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정확히 조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에서 『창계』-18의 수신인을 여성으로 보는 것은 당시 남성 간에는 한문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의 입장을 따라 『창계』-18의 수신인을 여성 조카로 보기로 한다.

삼촌과 조카는 성별과 나이의 차이도 있지만 가족 관계 안에서 위치의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안 높임 등급인 호여라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창계』-18에서 확인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31) -노라

이 슈지는 천 번은 보아도 순마다 울니니 내내 숭장호여터니 네 두고 보귀 보
닌노라<『창계』-18>

(32) -더라

내 ㅁ음의도 나는 죽어도 즈식들이 반석 ㅁ트면 귀 즐거울 듯시브더라<『창계』-18>

다음은 호여라체의 의문형이다.

(33) -랴

23) 또한 安貴男(1996:257)에서는 17~19세기의 호계체 명령법은 호소체의 명령법이 공백을 메워주기 때문에 ‘-게’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이는 자료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주임씨가 인간은 安貴男(1996)에서 자료로 다루지 않았고 安貴男(1996)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므로 『靑丘永言』이 자료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즈즈히 정을 머곰으신 말씀이오 말씀마다 기특호오시니 이를 보면 내의 설위
 호는 정성과 너 향흔 정이 네스 동송 족하과 다를 줄 아니 알냐<『창계』-1
 8>

(34) -니

심시의 영양을 못 호온들 스훤들 즈식의 영혜 엇더호니<『창계』-18>

(34)는 의문형으로 ‘-니’가 나타난 예이다. 종결형 ‘-니’는 중세국어 문헌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호야씨체에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언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황문환(1997/2002:157)에서는 ‘-니’가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에서 호여라체의 의문형으로만 사용되어 중세국어 시기보다 대우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의문사를 동반하여 설명 의문에 주로 사용된 점 또한 15세기와 구분된 특징으로 보았다.

다음은 호여라체의 명령형이다.

(35) -아라

ㄱ. 이 편지 슈지틀 보아라<『창계』-18>

ㄴ. 상시 셔스과 언어간의 일호도 실의셔 과도흔 말이 아니 겨시던 거시니 이
 를 보오면 너도 날을 네스 삼촌으로 아니 알년마는 고적을 들머겨 아히
 설움을 도돌가 아니 뵈엿더니 네 고집이 하 국골 급급호여 보내니 브딕브
 딕 내 말을 드러 부디호여 병 업슨 사름이 되어 장늑 효도를 기리 닐위여
라<『창계』-18>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판정의문	설명의문	
호여라체	-노라, -더라	-라	-니	-아라

[표 6] 발.수신자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경우

3.2. [하위자 → 상위자] 화계에 따른 경어법 사용

임영은 어머니 임천조씨에게 2건의 언간을 보냈는데 나주임씨가에서 [하위자 → 상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창계-1』, 『창계-2』이다.

(36) [하위자 → 상위자]

아들 → 어머니: 『창계』-1, 2

『창계』-1, 2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호쇼서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37) -습#니이다

- ㄱ. 아마도 귀운 평안^ㅎ습심 브라^ㅅ습^ㅅ니이다<『창계』-1>
- ㄴ. 여라 가지로 혜고 싱각^ㅎ습^ㅅ는 일이니 그르디 아닐 법 잇습^ㅅ니이다<『창계』-2>

(38) -습#더이다

- 흔 번 편지^ㅎ온 후 일절 왕^ㅅ니 업스와 다시 소식을 통디 못^ㅎ오니 섭섭 답답^ㅎ음 그이업스오며 몽치 올 제과 형님 형^ㅅ등의 년^ㅎ여 하셔는 즉시 보^ㅅ옵고 못내 든든 반갑습^ㅅ더이다<『창계』-1>

(39) -습

- ㄱ. 즈는 계유 무스히 잇스오나 여섯 번 슈망의 낙^ㅅ덤을 종시 아니^ㅎ하시니 각별 대단히 오지^ㅎ흔 일 업시 그러^ㅎ오니 늙 대되 고이히 녀기^ㅅ옵<『창계』-1>
- ㄴ. 계예는 어마님 편지를 츠고 든니니 정이 업디 아닌가 괴^ㅎ특^ㅎ습^ㅅ 곳즌 불셔 다 더실 거시니 그런 애^ㅅ몹스온 일이 업^ㅅ습<『창계』-1>

(37~39)는 『창계』-1, 2에 나타난 ^ㅎ쇼셔체의 평서형이다. 일반적으로 ^ㅎ쇼셔체의 평서형은 ‘-이다’가 실현된다. (37~38)은 ‘-이다’에 각각 ‘-니-’와 ‘-더-’가 결합된 것인데 여기에 ‘-습-’이 개재된 형태를 보여준다. [딸 → 어머니], [아들 →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 대체로 ‘-습-’ 개재형이 우세하다(황문환, 1997/2002:54). (39)는 ‘-습’ 만으로 문장이 종결된 예이다. 이승희(2004/2007:158~159)에 따르면 18, 19세기 자료에는 의문형, 명령형의 예도 찾아볼 수 있으며 19세기까지는 주로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신문의 광고 등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고 구어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승희(2004/2007)에서는 종결형 ‘-습’을 편지 등 특정한 상황에 사용되는 문체로 규정하였다.

다음은 ^ㅎ쇼셔체의 의문형이다.

(40) -습시#니잇가

- ㄱ. 이쎄 괴후 대되 엇^ㅅ더^ㅎ습^ㅅ시니잇가<『창계』-1>

(41) -리잇가

- ㄴ. 마치 느려가려키예 혹 아르시고 꺾이 녀기시는가 의심이 잇스오나 어이 짐작으로 아오리잇가<『창계』-1>

(42) -시#ㄴ고

- ㄷ. 반찬을 엇^ㅅ디^ㅎ시^ㅅ느고<『창계』-1>

^ㅎ쇼셔체의 의문형은 ‘-잇가’를 포함한 형태들이 나타난다. 의문형 ‘-가’는 판정의문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인간에서 ^ㅎ쇼셔체의 의문형에 ‘-잇가’의 형태만 나타나는 것을 황문환(1997/2002:170)에서는 ^ㅎ쇼셔체에서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의 대립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았다. (42)에서는 ‘-습-’이 결합되지 않은 ‘-시#ㄴ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형	의문형	
		판정의문	설명의문
호쇼셔체	-습#니이다, -습#더이다	-습시#니잇가, -리잇가	-시#ㄴ고

[표 7] 발·수신자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경우

지금까지 나주임씨가 인간의 경어법을 발·수신자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화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판정의문	설명의문	그 외	
호쇼셔체	아버지 → 딸 삼촌 → 조카	-다(-다, -ㄴ다), -도다(-ㄴ도다, -로다), -니라, -노라, -과라	-ㄴ가, -ㄹ가, -랴	-ㄴ고	-다	-라, -아라
호쇼체	오빠 → 여동생	-ㅣ, -니, -ㄹ쇠, -데, -외, -ㅁ새	-ㄴ가, -던가, -ㄹ가	-ㄴ고, -던고, -ㄹ고	-소, -게	
호여라체	아들 → 어머니	-습#니이다, 습#더이다	-습시#니잇가, -리잇가	-시#ㄴ고		

[표 8] 나주임씨가 인간의 화계에 따른 경어법 종결형

4.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羅州林氏大同譜』

강희숙(2007), 「‘자네’의 용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63, 韓國言語文學會, 5~28.

강희숙(2010), 「나주임씨 인간의 구개음화 교정 현상 연구」, 『한글』 289, 한글학회, 79~106.

고광모(2002), 「명령법 어미 ‘-게’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글』 257, 한글학회, 129~166.

고영근(1981/2011), 『중세 국어의 사상과 서법』, 집문당.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남미정(2008/2011), 『근대국어 청자경어법 연구』, 태학사.

- 박부자(2014), 「언간에 나타난 친족 내에서의 태호 사용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203~232.
- 박부자(2015), 「『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簡』 수록 언간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157~193.
- 徐泰龍(1985), 「국어의 命令形에 대하여」, 『國語學』 14, 國語學會, 437~461.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1994), 『滄溪集』, 성균관대학교.
- 安貴男(1996), 「諺簡의 敬語法 研究 -16~20세기 諺簡 資料를 對象으로-」,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래호(2019), 「언간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 - <송규렴가 언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 제6회 전국학술대회 “지역어, 문학, 문화” 발표집』, 55~67.
- 이승희(2004),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견」, 『國語學』 44, 國語學會, 109~131.
- 이승희(2004/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 이승희(2005),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53~276.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a),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 영인본 1』,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 황문환(1997/2002), 『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태학사.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a),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 역락.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b),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2』, 역락.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역(2013c),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3』, 역락.
-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http://kostma.aks.ac.kr/FamilyTree/>)

15세기 어미 '-니(-)'의 기능에 대한 재고

강은진(전남대)

1. 서론

본고는 15세기 어미 '-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실제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어미 '-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미 '-니(-)'가 수행한 기능에 대해 재고(再考)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본고는 평서형 종결어미 '-니라', '-니이다' 등과 '의문형 종결어미 '-녀, -뇨, -니잇가, -니잇고' 등으로부터 선어말어미 '-니-'를 분석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은 선어말어미 '-니-'와 어말어미 '-니'의 상관성으로 확장되었다. 어말어미로서의 '-니'는 흔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에 대한 것으로 설명되는데, 그러한 연결어미가 아니면서 어말어미로 기능하는 '-니-'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정리하자면 본고에서 설정하고 있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어말어미 '-니-'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선어말어미 '-니-'와 어말어미 '-니'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선어말어미 '-니-'를 설정하는 경우, 선어말어미 '-니-'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미로는 전술한 '-니라, -니이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어미와 '-녀, -뇨, -니잇가, -니잇고, -니잇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즉, '-니-'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본고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와 의문형 종결어미로 분류되는 어미들에서 '-니-'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니-'라는 '단일한 형태'가 중세국어시기에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다음의 석독구결 자료를 보면 13세기 이전에는 '-니-'가 '-ㄴ'과 'ㅣ'가 구분되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ㄱ. 世間세간 利益이력 ヲ를 爲위 而을 發心발심 ヲ를 ㄴ니 / 世間을 利益되게 하고자 하여 發心한 것이며(華嚴, 9:10-13)

ㄴ. 是 如이와 十種십종 菩薩摩訶薩보살모하사 菩提心因보제심인 ㄴ니 / 이와 같은 十種을 菩薩摩訶薩의 菩提心因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金光, 2:13-20)

ㄷ. 乾闥婆간투파 阿修羅아수라 等등 一切일체 聲門성문 緣覺연각 / 乾闥婆와 阿修羅와 같은 이와 및 一切 聲門과 하는 이의(華嚴, 8:16-18)

이때 '-ㄴ/ㄴ'은 동명사형어미로 분류되며 현대 국어의 '-ㄴ 것' 정도로 해석된다.²⁾ (1

1) “어미 '-니(-)’”라고 기술한 까닭은 선어말어미 '-니-'와 어말어미 '-니'를 통칭하기 위함이다.

2) '-ㄴ/ㄴ'과 '-ㄴ/ㄴ'을 동명사형어미로 보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들 어미가 격조사나 보조사와 연결되어 사용되며, 체언을 수식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ㄴ/ㄴ'의 경우 석독구결에서 'ㄴ+ㅣ'의 구성이 'ㅅ/리'로 축약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남풍현, 1999:285-291).

ㄱ, ㄴ)은 동명사형어미 ‘-ㄱ/ㄴ’이 계사 ‘ㄹ/이-’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으로, (1ㄱ)의 ‘發心
ソナリハ/發心亨견이며’는 동사어간인 ‘發心ソ/發心亨-’, ‘(-어) 잇-’ 계통이 이어지는 조
동사 ‘+/-’, 동명사형어미 ‘-ㄱ/ㄴ’, 계사 ‘ㄹ/이-’, 연결어미 ‘-ㅏ/며’로 분석할 수 있다.
(1ㄴ)의 경우는 동명사형어미와 계사의 연결에 종결어미 ‘-ㄹ/다’가 결합하고 있는 예이다
(남풍현, 1999:356). 이러한 석독구결의 자료들은 ‘-ㄱ/ㄴ’이 계사 ‘ㄹ/이-’와 함께 서술부
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니-’가 단일
한 형태는 아니었던 것이다.

김영옥(2000)에서는 범망경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14세기 시상과 서법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범망경 자료에서는 ‘니’를 ‘ㄱ ㄴ’이 아닌 ‘ㄴ’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니’로 표기되었다. 분명한 점은 ‘-니-’는 그 기원상 단일
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았으며, ‘ㄱ’과 ‘ㄴ’로 구분되어 표기되던 ‘니’는 각각 다른 문법적 기
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5세기의 ‘-니-’ 또한 표기상으로는 한 음절이지
만 ‘ㄴ+ㅣ’로 분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³⁾

이유기(2013:178-188)에서는 서술문의 ‘-니-’의 경우 여러 가지 문법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 ‘-니-’가 선어말 형태소로 재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먼저 ‘-니-’는 서술
문과 의문문에서만 쓰이는데, 서술문에서도 감탄 구문, 원망 구문, 약속 구문에는 쓰이지 않
는다. 만약 ‘-니-’가 단순한 명사문의 구성 요소라면 서술문 중 감탄 구문, 원망 구문, 약
속 구문에서 쓰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⁴⁾ 그러나 의문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의문문의 ‘-
니-’는 명사문적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의문문에서는 ‘-로소
니잇가, -로소니여, -도소니야’ 등 감탄 형태소와 ‘-니-’가 공존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니-’의 개입이 필수적이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도 15세기 국어에서는 ‘-니-’가 이미 하나
의 형태로 굳어졌다고 본다.

김유범(2007:117-128)에서는 중세국어 문법형태소들 중 문법화 과정을 겪어 형성된 것
으로 생각되는 형태소들을 정리하면서, 선어말어미 ‘-리-’와 ‘-니-’의 경우 중세국어 당시
어말어미와의 결합 시 나타나는 이형태 교체 양상이 계사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기원적으로 각각 동명사형 어미 ‘-ㄱ’과 ‘-ㄴ’에 계사가 결합해 형성된 문법형태소로 보인
다고 하였다. 한 예로 종결어미 ‘-다’가 결합하면 ‘-리라’, ‘-니라’가 되어 계사의 활용 ‘이

3) 이때 한 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니’가 과연 동명사형어미와 계사의 결합으로만 구성된 것
이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동명사형어미 ‘-ㄱ/ㄴ’은 명사화하는 기능과 함께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기
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명사형어미+계사’ 또는 ‘동명사형어미+의존명사+계사’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이병기(1998)에서는 ‘-리-’의 기원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리-’를 동명사형
어미 ‘-ㄱ/ㄴ’과 계사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의존명사가 삽입되어 있다고 볼 경우 석독구결
이 쓰이던 시기에 의존명사 ‘이’가 출현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ㅈ’와 ‘ㄱ’(동명사형 어미)+ㄴ
(계사)가 계열적 교체 관계를 보이는 예문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이병기(1998:20)에서
는 ‘ㅈ’가 석독구결에서 완전히 선어말어미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원래 구성에서 가지고
있던 동명사형어미의 포괄명사를 포함하는 성격과 계사적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
기 때문이다.

4) 이유기(2013:179)에서는 현대국어의 감탄 구문으로 ‘~한 것이로다’와 같은 명사문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였을 때 ‘-니-’가 명사문이라면 감탄 구문에도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유기(2013)에
서는 ‘-니-’가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이지 않고, 서술문 중 원망, 감탄, 약속 구문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니-’가 [+상관성]의 장면에서 청자에 대한 태도를 담당하는 선어말 형태소 일 것이라고
집착하였다.

5) 이유기(2013:179)에서는 의문문에서 사용된 ‘-도소-’의 경우 감탄과 무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
다. 의문문이나 연결형에서 감탄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국어 질서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라’와 같이 종결어미의 형태가 ‘-라’로 실현됨을 볼 수 있다. 또한 ‘ㄱ’ 탈락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계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종결어미 ‘-잇고/-잇가’가 계사와 선어말어미 ‘-니-’, ‘-리-’ 뒤에만 통합되는 사실도 이 세 형태소의 기원적 관련성을 말해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니-’가 동명사형어미와 계사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때, 의문문에서 사용된 ‘-니-’도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박진호(1998:124-125)에서는 고대 국어에서는 체언에 의문조사 ‘고, 가’가 결합하여 의문문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원적으로 동명사형어미에 의존명사 ‘ㅣ’, 의문조사 ‘고’가 결합하여 의문형 어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유기(2013:174)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니-, -리-’가 명사문 종결형식의 구성 요소가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평서문과 의문문에 사용된 ‘-니-’의 기원이 각기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황선엽(2002:14-15)에서는 O. Deny(1952)의 연구 결과 ‘터키어, 몽고어, 통구스어’ 등 알타이어에서 동명사어미에 계사가 결합하여 종결어미를 형성하는 양상이 관찰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동명사형어미 ‘-ㄴ’에 계사 ‘이’가 결합하여 ‘-니’가 되고 이것이 종결어미로 문법화하였다는 설명이 언어유형론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어의 동명사어미는 문장의 종결에 쓰였으며 다른 문법형태소들과 통합하여 다양한 어말어미를 만드는 문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니-’를 ‘ㄴ(동명사형어미)+ㅣ(계사)’의 결합 구성으로 보되, 15세기에는 이미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졌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따라서 평서문에서의 ‘-니라, -니이다’, 의문문에서의 ‘-니잇고, 니잇가, 닛가’ 등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니-’에 대해 재고(再考)해 보고자 한다.⁶⁾

2. 선어말어미 ‘-니-’에 대한 기존의 설명

선어말어미 ‘-니-’를 분석한다는 것은 ‘-니-’를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고영근(1987/2011:21-23)에서는 ‘-니-’의 설정과 관련하여 원칙법⁷⁾의 선어말어미 ‘-니-’,

6) 본고에서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어미 ‘-녀, -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녀, -뇨’의 경우 ‘ㄴ+ㅣ+가/고’에서 발달했다고 보는 견해와 동명사형어미 ‘-ㄴ’에 의문 보조사 ‘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로 보는 경우 /ㄱ/이 /ㅣ/ 뒤에서 약화되므로 ‘-니아, -니오’의 ‘-아’와 ‘-오’가 본래 의문 보조사 ‘-가’와 ‘-고’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허웅(1975/2009:505-516)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녀, -니여’ 보다 ‘-니아, -니야’가 더 고형(古形)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니아, -니오’가 본래 ‘*-니가, *-니고’였다고 하였을 때, 이때 두 번째 음절의 ‘-아, -오’의 ‘ㅇ’이 음가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니아, -니오’의 축약형으로 보이는 ‘-녀, -뇨’ 등이 비슷한 시기의 문헌에서 관찰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아, -오’가 음가를 지니고 있었을지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니아, -니오’와 같은 표기가 『杜詩諺解』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예전에 쓰이던 형태를 밝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후자로 보는 경우 의문 보조사 ‘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번역박통사』의 ‘안쥔는 거셔(번박 상:41ㄴ), 봄노는 거셔(번박 상:42ㄱ)’ 뿐이어서 이러한 분석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녀, -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녀, -뇨’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7) 고영근(1987/2011:40-43)에서는 부차 서법으로 원칙법(原則法), 확인법(確認法), 감동법(感動法)을 설정하고 있다. 원칙법은 현대어의 직설법(直說法) ‘-느-’와 회상법(回想法) ‘-더-’에 후속하는 ‘-니-’의 직접적 소급형을 가리킨다. 고영근(2018:479)에 따르면 원칙법은 화자가 사태를 원칙적·불변적·기정적 사실로 파악하여 타이르거나 일깨워 줌으로써 그것에 주의가 집중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도가 작용

둘째 설명법 어미 ‘-니라’, 의문법 어미 ‘-니...가’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즉, 원칙법의 선어말어미 ‘-니-’는 인정하지만, 평서형과 의문형에 사용된 ‘-니-’는 선어말어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영근(1987/2011:20-23, 40-43)에서 ‘-니라’를 둘째 설명법 어미로 설정하고 있는 까닭은 이때 사용된 ‘-니-’가 원칙법의 선어말어미 ‘-니-’와 구조·의미의 방면에서 차이가 나고 ‘-다’와 의미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⁸⁾

(2) ㄱ. 市橋는 在成都하다(두초 7:6ㄱ)

ㄴ. 이 나모 미튼 如來 慈悲三昧力으로 魔王人 兵馬 이긋시고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일우신 싸히이라(석상 24:36ㄴ)

ㄷ 世尊하 ... 이제 祇陀林은 實로 堂 맞고 잇느이다(능엄 1:48ㄱ)

(3) ㄱ. 碧鷄坊은 在成都하니라(두초 7:5ㄴ)

ㄴ. 이 如來 나신 싸히니이다(석상 24:35ㄴ)

ㄷ. (그 켜리) 對答호되 잇느니이다(석상 6:14ㄴ)

(2), (3)의 예문을 보면 동일한 어간에 ‘-다’나 ‘-니라’가 모두 통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ㄱ)과 (3ㄴ)은 동일 한시의 주석문이면서 구문마저 동일하여 ‘-니라’와 ‘-다’가 의미 차이가 없으며 수의적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가능할 정도로 ‘-니라’와 ‘-다’의 의미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고영근(1987/2011:20-23, 40-43)에서는 의문법 어미에 나타나는 ‘니’를 통합 관계로 보았을 때 ‘니’가 결여된 *하어, *하느어, *하더어; *하가, *하는가, *하더가 등의 어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의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윤희(2002:128-129)에서는 ‘-니라’를 독립된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것일지 몰라도 형태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하니라’를 ‘하더라, 하리라’와 비교하여 보면 ‘-니-’는 ‘-더-, -리-’ 등과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⁹⁾ 또한 ‘하니라’와 ‘하니이다’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니-’가 ‘-라’(←‘-다’) 이외의 요소와 통합할 수 있음은 물론 ‘-니-’가 빠진 ‘하다’의 통합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장윤희(2002)에 따르면 이렇게 ‘-니라’의 ‘-니-’는 형태소 분석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이때의 ‘-니-’를 분석하지 않

할 때 쓰인다. 또한 ‘-니-’의 경우 아주낮춤에서 분석되고, 예사낮춤에서는 ‘-니-’가 어말어미 ‘-이’와 융합되어 있으며, 아주높임에서는 직설법 ‘-니-’와 회상법 ‘-디-’ 아래에서 ‘-ㄴ-’으로 실현된다. 고영근(2018:479)에서는 이 원칙법이 현대어에서는 그 실체가 매우 불안정해졌다고 보고 있다.

8) ‘-니라’를 둘째 설명법 어미로 설정할 경우의 이점은 첫째로 ‘원칙’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니-’들을 원칙법에서 제외시켜 의미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선어말어미 ‘-니-’는 일인칭 주어와 공기(共起)하지 않는다는 ‘일인칭 주어제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통사적 관점에서 선어말어미 ‘-니-’는 대체로 일인칭 주어와 공기(共起)하지 않는데, ‘-니라’가 결합한 문장의 경우 그 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1) 내 毗奈耶에 묻져 ㄱ르쵸미 이쇼니라(능엄경 7:22-3)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구조적인 관점에서 ‘-니-+라’로 분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김영옥, 1989:31).

9) 이 부분에 있어 장윤희(128-129)에서는 ‘-니-’, ‘-더-’, ‘-리-’가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인데, ‘-니-’가 ‘-더-’, ‘-리-’와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니-’가 시상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여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더-’, ‘-리-’가 어떠한 공통의 범주에 속하는 양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 ‘-니-’와 ‘-리-’는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하니라’와 ‘하리라’는 가능하지만 *하리니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황선엽(2002:13)에서는 ‘-리-’의 선어말어미화와 ‘-니라’의 종결어미화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는 것은 구조적, 형태론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¹⁰⁾¹¹⁾ 따라서 장윤희(2002)에서는 ‘-니라’의 ‘-니라’ 전체를 또 하나의 설명법 어미로 보지 않고 ‘-니’와 ‘-라’(←‘-다’)의 통합으로 보았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니-’를 어떠한 의미 기능을 가진 형태소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영근(1987/2011)에서 설정하고 있는 선어말어미 ‘-니-’는 ‘원칙법’이라는 서법 형태소이지만, ‘-니라’의 ‘-니-’에서는 원칙법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연 ‘-니-’를 어떠한 의미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¹²⁾

이에 대해 장윤희(2002:131)에서는 ‘-니라’의 ‘-니-’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약하게나마 화자의 양태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윤희(2002:155-160)에서는 ‘-니라’와 ‘-다’를 비교함으로써 ‘-니-’의 기능을 파악하였고, 실제 대화 상황에서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하여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 ‘-니라’와 ‘-다’가 갖는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실제 대화 장면에서 동사 어간에 ‘-시-’ 이외의 선어말어미가 통합하지 않은 채 직접 문장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니라’만이 사용되고, ‘-다’가 사용된 경우는 15세기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4) ㄱ. 帝釋이 닐오되 부테 아래 혼 니를 몬져 주시니라 호고(석상 23:47ㄴ)

ㄴ. 그 썩리 제 어미 사라서 因果 信티 아니던 들 알썩 당다이 業을 조차 惡趣에 나니라 너겨
(월석 21:20ㄱㄴ)

(5) ㄱ. 내 어저러본 軍人 서리에 주그면 늑미 나를 나라홀 背反타 호릴썩(삼강 충신:26ㄴ)

ㄴ. 이썩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고 므스매 ㄱ장 설버 너교되(월석 17:21ㄱ)

ㄴ'. 이썩 諸子ㅣ 아비 주구물 듣고 므스매 ㄱ장 설워 이 念을 호되(법화 5:138ㄱ)

ㄷ. 國은 나라히라(훈언 1ㄱ)

ㄷ. 加는 힘드려 하다 호듯 혼 쁘디라(석상 서:6ㄱ)

또한 ‘-다’와 ‘-니라’가 피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경우 ‘-다’는 간접 인용문을, ‘-니라’는 직접 인용문을 종결한다. (4ㄱ, ㄴ)의 경우 피인용문 ‘부테 아래 혼 니를 몬져 주시니라’, ‘당다이 業을 조차 惡趣에 나니라’는 직접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5ㄱ, ㄴ)는 ‘나를 나라홀 背反타’, ‘아비 죽다’의 간접 인용문인데 여기에는 피인용문 주어의 대격 주제화와 인칭의 전이가 나타난다.¹³⁾ 그리고 ‘-니라’와 ‘-다’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면 ‘-니라’가 사

10) 고영근(1987/2011:21-22)에서는 ‘-니이다’의 ‘-니...다’를 불연속 형태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장윤희(2002:129-130)에서는 국어 문법 또는 문법사의 기술에 반드시 불연속 형태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고 하였다.

11) 또한 김영옥(1989ㄴ:31)에서는 ‘-니라’를 둘째 설명법 어미로 설정할 경우 현대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 둘째 설명법 어미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으며 다른 어미와 달리 왜 이 어미의 수명이 짧은지에 대한 통시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2) 김영옥(1989ㄴ:32-35)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니-’를 공형태(空形態, empty morph)로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선어말어미 ‘-니-’는 아무런 문법적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형태만 존재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김영옥(1989:34)에서는 생산적으로 사용되던 문법형태소가 점점 비생산적으로 사용되어 그 문법적 기능을 상실하는 비문법화(非文法化)를 언급하면서 ‘-니-’가 ‘-다’와 결합하여 ‘-니라’가 한 덩어리처럼 쓰이다가 그 속에 든 ‘-니-’가 독자적 기능을 상실하여 공형태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니라’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로 설명되며, 어떠한 문법적·어휘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을 형태소라고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김영옥(1989)과 같이 ‘-니-’가 어떠한 독자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면 ‘-니-’를 공형태소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형태소로 분석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3) 이현희(1986ㄴ)에서는 간접화의 징표로 ‘대격 주제화, 재귀대명사화, 인칭의 전이, 발화장의 중화’를

용된 곳에 ‘-다’가, ‘-다’가 결합한 문장에 ‘-니라’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니라’와 ‘-다’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수의적 교체형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5ㄷ,ㄹ)과 같이 글자의 개념적 의미를 해석하는 구문에서 ‘-니라’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¹⁴⁾

이를 정리하자면, ‘-다’는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한 채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다’에 의한 피인용문은 간접 인용문이 된다는 점에서 ‘-니라’와 구별된다. 또한 글자의 개념적,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문장, 또는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 다른 언어의 단어를 연결시키는 문장 등의 메타 언어적인 관념적 문장에서는 ‘-니라’가 아닌 ‘-다’만이 문장 종결 요소로 사용된다.

장윤희(2002:161-178)에서는 ‘-니라’의 ‘-니-’를 어떠한 요소로 분석할 수 있는지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다’는 개념적 의미를 표시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계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과 자유롭게 직접 통합할 수 있다. ‘-다’가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서법, 화자 표시, 상대 높임의 형태소가 개재되었을 때로, 이때 ‘-다’는 강한 통보성(通報性)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실제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ㅎ니라’에 적용해 보면 ‘-니-’는 ‘-느-, -더-, -리-’ 등과 유사한 성격의 요소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와 구별되는 ‘-니라’의 강한 통보성은 결국 ‘-니-’가 서법적·양태적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니라’는 선어말어미 ‘-니-’와 어말어미 ‘-다’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즉 선어말어미 ‘-니-’는 형태소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양태적 의미를 갖는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다. ‘-니라’의 ‘-니-’가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을 때, 그 외의 선어말어미 ‘-니-’와 공통적인 양태적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니-’의 양태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의 양태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니-’의 의미 또는 기능에 대하여 유창돈(1964)에서는 사실에 대한 확인, 이승녕(1961/1981)에서는 규정법, 허웅(1975:882-891)에서는 확정법 또는 기정법, 고영근(1987/2011)에서는 원칙법, 장윤희(2002)에서는 통보성의 의미, 조규태(2006)에서는 단정법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다.

3. 선어말어미 ‘-니-’와 어말어미 ‘-니’

이렇게 독자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니-’가 15세기에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이 선어

들고 있다. 곧 (4ㄱ)의 경우 원래의 문장은 ‘네 나라를 背反ㅎ니라’ 정도였던 것인데 이 문장이 간접 인용되면서 ‘인칭의 전이’를 경험하여 주어인 ‘네’가 ‘내’가 되고, 동시에 이것이 대격 주제화됨으로써 ‘나를’로 나타난 것이다. (4ㄴ)의 경우 ‘아비 죽다’는 (4ㄴ)에서 ‘아비 주구물’로 나타나 있어 피인용문 자체가 ‘듣-’의 목적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 죽다’와 ‘듣-’사이에 ‘오물’이나 ‘닐오물’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장윤희, 2002:157-158).

- 14) 이유기(2013:180-186)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어석(語釋) 구문의 경우 NP 서술어에 ‘-니-’가 쓰이는 일이 극히 드물다.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해석에는 ‘NP+이라’가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석(註釋) 중에 어석(語釋) 구문이 아닌 경우에는 ‘NP+이니라’ 형식이 쓰인다.

(1) ㄱ. 御製는 님금 지스산 그리라(訓諺 御旨)

ㄴ. 牛頭는 쇠머리라(月釋 1:27)

(2) ㄱ. 그 鸚鵡는 如來시고 받 님자흔 舍利弗이오 눈먼 어시는 淨飯王과 摩耶夫人이니라(月釋 2:13)

ㄴ. 千百億 釋迦는 化身入 化身이 閻浮提 菩提樹入 미티 혼 싹成佛ㅎ신 釋迦ㅣ시니라(月釋 2:54)

말어미 ‘-니-’가 사용된 예외적인 문장들이 관찰된다. 15세기 자료 가운데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등의 시가 자료에서는 선어말어미 ‘-니-, -리-’만으로 문장이 종결된 듯한 독특한 종결형이 보인다. 기존에는 이들을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해 왔는데, 이러한 종결형이 주로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러한 종결형을 시가의 문체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장윤희, 2002:189-190).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가 문학에서만 선어말어미 ‘-니-’가 종결어미, 곧 어말어미로 쓰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선어말어미 ‘-니-’가 어말어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1.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니-’가 종결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 등의 시가와 함께 불경 언해 자료 일부에서 나타난다.

- (6) ㄱ. 四海를 년글 주리여 ㄹᄫᆞᆫ 배 업거늘 열우시고 쯔 노기시니(龍歌, 20)
 ㄴ. 부텃고 받즈바 므슴 호려 흥시느니(月釋 1:10ㄴ)

(6)과 같은 문장을 최동주(1996:165)에서는 종결어미 없이 끝나는 경우이며 반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배석범(1994:138)에서는 『龍飛御天歌』의 경우 마지막 권점 이하의 음절수 선택이 일정한 규칙의 지배를 받아 ‘-니-’, ‘-리-’ 뒤의 문법형태소가 생략되었다고 보았다. 즉 최동주(1996)에서는 ‘-니-’라는 선어말어미로 문장이 종결되었고 이러한 경우를 반말체로 본 것이고, 배석범(1994)에서는 상대 높임의 어미 ‘-이다, -잇가, -잇고’ 등이 생략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일단 『龍飛御天歌』는 조선 왕조의 창업을 송영(誦詠)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고, 『月印千江之曲』 또한 석가의 공덕을 찬송(讚頌)하여 지은 노래이다. 이를 향유한 계층을 고려하였을 때 최동주(1996)에서 주장한 반말체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때 반말체의 높임의 등급을 헝라체와 헝야씨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배석범(1994)의 주장과 같이 상대 높임의 어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배석범(1994)의 주장은 일정한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고 본 『龍飛御天歌』의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月印千江之曲』이나 ‘-니’로 종결된 다른 불교 문헌의 문장에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 (7) ㄱ. 구든 城을 모랴샤 값 길히 입더시니 셤 하나비를 하눌히 브리시니(龍歌, 19)
 ㄴ. 俱夷 묻죽병사디 므스게 쓰시리(月釋, 1:10ㄴ)
 ㄷ. 그디 이제 날 향야 티거나 내쫓거나 주기라 향야도 그되를 거스디 아니호리어늘 이
 제 엇데 怨讐를 니즈시느니(釋譜, 11:34ㄱ)

한편 장윤희(1997:109)에서는 『月印千江之曲』에서 보이는 ‘-니’ 종결형은 『龍飛御天歌』나 다른 언해 자료들에서 보이는 ‘-니’ 종결형과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龍飛御天歌』는 각 장의 내용이 독립된 이야기를 이루므로 여기에 사용된 ‘-니’는 종결형이 분명하지만, 『月印千江之曲』은 부처의 일대기를 적은 서사시로서 각 장이 완결

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장유희(1997:111-113)에서는 『龍飛御天歌』에서의 ‘-니’를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고, 이때 분석할 수 있는 종결어미로 ‘-(으)이’를 들었다.¹⁵⁾ 이는 16세기에 ‘업시, 아리’ 등과 같은 어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16세기의 종결어미와 동질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으)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유희(1997)에서는 16세기 한글 간찰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종결어미 ‘-(으)이’가 결합한 형태가 구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으)이’의 사용이 15, 16세기 언해 자료에 드물게 나타나고, 『龍飛御天歌』나 『月印千江之曲』이 실제 가창(歌唱)되었던 시가라 할지라도 구어적 요소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또한 종결어미 ‘-(으)이’를 설정할 경우 ‘-(으)이’라는 종결어미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기원을 추론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으)이’라는 종결어미가 ‘-니-’와 ‘-리-’라는 특정한 선어말어미에 주로 결합하고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쓰인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어말어미 ‘-니-’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나타난다.¹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결어미 ‘-(으)이’를 설정하기보다 선어말어미 ‘-니-’가 종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6), (7)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어말어미 ‘-니-’ 앞에 시제 선어말어미, 높임법의 선어말어미 등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다. ‘-니-’는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 상 가장 뒤에 놓이는 선어말어미에 해당한다. 이는 ‘-니-’가 종결어미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어말어미가 어말어미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것이다.

(8) ㄱ. 부텃고 받즈바 므슴 호려 흐시느니(月釋, 1:10)

ㄴ. 네 더드려 어미 아니 나하신 젠 므스글 넙더시니(南明, 上:31)

ㄷ. 그되느 어드러셔 오시느니(釋譜, 23:40)

(9) ㄱ. 그되내 뜨디 아니 숴利를 피서다가 供養호스보려 흐시느니(釋譜, 23:46)

ㄴ. 國王이 갈 덩고 물즈와 널오되 師는 蘊이 부요물 得호야 겨시니 對答호되 호마 得호
얏노이다(南明, 上:53)

(8), (9)의 예문은 ‘-니(-)’로 종결되는 의문문을 제시한 것으로, (8)은 설명의문문, (9)는 판정의문문에 해당한다. 장유희(1997:110)에서는 국어에서 선어말어미로 문장이 종결되는 경우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으나 ‘-니-’나 ‘-리-’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선어말어미 ‘-니-’가 종결어미의 기능을 전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김태엽(2000:50-51)에서는 종결어미의 형태를 이루는 어미구조체에 문장종결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각각 갖춘 형태와 못갖춘 형태로 분류하고, 못갖춘 형태를 다시 기능

15) 이는 ‘-리’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리’ 종결형 또한 평서문과 의문문을 이루는데, ‘-리’ 종결형이 판정 의문문을 이루는 것은 드물다. ‘-리’ 종결형은 의문문을 이룰 경우 그 의문문이 대부분 수사적 의문문이라는 점에서 ‘-니’ 종결형과 차이를 보인다(장유희, 1997:111)

16) 한편 전병용(1995)에서는 어미 ‘-니’가 시가에 사용된 경우 여운을 남기는 특이한 종결어미 기능을 한다고 보았고, 서태룡(1985)에서는 동작 동사나 ‘-았-, -겠-’ 뒤에 나타나는 것은 ‘-느+이’로, 상태 동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 나타나는 것은 ‘-ㄴ(동명사형어미)+으이(하계체 어미)’로 보았다.

변동 형태와 기능 전용 형태로 분류한 바가 있다.

(10) 국어 종결어미의 형태론적 유형(김태엽, 2000:50)

- ㄱ. 갖춘 형태
- ㄴ. 못갖춘 형태
 - ① 기능 변동 형태
 - ② 기능 전용 형태

이때 기능 변동 형태는 그 어미구조체에 본디부터 문장종결소가 없어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요소가 문장종결소로 기능 변동하여 종결어미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 형태이고, 기능 전용 형태는 어미구조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 자체의 기능이 종결어미의 문법 기능으로 전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능 전용 형태의 종결어미는 갖춘 형태나 기능 변동 형태와 같이 형태론적 층위의 분석을 통해 그 형태의 문법적 기능을 기술하고 설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기능 전용 형태의 종결어미에는 그 문법 기능이 전용되기 전의 형태에 얹힌 수행-억양과 달리 끊어짐의 수행-억양이 없혀 종결어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태엽(2000)에서 말하는 기능 전용 형태는 본래부터 어말어미인 연결어미나 명사형어미 등이었다가 종결어미로 쓰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어말어미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전용이 선어말어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본고에서 제기(提起)하는 것이다. 선어말어미의 어말어미화, 혹은 선어말어미의 기능 전용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더해 보고자 한다.

3.2. 연결어미

전술하였듯이 선어말어미 ‘-니-’는 시상이나 높임의 선어말어미에 후행한다. 특이한 점은 연결어미 ‘-니’의 경우 또한 다른 연결 어미와는 달리 ‘-니-’ 앞에 시상의 선어말어미 ‘-느-, -더-, -리-’ 등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어말어미 ‘-니-’와 연결어미 ‘-니’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1) ㄱ. 王이 婆羅門을 만히 請히시고 太子 아나 나샤 일홈 지터시니(釋詳, 3:2

ㄴ)

ㄴ. 世尊에 니르리 열 가짓 號시니 부터옷 드외시면 다 혼 야오로 이 열 가짓 號를 읊느니라(釋詳, 9:3ㄱ)

ㄷ. 後에는 袈裟 비치 自然히 히야 물드디 아니히리며(釋詳, 23:35ㄱ)

먼저 (11ㄱ,ㄴ)의 예문을 제시한 까닭은 선어말어미 ‘-니-’가 연결 어미 앞에서는 쓰이지 않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11ㄷ)과 같이 ‘-리-’는 연결어미의 앞에서도 사용된다. 일단 여기에서 ‘-니-’와 ‘-리-’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선어말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어미 ‘-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거

나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사용된다. 즉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의 ‘-니’와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8) ㄱ. 魚龍이 괴외호고 𩺰ᄃᆞᆫ 𩺰ᄃᆞᆫ 서늘ᄃᆞᆫ 故國에 平時에 사던 𩺰ᄃᆞᆫ 𩺰ᄃᆞᆫ 배 이쇼
라(杜謔, 6:8ㄱ)
ㄴ. 錦江은 본되 楚로 지나가ᄃᆞᆫ 劍閣은 또 秦에 통ᄃᆞᆫ도다(杜謔, 6:30ㄴ)
ㄷ. 海東 六龍이 𩺰ᄃᆞᆫ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ᄃᆞᆫ시니(龍歌, 1)
ㄹ. 七寶 𩺰ᄃᆞᆫ에 供養을 𩺰ᄃᆞᆫ 四天王이 請이ᄃᆞᆫ 太子는 𩺰ᄃᆞᆫ 象을 나ᄃᆞᆫ(月千, 상,기 87)

(8)의 예문을 보면, (8ㄱ,ㄴ)에 쓰인 ‘-니’는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8ㄱ)은 어룡이 고요하고 가을 강이 서늘하니 고향이 그림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때의 ‘-니’는 원인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8ㄴ)은 금강(錦江)은 초(楚)로 지나가니 검각(劍閣)은 또 진(秦)에 통한다고 해석되어 ‘-니’를 사용하여 관련된 사실을 이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어찌되었든 ‘서늘ᄃᆞᆫ’, ‘지나가ᄃᆞᆫ’에서 해당 문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8ㄷ)의 경우 ‘-니’가 두 번 나타나 있는데, 선행하는 ‘-니’는 연결어미로, 후행하는 ‘-니’는 종결어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문맥상 이들 절이 ‘해동 육룡이 𩺰ᄃᆞᆫ’에 각각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절에 후행하는 문장이 없어 두 어미 ‘-니’는 모두 종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윤희(1997:109)에서는 『月印千江之曲』의 경우 부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 각 장이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여기에서 사용된 ‘-니’는 종결형이 아닌 연결어미 ‘-니’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8ㄹ)과 같이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많아 여기에서 사용된 ‘-니’를 연결어미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결어미 ‘-니’의 경우 김지오(2019:115)에서 정리한 고대국어의 연결어미 목록에 들어가지 않다. 즉 김지오(2019)의 연구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고대국어 자료에서 연결어미 ‘-니’는 그 출현이 없거나 한 번 정도 나타나는 데에 그쳤다는 것이다. 즉 연결어미 ‘-니’가 형성된 시기에 대한 점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거나 앞절이 뒷절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니’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문장의 배열 순서에 의해 발생한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선어말어미 ‘-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말어미 ‘-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어말어미 ‘-니’의 경우 선어말어미 ‘-니-’가 어말어미화하여 사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 나가 보고자 한다.

4. 결론

(생략)

< 참고문헌 >

- 고영근(1987/201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집문당.
- 고영근(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집문당.
- 김영옥(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 공형태의 설정과 비문법화 -」, 『관악어문연구』 14권0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7-36.
-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변화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김영옥(2000), 「14세기 국어의 사상과 서법 - '-나-, -더-, -리-, -거-, -니-'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6, 구결학회, pp.61-85.
- 김유범(2007), 『국어 문법형태소의 역사적 이해』, 박이정.
-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pp.113-131.
-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권, 한국언어학회, pp.171-189.
- 김태엽(1999), 「국어 통용종결어미에 대하여」, 『현대문법연구』 18권0호, 현대문법학회, pp.111-127.
- 남기탁(2015), 「語尾 ‘-니’의 範疇 -汎時的 研究」,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배석범(1994), 「용비어천가의 문체에 대한 일고찰 -종결법을 중심으로-」, 『국어학』 24, 국어학회, pp.111-142.
- 백두현(1997), 「高麗 時對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구결학회, 27-95
-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국어학회. pp.153-175.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호, 한글학회, pp.123-148.
-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구결연구』 4, 구결학회, pp.1-22.
- 이유기(2013), 「선어말 형태소 ‘-니-’의 기능」,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pp.173-204
- 이병기(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pp.133-153.
- 장윤희(1997), 「중세국어 종결어미 ‘-(으)이’의 분석과 그 문법사적 의의」, 『국어학』 30, 국어학회, pp.103-140.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전병용(1995), 『中世國語의 語尾 ‘-니’에 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태(2006),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 『배달말』 39권0호, 배달말학회, pp.347-370.
- 조재형 외(2018), 『용비어천가의 국어학적 분석과 현대역』, 국학자료원.

- 최성규(2019),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pp.89-111.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허웅(1975/2009),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